

文鮮明先生말씀選集

309

文鮮明先生말씀編纂委員會

머 리 말

世界平和統一家庭聯合 會長 黃 善 祚

문선명 선생, 16세에 하늘로부터 인류 구원의 소명(召命)을 받으신 후 일생을 오직 일념으로 천도(天道)를 중심삼고 살아 오신 분! 선생은 스스로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버런 문에게 재산이 있다면 나를 위한 고생보다 공적으로 고생한 것, 그것밖에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누구보다도 더 고생하려고 했습니다. 섭리사적인 입장에서도 누구보다도 더 고생하려고 하였습니다. …… 선생님은 지금까지 나라로부터, 세계로부터 술한 반대와 핍박을 받아 왔습니다. 미국에서 반대를 받았고, 기독교와 유대교, 공산당까지 반대를 하였습니다. 역사 이래 세계가 이렇게 달라 붙어서 한 사람을 없애 버리겠다고 공격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런 면에서도 세계적인 챔피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욕을 먹으면서도 옥살박살나지 않고 또 망해 버리지 않았습니다. 추호의 미동도 없이 더욱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 레버런 문은 인류를 해방하고, 영계를 해방하고, 지옥을 해방하고, 또 하나님을 해방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선집 제105집 101~103페이지 참조)

선생의 삶은 한마디로 규정하면 ‘고난 그 자체’입니다. 이 고난의 성격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선생은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소망했던 그 재림주이며 구세주이고 인류의 참부모로 오셨습니다. 이미 세계 185개국에서 선생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참자녀의 길을 가기 위해 참가정의 이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선생의 자기정체성(自己正體性)은 말씀과 삶을 통해 검증이 되어집니다. 그분에게는 세상에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신과 인간, 역사와 세계의 제 문제가 그분의 말씀 속에서 해명이 됩니다. 성서에 예언된 새 말씀의 약속은 그분 속에서 성취되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말씀은 ‘생명성’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선생의 말씀은 ‘스스로의 삶에 대한 해석’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 자체가 곧 진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심, 곧 성육(成肉)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삶이 곧 진리이며 ‘말씀’이라는 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독자께서는 선생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위대성을 이해하리라 확신합니다. 선생의 말씀의 경지는 너무 높고 깊어서 다 헤아릴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세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째, 선생은 말씀과 삶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啓示)해 주셨습니다. 즉, 침묵과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인간이 악의 혈통을 갖고 있기에 자녀이되 자녀라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통,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처절하게 소외되신 슬픈 하나님께서 선생은 ‘말씀하시게’ 하셨습니다. 교권과 교리, 그리고 현란하게 치장된 건물 속에 갇혀서 침묵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게’ 하였고, 인류의 부모이되 부모로서 찾아오지 못하신 하나님을 ‘부모되게’ 하셨기에 선생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체(啓示體)’이십니다.

둘째로, 선생은 인간을 무지와 혼돈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고력이 있고,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으며, 스스로의 존재 자체도 다 해명하지 못한 비극적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 인간

은 독자적 존재가 아니고, 타자(他者)와 떼어 수 없는 상호의존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성을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선생은 궁극적 해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천도(天道)를 지키시는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본보기 노정을 보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 넘치는 살아 있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선생은 만물세계를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지음 받은 모든 사물 하나하나는 고유한 가치를 가진 개성진리체(個性真理體)입니다. 창조본연(創造本然)의 인간의 주관을 받음으로 그 가치가 완전히 발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만물은 탄식하였던 것입니다. 선생께서는 말씀을 통해 만물세계에 대한 창조본연의 가치를 밝혀 주셨고, 인간을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케 하여 만물 해방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류의 영원한 참부모로 오신 문 선생님 내외분은 오늘도 세계 만방에서 말씀을 끊임없이 하시며, ‘부모의 심정으로 종의 몸을 쓰라’ ‘위하여 살라’는 가르침을 실체적 삶으로 본을 보여주시고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을 상속시키시기 위해 수고하십니다.

또한 선생께서는 생명의 말씀과 숭고한 삶 그리고 실적을 통해 마침내 새천년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찾아 봉헌하시고, 이 땅에 축복가정왕으로 안착하셨습니다. 그리고 평화세계인 천일국, 제4이스라엘국 곧 평화의 왕국을 향해 평화유엔을 창설하시고 세계를 하나의 심장권으로 묶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접하는 독자제위께서도 천일국의 주인이 되어 평화왕국 건설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

차 례

머리말	3
남시 지도와 자연보호	9
<워싱턴 타임스>의 역할과 말씀 교육	38
세계를 하나 만들기 위한 남미 개발	55
원화도를 세계화하라	73
교육과 실력	81
식량문제 해결과 4억쌍 축복활동	100
훈독회와 축복가정의 길	140
참부모님의 말씀 가치	165
훈독회를 중요시하자	192
참부모님 동서양(지구성) 승리축하 선포일	196
참사랑의 정착 기지	259

낚시 지도와 자연보호

(앞 부분 녹음이 안 됨) 제주도에서 온 박동하, 박동하 코리엔테스에 갔었나? 코리엔테스에 갔어? 「못 갔습니다.」 못 갔지? 「예.」 이제부터 여러분은 훈련이에요. 이제부터 수련이라구요. 선생님 따라다니는 것도 다 좋지만 이제는 돌파해 나가 가지고 자기가 갈 길을 가려 가야 됩니다. 판타날에서 이렇게 쭉욱 있으면서 고기가 많다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고기 없는 것을 개척해서 고기 만들어 잡는다고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낚시도 뜻길에 있어서 훈련이다

뜻길에 싫다 좋다가 어디 있어요? 그거 훈련입니다. 고개를 넘으면 그 다음에 평지가 있고 또 더 큰 고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디 가서 낙오하면 거기서 끝장이라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젊은 사람들 힘들다고 그러지만 통일교회는 그게 안 통한다구요. 앞으로 선생님이 가는 길, 혹은 모든 인류가 가야 할 길이 이것이 정도(正道)라 생각한다면, 거기는 천태만상의 복잡한 환경이 있습니다. 높

1999년 3월 28일(日), 올림포(파라과이).

* 이 말씀은 성일을 맞아 몇몇 간부들에게 하신 것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은 산, 골짜기 혹은 바다, 혹은 사자가 사는 아프리카 평원 같은 곳을 다 거쳐가야 됩니다.

제주도에서 우리가 배를 타고 낚시질하고 그런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강에서부터 낚시질하고 그 다음에 점점 커 가지고 뚝방(둑)에서 낚시질하고, 이래 가지고 또 배를 타고 낚시질하고, 그 다음에는 판타날까지 와서 더 큰배를 타고 낚시질하는 것입니다. 낚시하는 곳에서는 여기가 세계 제일 최적의 곳이라구요.

고기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고기 없는 데서 있는 고기를 잡겠다는 생각을 하라구요. 있는 고기, 제일 큰 고기를 잡아 그걸 맛있게 맛볼 줄 아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어디 가든지 자연이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싫다고 하는 사람은 가는 길이 자주 꼬입니다.

그렇게 알고 지금까지 선생님 따라오니까 편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가는 길은 선생님이 가야 되고 자기들이 가야 될 길은 자기들이 가야 됩니다. 자기들이 새로 스타트해야 돼요.

제주도 근해에서, 동네에서 하는 낚시니 어로(漁撈)니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요. 이제는 남극을 가야 되고 대서양을 가야 되고 태평양을 가야 되는 이런 훈련노정을 가야 하는데, 여기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어렵다는 생각하지 말고 거쳐갈 길들을 힘차게 가야 됩니다.

셋이 다 한국사람 아니야? 신병이구만. 코리엔테스 안 가 봤지? 가 보고 싶어? 거기 가서 여러분은 형님이니만큼 신앙을 지도하면서 하나 되어 가야 되겠고, 여기 양준수 있는 데까지 선생님 대신 잘 뒷처리해 주라구요. 또 코리엔테스 들어가게 되면 송영석이 하고 다 뒤처리를 하게끔 연락해 주고, 그 다음에 몬테비데오 가게 되면 우리 호텔도 있기 때문에 잘 도와줄 거라구요.

그래서 지내고 거치면서 선생님이 이런 기반을 닦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이 기반을 닦기 위해 수고했다는 것을 느끼면서 나도 젊은 사람이니 새로이 결심하고 미래의 새로운 다리를 놓고 개척할 수 있는

결의를 가져 가지고 임해주길 바라겠다구요. 알겠지요?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선생님이 비행기 탄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여기서 굿바이! (웃음)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코리엔테스에서 거기까지 비행기 표가 얼마인가 계산해 보라구요. 「상파울루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코리엔테스까지...」 가는 데 얼마예요? 여기서 쭉욱 해서 한국 돌아가는데, 너희 두 사람 미국 들어갈래? 미국 가게 되면 스트라이프트 배스 잡을 때가 될 거라구요, 4월이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지.

전부 다 이렇게 거쳐가면 책임이 중요하다고요. 구경하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제주도 사람들 여기에 데려와서 이 땅이 얼마나 넓고 변화무쌍한 환경이 어떻다는 것을 다 알려줘야 돼요. 또 더구나 5백 명을 교육한다고 했다고요. 교육시킬 거라구요. 그 사람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본이 돼야 됩니다. 고단해도 새벽같이 일어나고, 우리가 포인트 답사한 것을 책으로 만든 거 있을 텐데, 어디 있나? 그거 책 만들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여기도 앞으로 포인트를 하려면, 여기를 책임지려면 포인트마다 수초들이 이동해서 길을 다 막더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전부 환경적 여건을 중심삼고 깊이와 환경에 따라, 고기들이 수초가 이동됨에 따라 어떻게 이동하는가를 다 연구해야 됩니다. 그거 다 책자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여기 왔다 갔던 사람들, 누구나 여기에 관광을 오든가 했으면 자기가 전부 다 앞으로... 양준수, 알겠어? 여기에 전체 그림을 그려서, 산이며 어디며 거리를 그리고 몇 킬로미터 가면 무슨 나무가 있다고 해서 그 사이로 강이 흐르는데 언제 무슨 고기를 잡았다고 기록해 놓는

거예요. 아무나 처음 와서 낚시하더라도 그 도면만 있으면 10년 낚시 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력을 갖출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이럼으로 말미암아 그걸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냥 흘려버리지 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보고해야 합니다. 도면 중심삼고 어디에 배로 몇 킬로미터 가서...; 25마력 배로 다섯 명이 타는 데는 한 시간에 몇 킬로미터 간다는 통계를 내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있으면 몇 킬로미터이고 인원에 해당하는 것을 중심삼고 거리가 왔다갔다하는 거라고요. 그 배가 포인트를 어디어디 거쳤다는 기록을 남겨서 통계적인 책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만들어 놓아야 앞으로 전체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카살에서부터 이곳까지 움직이는 것을 조사해 놓아야 '이 사람들이 누구보다 주인이구만. 그렇다고 고기 잡아 파는 것도 아니고 고생만 죽도록 했구만.' 그래 가지고 남겨진 기록을 볼 때, 어느 누구 학자라고 큰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고해 가지고 이걸 보호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원초적인 물건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게끔 보호하고, 지역적인 환경이 얼마나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기들이 서식하니 만일에 그런 장소를 어디에 만들면 거기에서 고기를 기를 수 있다구요. 이거 다 연구한 거라고요. 그걸 내세우게 되면 나라든 뭐든 꺾소리를 못하고 '웁습니다. 당신들이 관리하고 지도해야 됩니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전에도 워싱턴에서 108명 세계 유명한 학자들, 생태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주로 모였는데, 모두 자기들이 제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일이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여기 판타날에 와 보지도 않았다고요. 책 보고 주장하고 다... (웃으심) 내가 파라과이강과 아마존강을 1년 걸려서 답사했다고 하니까 쑥 들어가는 거예요. 답사가 어디 그냥이 아니예요. 기록을 남겨야 돼요. 기록을 내가 딱 해 놓으면 그것을 받는 사람들만, 그것이 얼마나 수고예요. 자기들이 하면 3년이 아니라

10년도 더 걸리겠다고 하는 내용에게 될 때는 거기에는 자연굴복하는 것입니다. 나라도 그렇다는 거지.

앞으로 여기 판타날은 모든 세계 선진국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기 국가에 예속시키려고 싸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쟁터가 될 수 있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만큼 금은보화가 앞으로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갈수기에는 절반만큼 되는데, 일본 땅 전체만큼 전부 양식할 수 있는 장소고 전부 사냥터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풀이 자라는 것을 보라구요. 물만 막으면 이게 얼마나 기름져요? 흙 속에 오만가지 비료가 흘러가서 퇴적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기름 이상입니다. 기름은 하나도 안 주고 농사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낚시 지도를 만들라

농사지을 수 있고, 사냥터 만들 수 있고, 관광지 만들 수 있는 곳은 앞으로도 이런 곳은 없어요. 미국이 아무리 자랑해도 이런 곳이 없고, 러시아가 아무리 자랑해도 이런 곳이 없습니다. 사철 푸른 지대가 되어서 언제든지 계절을 넘어서 낚시질할 수 있는 곳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기 종류가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3천6백여 종이래구요. 제주도도 몇 종이나 되나요? 「3백여 종입니다.」 3백여 종이면 그거 10배 이상이 서식하는 거 아니에요. 또 종류들이 전부 달라요. 그 세계와 이 세계가 달라요. 기후가 다르니만큼 그 세계와 이 세계가 다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전부가 노래해요. 사람들이 노래하고 사니까 고기들도 사람 따라 가지고 노래를 배웠는지 전부 노래하고 산다구요.

그렇기 때문 이런 지역을 답사하기 위해 왔다 갈 때는 그냥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정서방도 여기 사진 찍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여기를 다 사랑하고..., 물 속에 뭐가 있다는 흔적을 잡고 그 지역에 대한 모든 것을 가서—카메라는 모든 것을 찍지요? 가서 낚시

질 하는 것만 찍나? 안 그래요?

뭘 잡았다는 걸 기록을 남기기 위해 수첩에 적어 보고할 수 있게끔 만들라구요. 누구든지 나눠주는 것입니다. 나눠줘서 어디 가서 몇 길로 미터라고 기록하고 그것이 포인트가 되었으면 앞으로 총괄적인 그 기록을 중심삼고 재연해서 맞다고 할 때는 책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두 번, 세 번만 맞게 되면 틀림없이 공인된 포인트 책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일반에 공개 교육할 수 있는 재료로 평준화시키고 높여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그동안 우리가 돈 많이 썼지? 얼마 들어갔어? 「전체적인 것은 30만 달러 정도…」 30만 달러야? 30만 달러가 들어갈 게 뭐야. 「한국 국가 메시아에게는 사유서를 받게 해 가지고…」 그거 당장 받아! 「제가 사유서를 다 받아 왔습니다.」 사유서는 전부 받아야지. 책임자가 그거 안 하면 안 돼. 그런 전통을 만들어야 돼. 이게 무슨 놀이터야? 교육이야, 교육이라구요. 법규를 통해서 움직이라구요. 「국가 메시아 가운데 한 사람이…」 그거 받아내요. 일족을 통해 거둬서라도 내야 돼요.

성염을 만든 것은 만물을 하늘 소유권으로 하기 위해

「수련생은 전부 3백20명이 거쳐갔습니다만…」 수련소를 잘 지으려고 한다구요. 잘 지어 가지고 앞으로 통일교회 병난 사람들 휴양지를 만들려고 해요. 병원도 짓고 해서 불쌍한 병난 사람들을 전부 치료해야 돼요. 약은 얼마든지 세계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구요.

미국이면 미국 후생성을 통해서 구할 수 있고 어느 나라를 통하든 우리 기업 기반이 있기 때문에 약은 얼마든지 가져다 먹일 수 있습니다. 주사를 놓는다는 거예요.

여기도 병원이 있지요? 약도 먹었을 것 아니에요. 전화국이 밤에 쉬

어요? 「새로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곳 경찰국장하고 시장, 지사를 불러서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해양대 대장하고 친구해서 여기의 안보 문제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을 교육해야 됩니다. 범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 그런 사람들은 가르쳐 줘서 국가에 맡겨 교육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부 보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새로운 지역 형태로 혁명해 나가야 된다고요. 앉아서 그냥 세워 가지고 반대할 수 있는 환경들을 몰라서 그러고 있지만 이제 그럴 때는 지났습니다. 어디든지 가서 우리가 영향 미칠 수 있는 책임 다 했다고요. 시대가 달려졌다고요, 장자권 부모권... (녹음 중단으로 일부 수록하지 못함)

그 구체적인 것까지도 선생님이 다 가르쳐 줬다고요. 그래서 상헌씨도 그 내용을 잘 느끼지 못했다고 분다고요. 그것이 하나의 망상적인 말로 생각하고 가 보았더니 그게 사실이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래서 지상에 통고했어요. 이제부터는 이 내용하고 상헌씨의 《영계의 실상과 지상생활》, 《지상생활과 영계》의 내용을 중심삼고 이것을 아는 것이 금후의 21세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개인이요, 가정이요, 민족이요, 국가가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이제 지상천상천국을 아시겠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일본 나라도 지나가도 일본 사람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요. 대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동이 벌어질 때 가지고 못 가요. 알겠어요? 가지고 못 간다고요. 그것은 전부 다 하늘에 넘겨주고 지상에 넘겨줘 가지고... 일본 사람이 일본열도의 주인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원래 미국 땅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라고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주인된 본연의 하나님을 중심삼고 근원적인 모든 소유권을 갖기 위해

서는 부대적인 사탄세계의 원치 않았던 타락의 흔적을 깨끗이 불살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불살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이 (소유권을 갖기 위해) 성염을 만든 거예요. 사탄세계에 속한 모든 것을 다시 먹고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살라 버리는 대신 성염을 만드는 거예요. 이 불살라 버리던 것은 한이 있던 곳입니다. 그것을 떠나 살아야 됩니다. 대이동이 벌어져요.

영계와 마찬가지로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하나님 이 원하는 중심적 종착지는 무엇이나? 참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과의 부자지관계, 하나님을 중심삼은 아들딸이 되고, 아들딸이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가정을 중심삼고 하나님과 참부모의 혈통적 인연을 갖고 영원한 천국 직행할 수 있는 아들딸을 낳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말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영계에서 걸려요. 영계에서 걸린다구요. 한번 걸리면 그 칸셉(concept;관념)을 벗어날 도리가 없습니다. 습관성이 무섭지요? 우리 몸뚱이의 습관성이 무서운 거와 마찬가지로 정신적 세계의 습관성,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관을 갖고 있느냐가 큰 문제입니다. 그걸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참사랑예요. 참사랑을 가지면 정신적 습관성도 순식간에 다 분리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참사랑이 하나님 것이 아닌 내 것이 돼야

그래 참사랑이 귀하다는 거예요. '참사랑!' 해봐요. 「참사랑!」 참사랑이 여러분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 아닙니다. 참사랑이 내 것이 돼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생명을 중심삼고 하늘의 혈통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아들딸은 하나님의 혈통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님의 사랑에 일치돼 있기 때문에 일치된 것은 이퀄(equal)이에요. 대등하다는 거예요. 같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이니까 진짜 참아버지이니까 참아들딸은 그 내용 속성이나 외적 모든 상대적인 성품이나 그것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모양은 어떻게 돼 있느냐?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방을 위하고 하늘을 위해 모시고 아들딸을 모시고 좌우로 세계를 모시고 전후로 하늘땅의 형제를 모시고, 그렇게 사는 하나님이 가정이상 정착을 하려던 아담 해와의 기지였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기지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대신 실제 성사하지 아니 하면 하늘나라에 직행할 수 없다는 것은 이론적이라구요. 이론적이라구요. 아시겠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파헤쳐 봤는데, 생심이 무엇이고 어떻게 영계가 발달된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전부 다 가짜로 느낀 녀석들은 다 걸려요. 걸려들면 큰일입니다. 누가, 누가 이걸 벗어나요. 다 뜯어고칠 수 있나? 안 그래요?

미국 사람들 햄버거 좋아하는데 햄버거 좋아하는 것을 뜯어고칠 수 있어요? 뜯어고쳐 가지고 빵조각에 햇바닥이 가고 눈이 가고 입이 그 쪽으로 가는데 다른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것은 오로지 사랑, 하나님 참사랑밖에 타락한 세계의 혈통을 부정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참사랑, 눈코귀 사지백체가 참사랑과 상대되기를 바라지 그 가외의 모든 것은 일체 본성적으로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랑 가운데서 부부가 되어, 이것은 완전히 수평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종적으로 세우지 못해요. 수평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든지 와서 임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적인 형태가 딱 누르면 횡적으로 뺏습니다. 지상에서 정성을 들이게 되면 종적인 기준이 높아져요. 종교 생활을 절대시 하려면 육신 생활을 부정해야 돼요. 육신 생활을 부정하게 되면 종교

생활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게 수평이 돼 버리면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수평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반드시 눌러서 수직으로 키우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가정이 사랑하고 종족 사랑하고 민족 사랑하면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세계가 하늘땅 하나님까지 전부 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여기에 내려오면 이 세계가 수평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사랑이 절대 필요하다

몸 어디가 주체인가 하는 주체를 알고 대상적인 면을 언제나 갖추지 않으면, 둘이 하나 안 돼 가지고는 이중 세계 전체 창조이상의 구조에 맞지 않고 전부 다 상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사랑이 절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부 상대가 돼 있습니다. 눈코귀가 전부 상대적이라고요. 전부가 페어 시스템(pair system; 쌍쌍제도)입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쌍쌍으로 되어 있어요. 광물, 식물, 동물,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공식이 확대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포가 번식되어서 자기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마찬가지로입니다. 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터 일본어 말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약시대, 금후의 세계는, 앞으로 21세기는 어떤 시대냐 하면 이상가정을 확대한 세계시대로 넘어갑니다. 안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세계결혼이에요. 국제결혼 하잖아요. 일본 사람끼리 그래 왔던 그런 칸셉은 안 됩니다. 그건 일본 사람으로서 일본 땅에서밖에 살지 못해요. 딱 서로 이동하라는 것입니다.

열두 형제가 있으면 열두 형제가 세계 수십 민족과 연결돼 가지고

친척이 어디서나 산다고 해야 여행하며 살 수 있는 거요. 앞으로 여행하며 살아요. 정착시대는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행하기 편리한 데가 남미예요, 남미. 집이 필요 없어요. 옷이 필요 없어요. 삼각팬티 세 개만 있으면 사철 입고 살아요. (웃음)

(웃으심) 정말이에요. 한 집에서 농사하는 것이 5천지기 농사할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갑니다. 한 집에서 농사하면 5천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 가보라구요. 오야마다! 오야마다 이름이 절간지기 할아버지 아들입니다. 오야-마다-. (웃으심) *절이 있는 언덕에 계단 밭을 일구었다고 해서 오야마다입니다. 여기를 보면 며칠을 달려도 산도 없지요? 광활한 평원이 펼쳐져 있는데, 주인이 없어요. 신교도들이 미대륙을 중심삼고 세계의 지도국을 세운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국가주의 시대에 속하는 것입니다. 천주주의 시대에 있어서 막대한 남미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것에 선생님이 눈을 돌린 것입니다.

어차피 세계는 하나되는 거지요? 광활한 세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멍텅구리가 아니고, 귀머거리가 아니고,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도약이 아니라 비약을 해야 됩니다. 도약은 각도가 있는 것이지요? 뭐라구요? 비약! 비약해서 꼭대기에 이르면 전세계가 자기의 눈 아래 수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면 모든 것이 수습될 곳이 필요한데, 좁고 낮은 데서 이렇게 해봤잖아 밭 밑도 안 보이는 거라구요. 그런 곳이 필요해요? 「아닙니다.」 어떤 곳이 필요해요? ‘내 세계다!’ 하면서 360도를 돌아도 걸리는 것이 없지요? 그러한 방대한 자연과 동화시키는 곳이 남미라구요, 남미. 알겠어요?

무엇 때문에 선생님이 판타날이라든가 아마존 같은 곳에 관심을 가지겠어요? 에텐동산에 있던 것들과 같은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 곳이라구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본연의 동산이 에텐동산인 것입니다. 그 에텐

동산의 모든 것들이 남아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피조만물은 인간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만물들은 인간의 사랑의 실체권에 연결되기 위해서 희생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먹이가 되는 것이지요.

무엇이든지 높아졌다고 해서 그 높은 데 머물러 있으면 전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순환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미물도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연결되는 사랑의 연대계를 이루면 그 미물들을 주관하는 하나님과 하나되어서 재창조의 출발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물들의 희망입니다. 그런 환경에 있어서는 동화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반대작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창조이상의 정착기준

하나님이 축복한 가정은 아들딸과 더불어 자연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딸로 하여금 본연의 모든 것을 만지게 하고, 먹여서 키움으로써 만물들을 순환운동의 완성권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가정생활을 영원한 전통으로서 국가세계지상천국으로 연결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무엇을 먹게 될 경우에 그것으로 끝나 버리면 안 된다구요.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심정적으로 사랑하면서 먹게 됨으로써 발전해 가는 거라구요. 하나님이 그러한 가정에 있어서 아들딸을 재창조하여 보호하고 키워서 결혼시키게 되면, 그것이 순환운동을 하면서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은 종족, 종족은 민족, 민족은 국가, 국가는 세계, 세계는 우주, 우주는 천주로 영원히 순환운동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그러한 이상적인 가정이 되어서 이상적인 종족을 남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종족을 남기지 못하는 사람은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영계와 격리된 입장에 머물게 되면 큰일난다구요. 섬나라가 되어서 어렵지요? 조그만 섬나라지요? 뱀밖에 없는 그러한 곳에 살고 있는 부부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대한 대우주를 사랑의 상대권으로 소화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천주가정의 기반을 닦으면 천주적인 아들딸과 후손들의 세계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일족이 되는 것입니다. 잘라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부부야? 언제 결혼했어? (톡 치시며) 선생님이 정해 주어서 했어? (웃음) 너희들 둘은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구! 이 여자도 웅변 같은 것을 잘하지? 너도 그렇다구. 지금 뭘 하고 있어? 「공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이라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 목회? 열심히 하라구. 부부가 함께 열심히 하라구. 부부 둘 다 그런 기질이 있다고 생각해? 「예.」 알겠어? 「예.」 정말이야? (웃음) 너도 상대적으로 안 지지?

참사랑의 주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손 들어 봐요! 주인은 한 사람이지요? 참사랑의 부부가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봐요! 그것은 둘밖에 없는 거라구요. 참사랑의 가정을 이루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봐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자동적으로 아들딸을 낳으면 평면적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90각도를 맞추어서 번성해 가는 거라구요.

수직의 정착기준은 참사랑이고, 참사랑은 수직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 완성, 가정 완성, 종족 완성 등 모든 완성을 이루어서 상현·하현·우현·좌현을 어디에 갖다 맞추더라도 꼭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부하가 걸리지 않습니다. 전기로 말하면 전하가 걸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제로입니다.

참사랑의 주인, 그리고 부부, 그리고? 「가정.」 가정! 가정이라고 하면 아들딸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창조이상의 정착기준입니다. 참사

랑의 정착지는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중심삼고 개인·가정·중
 족민족국가세계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자기 자신
 이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주장하면 안 됩
 니다.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왜 위하여 살아야 되느냐? 사랑의 상대는 자기 자신보다 낮기를 바
 라지요? 너희들도 약혼하기 이전에 그렇게 생각했어? 언제 결혼했어?
 뭐 신폐이(新兵)잖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정착하고 싶은 가정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참부부가 되어서 참아들딸을 사랑하는 그러한 가
 정을 이루게 됨으로써 모든 것이 완전히 정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
 기서부터 횡적으로 확대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딸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참사랑은 내 것이라고 생각해 보라구요. '절대'라고 하면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도 전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사랑
 의 주인, 참사랑의 부부가 되어서 참사랑의 가정을 어떻게 정착시키느
 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끝내자구요. (*부터 일본
 어로 말씀하심)

〈기 도〉 사랑하는 아버님, 오늘은 1999년 3월 28일, 이 달을 맞이
 하여 네 번째 맞는 안식일 아침에 자르던 가정연합본부를 중심삼은 경
 배식을 거행하오니 하늘과 땅이 여기에 일체가 되시어서 마음의 심정
 과 묶어질 수 있는 하나의 역사적인 기점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
 옵소서.

아담 이후 타락한 모든 인류는,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는
 영계에 가 있사옵고, 그의 후손들은 지금 이 지구상에 남아 있고, 앞으
 로 그의 후손들로 태어날 수 있는 미래의 자녀들이 기대고 있는 지상
 천국 이상 완성의 뜻을 이루시려던 당신의 뜻 앞에 영적인 책임, 육적
 인 책임, 미래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인류적인 사명을 완결해야 할

것은 사탄혈통 근절이라는 엄청난 표준을 중심삼고 지나가는 모든 역사적인 과업이 참부모와 더불어 하늘땅에 하나되어 일체되시어서, 승리의 표적을 완성하고 4억의 청소년을 중심삼은 신랑 신부를 축복하여야 할 목적을 표준하고 움직이는 1999년의 중대한 책임, 새로운 가정을 설정하여 하늘 앞에 봉헌할 중대한 책임 완수에 온 통일교회 무리, 통일교회와 더불어 인연된 지상 축복받은 모든 영계의 가정과 지상의 가정이 일치 일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지상세계의 미혼남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첫째 책임을 각자 각 가정과 각 종족민족국가가 책임지고 이를 완수해 대전진을 다짐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이제 3월도 사흘밖에 안 남았사오니 빠른 세월 앞에 저희들이 정한 목표를 대한 정성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노력이 부족하였던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각성하면서 4월부터 탕감역사를 걷어치우고 해방의 역사로서, 언제나 4월은 통일교회 역사에 있어서 수난기간이었고 탕감의 기간으로서 역사적인 기록을 남겨 왔사옵니다. 이 모든 것을 타고 넘을 수 있는 하늘의 승리가 참부모의 승리에 전권적인 행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세워 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온 세계 인류의 같은 심정을 연결시켜서 한국으로부터 일본, 미국, 2월 7일을 중심삼고 3억6천만쌍 축복 완성과 더불어 영계 일체권을 중심삼고 영계의 모든 선조들까지, 3월 10일까지 완성하여 해방의 자주적인 가정을 가져서 지상 재림의 가정적 후손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늘의 특권적인 섭리를 지시하였사옵니다. 그들이 지금 바라는 소원들이 당신의 마음과 일체가 되고 지상에 있는 모든 축복받은 가정들은 참부모의 마음과 일체되시어서 천지 합동 참사랑의 이념으로 일체가 되시어 지상천국 완성, 천상천국 완결을 위하여 온 세계에 사랑의 자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영원한 아버지요 영원한 스승, 영원한 대왕으로 모실 수 있는 지상 해방권을 완성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어머님이 지금 미국을 중심삼고 순회가정에 있사오니 일체 모든 것을 당신이 맡으시어서 섭리가 뜻하는 바가 성공리에 결과를 가지어 미국 국민으로 하여금 잠재적 기독교의 책임 완수를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서 하늘 부모를 모시는 데 있어서 선도적인 민족이 되어서 온 세계 만민이 그 뒤를 따라갈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원하옵니다.

오늘 새로운 아침을 시작하였사오니 이 모든 전체를 맡아 주시옵시고, 전후가 연결된 모든 날들이 하늘의 축복과 해방과 승리를 자랑할 수 있는 날들로서, 하늘의 날, 하늘의 승리, 하늘의 자랑의 날로 거두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원하옵니다.

전체를 맡겼사오니 허락하신 뜻대로 승리하시옵소서.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였사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말 씬> 통일교회 교인들이 믿지 못했지요? 「예.」 요즘에는 좀 나아
요. (웃으심) 그건 꿈같은 이야기라구요. 그거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
요. 선생님의 역사, 지상에 와 가지고 같이...

선생님은 몸뚱이 가지고도 사탄세계를 지배해

그거 보면 통일교회 교인들은 복받은 사람들인데 복받은 것을 모르고 살아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를 모르고 살아요. 이제 통일교회 교인들은 혼독회 하나까 영계가 많이 밝아졌어요. 캄캄한 밤에 여명의 아침의 때가 온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축복까지 받았으니... (웃으심) 영계가 있으니 뭐..., 안 그랬으니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요.

예수가 메시아가 지상 위에 재림한다고 한마디했으면 내가 이 고생을 안 합니다. 예수님이 영계에 대한 사실을 잘 몰랐지요. 선생님이 영계를 아는 사람 같아요, 모르는 사람 같아요? 「잘 아시지요.」 알긴 뭘 알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지요. 영계를 아는 사람은 다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선생님은 영계 아니고도 몸뚱이 가지고도 사탄세계를 지배해요. 통일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들어도 믿지를 않지. 안 믿으려고 하지요? 그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빨리 밥 줘요. (웃음) 갈 행차가 바쁜데….

통일교회가 재미있지요? 선생님이 아주 걱정도 없고, 이제 선생님이 영계에 가게 되면 세상이 야단난다구요. 울고불고 다… 「아까 말씀 후에 예수님이 3일 동안 지옥에 가 있을 때…」 예수님도 지옥을 해방해야 할 책임을 못한 것을 느꼈지요. 지옥을 해방해야 될 거 아니예요? 기가 찰 놀음이에요.

입적이 문제다

기독교가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걸 자기들 좋도록 해석했다구요. 예수가 중노릇을 계속 했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국에서 온 통일교회 선교사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구요. 통일교회에서 왕이 나타나게 되면 가인 아벨 복귀 다 된 것으로… 얼마나 자기들이 놀랐는지 모르고 그게 맞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웃으심) 「자기가 목사인데 기성교회는 이미 노른자가 빠졌다고 하는 겁니다.」 노른자는 이미 없지, 뭐. (웃으심) 그게 없는 거지. 무정란이에요, 무정란. 「기성교회 목사들이 죄를 많이 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 거 소문이 깔리면 몽땅 들리는 거라구. 이런 말씀을 알면 죽어 보지 않고는… 목사들이 곤란하지.

훈독회가 필요하구나. 싫다고 해도 계속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꾸 계속해야지. 훈독회 안 하면 얼마나 많이 설까? 7시야? 아직도 한 시간 안 됐네. 오늘도 비 오겠나? 오늘도 습기가 많으니까 몸이 찌뿌듯 하구만. 그렇지? 습기가 참 많지? 「비디오 보시겠습니까?」 무슨 비디오? 비디오 보겠나?

입적 문제가 큰 문제라구요. 나라를 찾아야 돼요. 「자르던 중심해서 현재 33개 도시에서…」 그거 전부 다 책임자들이 하는 거지. 「개척하는데 한국 지도자가 네 곳으로 갈립니다.」 책임자들이 해야 된다고요. 전체 다섯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 누구 시킨다는 말이야? 「예.」

다른 데 안 하면 그것만 잘하라고 그래요. 다른 데 못 하면 자기 책임진 데 잘하면 된다고요. 앞세우면 돼. 앞세우고 때려 몰아야 돼요. 「사람들에 대한 실적 보고를 체계적으로 해야겠습니까?」 그거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해야 돼. 교육해야 된다고요. 전도하는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한 조직이라구요. 「교육은 기본으로 해서…」 아, 글썄 교육을 하기 위한 조직이라구요. 책임진 사람들은 전체 시를 중심삼고 교육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노력해 가지고 해야지 본부에서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말라구요.

「교육한 실적을 월말에 보고하든가…」 수련소를 통해서 해요. 수련소 관리권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수련소에서 직접… 수련소까지 보고가 들어오는데 거기서 또 다시 축복을 한다든가 하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 행정심의를 통해서 세계본부에…」 세계본부에 브라질 책임자가 있구요.

수련소를 통해 교육하기 위해 33개로 분할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서, 전부 다 전도도 해야 돼요. 책임자는 전도하는 사람들을 데려다 교육시켜야 된다고요. 「교육을 중심으로 활동을…」 그래서 만든 거예요. 전체적으로 120개, 이것이 성공리에 끝나게 되면 6대주에서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본래 그렇게 돼 있는 건데 만들기는 또 뭘 만

들어요? 책임 못 하는 사람은 전부 책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전부 다 김원장하고 윤정로하고 책임지고 끝내라구요. 김원장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 마음대로 돈을... 수련비란 것이 자기가 쓸 돈이 아니야. 알겠어? 「예.」 선생님 관리 밑에 써야 된다고. 의논도 안 하고 집을 짓고 별의별 짓 다 한다구. 왜 보고들 안 해요. 선생님이 오게 되면 보고해야지. 자기가 못 하겠으면 보고할 수 있는 책임자를 임명했어야지 그거 내버려두면 언제나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그래요. 전부 보고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게끔 그걸 역사로 남겨서 후대에 이런 것을 하더라도 여기에 참고 자료를 보고된 자료를 가지고 참고할 수 있게 비치하도록 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고하고 했다는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보고서를 중심삼고 전부 다 개요, 책이 있어 가지고 무슨 보고를 어디서 얼마 했고 이렇게 개요를 보고 세밀한 것은 부서를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참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책임자들이 시장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다는 것이 전부 기록돼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 가지고 후진들이 다음에 참고해야지요, 어떻게 움직였다는 것을 기록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옛날 습관적인 그 놀음을 하고 있어요.

일상농원도 그래요. 선생님한테 보고하고 그걸 재촉해 주길 바라고, 잘됐는데 안 됐는지 교시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을 보고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고요. 일을 하면 역사적인 재료를 남겨야 된다고요.

황협회장에게 전화 좀 해봐요. 이제는 세계를 위해서도 개인 전도시대는 지나갔어요. 개인 전도하는 시대는 지났다고요. 선전 전도로서 개인 전도를 능가할 수 있는 시대로 들어 왔다고요. 조직해 가지고 격파해서 교육받게 해야 됩니다. 조직이 마음에 안 들면 무엇이든 자기들이 가르칠 수 없어요. 그러니 혼독회해야 돼요.

훈독회를 하라

선생님이 50년 동안 말한 것이 그때그때 얘기한 거예요. 전체를 말했어요. 지금까지 전부 다 얘기했다구요. 책을 썼다면 개론을 쓰고 본론까지 다 써놓은 것과 마찬가지로요. 이것을 갈라 가지고 했으니까 다 몰랐지, 선생님이 전체 책임진 입장에서 그걸 중심삼고 나갔는데 자기는 모르는 입장에서 나오니까 바빴지요. 뭘 할지 모르고, 말씀을 중심삼고 총체적인 모든 체제는 교육을 안 했다구요.

이것을 중요시했다가는 전도를 못 해요. 전도를 못 한다구요. 그래서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때가 지나갔어요. 전도는 자동적으로 다 되게 돼 있다구요. 통일교회 축복가정이 한 마을에 들어가서 모범적으로 살면, 그 자체가 어느 교회 책임자 이상의 실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문제 아니예요? 가정문제가 청소년 소화입니다. 그거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서 나라에 대한 애국자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효자 되고 나라에서 애국자 되면 되는 거라고요.

이것은 전부 다 선생님 관할권 내에서... 뭐 제2니, 3이라는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요. 앞으로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렇게 저렇게 채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를 이걸 만들 수 없어요. 이걸 치리하고 넘어가게 된다면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농장의 문제도요...」 그것도 여기서 배워서라도 해야 돼요. 본부에서 하려면 본부가 시끄러워요.

여기서 돈 들어오는 전부가 자기 브라질 교회 본부로 들어가야 할 돈이 아니예요. 「당연하...」 들어가서 쓰고 보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고하고 법적인 문제는 여기서 전부 변호사 써야 된다고요. 여기서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전부 걸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야 할 거라. 후원해야 된다고요.

감리관계만 하면 돼요. 감리관계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요. 1년이면 1년에 전부 다 지금 1년도 안 됐다고요. 일사분기 이사 분기 삼사분기 중심삼고 세밀히 계획한 실적을 중심삼고 돈이 들어오는 데에 어디에 썼다는 것을, 교육을 했으면 교육 활동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땅 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돈 들어오면 그 돈 가지고 33개 시를 어떻게 교육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나가야 돼요. 교육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교육을.

기관차가 필요하다

(황선조 회장과 전화 연결됨) 누구야? 황선조야? 선생님한테 왔으면 중간에서 연결해 줘야 돼. 전화하게 되면 자기들 사정 있으면 자기 얘기를 먼저 하는 자식들이 있더라구. 세상에! 선생님을 뒤로 해놓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교육해야 돼요, 교육. 여기서 이것은 모두 역사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황회장과 전화 통화) 황선조! 「예, 아버님 접니다.」 10만 명 교육하는 것이 10월 초하루부터 시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10만 명 교육하는 것이 10월 초하루부터 얘기가 무슨 얘기가?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광회장이 보고한 건 그런 얘기가. 10월 초하루에 뭐 한다고. 「9월 24일부터 지금 시작해 가지고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10월 초하루까지 끝내는 거야? 「연말까지 합니다.」 연말까지. 연말까지 하면 미혼 남녀들 축복은 어떻게 하구?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고. 교육은 따로 해야지. 교육은 끝내고 미혼자들한테 교육받은 그 사람 내세워서 일시켜야 돼. 연말에 가서 그 사람들 내세워서 언제 부러먹겠나? 「아버님, 이번에 평가해 보면 이번에 한번 교육을 끝내야...」

미혼자는 축복가정들 중심삼고 가정에 그 사람들 맡기지 말고 기성 축복한 사람 한 가정에서 한 쌍씩 끌어낼 계획을 하면 돼. 「예, 아버님.」 그러니까 교육을 빨리 해야 돼. 「맥이 끊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건 조직적인 면에서 시라든가 면에서 동 회장들 중심삼고 집중적으로 해놓게 되면, 그 사람들이 책임하게 되면 전부 다 살아나는 거야.

훈독회라는 것을 중심삼고 청소년 문제, 가정 문제, 그 다음엔 남북 통일 문제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연락을 해야 돼. 정치적인 모든 전부 다…, 이용단체도 전부 다 바른 길로 나가야 돼. 정치 풍토에 우리가 끼여서 희생양이 돼서는 안 돼. 「예.」 그걸 잘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야당 당수들 다 만나라구.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사실이야. 세계 지도적인 모든 종교 국가, 주체국으로서 세계에 내세울 것이 뭐야? 청소년 문제, 가정 문제이고, 그 다음에는 사상적 기준에서 남북통일 하는 거 아니야? 정치문제가 한국의 야당 여당 문제가 아니라구. 그런 용어를 빼내기 위한 것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 될 수 있으면 기관 요원들 가운데 그 사람들을 심어 놓아야 된다고.

이미 우리 기성축복해 준 그 사람들, 그 조직해 놓은 것도 교육해야 된다고. 문제는 교육이야. 교육해서 그것이 조직이 안 된다고 흘러간다고 생각하지 말라구. 우리가 데모를 매일같이 하고, 데모 계속하게 되면 조직편성해 가입할 수 있는 길이 트여. 반드시 동회하고 위원장하고 이장하고 동원해야 될 거 아니야? 개인끼리 키운다고, 교육한 사람 중심삼고 데모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축복해 준 사람 전부 내세워야 된다고.

그걸 전국적으로 해야 할 텐데 언제 10만 명이 될 수 있어? 10만 명이면 한 사람이 얼마야? 4천만 명이면 한 사람이 얼마야? 4백만인가? 한 사람이 40만 명인가? 한 사람이 40만 명 책임질 수 있어? 그

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고 활동하면 전체 분위기를 해 나갈 수 있고,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들이 지역으로 해야 돼. 가정들이 철저히 중심삼고 가정들이 움직여야 돼. 「예.」 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아. 힘들면 끌고 나가야 돼. 기관차가 필요하다구.

축복에 전념하라

그러니까 교구장들이 선발대가 돼야 돼. 데모나 모든 교육하는 것을 식구들이 해서 얼마씩, 기성축복 받은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 앞에 몇 사람씩 하면 돼. 복귀노정이 그렇잖아. 종적적 메시아, 가정적 메시아는 72가정을 구해야 되고, 예수 시대는 120명, 재림 시대에는 180명 아니야? 160에서 180명, 사두(司頭)가 돼야 입적이 벌어져. 사두란 말 알지? 「예.」 재생이 필요없는 것을 말한다구. 헌납제, 전부 생축 헌납제 완결해야 된다고. 그래야 입적이 벌어져.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만만디가 1년에 전부 다... 우리는 싸움을 이기고 가야 돼. 1년 동안 해서는 안 된다구. 그런 체제보다 전체를 움직일 수 있게끔 해야 된다구. 교육을 시켜야 돼. 앞으로도 그래. 기관장들도 이미 통일교회에 대해서 보는 관이 다르니만큼 기관장들도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교육시켜서 혼독회 같은 거 당신들 기반 닦기 위해서 자기들 활용하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빨리 끝내야 돼. 빨리 끝내야 된다구. 앞으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서 초국가적 대회를 해야 돼. 전라북도하고 경상북도하고 대회, 전라남도하고 경기도하고 대회하는 거야. 지방 지역감정 화합을 그냥 해서는 안 된다구. 우리가 끌고 다니면서 해야 된다구. 교육도 그렇게 하고 말이야. 자매결연도 만들어서 도별로 협력해서 대회도 하고 시위도 하고 다 그래야 지역감정이 해소되는 거야. 그래 가지고 나중에 축복을 해줘야 돼.

제일 중요한 것이 축복이야. 젊은 청년 남녀들, 전라도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하고, 남쪽 사람하고 북쪽 사람하고 결혼시켜 줘야 된다고. 지금 청소년들 전부 다 이게 미혼 남자 여자를 결혼해 줘야 될 텐데, 앞으로 전라도 따로 하는 게 아니야. 혼성시켜서 그야말로 1만 명씩 빼서 갈라놓는 거야. 이래 가지고 하나의 통일된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남한과 북한도 하고 말이야. 경상도하고 전라도가 하고 말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경상도하고 전라도를 결혼 많이 시키지 않았어? 「예,」 그걸 모범적으로 선전하고 그래야 된다고. 어차피 정부가 해서는 안 돼. 사상적 기저가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빨리 서둘러야 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1일하고 2일로 하면 안 돼. 이번에는 책 가지고 하면서 교육할 때 어디어디라고 해 놓고 그 책을 전부 사게 해서 전부 책 중심삼고 공부해야 돼. 그러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직해서 가야지. 지금까지 자기들 강사가 전부 다 골자 알아서 강의하는데 책도 없고 노트도 없이 공부하는 학교 학생들이 어디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다 날려 버렸어. 40일 중심삼고 40일수련회가 통일교회 정예부대라구? 정예부대일 게 뭐야? 수련받을 때 들었던 거 자기가 알게 뭐야. 책을 봐야지. 책을 공부하면서 자기가 노트한 모든 것을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말씀편집의 방향

앞으로 전부 다 선생님 말씀이 구어체로 돼 있다고 그걸 문어체로 만들 생각을 하지 말라구. 그거 다 앞으로 문제가 된다고. 무슨 말이지 알겠어? 간단히 뭐 요약해서 골자만 하는 거 그것 다 원치 않아. 전부 다 구어체면 구어체 그냥 그대로 듣기를 바라고 읽어야지. 그걸 다 뜯어 고쳐 가지고 말 좋게 하지 말라구요. 좋게 하려면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전부 다 고칠 것이 있으면 선생님이 고쳐야 된다고. 알겠나?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전화 끊어졌어? 안 들리나? 「휴대폰이라 끊어졌습니다.」 휴대폰이면 차를 세우고 해야지. 달리면서 할 게 뭐야?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기도했나? 기도했으면 저녁 먹자!

선생님이 본래 조직적인 사람이라고요. 한 나라 중심삼고 조직해서 세계적으로 벌려 놓을 수가 없어요. 그 조직을 누가 따르겠다고 하나? 그거 대회하는 거예요. 대회 다 죽지 않았어요. 다 살아 있다고요. 「여보세요. 다시 전화왔습니다.」

어디 핸드폰 가지고 얘기하나?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전화가 끊어져. 어디 이동했던 모양이구만. 내가 말한대로 이제부터는 조직을 해야 된다고. 조직하는 데는 나라에 대한 정당조직이 아니고 가정조직이야. 그걸 알아야 돼. 가정조직이 철저해야만 나라도 사는 거야. 그 내용을 중심삼고, 통반격과 중심삼고 가정이 필요하니까 가정에 맞게 이번 일을 그렇게 해 나가야 돼요. 될 수 있는 대로 청소년들 교육 많이 시키는 것이 좋아요. 젊은 사람들, 청소년 중심삼고 대학교 중고등학교까지 연결해야 돼.

그 교육을 위해 학교 교장들과 연결시키는 게 제일 빠른 길이야. 학부형하고 학교하고 3자가 하나될 수 있는 거라구. 그건 전부 도의적 윤락 문제 중심삼고 그걸 하면서 대외적인 영향 미치는 사람들, 한 반에 몇 사람씩 빼 가지고 조직편성을 시키는 걸 해야 된다고.

내가 이상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그래, 축복가정 가정을 동원해서 교육도 주도하고 다 그래야 돼. 자기 친척들 많잖아. 그 가정기반에 다 달려 있다고. 응, 그래. (전화 끊김)

교육은 혼동회로

가정교육을 했는데 혼동회 중심삼고 할 때 다 안 된다고 생각했다구

요. 교육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인천대회는 부천체육관에서 했잖습니까? 그들이 완전히 우리 말씀을 골수에 담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예요? 교육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3년만 지나게 되면 전체 책 읽기 운동하는 거예요. 「...한국이 책 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국민성이거든요. 그런 풍토에서 체육관만 딱 채워 놓고...」

훈독회가 자리잡히면 불교면 불교의 책 갖다가 한 6개월 훈독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가르쳐 주면서... 그래 놓으면 자기들이 전부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불교, 그 다음에 회교 전부 다 훈독회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하면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하고 다...

교육은 훈독회 하는 거예요. 한곳에서 전부 다 찾아가서 훈독회 하고 다... 교육이 훈독회예요. 지금까지는 성약시대니 뵈이니 전부 다 이게 훈독회하니까 성약시대란 의미가 쪽 들어오지요? 「예.」 영계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영계를 몰라 가지고 무슨 신앙생활을 하나? 가정 전부 다, 청소년 전부 다 참부모참가정.참혈통 누가 봐 줄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 연령 데모, 중고등학교 학생 연령 데모, 대학교 학생 연령 데모, 청년들 연령 데모, 각 부처 데모를 해야 된다고. 데모는 무서운 거예요. 한번 평을 들어서 그거 다 하면 책임자로서 부정할 수 없는거거든. 세 번만 하면 그건 완전히 사라진 패예요.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데모. 아무 날 몇 시에 무슨 소학교에서 동창회 하자고 차 동원시키고 말이에요. 중고등학생 데모하는 데에 중고등학교 가담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순결운동 다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대학교, 그 다음에 교수, 그 다음에 학부형,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신문에 공지사항을 발표하는 거예요, 앞으로 청소년은 자기 일신을 대하니 순결 데모하자고. 금년 활동 목표가 초등학교 5학년부터 대학

교 2학년까지, 10년 동안의 학생들을 동원해서 축복! 「교육은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초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성(性)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강조해야 돼요. 교육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남녀문제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교육해야 돼요.

성 개방이 아니라 성 해방이다

세상 사람은 지금 성에 대해서, 남자나 여자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알 수 없죠.」 얼마나 무섭고 즐거운 것인지 생사지권이 달려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구요. 「아버님이 전부 밝힐 수 있을 겁니다.」 뭐라구, 아버님이 밝힐 게 뭐야? 우주가 본래 근본이 그렇게 돼 있지. 그거 내가 한 5년 동안 세월을 흘러 버렸어요, 눈치보느라고. (웃으심) 그래서 습관성이라는 게 무서운 거라고요.

성 개방이 아니고 성 해방 해야 돼요. 지금 성 개방 문제 말하잖아? 「예.」 성 해방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남자로 있다면 성적 관계를 맺어 봤겠어요, 안 맺어 봤겠어요? 왜 이상한 눈으로 봐? 자기들한테 물어 보잖아? 「하나님이 성적 관계를 해봤겠느냐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성 해방을 지금까지 해 나왔겠느냐, 안 했겠느냐 물어 보잖아요? 「성은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무형이신데 육적인 상대가 없는데 그게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고, 또 하나님이신데 안 해 봤을리도 없고…」 (웃음)

하나님이 해 왔다면 하나님의 혈통이 연결돼야지. 사랑은 혈통을 연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혈통이 연결돼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패들을 내세워서 역사(役事)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불쌍한 하나님이지요. 이번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랑은 상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상대할 수 있는 이상적인 여성이 없었다

는 거지요. 아담 해와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 독신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관계를 못 했는데 타락한 인간들이 사랑관계를 어떻게 갖느냐 이거예요? 천지의 도리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수녀 신부들을 수절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구요. 청상과부라는 말이 있지요? 청상과부라는 말은 결혼해본 과부예요. 이것은 무슨 과부인고? 만년 과부이지요? 「결과적으로는 참부모님이 축복할 때까지 기다려야…」 그게 원리이지 뭐야.

참부모님도 지금 복귀 과정에 있어요. 커 가지고 쪽 해 가지고 사탄 세계에 유린당한 것을 다 가려가는 것 아니에요? 실패한 것은 사랑 전 통을 못 세워서 실패한 거예요. 나라 찾아야 돼요. 나라를 찾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통일교회도 나라만 세우면 세계가 일방통행입니다. 반대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자네들이 밥 먹고 자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지만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나라 잃어버리고, 국민 잃어버리고, 주권 잃어버리고, 부모 잃어버리고, 아들딸·가정·종족권 다 잃어버린 입장에 있어서 다시 찾아야 할 왕의 입장을 생각해 보라구요.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사는 뭐가 있겠어요?

내가 박구배를 전적으로 밀어 주는 의미가 전부 다 크릴새우 때문에 밀어주고 있다구요.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관심 갖게 만드는 거라구요.

기분이 어때? 배 하나 했을 때하고 둘 할 때하고. 지금까지 말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지. 저 사람들 말하면 한다구. 둘 했으니까 셋 할 것, 넷까지 생각한다는 거야. 「일본의 조업 자료까지 해서…」 쉽지. 내 말이 그거야. 그러니까 기록을 남기라는 거야. 수련회 같은 것이 역사적인 자료인데 그럴 뺑하고 있다구요. 부모님이 그동안 해온 것을 뺑해 버렸어요. 자료가 얼마나 들어간 줄 알아요? 책임자들이 역사와 더불어 책임하고 있다는 그런 관이 없다구요. 통일교회 사람들도 그거 없

다구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선생님은 여러 가지 것을 연구해야 된다고요. 국가적 전통을 존중한 누가 있나?

이거 이제 하게 되면 배 몇 톤이고, 다섯 척이고 여섯 척이고 한꺼번에 해야 돼요. 그래야 누가 따라오지 못해요. 「그렇게 해보고 나서 이제는 두 척을 해 보면 열 척도 할 수 있다는…」 그래, 그래. 우리 은행 있잖아. 우리 33인들 중심해서 은행에 빌려주는 거예요. (이어서 보고와 거기에 대한 지시사항이 있었음) *

<워싱턴 타임스>의 역할과 말씀 교육

(앞부분은 녹음되지 않아 수록하지 못함) 사랑의 가치는 무한한 것인데, 이 무한한 사랑의 가치를 갖다 주는 것이 상대이기 때문에 상대를 무한히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더 높이면 높일수록 사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 위해서 살라는 원칙에도 딱 맞는 것입니다. 철학적인 논거에서도 전부 다 이론적으로 확실히 가르쳐 주는 거라구요.

피조만물은 천지 원칙에 따라 살게 되어 있어

이제 가정 집회를 해야 된다고요. 선생님이 세계를 순회하면서 하루에 세 나라에서 대회를 했다는 것을 중심삼아 가지고 전부 다 모이라고 해서 교육 다시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게 되면 다 알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말씀에 아주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가지고도 앞으로 하실 수 있으니까... (주동문 <워싱턴 타임스> 사장)」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정의로부터 찾을 수 있는

1999년 4월 4일(日), 이스트 가든.

* 이 말씀은 주동문 워싱턴 타임스 사장과와의 대화 중에 하신 말씀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길이 영원히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타락 이후의 하나님은 불쌍한 거예요. 그 심정적 모든 요인들이 비참하기 짝이 없더군요.

부처끼리 아무리 재미있게 살아야 부모의 사랑을 모르면 자식에 대한 사랑을 몰라요. 남자가 아무리 잘나고 여자가 아무리 잘났다고 했댔자 혼자 살아 가지고는 사랑을 몰라요.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물세계나 모든 전부가 때가 되면 다 찾아가고 만나려고 하잖아요? 천지의 원칙이 그러니까, 그 원칙에 따라 출발했으니 원칙을 따라가야 됩니다. 원칙에 따라 났으니 원칙에 따라 죽어야 된다고요. 거기에 따르지 않고 죽으면 불합격입니다. 별의별 유명한 남자 여자들도 붙어 살려고 하지, 떨어져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세계에 말씀을 전파해야

「신문을 해야 되는데, 나라를 다 넣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나라마다 다요? (주동문)」 될 수 있으면 각 나라를 다 해야 돼요. 「가능한 나라들은 각자들이... 전에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전세계 앞에 인터넷으로 보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는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형태를 살짝 줄여서 큰 백스크린에 볼 수 있도록 요런 형태다 하는 것을 알려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까지는 텍스트, 원문으로 죽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 찾아보면서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고 본문은 이거로구나.’ 하고 별도로 분립해서 쳐서 넣을 수 있습니다. 각 나라 신문의 사이즈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인터넷 사이즈로 보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융통성 있게 보내 주면...」

이것을 전부 다 보내 주면 자기들이 그거 다 조작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음성으로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타이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로 보내면 타이프 다시 할 필요 없이 그대로 꼭 보내면 됩니다.» 미리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설명하면 된다고. 설명회를 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 국가 메시아 있는 나라는 이걸 안 하면 안 돼요. 집집마다 돌려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국가 메시아 책임을 세우지, 대 전환시기에 국가 메시아가 뭐예요? 이름만이에요? 다 사기꾼이지. 선생님이 지시하고, 참부모가 지시한 전통을 어느 나라든지, 어느 사람이라든지, 저 시골에 가 살더라도 나라 백성이면 나라를 통하든가 자기 동네 조직을 통하든가 우편을 통하든가 알려 주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 알려 주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를 내세워서 그거 하면 참 좋아하겠다! 어머니가 이제 맛을 알았다구. 「제가 두 번 뵈었는데요, 참 고단해하십니다. 거기에다가 독감에 걸리셔 가지고…」 고단하지. 둘이 감기가 들어서 출발했는데 이제 나왔으니까 껌테기 다 벗겼다고. (웃으심)

뜻깊이니까 가야 할 것을 생각하고 불평 없이 나가는 것이 고마운 거예요. 세상으로 보면 여편네가 되어서 이런 조건, 저런 욕을 해도 말이예요, 그 훈련된 사실이 자기에게 얼마나 영광된 일이고, 역사에 빛나는 사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것입니다. 여성을 대표해 길을 닦는 데 이것밖에 없거든.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했다고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했던 것은 어땠고 말이예요. 한국 사회고, 세계 자리에서든 어머니가 올라가는 거라고요. 내가 없더라도 이제 어머니를 중심삼고 얼마든지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축복가정들이 자랑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삽니다.’ 하는 걸 이제 아들딸들이 해야 된다는 거라고요. 그러면 세계는 통일세계가 되는 거예요. 보여 주고 가르쳐 주고 하라고 해야지, 보여 주지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하라고 하

면 사기라고요. 그건 사기 단체입니다.

그거 만들면 <워싱턴 타임스>가 역사적 기록에 남는 거라고요. 내가 미국에 와 가지고 지난 3월 14일에 골자를 가려 얘기했다구요.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학부형에까지 확대해서 전하라

통일교회가 놀라운 것이 이런 역사적인 말씀의 편집을 다 해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무기 중에 세상에 없는 무기입니다. 이제 학자세계에서 혼독회를 해야 됩니다. 대학교에서 하고, 중고등학교에서 해야 된다고요. 시작하면 영원히 계속하자고 하지, 그만두라고 하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스타트를 해야 된다는 거라고요.

통일교인들 전부 다 출신 학교 이름들 다 가졌지요? 다 자기들 모교를 찾아가서 하라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됐으니 우리 학교 위신을 위해서, 동창생을 위해서 말이에요. 이들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말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 풍조가 다 됐다고요.

이제부터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유명한 사람이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옛날 선생님들, 후견인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모교 선생들과 학생들을 전부 다 모아서 훈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을 하게 되면 확대해서 학부형까지 가담시키면 다 끝나는 거라고요. 학교를 중심삼고 전부 다 연결되는 거라고요. 학교 교수들, 선생님이 오게 되면 학생들도 오고 그러는 거라고요. 가정에서 교육을 해서 인재를 양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기반만 닦아 놓으면 사탄세계는 뿌리뽑히지 말래도 자연히 뽑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을 떠나면서 10만 명 교육을 지시한 것입니다. 10만 명 교육! 이번에 여기 오면서도 33개 도시에 대해서 5백 명씩 15만 명 교육을 지시하고 왔다고요. 그래, 밥하고 자는 자리는 내가

줄 테니 데리고만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안 온 사람들은 천 대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귀한 말씀이에요. 「예, 정말 핵심들입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 봤지만 아주 거의 다…」 마지막 말이라고 다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주는 거라구요.

지금까지 전부 다 3억6천만쌍을 했지? 「예.」 이번 축복 끝나고 이게 필요해요. 4억이라는 말이 필요 없대구요. 「이게 참 귀합니다만 저희가 3억6천만쌍을 그냥 건드려만 놓았지 수습하는 기회가 없어서, 뭔가 피드백(feedback; 반응, 의견)이 없으니까 별려만 놓은 것 같고 허전하다 싶었는데, 이렇게 공개 교육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게 사는 방법이다 하는 걸 해주시니까 아물려지는 감이 있었습니다.」

통일교회가 가짜가 아니지요. 읽어 보면 대단한 내용이라구요. 누구든지 감동 받기 때문에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클럽 활동을 하게 해야 돼요. 빨리 통반 조직을 하라는 거라구요. 국가 메시지 아들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말씀의 동기로부터 하늘의 복귀섭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수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려야 된대구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지금 멀거든요. 아버지라는 것이 말이에요. 아버지라는 것, 그 다음에 아들이라는 것이 멀대구요. 그것이 자리를 잡고 그 권위적 위치가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사회에 가든지 내가 이런 입장이니 내가 책임해야겠다는 주인 자격, 주인관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 대신, 스승 대신, 주인 대신이로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아니에요? 어디 가든지, 단체나 어디 가든지, 열 사람이 모여도 반드시 그걸 통과해야 된대구요. 그래, 가방에 언제든지 가지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이 말을 들어 봤느냐, 못 들어 봤느냐 해서 못 들어 봤다면 들어야 된다고 해서 그런 운동을 전개해야 된대구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운동을 하게 되면 순식간에 다 퍼져

나가는 거라구요.

사탄 혈통을 뿌리뽑고 깨끗한 혈통을 남기자

이제는 나도 할 일을 다 한 셈이라구요. 축복을 이렇게 해 가지고 초민족적인 입장에서 국경을 넘어서도 어느 누구든지 형제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이 꿈같은 사실이라구요. 거기에 무슨 민족 감정이니 무슨 인종차별이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국경 개념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 다 무시되는 거라구요. 왜냐? 사탄의 혈통 뿌리가 뽑혀지는 거라구요. 개인주의 사상, 자기 제일주의 사상이 근본적으로 무너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진짜 아는 사람은 매일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다 외울 거라구요. 그거 얘기하면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남자 여자의 생식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또 내가 많이 평도 받았지만 말이에요. 목사라는 사람이 만나면 생식기 얘기한다고 했다고요. 세상에! (웃으심) 그게 귀한 줄을 몰랐거든. 그게 사실인데, 생각하면 할수록, 한 번 듣고 생각하고 또 듣고 생각하면 점점 깊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을 안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 대표적인 자가 광정환이었어요. 세계 순회를 갔다 와서는 한다는 말이 '아이구,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귀한 줄 모르고 살았으니 함부로 살았지요. 여자가 여자 노릇 못 하고, 남자가 남자 노릇 못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서야 그렇게 귀한 줄 알더라구요.

억천만금 금은보화보다도 더 귀한 것인데, 영원한 보화의 금고가 돼 있는데 그 키(key; 열쇠)를 전부 다 잃어버리고도 생각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친 사람들이예요? 우선 그렇게 세뇌만 되면 남자

여자들이 걱정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남편에 대한 걱정, 아내에 대한 걱정을 안 한다 이거예요.

여자들이 훌륭한 남편을 쥐고 살기가 얼마나 고달파요? 또 똑똑한 여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고달파요? 그런 내적 외적으로 고심된 수욕과 고통으로 인해 얼마나 소모가 크냐 이거예요. 그건 말할 수 없다는 거라구요. 이런 논리를 딱 알게 되면 만물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나같이 너희들도 따라와야 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산 아버지, 하나님이 만든 모든 물건들을 아버지 대신 보호하고 길러 주어 가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깨끗한 씨를, 우수한 종자를 남겨야 된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의 주인이 돼 가지고 수놈 암놈을 첫사랑으로 새끼를 배게 했으면 전부 다 혈족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더럽히지 않은 혈족을 남겨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동물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판타날에 모든 만물을 전시하는 동물원을 만드는 거예요. 우수한 종자들을 발전시킬 수 있게끔 그런 체제를 만들고 그 종(種)을 각국에 나누어 줘서 우수 종을 만드는 놀음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동물들을 잡아먹는 데 대한 위신이 있지요. 그렇잖아요? 동물은 자기 사랑하는 주인을 위해 죽으려고 그래요. 개들도 그렇잖아요? 말도 그렇고. 사랑하는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치잖아요? 그런 거라구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 자기 전체를 희생시켜서 바치려고 하는 거라구요. 그거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판타날에서 지난 1월 8일에 사사절을 발표했다구요. 8일을 다 보내고 나서 그걸 발효한 것입니다. 만물까지도 이와 같이 사위기대를 보호해서 사랑할 수 있는 전통을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다 발표할 수 있는 거라구요. 사탄의

뿌리를 빼려면 무엇 가지고 빼겠어요?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요.

참어머님 순회강연의 의의

이제 워싱턴 타임스 편집국 사람들 문제없지? 「예. 없습니다. 처음에는 지렁이가 약재로 쓰인다고 하니까... 그건 동양에서 약재로 쓰지만 서양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서양에서는 약을 쓴다면 분해해서 원소를 뽑아서 쓰는 거지, 그런다고 하니까...」 (웃음)

사람들이 약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왔다구요. 음식물의 약을 먹어라 그말이에요. 사람 소질이 전부 다르다구요. 그러니 만물이 전부 다 준비품, 예비품이에요. 누가 그런 생각을 하나요? 이제 그럴 때가 왔다구요. 그러면 병이 안 나요. 에이(A)형 비(B)형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데이터를 내서 먹게 되면 건강하지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재가 다 필요하다구요.

이번에 어머니가 돌아오면 통일교회에서 좋은 선물, 기념할 선물을 만들어 줘야 할 텐데, 그거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남편이 해주는 것보다도 통일교회가 해주어 가지고 관 같은 걸 내가 해줘야 된다구요.

돈 해서 뭘 하겠나? 역사적인 인물, 영원히 후손들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남기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고생하고 다 그런 것을 역사적으로 찬양하고 그래야 돼요. 기침하고 다 그런 것이 지나가는 말이 아니거든. 그게 다 남아 있는 거예요.

내가 나서는 것보다도 어머니가 몇 년 동안 함으로 말미암아 부작용이 없다구요. 문충재는 남자니까 별의별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지만, 여자는 그렇게 할 수 없거든. 그런데 그 여자가 하는 말씀이 천지에 없는 말씀을 하고 있으니, 캄캄한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문충재가 태양 빛이라면 껌껌한 베일

이 썩어지면 태양이 없어지는 거라구요. (웃으심) 깜깜해지면 별 하나가 전부 다 어두운 세계를 가려 갈 수 있는 표준이 될 수 있는 거라구요. 새로운 결의를 다질 수 있는 하나의 희망의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워싱턴에서 맨 처음에 스타트(start)할 때 그랬지? 「시발이기는 했지만 아주 좋았습니다. ……그때 외교관만 73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상원 하원의 직원, 시 의원, 국가 공무원들하고 차관이 하나 왔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한 사람도 나가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습다.」

그래, 심각한 말씀이지. 사람이 3시대의 부모를 모셔야 된다는 그런 말은 꿈같은 얘기라구요. 생각하면 그러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요 말씀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이름으로 나갑니다.」 괜 찮아. 「예.」

우선 세계 선언문같이 발표하는 것은, 앞으로 역사가 이걸 밀어낼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발표해 줘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는 빠졌느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국가 메시아들이 책임져야 된다고요. 이번에 빛을 내서라도 전부 다 해야 된다고요. 제3국 같은 데는 싸잡아요? 얼마 안 들어갈 거라구요. 아마 1, 2만 달러면 다 끝날 거라구요. 신문에 광고 내는데 말이에요. 제3국 같은 데는 전부 다 그럴 거예요.

<워싱턴 타임스>를 중심으로 미국 정부에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주동문이 출세할 수 있는 네임이 필요할 때가 왔는데,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좋을 텐데… (웃음) 「아버님, 저는 너무 높이 섰습니다.」 이제 해야 할 것은, 부시가 대통령이 될 수 있게끔 처를 중심삼아서 선거 출발로부터 계획을 짜라는 거예요. 금후에 부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이럴 것이다 하는, 이런 모든 구체적인 내용을 짜서

한 40개 곳을 순방해 보라구요. 그걸 미리 평가해야 이 사람이 정치한다고 해 가지고 말이예요, 언론인들이 협조할 수 있게 하는 거라구요.

이래 가지고 순회하면 별의별 문답이 다 나올 거 아니예요? 그거 다 해다가 집어 던져주는 거예요. 이런 평가가 있으니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타임스가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역사적인 대통령이 됩니다.

그걸 지금부터 짜 봐요. 「예,」 부시 대통령에게 이런 계획을 해도 괜찮으냐고 말이예요. 「그 사람도 시민 모금운동을 하는데요,」 모금운동보다도 자기를 지지할 수 있는 인간 모집운동을 누가 해줘야 된다고요. 언론인들을 통해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하겠느냐 말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하라고 하면 비용은 내가 대줄 테니까 하라구요. 우리는 신세 안 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악담하는 반대적 질문도 우리 자체가 시켜서 평한 내용에 대한 답변도 전부 다 가려서 채워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낼 것이다.’ 하고 자료를 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부시 행정부가 이것을 중심삼고 일하지 말래도 딱 판 짠 그대로 안 나갈 수 없대구요. 알겠어요?

언론인들의 총평이 이렇다고 알려주는 거라구요. 아프리카는 이렇게 보고, 아시아는 이렇게 보고, 구라파는 이렇게 보고, 러시아는 이렇게 본다고 중요한 나라를 중심삼고 언론인 대표, 정치의 최고 간부들을 모아서 한번 후려갈겨 놓는 거예요. 그건 워싱턴 포스트가 못 하고 뉴욕 타임스가 못 한대구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기반이 있어요. 자기들이 사람을 모을 수 있나? 그렇게 해봐요. 「예,」

한 40명 되는 각 부처의 질의 문답할 수 있는 요원들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예요. 우리 요원들만이 아니예요. 우리 세계언론인회의가 있잖아요? 거기서 빼 가지고 교육을 해서 3분의 1은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앞으로 자

매결연을 해서 언론 방향을 일치시키고 전부 세계 평화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별의별 공산당 돈 먹는 패, 민주당 돈 먹는 리버럴한 패, 육체파 패 이런 패들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도의적 기준을 세워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기준을 세계에 연결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합적 조직을 6대주에 해서 그것을 중심삼아 가지고 텔레비전 회사로부터 전부 다 언론계의 패권을 쥐어서 세계를 살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력을 쌓아야 그런 자리까지 나갈 수 있지 그냥은 안 된다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단단히 계획해 봐요. 「예.」

학자들을 중심삼아서 죽 문답도 해 보고, 그래서 제시할 수 있는 목록을 한 40개 짜서 전문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이 40권 나온다는 거라구요.

그러면 부시 행정부 대통령이 별수 있어요? 언론계의 세계 총평을 참조해서 정치하게 돼 있지 별수 없다구요. 그 대신 보고하라 이거예요. 이 책을 참고했으면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자기가 어떤 성과가 났는가를 보고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럼으로 말미암아 언론계를 중심삼은 하나의 세계 통일적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거라구요.

어머니가 강연회를 지금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구. 영어로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영어를 다 알고 있으니까 매일같이 훈련한다고 슬슬 다니면서 국가 고위층을 만나서 대접받는 거라구요. 자기가 푸대접하면 손해나는 거 알잖아요? 돈 한푼 안 가지고도, 대접하려고 장관들을 데려와서 날개를 치고 주위에 엉기려고 할 텐데 그걸 왜 안 해요?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예.」 그걸 준비하라구. 준비 안 하면 다른 사람을 세워서라도 시킬 거라구. 언론인들하고 정치인들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학자들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세 패만 해 놓으면 완전히 민주주의니 공산주의니 다 따 버리고 하나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지시라구. 「예, 알겠습니다.」 그거 준비하라구요.

대통령이 되자마자 ‘부시 행정부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타이틀을 내걸고 그걸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됐다 하면 누가 되더라도 ‘어디로 가느냐? 이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이 사람의 경력을 볼 때 이러이러니까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미국의 방향은 현재 리버럴(liberal;진보적인) 환경과 보수의 싸움의 대전환기에 있어 가정과탄, 사회혼란 가운데 있는데 어디로 갈 것이냐? 표제가 없다. 표제를 누가 제시하느냐? 그건 언론밖에 없으니 이렇게 나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당한 거라구요.

언론이 갈 길을 잡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워싱턴 타임스가 가는 길을 다 바라니 할 수 없이 세계에 등장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수세계의 왕초 신문인데 전세계의 국가들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지 않을 수 없다고 내거는 거예요. 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남자로서 한번 할 만한 놀음이지. 안 그래?

그거 해야 자기가 어디를 가더라도 워싱턴 타임스 신문사 사장 해먹은 권위가 설 수 있는 거예요. 어디 가더라도, 그만두더라도... 반드시 해야 돼. 별거 없어요. 대통령을 누가 하든지 우리가 매회 잡아 주면 우리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일단 지성인들의 대통령의 정책 평가 내지 제안 그룹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신문사가 해야지. 행정부, 대통령이 하고 있는 표제가 이러니까 대통령 자체, 그 비서진 자체의 정치 배경을 중심삼아 가지고 현세의 미국 환경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걸 평가하는 거야. 차이가 얼마나 많아? 또 전세계에 맞느냐 할 때 그 차이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 질문이 얼마나 많겠냐?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생각하고 전부 생각하니까 그 비교하는 데 있어서 부시 대통령이 세계적이어

야 된다 이거야.

새 행정부에 정책 방향을 제시해 줌으로써 나타나는 효과

지금 시대는 세계적인 시대고 하루 생활권 내에 들어와 있다구요. 문화차를 중심삼고 논위할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역사 전통을 논위할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라구요. 그런 관점에서 얼마나 첨단에 와있어요? 사실이 그렇잖아? 지금 앞서 있다구.

여기서 누가 이것을 가려 주느냐 이거예요. 언론인들이 첨단에 서서 사회를 교육할 책임을 져야 할 입장인데 돈벌이에 급급해 가지고 부패한 언론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따 버리고 그야말로 고상한 지도주의로써 언론인 입장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인류가 가야 할 길을 가려 주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놀음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으면 이제 러시아면 러시아 정책을 중심삼아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특권이 됐어요, 벌써. 러시아 정책관이나 지식인들을 중심삼아서 어떻게 되겠다고 평가를 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는 중국을 중심삼고 전체를 평가하는 거라구요. 그래서 6대 국가면 국가를 순회한 결과를 중심삼아서 평가해서 방향을 잡아 주어 가지고 '부시 대통령이 제일이다.'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라구요. 그렇게 잡아주어야 된다구요. 그러면 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언론인들이 가서 그런 질문 답을 내겠나, 안 내겠나? 라디오나 무엇이나 전부 다 내게 돼 있어요. 안 낼 수 없는 거예요. 워싱턴 타임스가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을 중심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안 낼 수 없다구요. 욕을 해도 좋고, 무슨 질문이든 다 하는 거라구.

「신문 같은 건 하루니까 지나가면 금방 잊어버리는데, 대개 월간

같은 쪽에서 그런 걸 많이 다룹니다. 국내 정책이면 정책, 미리 평가들을 해서 대안도 내놓고 그런 것들을 계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보다도 세계 언론인들이 해줘야 된다고. 그 언론 자체들이 세계가 가는 방향을 평가한 그대로 자기들이 안 따라갈 수 없다고. 자기들이 평가한 대로 가겠나? 세계가 이렇게 평가했다고 해야지, 동네 평가는 안 통하는 거라고. 자기 집안 평가는 안 통하는 거야. 브라질 국가 혼자 안 되는 거예요. 세계 조류가 그렇게 가고, 선진국들이 연합해서 평가한 기준과 방향으로 가는데 그걸 반대하면 탈락자가 되어 버릴 수 있다고. 언론인들은 그걸 제일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 그 기준을 맞춰 주어야 되는 거야. 부시를 지지하는 것만이 아니라구. 「예, 알겠습니다.」

좋은 건 칭찬해 주고,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워싱턴 타임스 권위가 올라가는 거야. 「타임스, 인사이트, 월드 앤 아이까지 합동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방송국까지 전부 다 해 가지고 하라구. 「시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 약아서 아직 출마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서는 안 돼. 대통령이 되자마자, 「되자마자입니까? 좀 되기 전에 후보들을 놓고서...」 그럴 필요 없어. 되자마자 해야 돼.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고. 되자마자 들고 나가야 돼. ‘부시 행정부가 어떻게 나갈 것이냐? 세계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내보내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겠나? 약소국가들이 전부 다 환영하는 거야. 미국 대사관들이 우리에게 사바사바하고 우리 중재끼가 되는 거야. 알겠어?

「이걸 시리즈로 해서... 한 번 끝나면 ‘끝났구나.’ 하고 마는데요, 좀 연속으로 해서...」 연속으로 순회하면 몇 개야? 40개면 40개 순회하는 거라고. 어머니가 강연을 하는 대로 하는 거야. 프로그램을 짜서 딱 발표하는 거야. 얼마나 준비하겠나? 전부 다 선진 몇 개국에서 온다고 다 기재해서 참관하면 점점 심각해진다구. 약소국가라고 홀대했다가 혼난다는 거라고. 그러니 언론계가 평준화될 수 있는 기준을

빨리 올려놓자는 거야. 미루면 큰 손해야. 혼란이 벌어진다구.

「그렇게 되면 완전히 해외 정책이라고 할까... 대개 당선되자마자 자기 수습하느라고 국내 것을 먼저 신경들을 쓰거든요.» 국내 것이든 뭣이든 전부 다 하는 거야. 「국내 순회하는 것이 먼저 안 되겠습니까?」 국내 순회해야지. 국내 순회 몇 개 하면서 세계에 나가는 거라구. 미국에서 몇 군데 먼저 하는 거야. 12개 도시만 딱 순회하면서 거기서 세계로 해 나가는 거라구요. 미국만 하게 되면 국내적이지 세계적이 될 게 뭐야? 「예. 밸런스를 맞춰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유명해지는 거야. 워싱턴 타임스를 세계지로서 팔아먹자는 거야. 언론인들을 중심삼고 연합해서 워싱턴 타임스도 봐라 이거 예요. 매일 보고하고 주간 보고를 우리가 해줄 텐데, 이렇게 해서 그만 둘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보고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세계를 향한 잡지도 만들 수 있는 거라구요.

「알겠습니다. 정책 포럼 같은 게...」 포럼(forum; 공개토론회, 광장)도 그렇다구. 광장만 있으면 되나? 방향이 있어야지. 목적이 없잖아? 그걸 딱 집어넣는 거지. 이걸 해 놓아야 언론인회의도 자동적으로 벌어지는 거라구. 이렇게 되면 월정비를 받으면서 세계 언론인들을 끌고 다닐 수 있는 거야. 돈 한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라구요.

말씀으로 교육해야 돼

이제 어머니가 하던 것도 패라칸(Louis Farrakhan) 시키고, 여기 종단장들 시키면 돈 한푼 안 들어. 이런 좋은 말씀이 있는데 40개 지역이면 지역, 너희 교단에서 순회강연을 하라고 하는 거야. 이제 그럴 때가 왔다구.

가만 보니까 패라칸도 내가 시키면 하게 돼 있다구요. 그 사람이 문 총재의 말을 듣고 이런 말씀을 해 보라구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들이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나? 새로운 새 세계의 말씀들인데 못한다구요. 해 보았자 성경을 중심삼은 그런 말이나 했지, 이런 모든 초자연적 이상권에 대해서, 영계가 어떻고 지상천국이 어떻다는 그 내용을 알게 뭐예요? 우리가 그 특허권을 갖고 있는데 팔아먹어야지. 달라는 게 값이라구요. (웃음) 지금 그렇다구요.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 가치를 평가하고...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10년 20년, 일생 동안 받았지만 몇십 배 몇백 배로 천년 만년 우려먹는 거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희망을 가지고 고생시키고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훌륭한 양반이라는 거예요. 장래를 좋게 하기 위해서 현재의 좋은 것도 어려운 것으로 다 소화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귀하다는 거라구요.

4월 4일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사사절과 딱 맞는 날이로구나. (웃음) 「오늘이 미국에서는 부활절입니다.」 그래? 그렇구나. (웃음)

선생님이 이런 생각이나 하고 기뻐해야지, 일선에 나가서 싸움을 하겠나, 뭘 하겠나요? 다 자기들을 내세워서 날개 치고 세계를 밟고 다니는 그걸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할아버지가 바라는 소원 아니에요? 안 그래요? 길렀으면 내세워서 빛나게 하고 다 그래야 되는 거라구요. 다 그래요. 이제 모든 걸 살려야 돼요. 다그칠 거라구요.

이번에도 그래요. 이거 전부 다 먹여 살리려면 큰 문제인데, 이것만 가지면 청년들 4억쌍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연령을 16세까지 내려 준 거라구요, 16세까지. 여기 미국의 학생들은 16세면 우리 한국의 40세 이상으로 나이 들어 보이는 학생도 있더라구요. (웃음) 너무 늙었더라구요.

순결을 지키려니 불가피하다고 하면 이걸 나쁘게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순결한 씨를, 더럽히지 않은 씨를 남기기 위한 통일교회의 정체를 알고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전부 다 축복받아서 너희들 둘이 손 붙들고 다니고, 아
기 낳는 것은 7년 후에 만나든 10년 후에 만나든 그때 마음대로 하라
는 거예요. 손 붙들고 다니면서 연애같이 하는데 무슨 바람을 피우겠
나, 어떻게 하겠나?

우리는 결혼하면 7년 후에 살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그게 거짓말
이 아니라구요. 꿈같은 얘기입니다. 호랑이 담배 먹던 시대의 얘기인
데, 지금은 천국이 문 앞에 있고 세계가 다 내 앞에서 놀아나는데 그
것을 못 하겠다는 녀석들은 죽어야지요. 몰라서 죽어야 된다 그말이에
요. 천대를 받아야 된다 그말입니다.

<워싱턴 타임스>가 그런 좋은 편성도 하고, 그래서 세계를 향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진 젊은 사나이들이 얼마나 복돼? 「감사합니다.」 그거
복된 거라구.

내가 40년 전에 천대 받은 걸 생각하면, 아이구...! 교수들이 모이는
세계 학자 대회 하면서 얼마나 천대받았는지 다 모른다구. 그걸 해 놓
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때 한번 참석하던 사람들이 '내가 그때 다
선생님 말을 듣고 협조했다.' 그러는 거예요. 줄줄이 다 살아나는 거라
구요.

야야, 아까 보던 것을 보자. 어디 갔나? 「예.」 (이후 비디오를 시청
하심) *

세계를 하나 만들기 위한 남미 개발

(앞부분은 녹음되어 있지 않음) 1957년이면 내가 몇 살 때인가? 서른일곱 살? 국진이는 몇 살이야? 「서른 살입니다.」 서른 살. 네 나이에 아버지는 평양에 가서 기독교를 뒤집어 박았다고. 들어 보니까 어때? 저걸 책자로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통일교회 사람들이 어떤 모임에 가든지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고요. 이제 그래야 할 때가 왔다고요.

남미 개발의 당위성

세계적으로 국가 메시아들이 전부 다 말씀을 번역해야 돼요. 재산을 팔아서라도 해야 된다고. 무책임한 사람들이예요, 전부 다. 자, 그럼 식사하자구. (이후 식사 중에 말씀하심)

신문에 남미에 대한 소개 좀 하면 좋을 거라고요. 남미의 재벌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주 항공기지를 남미를 관두고 유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비행장을 닦아야 됩니다. 어떻게 닦느냐? 이번에 하면 하나 하나 몇 년 계획을 해서 남미에 있는 재벌들을 동원하고 투

1999년 4월 5일(月), 이스트 가든.

* 이 말씀은 아침 훈독회 후에 하신 말씀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입시켜서 주식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철도와 항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남미의 모든 생산물들을 세계에 배송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우루과이 라팔로마밖에 없어요. 그걸 해야 돼요, 항구. 25만 톤 이상의 배들이 자유로이 기항할 수 있거든요. 그걸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철도도 하려고 해요. 4개국을 통하고 전 남미로 통할 수 있는 새로운 전철 개발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항구도 세계적인 항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비행장도 그 이상 비행장으로 만드는 거라구요. 상징적인 항구 같은 것을 갖추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우루과이에 사 놓은 땅에도 항구가 있는데 구라과의 항구 개발회사하고 그걸 개발하기 위한 계약을 하고 시작했다고요. 앞으로 세계적인 대항구가 될 수 있는 기반입니다. 그 다음에 철도와 전철을 중심삼은 세계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기술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갖추어 가지고 이 이상 해야 된다는 거지요.

남미 개발에는 우루과이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천대받고 분한 마음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때이기 때문에 미국보다도 우리가 무슨 면에서나 앞서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라파라든가 아시아라든가 전부 다 미국을 앞설 수 있는 거라구요.

미국의 원산물이란가 생산물은 남미를 못 당한다고요. 세계적인 판매시장이란가 식량문제에 있어서도 남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루과이 땅에 그런 준비를 한다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기준에서 판타날에 그런 모든 레이아웃을 한 도면도 갖추고 비싼 땅도 사 가지고 착지하기 위한 준비를 한 것입니다. 비행기 활주로도 하나 닦아 놓아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를 바

로 연결시켜 가지고 산업분야의 모든 물품들로부터 기계공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활필수품 센터를 만들어서 하나의 도시 형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루과이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하고 그 다음에는 철도를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는 항구라고요. 박구배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만들어 놓은 것보다 낮게 만들어야 됩니다.

로키산맥이 이렇게 있으면 안데스산맥 같은 더 높은 산맥이 있고, 그 밑에는 그 이상 더 크고 광활한 평야지대가 있고, 거기에는 무한한 원자재가 있고, 또 무한한 생산지, 푸른 지대가 있는데, 이것들을 세계 인류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과학세계의 재료가 거기에 다 있다고요, 원자재가. 미국에서는 전부 다 파먹고 그랬지만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물 유통구조가 항공 기지하고 철도 기지하고 해상 기지라고요. 그런 곳은 라팔로마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우루과이에 자리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루과이의 기후라는 것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기후예요. 기후가 그래요. 폰타 델 에스테가 그 대표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우루과이에 집들도 사 가지고 수리하고 있는 거라고요.

신문사의 기자들이 취재하면 레이아웃이라든가 도면도 빼낼 수 있고, 예산의 모든 세부적인 분야 분야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도 취재하면 자연스럽게 나와요. 비행기 회사 같으면 세부적으로 해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도우려고 할 거라고요. 선전이 그런 선전이 어디 있겠나? 「예.」

그러니까 거기가 현재 어떻다는 것을 참고하고 이런 구상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전부 다 써넣으면 되는 거라고요. 레이아웃도 있기 때문에 갈아넣으면 되는 거거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현재 목표가 이렇게

됐으니... 남미가 세계의 곡창지대고 80억 인류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보다 배(倍)의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거라구요.

거기에는 판타날 같은 데는 신비의 비경입니다. 아마존하고 판타날 지역은 말이예요. 거기의 파라과이강하고 아마존강의 상류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수로를 파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끔 해서 완전히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철도를 중심삼고 연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4개국을 통할 수 있게 연결만 해 놓으면 자기들 나라를 중심삼아서... 33개국을 연결시키는 주변 철도는 자기 나라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어 있다구요.

그래 놓으면 남미가 통일되는 거예요. 하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유통 구조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까지 구상해 가지고 남미 통일을 추진해야 돼요. 또 천주교권이 아니예요? '신교에 대해 형님 노릇하자!' 하는 거예요. 형님이 못해 가지고 못살게 됐으니 그 꼴이 뭐냐면서 말이예요.

우루과이에 대형 항구를 건설하고 있다

이제부터 그 주위의 33개 도시에서 15만 명을 교육하라고 지시하고 왔다구요. '식비하고 숙소는 내가 대줄 테니까 너희들 한곳에 모여라!' 하는 거예요. 금년 10월까지 교육을 끝내기로 했다구요. 어차피 그런 재료가 다 필요하다구요. 그런 기지를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선생님이 우루과이에 기반을 닦은 것입니다. 왜 우루과이에 기반을 닦았느냐? 이런 포부를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실감이 나지요? 「예.」

그래, 우루과이 사람들이 레버런 문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걸 시작했다고는 꿈에도 생각 안 합니다. 한 3억5천만 달러 이상을 날려 버린 거예요.

판타날에서 하는 그것도 그렇지요. 이번에 윤원장(윤태근 제주연수

원장)을 데리고 간 것도 제주도가 하나의 표상이 되니 ‘제주도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럼으로 말미암아 제주도가 해양 도시로서 연결되어 그 대신 항구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선생님 생각은 그랬다구요. 오키나와 미군 기지를 제주도로 이동시키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여당이 반대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걸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걸 만들어야 안전보장지대가 되는 거예요. 미국이 그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 한라산에다 구멍을 뚫어야 돼요, 항구로 왔다갔다하게끔. 현재 기계 가지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비행장도 전부 다 닦을 수 있고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세계가 꿈쩍 못하게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사상적 무장을 하면 일방통행으로 세계는 한 길로 자연히 가는 것입니다. 그런 외곽적인 힘의 기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요.

우루과이의 라팔로마 주의 2백만 헥타르를 우리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브라질과 통하거든요. 전부 다 연결시켜야 돼요. 이제 그런 방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게 되면 두 주는 자연히 품에 품기는 거예요.

우루과이가 염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거기 라팔로마에 2만 세대의 집이 있다고요. 주민을 어떻게 자기의 힘으로 이동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팔로마 항구를 조그만 항구로 만들려고 하지요. 그러나 25만 톤 이상의 배가 구라과로 왕래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오일 탱커(유조선) 모양으로 배들이 드나들 수 있게끔 말이에요. 유조선이 50만 톤급이 많은데 그런 배들이 수십 척 들어와서 회전해 들어갈 수 있는 항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수심이 깊거든요. 그곳밖에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통일교회의 위업이라는 것이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의 사상으로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것을 했다면 세계는 다 따라갑니다. 세계

사람들이 안 따라갈 수 없어요.

요전에 내가 어머니하고 덴버에 갔을 때 얘기했다구요. 어떻게든 만나 가지고 그걸 하는 데 신문사가 제일 빠를 거라고 했다고요. 당신네들이 취재해서 몇 개국에서 이리이러한 것을 중심삼아서 소개하면 선전도 이상 선전이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설게도부터 전부 다, 부처 부처의 분담적 책임 내용까지도 취재해서 발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면이 필요하고, 인적 자원이 어떻게 되든지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항구입니다. 세계적 항구 가운데 러시아 항구, 미국 항구를 중심삼아 가지고, 군항이면 군항을 중심삼고, 그 다음에는 민간 항구를... 앞으로는 군항보다는 민간 항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민간 항구를 중심삼아야 모든 문화교류가 이루어지지 군사기지를 가지고는 문화교류를 직접 못 한다구요. 그런 관점에서 군사적 기준의 이런 것은 나중에 하고, 문화교류에 기여를 할 수 있는, 현대 생활무대를 중심삼은 물품을 수송하는 데 보통 항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활용한 문화 관련 책자를 만들어야

이제부터는 <워싱턴 타임스>로 세계적 사건화가 가능해요. 그렇게 선전을 몇 번만 놓고는 세계적인 모든 유명한 책, 문화전집이라고 해서 그림을 넣어 가지고 전부 편성해서 설명해 놓으면 세계를 일관적으로 순식간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책을 읽게 되면 그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사진으로 하면 한두 줄만 봐도 전부 다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몇 개 나라를 중심삼고 몇 장씩은 다 들어간다고요.

그런 책자, 문화전집을 만드는 데 사진을 중심삼고 만들어 놓으면 매회 달라지니만큼 매회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10년 후면 10년 후에 얼마만큼 발전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라고요.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워싱턴 타임스>가 그렇게 하게 되면 유명해지는 거지요. 미국의 문화는 세계적인 것이 사실이니까 전부 다...

구라파면 구라파도 '야, 우리 구라파의 한 지역을 기지의 중심으로 만들자!' 할 수 있는 거라구요. 왜 그것이 필요하나? 이제는 그야말로 하나의 세계가 안 되면 안 된다구요. 인터넷으로 하나의 생활권 내에 들어온 거예요. 시간권 내가 아니라 분권 내에 들어온 거라구요. 앉아서 세계의 어느 나라에 있는 물품도 컴퓨터를 중심삼고 전부 다 주문할 수 있어요. 주문하게 되면 그런 주문을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있다구요.

세계를 하나 만들기 위한 상품 분배 체제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모든 물건을 생활권 내에 가까이 집중시킬 수 있는 이런 계획이 필요해요, 모든 산업분야에 걸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구요. 그러려니까 빨리 수송하려면 어느 나라든지 6대주면 6대주의 기지를 중심삼아서 세계의 생산품을 각 회사들이 쌓아놓아야 되는 거예요. 쌓아 놓았다가 주문만 하면 재까닥 빨리 배달해 주어야 하는 거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 하면 병참기지와 마찬가지로입니다. 모든 사회에 필요한 물건들을 세계적으로 쌓아 놓아야 된다구요. 쌓아 놓는데 혼자 관리할 수 없어요. 쌓아 놓으면 전부 다 상품에 대해 공동관리를 해야 돼요. 남미면 남미 전체의 보호 밑에서 해야 관리되지, 자기네 특정 관리권을 가지고 안 되는 거라구요. 연합적인 관리권 내에 있어서 상품을 보호해서 빠른 시일 내에 비행기라든가 철도라든가 해운을 통해 누가 빨리 갖다 주느냐 이겁니다. 큰 본부가 있는 동시에 50개국이면 50개국을 중심삼은 지부가 전체를 관리해야 되고, 그 지부를 중심삼아 가지고 각 지방에 있는 백화점까지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싸움이 남아 있다구요.

그러니까 세계 시장 판도에서 누가 이걸 하느냐? 그런 목적을 중심 삼아 가지고 세계를 하나 만들고, 하나의 생활권을 만들기 위한 자리에 설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시키면 다 도적질 해 갑니다. 남미 같은 데는 도둑들이 많아요. 없어진다고요. 알겠어요? 우리만이 이걸 할 수 있는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모든 기반을 전체적으로 닦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데 누구를 내세우겠느냐, 누구한테 맡기겠느냐? 6대주면 6대주, 세계를 관리할 수 있는 사상적 그룹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삼은 참사랑의 세계관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밖에 없잖아요? 싫다고 해도 찾아와서 우리한테 맡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 유명한 기지를 우리가 해 가지고, 그런 재료를 가지고 누구든지 국가의 초청을 받아서 강연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 선취권이 문제 되는 거예요. 중요하다고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때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은 모르지만 이미 세계는 하나 안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민족이니 무엇이니 하는 시대는 지나갑니다. 아무리 미국에서 하더라도 벌써 인터넷을 통해 미국의 백화점에 있는 걸 직접 현지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격을 마음대로 받아먹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같은 물건을 저개발국가에 가서 기반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만들어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놀음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세상은 하나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선취적인 기지를 소개할 수 있는 놀음을 지금부터 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인 화면으로 해야 돼요. 글로 하면 누가 안 봐요. 재미있는 러브 스토리를 중심삼고, 관광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삼고 소개하는 거예요. 세계 각국마다 사랑의 새로운 부부가 나와서 서로서로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담아서 사진 기술에 있어서 전문화된 사람들이 다녀 가지고 편집해야 된다고요. 그 러브 스토리 내용을 중심삼아서 가정적 이상의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모든 작품을 많이 내야 된다고요.

<워싱턴 타임스>를 중심한 언론계의 선취권 확보 계획

이제 <워싱턴 타임스>가 돈 벌어야 할 때가 왔다고요. 그래서 요전에 2백만 달러를 모은 얘기를 했는데 그것 알아? 촬영기계 말이야. 그것을 촬영할 수 있는 기자들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예. (주동문 사장)」 우선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 신문사를 중심해서 한 신문사가 세 곳씩 지어서 전부 길러 나갈 수 있게끔, 요원들을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 빠를 것 같다고요. 신문사 있잖아? 6개월이면 6개월 훈련시켜서 자기들 대신 일을 맡기고 이 사람들은 선발대로 딴 나라에 가서 또 가르쳐 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빨리 촬영기술을 중심삼은 취재기자, 촬영기자들을 훈련시켜야 된다고요. 그래야 언론기관에 있어서 선취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언론 기지가 몇 곳인가? 기지가 얼마야? 「스물두 곳입니다.」 거기에 세 곳씩 하면 얼마야? 60개야. 그렇게 해서 현재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식구들을 중심삼고 길러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거야. 알겠어? 「예.」 짝게 해서 그걸 한 번 전시하는 거예요. 일반사회 사람하고 우리 사람을 중심삼아서 촬영을 해서 열 점이면 열 점, 스무 점이면 스무 점씩 신문사에서 전시회를 여는 거예요. 거기서 전문가들이 1등,

2등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전시된 모든 물품은 우리 신문사에 기증하는 거예요. 그것을 슬라이드에 담아요. (녹음이 잠시 끊김) 그거 계획을 정해 봐요. 「예.」 그렇게 뽑는 것이 제일 나아.

지금까지는 제일 좋은 것만 찍으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제일 나쁜 것도 찍는 놀음을 해야 돼요. 반대로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다 살아요.

앞으로 경연대회를 하는데, 사진을 현상해서 전시하기 위해 한 사람이 사진을 얼마씩 내라고 하면 별의별 사진이 나온다고요. 수백 수천 사람이 참가할 것이니, 전부 다 그걸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언제든지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일 빠른 길이 그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우리 20일이면 사진들을 찍잖아? 책임자들 세 사람씩만 빼서 전시회 할 수 있게 해서 전부 다 모아서 평가하는 거라고요. 몇 사람을 중심삼고 데리고 다니면서 하면 자동적으로 키울 수 있다고요. 돈 안 주고 너희들이 잘되면 앞으로 워싱턴 타임스 신문의 촬영기자가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 붙여 놓으면 그 지방의 모든 대회나 이런 일을 할 때 대표적으로 찍게 되면 그것이 장사밑천이 생긴다는 걸 안다고요. 누구든지 생명을 걸고 달려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확대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요전에 2만 달러씩 잡았나, 2만3천 달러씩 잡았나? 「아닙니다. 3만 달러쯤 잡았습니다.」 그랬어? 계산을 중심삼고 <워싱턴 타임스>가... (주동문 사장이 촬영기술에 관해 보고했지만 보고 내용은 녹음상태 불량으로 수록하지 못함)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서 거느릴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앞으로 신문사에 있어서 신문 기사 내용보다도 사진을 가지고 어떻게 기사 내용을 순식간에 볼 수 있게끔 하느냐 이거예요. 절대 그렇게 간다고요. 그걸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전문 분야의 실력은 우리 신문만이 아니에요. 각 분야에 그런 요원들이 그 도시에 널려 있어야 돼요. 거기에 관계된 실력이 있으면 커트

를 해서 얼마든지 신문사 사원 가지고 대기할 수 있는 교육 훈련을 해 놓아야 됩니다. 그런 것은 전시 같은 것을 하면 제일 빠른 것입니다. (주동문 사장 보고 계속)

취미산업 하면 오관으로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하는 것을... 취미산업의 핵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관을 중심삼은 다양한 면에서 느낄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는 것만이 아니에요. 냄새 맡는 것도 보는 것과 같이 느껴야 되고, 먹는 것도 그래야 되고, 듣는 것도 그래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고 계속)

앞으로는 몇 개 회사가 공동으로 새틀라이트(satellite;인공위성)를 만들어야 돼요, 언제나 쓸 수 있게끔. 완전히 쓸 수 있게끔 신문사들이 연합해 가지고 새틀라이트를 가져야 된다고요. 언론계를 중심삼고 연합해 가지고 할 수 있다구요. (보고 계속)

그래, 지금 내가 언론계의 첨단에 가겠다는 것은 그것 때문이라고요. 뭐니뭐니해도, 아무리 나라가 없더라도 이 기준만 가지면 세계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구요. 워싱턴 타임스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세계 모든 나라의 정보까지도 얼마든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걸 사는 거예요. 스파이들을 시켜서 사는 거예요. 돈은 얼마 안 들어간다고요. 그래 가지고 전세계에 발표함으로써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반을 갖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 급할 때는 밀파해서 스파이 공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케이 지 비(KGB;소련국가안보위원회)의 능력은 무시 못 한다구요. (보고 계속)

앞으로는 은행 증권회사에 주력해야

그렇기 때문에 신문사, 학교, 은행, 사상이에요. 누가 종교 사상권 내의 톱(top)을 갖고 있느냐, 사상세계를 누가 평정하느냐, 가치 몰락

시대에 있어서 누가 재건하느냐? 이런 것에 금후에 미국이 주목해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뭐냐 하면 생산공장 가지고는 언제나 변동해 나가는 사회에 있어서 존속하기 힘들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하면 주식회사 형태를 중심삼아서 증권회사, 거기에 우리가 주력해야 됩니다. 우리 세계적 기반이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세계에 팔 수 있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후방 조직이 은행이에요, 은행. 은행만 있으면 전화 한 통으로 영국의 증권 같은 것 몇백만 몇천만 몇억씩 살 수 있고 다 그래요.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그렇다구요. 그 놀음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 인진이 부부도 신문에 나오더니 요즘 상당히 유명해졌더구만. 진성이 딸이에요. 그것이 필요하다구요.

전세계에 있어서 증권, 주식 현상의 동향에 대한 것이 전부 다 30분 이내에 통계적으로 다 들어온다구요. 그게 재미있는 것이, 경제 유통에 그것이 파장으로 전개되어 나가는데 몇 년마다 공식이 들어맞는다는 거라구요. 80퍼센트가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야, 내가 놀랐다고요. 공식이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그 공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첨단공식을 누가 만들 것이고, 그걸 평가해서 공식 형태를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세계적 경제권을 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워싱턴 타임스 신문사를 중심삼고 우리가 직접 1억 달러면 1억 달러, 2억 달러면 2억 달러, 3억 달러면 3억 달러를 보장해서 신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닦느냐 이거예요. 그게 큰 문제라구요. 신문사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신문사를 만들 때는 그 지방의 신문과 은행과 짜 가지고 재벌을 중심삼고 연합해서 신문사를 만들어야 돼요. 은행을 끼고 만드는 거라구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지방의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은행하고 신문사를 가지면 다 할 수 있다구요. 안 그래요? 거

기에 대학까지 연결되면 완전히 소화할 수 있는 거라구요. 이제 내가 주력하는 것은 신문사입니다.

신문사 다음에는 은행이에요. 증권회사라구요. 미국에서 그걸 해야 돼요. 몇천만 달러 가지고 손해나더라도 거기까지 가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손해나게 되면 10년, 20년 후에는 왕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한국에 우리 은행이 필요해요? 은행은 문제없어요. 데이터가 다 나온다구요. 은행 평가를 전문가들 중심삼아서 총평을 해 가지고 협력단체를 만들고, 보고하게 되면 어떤 곳에 있어도 앉아서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은행세계의 정보를 누가 전부 관리하느냐는 문제에 있어서, 이게 딱 올라가게 되면 은행가의 증권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계가 절대 필요한 거예요. 정보 싸움이에요. 거기에서 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텔레비전 회사를 놓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미국에서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6대주에 기반을 만들어야 살아남아요. 시 아이 에이(CIA;미국중앙정보국)가 손을 못 댈다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큰일난다구요.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구요. 역사 과정에 굴러가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함정을 막기 위해서는 그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은행과 증권사업을 하려면 신문사가 필요해

1년에 우리가 10억 달러를 쓰게 된다면 30억 달러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세계에서 싸움을 한다구요. 3배 이상 해야 된다고요. 그러한 유통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날 전세계에 축복해 줬는데 그 축복받은 가정 식구들이 은행에 전부 예금을 하잖아요? 한국에 1천만 명만 딱 해 놓으면 어느

은행에 가더라도 왔다갔다하면서 은행을 망치는 일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가 왔다고요. 그런 기준을 못 가지게 된다면 6대주의 모든 약소국이 연합해 가지고 전체를 평가해서 은행을 움직여서 돈을 얼마든지 모을 수 있다고요.

여기도 앞으로 신문사에서 그걸 해야 돼요. 증권사업을 은행과 더불어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국가를 움직이는 정보를 말이에요, 시 아이에이의 비밀 정보 같은 것을 먼저 거둬들일 수 있거든요. 은행은 그걸 못 한다고요.

맨 처음에는 크게 할 필요 없어요. 1천만 달러 하고 2천만 달러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돈 없더라도 말이에요. 이래서 신문사 비용을 전부 다 메워 나가야 돼요. 이제 그럴 단계에 들어왔다고요. 이제 워싱턴 타임스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 점점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공개회사가 될 수 있게끔 전부 평가해서 신문사부터 공개해서 은행을 끼어야 되는 거예요. 은행에 주를 팔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다른 데보다도, 장사꾼보다도. 은행을 가지고 하게 되면 만약에 30퍼센트면 30퍼센트의 배 이상 끌어대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70퍼센트가 워싱턴 타임스의 재산이에요. 그런 조건만 하게 되면 전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몇 번만 주문해서 활용해서 얼마든지 신문사에서 쓸 수 있는 돈을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적자 안 낼 수 있는 선만 넘어가는 실력 기반만 있으면 세계 어디든지 신문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 증권회사를 내가 만들려고 그러합니다. 고마운 것이, ‘내가 돈이 한 1억만 있으면 배까지도 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문가한테 돈 쥐서 하는 거예요. 은행 이자가 13퍼센트인데 예금한

배만 벌어라 이거예요. 그건 문제없다는 거지요. 재산을 그 배로, 백 퍼센트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를 각주에... 많은 돈이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에 사무실 하나 딱 해 놓고 하는 거라구요. 신문사도 있잖아요? 사무소를 설치해 놓고 은행과 관계를 해서 이 높음을 하려고 그래요. 50개 주에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문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돈만 처넣는다고 할지 모르지만, 아니예요. 돈 처넣을 필요 없대구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몇 개 주만 딱 해 놓고 그 위에 재벌들, 은행가들을 부르는 거예요. 주마다 만들어 놓고 '야, 너 돈 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손해 안 나잖아요? 자기 권위를 가지고, 신문사 이름을 가지고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라구요. 30퍼센트 50퍼센트 해서 말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전부 다 계약을 하는 거예요. 네가 51퍼센트 필요하게 되면 51퍼센트를 우리가 양도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만 바뀌 치우면 되는 거 아니예요? 1년 쯤 주인 노릇하게 해준다고 계약을 하고 하는 거예요. 1년 뒤면 또 넘어오는 거다 이거예요. 이래 가지고 지방의 유지를 은행가면 은행가라든가 정치가면 정치가라든가 돈 있는 사람들을 중심삼고 이래 가지고 기반을 닦자는 거라구요.

그래, 브리지포트는 브리지포트만 생각하지? 그것 하나 발전시키겠다고 말이에요. 거기에 은행이 끼어야 돼요. 학교에서 전문가들을 빼라구요. 「예. 한국 교수들이 지금...」 한국 교수보다도 세계적으로 각국의 교수들을 중심삼고 이동하게 되면... 이걸 뭐 전부 대 해놓고 어디서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증권사업의 방향

증권은 세계적으로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은 그렇잖아요? 증권에 대해서 수익을 올리는 건 세금 안 내잖아요? 어떻게 돼

있나, 미국은? 「그렇습니다.」 레벨이 올라가는 것이 빈번하니까 그거 어떻게 받나? 「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소득이 1년 열두 달 뒤 일주일이라도 왔다갔다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1년에 전부 다 보고하게 되어 있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보고하게 돼 있는데, 일주일 증권을 사 봤는데 이익 이날지 손해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크게 간판 붙이지 않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있잖아요? 식구들을 중심삼고 연합해 가지고 얼마씩 하는 거예요. 많이 필요 없어요. 10만 달러씩만 나눠 주게 되면 1억이면 얼마예요? 10만 명이에요, 1억 달러면. 알겠어요? 1만 명의 10배라구요. 그런 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구요. 딱 지령만 하면 전부 다 한꺼번에 사는 거예요. 이걸 점령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우리 본부가 있어야 됩니다.

한국이면 한국은행이 지불 보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만약에 10만 달러에 대해서 20배면 20배, 2백만 달러에 대한 지불 보장을 손해나더라도 한다고 딱 얘기하면 완전히 증권세계는 점령할 수 있다고요. 몇십만 몇백만만 되어 보라구요. 아시아의 모든 증권가를 높였다 낮추었다 하루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라!’ 하면 하루에 다 사거든. 올라가지요. 쑥 올라갈 때 ‘팔자!’ 해서 파는 거예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이게 머리 싸움이에요. 어떻게 은행을 하나 만드느냐 이거예요. 한국에 가서 생각한 게 그래요. 이놈의 자식들, 은행들을 마음대로 한다고 말이에요, 증권회사 허가를 제일 안 내 준다고요. 전부 다 알아봤어요. 거기에 우리가 머리를 써야 됩니다. 홍콩을 중심삼아 가지고 아시아의 증권회사들이 모여 있거든요. 거기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 어느 루트의 증권회사를 통한 국제적인 증권의 판매고가 제일 우수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은행들이나 모든 돈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회사에 가입하려고 그런다고요. 증권을 사려고 그런다고요. 그래

서 돈을 모아서 증권회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은행의 몇 사람을 이렇게 해 놓으면 몇 달 후에, 1년이면 4개월씩 이익이 나면 전부 신문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가에 전부 소문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1년에 쓰는 돈이 4천만 원 쓴다고 말이에요. 전부 다 통계를 내면 나온다구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려지지요. 이제 보니까 선생님 이름을 팔아서 대통령을 만나고 장관들을 앉아서 방문하게 다 만들었다구요. 그러려면 사업을 해야 돼요.

우루과이 항구 개발사업에 대한 일화

그래서 땅을 사 가지고 구라파에서 두 번째 가는 항구 개발회사하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하는 데는 구라파하고 미국과 나프타(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를 중심한 북미하고 빼앗기 싸움이 벌어졌다구요. 딱 중간에 들어가 가지고 말이에요. 구라파 은행을 중심삼고, 국제은행을 중심삼고 ‘돈은 네가 대라!’ 한 거예요. 그래서 돈 안 대고 빌려 써서 지금 개발하고 있다구요. 사업한다는 건 품목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품목이 좋으면 서로가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약해 놓으니까 대통령이 놀라자빠진 거예요. 통일교회 은행이 부도나서 작살이 나 가지고 없어진 줄 알았는데 정부와 합해서 살리자고 한 거예요. 폐쇄한 은행을 인수해 가지고 합하니까, 은행을 합치니까 제일 가는 은행이 되어 버렸어요. 현재 대통령을 출마시킬 수 있는 그 제도를 소개하니까 우리와 묶어져서... 여당 야당, 공산당 중간파까지 우리를 찾아오게 돼 있다구요. 가만히 있더라도 찾아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계획을 딱 잡아 놓으니까 국가도 못 하는 것을 언제 다 계획했느냐고 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번에 순회할 때 가서 아무것도

실적 없는 우리 회사에서 계약하는 조건으로 벌써 돈 현금 얼마 얼마 구라파 은행이 책임진다는 사인을 다 시킨 것을 보고 놀라자빠진 거예요. 갔다 와서 자기들 힘 가지고 아무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 레버런 문하고 합해 가지고 말이에요. 자기들 내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냈더구만. 그리고 있더라구요. 그래, 해라 이거예요. 이제는 뭐 야당 여당을 교육할 수 있는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자르딘을 중심삼고 33개 도시에서 국가 대표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우루과이도 교육하자 이거예요. 교육해야 된다고요. 야당 여당 싸우는 패가 없이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미국도 그래요. 절대 팔려 다니지 말라고요. 중간에서 민주당하고도 잘 친하라고요. 그 책임자들을 불러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나라의 이익을 취해야 될 텐데, 당들이 당의 이익을 취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문사는 국가 이익을 취하는 공정한 입장에서 국가에 이익 될 수 있는 일에 있어서 야당이 잘못하면 들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번에 뭘 한다고 해놓고 하는 것입니다. 야당 여당에 알려주고 하는 거라고요.

우루과이에서 한푼도 돈을 쓰지 말라고 했어요. 4년 동안 한푼도 안 썼어요. 자기 멋대로 자기 밀감 안 주고도 고기 잡겠다고 생각하니까 말이에요, 돈 안 주니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외국인 입장에서 현찰 가지고서 하는데... 자기 국가 돈이 아니에요. 외곽적으로 전부 풀려 나가니 자기들이 꿈무니에 달려서 미안하다고, 협조하겠다고 달라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습관 정책은 폐쇄해 버려라 이겁니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믿는다고요.

몇 시야, 몇 시? 내일 어머니가 올 때 만나러 가야겠지? 「예.」 *

원화도를 세계화하라

(앞부분 녹음상태 불량으로 수록하지 못함) 앞으로 없으면 부모들이 와서 교육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아요. 부모들이 그 자격이 있으면 어머니들까지 교육하게 하는 거예요. (보고)

영·육계 미지의 사실을 하나님이 보는 관에서 발표한 것이 원리

앞으로 축복가정들을 브리지포트에 초대를 많이 해요. 순회코스를 만들어 주면 좋아요. 될 수 있는 대로 2세들은 탄 데 가지 말고 가게 해야 돼요. 교포들하고 일본 사람들도 말이에요. 그리고 졸업생을 중심 삼고 중앙의 교회나 모든 단체를 연결해서 방문시킬 수 있게 해요. 배경을 넓혀 나가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유 티 에스(UTS;미국통일신학대학원) 졸업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진경희)」 교회에서도 협조해야 된다고요. 명단을 받아서 한 번씩 방문하는 거예요. (보고)

이제 대학에서 해야 할 것이 뭐냐? 우리가 가정적 메시아인데 청년

1999년 4월 12일(月), 이스트 가든.

* 이 말씀의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들을 메시아의 대표로 세워야 돼요. 메시아의 이름을 줘야 돼요. 참부모의 참된 자녀 이름을 주는 거예요.

「앞으로 뉴이즘에 기반을 맞추어서 활용을 하면…」 통일교회 교리가 아니에요. 통일교회 원리예요. 디바인 프린스플은 원리라는 거예요. 천주의 원리라는 것을 얘기해야 된다고요.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교파니 종교 원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주의 원리원칙, 영계의 육계의 지금까지 미지의 사실을 하나님은 보는 관에서 발표한 것이 디바인 프린스플이에요. 그러니 ‘당신들이 들어 보고 알아보지도 않고 평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신문기자를 브리지포트에 불러다가, 거기에도 신문학과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주동하는 거예요. 불러다가 안팎으로 발표해야 돼요. 그걸 따 버려야 된다고요.

원화도는 영계에서 가르쳐 준 무도

그 운동을 이제 브리지포트에서 해야 된다고요. 마셜 아츠(martial arts; 세계평화무도인연합)의 모든 세계 도장에서 그 놀음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권위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마셜 아츠 교육받는 사람들에게 훈독회까지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서둘러야 돼요. 그러면 검은 세계에서 힘쓰는 사람들이 달려들어 온다고요. 3분의 1은 빼놔야 검은 세계를 해체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대학에서 학위를 주는 데는 단수를 따라서 주는 거예요. 단수에 따라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의 선생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취직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학위를 국가가 부여해 줘야 돼요. 이래 놓으면 완전히 세계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시에 학교가 있으면 학교의 마셜 아츠 도장을 중심삼고 학생들을 배치해서 코너 코너에 악한 패들이 없게끔 격리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학교 주변을 정비하는 거예요. 청소년시대에 전부 거기로 떨어져 나가거든. 도장에서 훈련하여 힘을 기르게 되면 도시에 나가는 거예요. 도시가 시험 무대가 돼요. 강탈도 하고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중심삼아서 선생님들이 매일같이 코너를 지킬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딱딱이 있잖아요? 딱딱이를 가지고 한 시간마다 딱딱 하면서 순회사로서 불을 켜고 다니는 거예요. 호루라기는 너무 자극적이니까 안 돼요. 좋은 소리가 나는 피리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소리 같은 소리를 내면서 순회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잠 자면서 꿈 가운데서도 좋은 인상을 받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에 희망적인 소리가 들려온다.’ 이럴 수 있게 해야 돼요. 이런 생각할 수 있는 높음을 해야 된다고요.

도시의 거리거리마다 코너가 있다고요. 열 사람씩만 있으면 교대하면서 왔다갔다할 수 있어요. 여기서 두 거리, 두 거리를 왔다갔다 교체하면서 하는 거예요. 한 코너에 열 명씩 한 팀이 된다면 두 곳으로 활성화하면 다섯 사람이 움직일 수 있고, 교체하면 열 사람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훈련이에요. 그리고 밤에는 혼독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드니까 교장 선생을 만나서 ‘아이구, 안 되겠습니다. 혼독회하고 힘으로써 이것을 컨트롤하지 하지 않으면 학교 교풍을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변에 학교 전체가 혼독회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말을 알겠어요? 「예,」 앞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

앞으로 마셜 아츠를 가지고 안 된다고요. 원화도를 해야 돼요. 원화도를 못 당한다고요. 태권도 4단인 사람이 원화도를 6개월 한 사람을 못 당해요.

힘을 던져 버리면 거두는 것이 없어요. 원화도는 안 그래요. 치는 데도 이렇게 치는 것보다 여기서 내려치는 거예요. 치게 되면 여기서

부터 돌아서 치니 얼마나 강하게 돼요? 강하게 친 그 힘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치면 이것이 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마라톤, 뿔 때도 이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이러면 절대 지치지 않아요. 호흡운동을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니 에너지가 얼마나 소모돼요? 이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영계에서 다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화랑도가 문제 아니라고요. 학교를 세우기 전에 내가 얘기를 안 해요. 원화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요전에 한마디 얘기했지만, 원화도가 무엇인가에 대해 말만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학교에서 실험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와 실험해서 학술적인 논리를 세워 세계화해야 된다고요. 그걸 세계화하면서 화랑도 사상과 마찬가지로 하는 거예요.

신라의 화랑도도 우리 시조 할아버지와 관계돼 있더구만. 레버런 문이 그런 조상의 공적이 있어서 이런 무술을 만든 거예요. 우리 교회 무술이 필요해요. 보신술을 통해 군대 형태로써 1년 2년 훈련시킬 수 있어요. 군대에 가면 그것을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교육하지요? 군대에서 교육하는 거와 같이 1년씩 정기교육을 시켜 놓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수한 사람들은 지방의 장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악당들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서둘러야 돼요.

원화도를 활성화하는 방법

빨리 브리지포트 대학에 그걸 준비해야 돼요. 사범대학을 졸업하면 중고등학교 선생 자격증을 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급수에 따라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공인을 받으면, 몇 단 이상 되면 도장을 못 하게 해야 돼요. 도장을 하지 말고 취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도장이 정비돼요. 도장들이 꽤거리 되어서 도장 격파운동을 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도장도 몇 단 이상 된 사람들을 공인해서 내세우는 거예요. 시면 시, 주면 주 전체의 기준에 맞게끔 그런 사람들이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술개 새끼들, 마피아들, 주먹 세계 사람들도 데려다가 교육하는 거예요. 교육장에 들어오게 해서 현장에서 때려눕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할 수 없어요. 마피아가 숨어서 살 수 있어요? 서둘러야 돼요.

악마가 최후에는 육체 파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가라테(からて; 일본 특유의 권법) 같은 것은 몸뚱이로 사랑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런 간나 자식들이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운동하고 예술 하는 사람들을 정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셜 아츠 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철저해야 돼요. 축복받아서 자기 성생활에 모범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권위가 서면 그 기준에서 전부 교육할 수 있는 거라구요. 그래서 서둘러야 돼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알겠습니다.」

「마셜 아츠에 대해 예상보다도 훨씬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을 중심삼고 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북미면 북미, 남미면 남미 주면 주, 동서남북에 4개의 클럽을 만들어 이름을 달리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지도요원들이 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예요. 동서남북을 전부 같이 가르쳐 줘야 싸움 안 해요. 추천해서 3년이면 3년을 책임진 지도자들은 동서남북의 마셜 아츠를 책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발전한다고요. 한 곳에서 관리하면 안 돼요. 서로 경쟁할 수 있게 해야 발전해요.

*내가 알고 있어. 네 집은 유비(UB)라구.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모임이 있을 때 닥터 진한테 말을 하라구! 알겠어? 「예.」 네가 따라가야 된다고.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 「아버님, 특별히 유 티 에스(UTS)가 혼독회의 전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성공적입니다.」 유 티 에스뿐만 아니라 세계, 영계까지도 혼독회를 해야 된다고요. 「오늘 아침에 혼독회를 했는데, 그 뜻을 40~50

퍼센트밖에 이해를 못 했지만 그 분위기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목을 빼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세계 대학연맹에서 말씀을 연구하게 하라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제별 정선 열두 권 가운데 들어가 있지만, 말씀집 300권 가운데서 발췌해서 50년 전부터 쪽 체계적으로 말씀한 내용이 말이에요, 전부 다... 그거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섭리가 있고, 과정이 어떻고, 선생님이 어떻게 말씀해 왔는가를 전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옛날의 심정기준이 오늘날보다 오히려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이 지금의 영계보다 더 심각했다구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 티 에스에서 말씀연구소를...」 지금 그것은 브리지포트에서 전부 다 하고 있다구요. 그리고 선문대학에서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문대학에서 그런 것을 안 하면 안 된 다구요. 유 티 에스와 브리지포트가 공동으로 연구한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발표는 유 티 에스이 아니라 선문대학에서 해야 됩니다. 유 티 에스는 전통이 없잖아요? 아무 것도 없어요.

통일과학이라면 뭐니뭐니해도 한국이지요? 통일교회의 창립 이전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흘러가 버렸습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어떻게 찾느냐? 이번에 돌아가면 그것을 정식으로 발표해야 돼요. 선생님을 몰라요, 모두 다. 지금까지 선생님을 참부모라고 했지만 부모님이 뭘 하고 있는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두 다 관심이 없었지요? 그러한 역사를 대표한 발표가 나올 때까지 이것은... 어제 여기서 발표한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구요. 영계와 더불어 보조를 맞추기 때문에 천주적이예요, 천주적.

그러한 연구를 하라구요, 연구! 브리지포트와 선문대학이 연계해서

세계적인 대학연맹이 연구를 하게 해야 됩니다. 종합적인 내용을 하나로 수습하지 않으면 큰일납니다. 빨리 하라구요! 일년에 두세 번 연구한 것을 토론해서 전통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을 묶는 것은 역시 전문대학을 중심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들은 원본이 아니지요? 원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을 전문대학에 비치해 놓고 전부 다 복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상식적인 조직체제입니다.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한국의 모든 풍조를 모르면 정신적인 역사성을 완성시켜서 새로운 세계를 위한 전통을 세울 수 없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왔다갔다하지 않습니다. 외부로부터 932회의 침략을 받았지만, 그것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나왔던 그대로 된 것입니다. 일본이 어떻게 되어서 망하고, 미국이라든가 소련도 망할 것이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다구요. 예언대로 되어 가기 때문에 말이에요.

선생님도 그렇지요? 40년 동안에 광야노정을 통과한 다음에 지상천국을 건설해야 됩니다. 이것을 지상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영계에 가가지고 큰일난다구요. 낙원 같은 중간 영계와 남아 있는 지옥을 해결하지 않으면 지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부모가 지상과 영계를 해결해 주어야 되는 거라구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발표하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도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 가지고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돌지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말이에요. 이게 90도가 되면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이 기준이면 사탄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되면, 그것이 가능하구요. 60억 인류 가운데 절반인 30억 이상만 축복을 받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아이들이 죽어서 영계에 가면 거기서 성장한다구요. 그래서 16세 이상이 되면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축복시켜 주어서 해방하는 거예요. 거기서 역사적인 잘못을 해방하지 않으면 현실 세계에 있어서도 해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부터 일어로 말씀하심)
(이후 말씀은 녹음이 안 됨) *

교육과 실력

「6월 4일에 2세 졸업생들을 모이라는 공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연장해서 토요일로 해주시면 더 많이 참석할 것 같습니다. (박중현)」 뭘 그래? 마음대로 연장해? 안 오면 말지. 안 오는 사람들을 표준 하는 거야? 제멋대로 하고 있어. 선생님 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어? 연장해 달라는 소리를 하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요청은 무슨 요청이야? 결정해서 하는데. 정신이 나갔어. 「죄송합니다.» 상식이 미치지 못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 절대신앙이 뭐야? 복귀의 길이 자기들을 봐 가면서 가는 거야? 이놈의 자식들! 6월 4일이면 사탄 수야, 전부 사탄 수야. 14일과 16일, 사탄의 고개를 넘어가는 거야. (녹음이 잠시 끊김)

‘오! 인천’ 영화와 맥아더 장군

*본격적으로 유엔 작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자들은 모두 다 이쪽으로 오게 됩니까?」 그래. 전부 이동이에요. 전부 이동이라구요. (*부터 일어로 말씀하심)

1999년 4월 13(火). 이스트 가든.

* 이 말씀의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오늘 바람이 조금 있고 오후에는 천둥 치고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천둥이 치든 비가 오든 내가 관여해? 그런 고기는 처음 봤다. (남시에 대한 대화) (참어머님의 미국 ‘참가정 세계화 전진대회’에 대한 각 교구장의 보고)

「맥아더 장군의 부인이 지금 백 세인데 살아 있습니다. 지금 월돌프 아스토리아 호텔에 있습니다. 어머님이 바쁘신 중에 가셨습니다. 거기의 관장이 코널 출신인데 ‘오, 인천!’ 영화를 봐드립니다. 보고서 아버님 어머님을 잘 알고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스토리를 압니다. (양창식 워싱턴 교구장) 맥아더 회관을 중심삼고 부인하고 딸이 있잖아요? 원래 우리가 레이건 대통령하고 맥아더 장군의 장학회를 만들어 회장으로 두 딸을 세우려고 했는데, 맥아더의 딸이 반대했다구요. 이제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청소년을 중심삼은 장학회 기금을 주면서 ‘오, 인천!’ 영화를 전적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미국의 중고등학교 대학교의 교재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생각중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이제는 찍힐 수 없어요. 그때는 공산당이 ‘와와’ 하고, 가는 데마다 극장을 파괴하겠다고 그래서 중지했지만. ‘오, 인천!’을 다시 잘 만들어야 돼요. 참관해서 전문위원을 중심삼아 스토리를 잘 짜야 돼요. 한국 배우 중에 추녀가 들어가 있어요. 배우도 다시 찍어 넣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관여해도 괜찮아요.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해도 좋을 거예요. 그 영화를 만들 때 7천만 달러의 현찰이 들어갔어요.

역사가 지났으니 내가 좀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보기만 하고 내버려둔 거예요. 그리고 공산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시사회를 몇 군데 하니까 극장을 파괴한다고 그랬어요. 한참 싸울 때거든.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맥아더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돼요. 영웅으로 만들어서 서구사회와 아시아인들을 중심삼아 가지고 군인들이 협조하고 청소년들이 협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서양과 동양이 교류될 수 있는 교량

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맥아더의 공훈이 컸다는 거예요. 이것을 중심 삼고 군대하고 청소년을 연결시킬 수 있다구요. 그게 크대구요. 그러면 ‘오, 인천!’을 중심삼고 미국과 아시아의 정신 지도자로서 부각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의논해서 그 배후를 좀 조정해요. 맥아더의 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오, 인천!’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더라도 고맙게 생각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미국이 젊은이들이라든가 군대라든가 아시아의 젊은 대학생이라든가 군대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정해 놓으면 정부관계에서 미국의 외무부를 통해 국가적 작전으로 전개시킬 수 있다고 본다구요.

다시 감정해서 하는 거예요. 너무 공산당을 공격한 것이 문제 되는데 그걸 어떻게 좀 완화시키느냐 이거예요. 완화시킨다면 전부 다시 찍어야 된대구요. 다시 찍어서라도 그 내용을 지금 시사에 맞게끔 해서 러브스토리를 넣고 군대와 청소년들을 지도할 수 있는 정신적 지주로서 맥아더를 선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맥아더 일가의 영웅이 되고 일가의 자랑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맥아더 재단에서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코치대로 발표해야 돼요.

청년연합을 중심삼고 맥아더 장군과 레이건 대통령의 장학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반대했어요. 이제라도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맥아더 가문에서 이 영화를 이런 면에서 써 주면 좋겠다고 한마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 루트를 통해서 세계의 청년 정신지도자로서 등장시키는 거예요. 군대라든가 청소년들이 맥아더의 역사를 알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맥아더 일가의 자랑이 되지요. (맥아더 장군의 일화에 대한 보고) (대학활동에 대한 보스턴 교구장의 보고)

순결사랑 데모를 하라

이제는 학생 데모해야 돼요. 순결사랑 데모예요. 참가정 데모예요. 데모하라고 했는데 데모를 안 해요. 한 곳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계속해서 120곳에서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도시에서 하라는 거예요. 가정까지 마을까지 하라는 거예요. 흥내만 내고 있어요. 타고 들어갈 생각을 해야 돼요. 전투가 벌어지면 본부를 점령하는 것이 문제라구요.

지금까지 미국을 내가 지원했는데 미국 자체가 지원해야 돼요. 주동문은 <워싱턴 타임스>에 주력해요. 어떻게 빨리 <워싱턴 타임스>를 끌어올리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걸 위해서는 전 미국 식구들이 부수를 올리는 문제, 광고모금 문제에 전념해야 돼요. 특별지를 해서 안 하는 것보다도 나오면 돼요. 신문사에 돈이 안 들어와도 교회나 관계된 단체가 전면적으로 확대돼 가는 거예요. 샘물의 파이프는 하나지만 갈라져서 동네에 전부 들어가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요. 마찬가지로 물인데 파이프를 갈라놓으면 전체가 먹고사는 거예요.

장사가 별거 아니라고요.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장사를 잘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을 많이 개척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신문도 그래요. 축복받은 가정들, 통일교회 책임자들이 멍청이에요. 세상을 모른다고 분다구요. 앞으로 언론기관이 얼마나 중요한데, 자기 도시에 <워싱턴 타임스> 주간지를 만들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 앞으로 국가에 내세워도 이익이 못 돼요. 그래서 남미에 보내는 선교사들은 <워싱턴 타임스>에서 언론인을 지도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책임자들도 전부 받아야 된다고요. 언론계를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책임자들은 언론계하고 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교섭할 수 있어요. 마음만 가져서는 안 된다구요. 실력 기반은 아는 것만 갖고 안 돼요. 실적 기반이 필요해요.

<워싱턴 타임스>에 가면 편집국 데스크에 가서 간부들하고 의논할 수 있고 지시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이 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사람을 비판할 줄 알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사를 쓴 내용의 골자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는 주를 어떻게 달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골자를 써놓고 동서남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그 영향권을 중심삼고 써 놓으면 되는 거예요. 볼 줄 알고 파악해서 길을 잡아 쓸 줄 알아야 된다구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전문요원을 써라

지금 사회의 구조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지식, 정보를 중심삼고 최고의 형태를 갖춘 것이 조직 사회단체거든. 국가 정부라구요. 그러면 모든 정보라든가 지성인들이 보는 관을 종합하는 것이 언론계라구요. 그걸 평가하고 가리를 잡아 자기의 활동무대에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하는 그런 경쟁의 무대가 신문사라구요. 전체에 영향 미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연결시키는 지도자가 되면 거기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광고 판매예요. 우리 조직을 중심삼고 그걸 활용 못 해요. <뉴스 월드>를 할 때도 그래요. 도리스 남편을 사장 시켰는데, 우리 요원들이 할 때는 4만 부가 나갔어요. 그걸 손떼 버리니까 몇천 부밖에 안 돼요. 자기가 격려해 주고 집을 찾아다니면서 뜻에 대한 의욕을 불어넣어 주어 3년만 하면 그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다 망쳐 놓았어요.

한국의 <세계일보>도 그래요. 일본 식구들이 와서 고생했는데, 일본 식구들을 중심삼고 교구가 책임지면 지국장을 다 한다구요. 지국장을

다 줬어요. 지국장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줬는데 관심이 없어 다 흘러 버렸어요. 외부 사람들이 일본 식구들을 타고 앉아 기반을 닦아서 우리에게 역으로 호령하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전문요원을 써야 돼요.

신문사도 그래요. 이제부터 전문요원을 써야 돼요. 임자네들도 신학 대학을 나와야 돼요. 언론계에 있으면 언론학과를 나와야 돼요. 2세를 길러야 된다고요. 브리지포트, 알겠어? 「예,」 신문학과 있잖아? 「예, 있습니다.」 3만 명의 후계자가 있으면 주를 중심하고 한 번 방문해야 돼요, 교수들이. 이 교수들이 2백 명? 「1백 명입니다.」 1백 명이면 한 주에 두 명씩 배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근방에 태어난 사람 있잖아요? 제일 가까운 주에 두 사람씩 해서 졸업생과 연합해서 배치하는 거예요.

혼자 외로우면 주의 중심 대학을 중심삼고 하는 거예요. 워싱턴 지역의 대학이나 뉴욕 지역의 대학이 지방 대학을 뜯어 먹는다구요. 그러면 뉴욕권 내에 있는 대학은 브리지포트하고 자매결연을 맺자고 해서 그 학교의 졸업생까지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교수들이 연합해서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교육해서 우리가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 영향 받는 대학, 대학연맹을 중심삼고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정치가, 국회의원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일들을 할 줄 몰라서 자기 중심삼고 그것만 둘러보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중앙의 중심이 되려면 사방으로 균형을 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수십년 전부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아이커스(ICUS; 국제과학통일회의)니 여러 단체를 만든 거예요. 단체들을 만들면서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어요? 욕을 먹더라도 그 고개를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면 ‘좋다!’ 해서 변명할 수 있게 해서 끌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해서 안 된다구요. 준비를 하루 이틀 해 가지고는 안 돼요.

초대교회의 역사가 언제든지 전통적 새로운 것발

지금 선생님이 훈독회 하라는 게 그거예요. 50년 전에 한 얘기는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심각한 얘기를 한 거예요. 체제를 갖춰서 정부의 눈치도 봐야 되고 사회 동향을 가려가면서 얘기한 내용인데, 상당히 적극적인 방법도 많이 가르쳐 줬어요. 그런 것이 남아 있으면 앞으로 얼마나 좋겠어요? 초대교회의 역사가 언제든지 전통적 새로운 것발을 꽃을 수 있는 건데, 그걸 표준해서 잼대를 만들어야 될 텐데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강했겠느냐 이거예요. 세계 투쟁을 각오하고 나선 젊은 부모님의 입장에서 배짱 없으면 밀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은 망한다, 정부는 망해야 된다고 한 거예요. 별의별 말을 다 했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걸 무서워하면 안 돼요. 욕먹는 걸 무서워하면 안 된다구요.

신문사도 아이 아르 에스(IRS; 미국 재무부내국세국)와 싸워도 되잖아요? 요즘에 <워싱턴 타임스>에서 받아 넘겼다면? 「예,」 왜 주를 늦춰? 주를 늦추지 말라는 거야. 「주를 늦춘 것이 아니고 거기는 파트별로 다 갈라져 있는데...」 갈라져 있으면 후신이 있잖아? 거기하고 해야 된다고. 「그게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취재하던 사건에 대한 것을 다시 정비해야 되겠다. 법원 요구다. 인적 구성을 알고 싶은데 당신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사건과 관계없는 것이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 정부에 대한 조사관계를 알고 싶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쪽 늘어놓으면 걸려들어 가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장전술을 하고 간접전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요. 눈앞에 있는 것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세계는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그물을 쳐놓고 잠복해

서 잡자고 하고 있는데, 하늘은 이걸 못 해요. 내가 나서서도 그런 일을 안 하지만 그렇게 하라고도 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친구 돼서 친구 입장에서 움직여 나가야 돼요.

브라질에 가서는 친구가 뭐예요? 친구도 하나 없다 이거예요. 큰일 하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나중에 중앙 경찰에서 습격하지 않았어요? 배짱이 있어야 돼요. 김윤상이 황소 같아서 고집이 있다구요. 성날 때는 들이받아 버린다구요. ‘나는 감옥에 가면 몇 달 들어가지만 너희들은 들어가면 망해 버린다는 것을 알아? 샅샅이 조사하고 있다. 너희들이 뭘 해먹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래?’ 한 거예요. 조사 시키는 거예요.

일본도 그래요. 일본하고 싸울 때는 국세청이 참석했어요. 42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국장 두 녀석이 뭘 해먹었다는 것, 기사내용을 신문에 박아서 카피해서 ‘너희들부터 깨끗이 하고 조사하라, 이놈의 자식들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야?’ 한 거예요. 간부 일곱 명을 불러서 얘기했는데 다 도망갔어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미리 다 조사해 놓은 거예요, 국세청의 누구누구라는 걸 다 알아서. 각 부처의 과장까지 다 조사해 놓아야 돼요. 어디로 간다는 것, 장관이 누구 된다는 것을 조사해 놓아야 돼요.

반대자들에 대적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비밀을 푸는 비밀 호적을 가지고 있다구요. 인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해야 된다고요. <워싱턴 타임스>에서는 그런 조사를 해서 공개 전시를 해요. 여론이 가만 놔두면 ‘어느 부의 국장 몇 사람이 이러이런 면에서 가담했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개해서 한번 전시회 하는 거예요.

<워싱턴 타임스>가 뭘 하느냐?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놀음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부처의 이름이 나오더라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를 모른 것이 아니예요. 국방부 국무부 백악관을 전부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으니 감출 것 없이 공정히 한다고 해서 전시하는 거예요. 백악관 어느 국의 누구누구는—이름은 말하지 않지만 말이에요.—여기에 걸려 있고, 어느 부처의 몇몇 사람은 여기의 조상 대상이다, 거기에 과장급은 몇 사람이고 국장급은 몇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회 전시를 해보라구요. 자기들이 보따리를 싸 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반대파들을 숙청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지요, 소문나기 때문에. 호랑이들도 싸우게 되면 으르렁거리잖아요? 그게 시위예요. 밤에는 불이 켜고 싸운다구요. 밤에 성나면 등불 같아요. 뱀도 적을 만나면 서는 거예요. 거기서 기가 꺾이면 죽어요.

그걸 밀고 나가려면 자기들이 역사적 비밀이라든가 남이 알지 못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시대는 언제나 그 기준에서 평가하지 않아요. 다음 시대에 가게 되면, 때가 오게 되면 한꺼번에 확 전환해야 된다고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대회가 필요해요. 여러분도 이번 대회를 계속해야 돼요. 말단 기성교회를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딴 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환영받을 내용의 말씀을 할 것이다. 통일교회 책임자와 우리 마누라가 와서 할 것이다. 그러니까 레버런 문을 대신해서 너희 교회를 전도하자!’ 하는 거예요. 그 전도도 통일교회의 제2전도예요. 기성교회에 있으래도 안 있어요. 그럴 때가 왔어요.

원리강의를 강화하라

교과 사람들을 몇천 명씩 교육했어요. 수많은 교회가 지금 와서 말

씀을 해달라고 한다구요. 원리강의 하는 숫자에 비례해서 교인이 늘어요. 교인이 늘지 않은 것은 원리강의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본부가 뭐예요? 박중현, 원리강의하고 있어? 거기서 하루에 여섯 번씩 했어요. * 네가 가미야마하고 하루에 여섯 번 원리강의를 했지? 그때 3천 명을 전도했어. 그때 전도한 사람들을 지금도 활용하고 있지? 그런데 왜 강의를 안 해?

훈독회도 자기들만 날마다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구요. 친척이라든가 친구들을 모아서 해야 되는 거라구요. 아침에 오라고 해서 훈독회를 하고 아침을 먹도록 하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기들만 하라고 하지 않았대구요. 이웃을 묶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자기의 아들딸뿐만 아니라 사촌이나 조카들도 있으면 모두 다 부르는 거라구요. ‘와 봐, 좋은 것이 있으니까!’ 해 가지고 불러서 해야 됩니다. (*부터 일어로 말씀하십시오)

여기도 보게 되면 훈독회 한다며 자기들만 왔다갔다하던데 하기는 뭘 해? 그것을 무엇에 써요? 길러서 키가 크면 그들이 저서 열매 없는 잣나무 같아서 쓰러지면 마을의 집 몇 채를 덮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수위가 자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대구요.

윤태근의 말이 맞는 거라구요. 원리강의를 많이 할 때는 가정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찾아가서 하루에 세 번, 다섯 번 해서 한 달에 150 번, 몇 번? 「50번부터 150번까지입니다.」 보통 90회 이상 한 거예요. 그러니 1년에 식구가 2배가 늘어나요. 그게 현실이에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실험해서 결과가 그런데, 이놈의 자식들은 입을 다물고 전도를 안 해요. 그놈의 자식들이 굶어죽지 않은 게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생충 노릇을 해먹었지요.

내가 유협회장을 3년 8개월 동안 하루에 18시간씩 강의시켰어요. 이틀이면 원리강론 전후편이 끝나는 거예요. 매일같이 3년 반을 했어요. 그때 전도한 거예요. 원리 무장을 해야 돼요. 원리를 가르쳐야 된

다구요. 이제는 재림론을 세밀히 할 필요 없어요. 이미 레버런 문이라는 것이 세상에 소문 다 났다구요. 간단히 하면 되는 거예요. 창조원리도 그래요. 가정이상만 풀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책을 건네 주면 돼요. 전체를 이야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강의해야 돼요. 선생님이 혼자 길을 닦은 것이 돈 가지고 한 거예요? 강의해서 그런 거예요. 어머니에게 지금 영향 받고 환영하는 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라구요, 말씀! 효율이도 말씀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처음 안 모양이에요. 그 말씀이 누구나 한 말이에요? 처음 나온 거예요, 역사 이래. 그 말씀을 활용해야지요. 빛을 얻어 서라도 해야 돼요. 돈은 얼마든지 얻어 쓸 수 있는 거예요.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 코스를 거친 사람들에게 책을 갖다 줘 보라는 거예요. 읽고 뭐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인생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똥개새끼들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사지권의 문제, 영생문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어떻게 벗어나요? 이것이 큰 문제 아니에요?

영계가 있다면 그 나라에 맞게끔 지금부터 준비할 것이 필사적인 업무라구요. 그게 주업무예요. 취직, 돈벌이가 문제 아니에요. 돈벌이는 얼마든지 왔다갔다하고, 없다가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절대적이에요. 자기가 책임 못 하면 안 돼요. 누가 해주지를 앓아요.

세계적인 조직을 갖추게 되면 싸움이 있을 수 없어

*가미야마! 「예,」 세일관광의 사장도 왔지? 이름이 뭐라고 했던가? 너 얼굴 보기가 어렵구나! 2년 전에 만났어? 세계일보에서 인사이드가 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얼굴을 보잖아? 「뵙는 것은 부탁을 해서...」 네가 세일관광의 종합적인 방향지시를 해야 되잖아? 책임자가 누구야? 오쓰카야? 「지금 가미야마 선생님이 부사장입니다.」 가미야마는

부사장이라고! 「예!」 아, 보고를 할 수 없으면 가미야마한테라도 보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구. 「후루타 이사장이 그룹의 책임자입니다. 그 위에 오쓰카 회장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야 돼. 후루타 밑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 전체가 회의를 해서 결정하더라도 선생님의 결재를 안 받으면 안 된다구! 국장 한 사람의 인사이동도 선생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구.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못 하잖아? 그게 원리관이라고요, 원리관. 지금부터 아시아의 모든 관광회사들을 하나의 체제로 수습해야 된다구요. 한국에서 헬리콥터 회사를 만들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단히 많은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일본, 한국, 중국의 외무대신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하면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다구요.

비행장에 가는 것도 큰일이라고요. 그렇지요? 그 시간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구요. 그러니까 호텔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한 법을 만들면 도장만 찍으면 된다구요. 그러면 상류층의 사람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헬리콥터라면 시골도 어디든지 갈 수 있다구요. 남미까지 데리고 가면 어디든지 관광할 수 있습니다. 낚시를 가더라도 버스를 타고 비행장까지 가는 것이 큰일입니다. 그런데 헬리콥터는 아무 것도 필요 없습니다. 강가의 모래밭이나, 어디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대단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헬리콥터 착륙장을 만들라고 십 몇 년 전부터 얘기했지요? 벌써 만들어 놓았지요? 그러한 계획으로 준비했습니다. 관광회사는 그러한 것을 생각할 수 없다구요. 일본 안에서 돈을 버는 그러한 일본적인 관광회사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구요. 우리 조직이 있잖아요?

일본 국가 메시아들을 모두 다 이번에 판타날에 배치하기로 했다구요. 국가 메시아는 하나의 국가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 국가의 외무대

신보다 더 중요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세계로 연결할 수 있는 길도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대단하다구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세일관광의 부사장은 6대주로 외교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월급은 무한정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구요. 그러니까 교회의 조직을 중심삼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날아올 수 있게끔 해보라구요. 그러한 국가적인 기준을 넘어가게 되면 수상이나 대통령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조직을 갖추지 못하면 언제든지 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조직을 갖추게 되면 싸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종적인 발전밖에 없다구요. 횡적인 싸움은 없어집니다.

신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알겠습니다.» 머리가 좋으면 알 거라구요. 머리가 나쁘면 모릅니다.

「아버님, 올해의 산업기술에 대해서는 말씀들 들었습니다만…」 아, 그것 때문에 왔잖아? 바카야로(馬鹿やろう)!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번에 다섯 군데 취미관광을 오기 때문에…」 그것은 쪽 50개 주에서 임명하는 거라구, 지금부터 선생님이. 판타날에 기반이 닦이면 일본의 모든 요원들을 판타날에 가서 낚시를 하도록 할 거라구요. 그 낚시하는 사람들을 세계에 모두 다 내보낼 거라구요. 그것이 세계적인 수산업의 기반을 점령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일체의 낚시 도구는 우리가 중간에서 소개하는 거라구요. 지금 관광전시회를 하고 있다구요. 요전에 윤 상(さん)한테 얘기를 하니 까… 저 남자를 대장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구요. 말이 통할지, 안 통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말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상으로 열심히 하라구요. 「예!» 목표는 그렇다구요.

‘선생님은 판타날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계속했다. 더울 때도 쪽

이거 했다.’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알고 있다구요.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구, 이 녀석! 선생님보다 젊기 때문에 선생님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요. 선생님은 팔십이니까 사실 이하의 사람들은 세 배 이상으로 하라고 하더라도 불평할 수 없는 거라구요. 가미야마도 선생님이 바다에 내보내더라도 불평할 수 없잖아? 「예.」 그렇게 하더라도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한 기반이 필요하다구요.

지금 혼동회도 선생님이 제일 열심히 하지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두 권을 읽었다구요. 두 권을 가지고 가서 쉬지 않았습시다. 읽으라구. (*부터 일어로 말씀하심)

경제력, 설득력, 외교력이 있어야

미스터 박은 한국 가겠다고? 「내일 갑니다. 참부모의 날에 참석하기 위해서 갑니다.」 여기도 가나? 「저희들은 여기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 가는 거야, 누가 가는 거야? 「만 사람도 갑니다.」 진박사도 가나?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비행기에 타요. 미스터 윤! 「예.」 두 사람만 더 태워요. 「저는 회의가 있어서 내일 가겠습니다. (박중현)」 그러면 진박사하고 누가 가나? 시카고 교구장은 안 가나? 「다른 교구장들이 갑니다.」 누구? 「지방에 있는 교구장입니다. 여기에 없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사람들이 갔다 와야지.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가자구. 「예.」

내가 시카고의 보고를 듣고 전략을 짜야 되겠어요. 임자들한테 맡겨서는 안 되겠어요. 박상권도 수산사업 하는데 2년 전부터 어물어물 끌어서 내가 전부 해버린 거예요. 나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누굴 믿고 살지 않는 사람이라구요. 못 하면 내가 직접 선두에 서는 거예요. 이제 외교를 해야 돼요. 외교를 못 하는 사람은 탈락이에요.

경제자립, 설득 능력, 외교력이 있어야 돼요. 3대 기반을 갖추지 않

으면 지도자가 못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요. 돈이 필요하면 내가 돈을 만들어요. 박보희 곽정환한테 내가 설득하라고 안 해요. 데려와라 이거예요. 앉아서 사기 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공짜를 바라는 것은 통일교회에서 없애야 돼요. 그건 추풍낙엽같이 다 떨어져야 돼요.

내가 80이 넘어 죽을 때까지 이러다가 죽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을 때는 비행기를 타고 찾아오질 못할 데에 들어가서 한달 동안 고기 잡다가 갈지도 모르지요. 왜 이상하게 봐요? 사내들이 죽는 자리가 무서운 자리예요. 결산을 잘 해야 돼요. 빚지지 말아야 돼요. 다 청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보라구요. 벌써 8년 전부터 통일교회 부도난다고 소문났어요. 이제 9년째 되는구만. 통일교회가 부도 안 났어요. 일본한테도 신세 안 진 거라구요. 별의별 놀음을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도와 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통일교회에서 실적 쌓는데 저서 어떻게 해요? 하늘 앞에 면목을 세울 수 없고, 통일교회 앞에 면목을 세울 수 없고, 역사적 책임, 섭리사적 책임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허송세월 해서 10년 있으며 뭘 했어요?

자르딘도 일본에 돈만 지시했으면 1년 반에 끝내려고 했어요. 1년 9개월 걸렸어요. 1년 9개월 동안 집 한 채도 허가 못 받고 있어요. 그놈의 자식들, 도저히 안 되겠더라구요. 감옥에 들어가면 꺼낸 준다고 하며 모험을 시킨 거라구요. 자르딘을 코치해서 허가 난 내용의 품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름만 쓰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거기 가서 돈을 가지고 사기를 쳤어요, 무엇을 했어요? 자기 아들딸들을 교육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교육하고 있잖아요, 세계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람들을 데려다 교육하고, 중고등학교 만들고 소학교 만들고 유치원 만들고 대학까지 만드는 거예요. 지금 가르치고 있다구요. 누가 반대해요?

‘너희 나라의 교육체제로는 안 된다. 불쌍한 사람들을 살려 주기 위해서 그런다. 생애의 마지막 사업으로써 너희 나라를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싫어? 그렇지 않아도 주변국가들이 서로가 나를 끌어가려고 한다.’ 한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 그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주면 주가 자치제가 돼 있는데 대통령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할 것을 다 했다고요.

사람을 길러라

미국에서 20년 이상 한 것을 1년 반 동안에 다 해치웠어요. 그때 33개국의 780명의 우수한 여자들을 교육시켜 냈다고요. 인원을 보장해서 계속해 나가라 이거예요. 이번에 내려가서 인원을 계속 보장하는 곳에는 대번에 즉각적으로 한꺼번에 다 모일지 몰라요. 모여서 교육시켜야 돼요. 재차 교육시키면 본격적으로 꺾테기를 벗기는 거예요. 허물 벗으면서 뱀도 크잖아요? 개구리도 못 잡아먹던 것이 짐승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 뱀으로 길러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해야 돼요, 교육. 자기들이 교육 못 하면 안 돼요. 앉아서 큰소리를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믿지 않아요. 내가 박보희를 사랑하지만 그 녀석은 사람을 기를 줄 몰라요. 타고 앉아 밤을 새워 가면서 길러야 돼요. 남이 길러놓은 사람을 빼다가 쓰려고 생각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종박에 안 돼요. 역사에서 꺼져 가는 거예요. 자기 수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딸이 장관 되면 그 아버지 어머니는 못살더라도 장관 이상 존경하는 거라고요.

‘통일교회 문선생은 복도 많다. 어떻게 그 휘하에 똑똑한 사람이 많으냐!’ 그러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똑똑해서 들어왔나? 똑똑해졌지. 내일의 싸움은 누가 이기느냐? 오늘의 싸움은 진 것 같지만 1년 후,

10년 후의 싸움은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욱 하겠으면 욱하라는 거예요. 내 갈 길이 바빠요.

지금도 그래요. 일본 사람을 데려다가 교육하고 한국 사람을 데려다가 교육하고, 세계 사람들을 데려다가 40일간 수련시키는데 어디 안 오나 보자 이거예요. 임자도 안 왔지? 「어머님 대회를 마치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양창식)」 빨리 와야 돼요. 언제 거들지 몰라요. 딴 데로 옮겨서 하게 되면 자르던에서 수련받은 사람이 역사에 남아요.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모르지요. 가정교육이에요. 사위기대 교육이에요. 그래서 세계평화이상가정교육본부예요.

일족, 3대 교육까지 끝나야 전통적인 나라의 국민이 생겨나는 거예요. 3대 교육이에요. 하나님이 3대 교육을 못 했다고요. 아들딸까지 네 사람이 오라고 했는데, 두 사람이 와서도 자랑하고 있더라구, 이 쌍것들! 사위기대를 중심삼고 네 사람이 와야 된다고요. 사사절을 중심삼고 1월 8일에는 우주적 사사절을 발표해 버렸어요. 이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손자를 못 가져서, 3대 완성 기반을 못 가져서 탄식권 내에 있던 것인데, 지옥과 천상세계를 완전히 해방하기 위해서 천주적 사사절을 발표했어요.

그 말은 뭐냐?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예요, 영계나 무엇이나.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사탄에게 의논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요. 반대해 보겠으면 해보라는 거예요. 반대해 보라는 그거예요. 싸움 붙으면 내가 안 진다는 거예요. 본래 내가 도매 싸움하던 사람이예요. 그게 제일 재미있더라구요. (녹음이 잠시 끊김)

출세하는 길

출세하는 길이 그거예요. 앉아서 조잘거리는 것보다 뚱한 바위 같아서 팡 해서 자리를 잡으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복 받겠다고 빈다구요.

큰 바위에 비는 사람이 많지, 큰 나무에 비는 사람은 없다구요. 나무는 바람이 불면 부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바위 같은 사상이 필요한 거예요. 워싱턴에도 선생님이 가면 영향이 있어요? 「물론입니다.」 고층 빌딩의 회전의자에 앉아 큰소리하는 녀석들도 앞으로는 무관심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워싱턴 타임스>가 1년에 102번씩 대회했다며? 그거 기록 아니야? 「예.」 그러니 한 주일에 두 번 이상했다니 세계적인 기록이에요. 부처에서 1년 2년씩 준비할 것을 그렇게 해냈으니 도깨비라고 생각하고, 수수께끼의 인물이지요.

공산당은 데모를 했지만 통일교회는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길이 없어요. 40년 전부터 꼭대기들을 모아놓고 대회 하느라고 돈을 많이 썼다구요. 과학자대회라든지 학자대회를 하면 8백~9백 명, 1천2백 명까지 왔으니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천만 달러가 넘더라구요. 그 돈을 누가 벌어들였어요? 많은 돈을 잃어버리지 않았대구요.

자기들이 미국을 가고 소련을 다니고 구라파를 갈 수 있어요? 그 돈을 가졌다면 뭘 해먹다가 죽게 돼 있지, 같은 급의 동력자들과 국가를 넘어 세계적으로 친구 할 수 있는 길은 영영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인 위정자, 최고 인물들을 엮기 위해서 대회를 한 거예요.

과학자대회도 그렇잖아요? 학자의 벽이 얼마나 높아요? 새로운 문화 세계 창조에 전통적인 역사를 혁명했다고 보는 거예요. 전통적 역사와 문화의 전통이라는 것을 혁명에 의해 이룬 사람이에요. 자연히 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어요? (웃으심)

의장단들이 매번 인터뷰 안 하겠다고 하니 쫓아와서 인터뷰하며 나한테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자기들한테 하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첫 번부터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역사적이거든. 그러니 도망을 못 가요. 출장부라면 도망가라 이거예요. 아이커스(ICUS)를 만들어서 절대가치를 중심삼고 대회를 한 거예요.

요. 표제도 내가 정해 주었어. 너희들이 정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존재세계에 상대가치가 있지, 절대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소나무가 있다면 소나무의 조상 뿌리가 돌일 수 없어요. 하나예요. 그래서 매회 절대가치에 대한 책을 냈는데 18년 동안 해서 삼십 몇 권이 쌓여 있어요. 절대가치를 공부하려면 그 책을 보라는 거예요.

뭐 탈이테올로기시대? 탈이테올로기시대라고 해서 벗고 살 수 있어요? 겨울이 오는데 입어야지요. 그러니 영망진창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전부 영망진창이에요. 정부의 힘이 없어지고, 역사적 전통이 없어지고, 가정의 전통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완전히 평준화해서 존재가치를 근절해 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이 필요한 모든 이상 요건을 근절해 버렸어요.

가미야마! *가미야마! 사흘 전에 일본에 가서 외교하라고 했는데, 안 가? 「아버님이 계셔서 쪽 낚시를 하면서 있었습시다만…」 사토상(佐藤さん)과 너한테 전부 다 맡겨 놓고 있잖아? 놀면 안 돼! 날마다 나가야 된다구. 전통이 무너진다고. 책임자 3명을 묶어 주었으니까 토나라도 불러서 하라구. 닥터 짐은 한국에 가고 없기 때문에 네가 책임을 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구. (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약 20분간 대화를 나누심) (*부터 일어로 말씀하심)

「김기훈 씨가 여권이 없어 못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라도 모시고 갈까요?」 내가 데리고 가지 자기가 모시고 가? (웃음) 말을 해도 기분 나쁜 말을 하고 있어! 두 사람은 비자 있어? 「한국은 비자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나 나갈 때 나가면 되잖아? 몇 시야? 「열 시 반입니다.」 열 시 반이야? 그럼 나가야 된다구. *

식량문제 해결과 4억쌍 축복활동

*왜 이렇게 일본 멤버들이 많이 있어? 「사진…」 무슨 사진…? (웃음) ‘사진(寫眞)’을 반대로 하면 ‘신사’가 되어서 젠틀맨을 말하게 된다고요. 그럴 때 한국말을 배워 두라고요. 언제 사진을 찍어요? 내일…? 「오늘…」 오늘…? 오늘 선생님이 시간이 없는데…?

지도자의 책임이 크다

모두 다 젊은이들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이든 사람들도 상당히 많구만! (웃음) 지금 이어폰을 가지고 있어요, 이어폰? 「예.」 그러면 좋겠지요, 모두 다? 선생님을 처음으로 보는 사람들은 없겠지요? (웃음)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십시오)

여기도 간부들이예요? 와콤 패들은 어디 있어요, 와콤? *아, 그 구석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웃음) 와콤은 지금부터 혁신운동을 해야 돼요. 대혁명! 그러한 악랄한 사람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일본 통일교회의 근본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라고요. 지도방침이 틀린 거예요. 원리에 맞지 않게 해 나왔기 때문에 말이에요. 지도자의 책임이 큼니다. 교육

1999년 4월 17일(土), 중앙수련원.

* 이 말씀은 세계 지도자 회의 때 하신 말씀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을 올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생기는 거라구요. 자기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한 습관적인 자기와 원리는 완전히 다른 거라구요. 그것을 맞출 수 있는 원리의 내용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유럽 멤버들, 모두 다 이어폰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런 집회 때 파더는 언제나 한국어로 말씀한다구요. 통역이 필요 없어요. 알겠어요? 「예.」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통일교회 경제 기초를 닦는 중요한 과제

오늘 이제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다구요. 지금까지 우리가 남극 어로 문제를 해결해 놓았는데, 이제 실제로 출어를 해서 곧 여러분 앞에 큰 물량이 배당될 텐데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가 문제라구요. 무책임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생사지권이 걸려 있습니다. 통일교회의 금후 경제 발전의 기초를 닦느냐 못 닦느냐 하는 중요한 과제가 걸려 있다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답하라구, 이 쌍 것들.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선생님 성격 알잖아요? 물으면 답변할 줄 알아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렇게 다 해먹었다구요.

자, 회의도 중요하고 보고도 중요하지만, 이건 특별한 사건입니다. 언제 배 나가나? 「3일에 나갑니다. (박구배 사장)」 어느 3일? 「5월 3일에 나갑니다.」 둘 다? 배가 나가게 되면 하루에 6백 톤씩, 배 한 척에 3백 톤씩을 잡아요, 3백 톤. 3백 톤이면 말이에요, 6톤 트럭으로 하면 오 육은 삼십($5 \times 6 = 30$), 50대예요? 6톤 트럭 50대 분량의 고기가 하루에 잡힌다구요. 6톤 트럭이면 크다구요. 그런 분량의 새우가 잡히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예요. 두 대니까 6백 톤입니다, 6백 톤. 그래서 6톤 트럭으로 1백 대 분량이 잡힌다구요, 매일같이. 그걸 여러분이 전부 소화해야 된다구요.

그거 생각이나 해 봤어요, 얼마나 많은 양인지? 이 사람들을 전부 실어야 몇 톤이나 되겠어요? 새우로 치더라도 전부 몇 톤이나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70킬로그램, 70킬로그램이 못 되지요? 평균 70킬로그램이 되기 힘들다구요. 내가 92킬로그램입니다, 지금. 1백12킬로그램에서 92킬로그램이니까 20킬로그램이 줄었다구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해 가지고. (웃음) 왜 웃어요? 그러니까 평균 70킬로그램 잡으면 될 거라구요.

얼마야, 여기는? 「70킬로그램입니다.» 그렇지. 평균치가 그렇다구. 여기는 얼마야? 「73킬로그램입니다.» 이렇게 키가 큰 사람도 73킬로그램밖에 안 된다구. 박구배는 얼마야? 이렇게 작아? 똥돌이구만. 바다에서 비계진 고기를 쳐먹어서 살찐 모양이지?

그래, 평균 70킬로그램으로 보면 틀림없다구요. 그러면 여기에 전부 다 몇 명입니까? 한 1천2백 명 되겠구만. 그렇게 되겠어요? 1천2백 명이 70킬로그램이면 얼마예요? 「8천4백 킬로그램입니다.» 8.4톤이니까 6톤으로 한 대 반밖에 안 된다구요. 알겠어요? 그러니 1백 트럭이란 게 얼마나 많은지 알겠어요? 「예.»

그것을 여러분 185개국의 국가 메시아들이 분담해 가지고 소화할 양이다 이거예요. 적지요? 적아요, 많아요? 「많습니다.» 많다고 생각하는 게 틀려먹은 것입니다. 적다고 해야 된다구요. 통일천하 하기 위해서는 적지요. 한 달에 정부 하나 살 수 있는 놀음을 하고도 남아야 할 시대가 왔는데 말이에요, 이것도 적다고 해서 그 이상, 한 10배쯤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은 그것을 원해요. 하늘은 그런 걸 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욕심이 없어요. 나는 욕심을 안 배웠어요.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생기를 욕심 없게 생겼지요? 앞으로 보기에선 순한 사람이라구요. 욕심이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래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한 번 지내 봐도 그런 걸 좋아하고, 두 번 지내 봐도 그런 걸 좋아

하고, 열 번 백 번 지내 봐도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배포를 갖게 되었다구요. 그런 배포를 가져야 하나님이 밀어 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뒤도 안 돌봐 준다구요. 안 도와준다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만한 것을 할 때 여기서 백만한 걸 하겠다 생각하면 시작하더라도 쪽- 길을 다 가려 준다는 것입니다. 금년의 목표가 4억쌍 축복 완성입니다. 4억 사람이예요, 4억쌍이예요? 「4억쌍입니다.」 요전에 누가 묻기를 ‘선생님 조금 계산이 틀리지 않습니까?’ 하더라구요. ‘왜 그래?’ 하니까 ‘4억 사람이지요?’ 하길래 ‘그래.’ 했다가구요. 그러니 좋아하더라구요. 그래, 4억 사람이예요, 4억쌍이예요? 「4억 쌍입니다.」 이런 국가 메시아들이라는 작자들이 그러고 있더라구요.

그런 질문을 하는 헛발을 빼 버려야 되겠어요, 꺾구멍을 파 버려야 되겠어요? 말해 보라구요. 눈을 시퍼렇게 해서 들어 가지고, 선생님의 명령을 시험하고 비웃는 말로 들었더라도, 목을 쳐버리더라도 변명할 수 없는 입장이라구요. ‘4억 사람이지요?’ 묻길래 ‘그래.’ 했다가구요. 답변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답변을 잘못했지요. 그러면 하늘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하겠어요, 묻는 그 자식에게 잘못했다고 하겠어요? 여러분도 4억 사람이면 좋겠지요? 하나님에게 물어 보면 40억, 4백억쌍이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다 해 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배포가 있고, 그런 역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참부모가 바라시는 책임자

대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입니다. 태양계를 보더라도 9개 위성을 중심 삼아 가지고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커요? 이런 태양계가 1천억 개가 들어가 있는 대우주라는 거예요. 1천억 개예요. 1천 개가 아닙니다. 1천억 개가 들어가 있는 대우주인데, 그 대우주를 전부 다 손

금 보듯이 만들어 가지고 조정하는 하나님이 능력의 왕이에요, 무능력의 왕이에요? 「능력의 왕입니다.」

그래, 크릴새우를 하루에 6백 톤을 잡는데 그게 많아요? 하나님은 몇십만 톤을 잡고 싶을 거라구요. 그랬다가는 고기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질 않지요. 그렇게 하려면 만들어 내서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구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일 텐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무슨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고 해요, 중간 낚치기의 아들이 되겠다고 해요, 사탄의 아들딸이 되겠다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겠다면서 4억쌍이 많다고 생각해요?

4억 하게 되면 눈만 빼놓더라도 이 방으로 몇 개나 되겠어요? 이 방으로 열 개는 된다고요. 눈만 빼서 쌓아 놓더라도 이런 방 10개에 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 굉장한 거라구요. 선생님은 그렇게 해 놓고도 잠도 잘 자고, 걱정도 안 하고 있어요. 누굴 보고? 이 훌륭한 병사들을 바라보고. (웃음) 훌륭한 병사예요, 무슨 병사예요? 「훌륭한 병사입니다.」 훌륭한 병사? 이 쌍놈의 자식들, 그따위 놀음 하기 때문에 내가 욕이 늘었다구요. 욕을 안 하면 소화가 안 된다고요. 소화 안 되게 할 수 있는 패들 아니에요, 이거? 똥에 썩먹겠어요? 알겠어요?

무용지물로서 모였으니 천대하든, 무엇을 하든, 꺾데기를 벗기든 해서 전부 다 유용지물로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결심을 해야 할 이 시간이라는 것을 선언한다구요.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 보라구요. 「아멘.」 손 들라고 하니까 아멘은 또 뭐야? 앞에서 손을 들라고 하는데 ‘아멘’ 하는 것은 뒷동산에서 포를 쏘는 격이라구요. 손 들어 봐요!

자, 통일교회에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여야 되겠어요, 이리 고르고 저리 고르고 해서 나쁜 짓을 하면 잘라 버리는 지도자여야 되겠어요? 쓸 만한 것도 3분의 1은 잘라 버리는데, 거기서 살아서 기어올라오게

되면 써먹을 수 있는 이런 책임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36가정 이름도 다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황환채를 알지만, ‘황환채가 누구고 어디서 살던 사람인가?’ 이렇게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사진을 보고도 이름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못 한 게 너무 많아요. 저 녀석한테는 내가 미국에 가면서 협회 규약을 만들고 회사를 주관하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도 안 해 가지고… 그러니까 병나야지. 어디 갔어? 아까 얼굴이 보이던데 숨었나?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어.

다 쓸데없는 패들이라구요. 쓸데없는 패들이니까 오늘 회의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쓸데없는 패들을 데리고 회의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두들겨 패 가지고 전부 다 기합 줘야 되겠어요? 군대의 기합 주는 식 있지요? 이걸 윤관장, 윤태근이 시키면 잘 할 거라구. 한번 해 봐라. 내가 기합을 주라면 한번 줄 거야? 방망이를 갖다가 10개가 부러지도록 들이 패라 이거야. 명령하면 하겠나 말이야. 「해야지요, 아버님. (윤태근)」 옆에 있는 사람은 오케이야, 노케이야? 「오케이입니다.」 오케이예요, 노케이예요? 「오케이입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구요. (웃음)

그래 가지고 대가리가 깨지고 궁둥이가 깨져서 부상자를 차로 몇 트럭 실어 나가게 되면 통일교회 유명해질 거라구요. 문총재가 명령해서 책임 못 한 것들을 들이 패서 허리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골이 깨졌다고 한다면… 죽은 사람이 나오면 안 되지요. 죽은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죽을 선을 넘기 전까지는 괜찮아요. 병원에 입원할 정도까지. 죽지 않으면 된대구요. 죽으면 큰일납니다. 뉘달 한번 해 보자우, 말자우? 답변해야지요. 한번 해 보자우, 말자우? 「…」 다 싫은 모양이구만. (웃음) 그저 먹여 주면 좋아하고, 칭찬해야 좋아하지요? 정신차려야 되겠어요.

예수를 탕감하고, 180대를 해방시켜야

영계의 절름발이 조상들이 축복받아 가지고 절름발이 행세를 하겠어요? 여러분한테 지겠다고 하겠어요, 열심을 내려고 하겠어요? 지옥에 갔던 별의별 사람들, 천년 만년 한을 품고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해방이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은사를 받았다 이거예요. 끌어가 가지고 죽여 버리고 정배를 보낼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특명에 의해서 축복을 해 줬다구요, 벼락같이. 벼락같은 은사예요, 화(禍)예요? 노동자들, 시골구석에서 못사는 농사짓던 사람들, 인간 쓰레기 같은 하나의 남자가 갑자기 공주마마의 남편이 되라 할 때, 그거 사실로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습니다.」 얼마나 안 믿겠어요? 그거보다도 더한 거라구요, 이게.

수십억, 수백억 영계 사람이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받은 사람들이 지상에 재림해서 도와라 한다면 지금까지 지상에 와 보지 못했는데 동네방네 구경하면서 다니겠어요, 벼락같이 일족을 앞에 세워 가지고 냅다 물겠어요? 답변해 봐요. 광정환! 「예, 냅다 뚫습니다.」 그래, 자기는 어때? 광씨들을 양떼를 몰 듯이, 돼지떼를 몰듯이 몰고 있어? 몰고 있나, 그러려고 하나? 「몰고 있습니다.」 없잖아? 광씨가 하나도 없잖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한다면 몇 마리나 모이는 거야?

집회라 하면 세 사람 모여도 집회고, 열 사람 모이는 집회를 열 번씩 해서 1백 사람이 모았어도 집회라구. 영영 뿌리를 빼야 되는 거야. 뿌리를 빼는 거라구. 7대 조상 해원해 가지고 축복해 줘야 합니다. 그걸 중심삼고 지금 120대 조상, 예수까지 탕감해 줘야 됩니다. 개인탕감, 가정탕감을 해 줘야 되고, 예수를 탕감하고, 120대를 해방시켜야 됩니다. 통일교회는 뭐냐 하면, 180대 조상까지 해방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아담의 조상 뿌리까지 다 넘어갑니다, 하나님까지 전

부 다. 조상이 없으니까 전세계 인류가 ‘하나님 해방이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해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누가 해방해야 되겠어요? 전인류가 하나님을 해방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해방시키겠다고 하면 하나님보다 힘이 세야지, 약하면 어떻게 해방해요? 그런 생각 해 봤어요? 약해 가지고 해방하겠어요? 싫다고 해도 몰아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 선생님을 해방해야지요? 선생님을 해방했어요? 나라가 있어요? 나라를 찾고 세계를 복귀해야 할 텐데 말이에요. 그것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똑똑히 알라구, 이 쌍것들아. 밥을 편안히 먹는 것 자체가 모순된 것입니다. 몇십 년 통일교회를 믿어서 전부 다 해서 열 명도 전도 못 한 사람이 있다구요. 믿음의 아들딸을 열 명도 못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36가정이고 뭐고 똥개새끼 취급하는 거라구요.

인류를 구하기 위하고, 열두 지파의 한 분파를 책임질 수 있는 역사적인 인물로서,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 조상의 대표자로서 몇 천만을 전도해도 부족할 텐데 말이에요, 이래 놓고는 뭐... 구더기 새끼, 똥개 새끼같이 자기 거느리는 가정이 먹고사는 것만 신경 쓰는 것이 통일교인이에요? 아니라구요.

나는 그런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라구요. 그런 사람은 죽으면서도 선생님한테 손가락질하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말을 못 할 수 있게 선두에서 달리고 있는 선생입니다. 알겠어요? 칼을 들게 되면 무자비하게 잘라 버릴 수 있는 선생입니다. 그런 훈련을 다 했어요. 고향을 떠날 때 어머니 아버지 일족이 통곡하던 그 자리를 돌아보지 않고 다 차 버리고 출발한 사람입니다. 울다가 결국 저주한 사람들도 있을 거라구요. 그렇지만 저주하고 통곡하는 사람을 자연 굴복시킬 수 있는 하나의 승리의 패권을 찾아 밤이야 낮이야 허덕여 나온 것입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그래, 그거 책임 질 거예요, 안 질 거예요? 6백 톤이면 한 달에 얼마예요? 삼 육은 십팔($3 \times 6 = 18$), 얼마예요? 몇천 톤이에요? 1만8천 톤이라구요. 1만8천 톤이니까 1백80개 국가에서 몇 톤씩 책임져야 돼요? 1만8천 톤이니까 한 국가 메시아당 1백 톤씩입니다. 1백 톤 되니까 하루에 몇 톤씩 해야 돼요? 3톤 반이에요. 6톤 트럭 반 대 분량을 먹든 팔든 해야 된다고요. 이게 현실이라구요.

자기 국가에 배당된 크릴새우를 완전히 소화할 수 있어야

한번 큰 재산이 될 수 있는 원자재를 갖고 싶었던 것이 통일교회 사람들이 아니예요? 안 그래요? 팔아먹을 수 있는 밀천 된 무엇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통일교회 패들 아니예요? 어때요? 한 달에 1백 톤씩 소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 국가 메시아들 손 들라구요. 다 모여 있지요? 내리라구요.

소화할 수 있는 자신 있어요, 없어요? 왜 가만히 있어요? 자신 없었지만 이제부터 자신을 갖는다 하는 사람, 어디 눈감고 두 손을 들어 봐요, 남들 보니까. 가짜들이 손 안 들까 봐. 이제 눈뜨고 손을 든 채로 뒤를 돌아보라구요. 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손 든 사람 다 봤지요? 다 봤지요? 손 안 든 국가 메시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은 뭐예요? 들었지요? 「예.」 이놈의 자식들, 약속대로 해야 된다고. 내려요!

1년이 늦었지, 박구배? 「예.」 왜 늦었나? 여러분이 돈 한푼 댔어요? 돈 한푼 댔어요, 안 댔어요? 물어 보잖아요? 그거 얼마나 고생했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 나와서 얘기해 봐. 이제 틀림없이 하겠다니까 박구배가 분배해서 내가 전부 다 빚을 얻어 댔으니 그때까지 그 돈을 회수해야 되겠다구. 회수 못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몇 개월이면 회수한다고? 6개월 잡았지? 「예.」 자신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라구. 어떻게 해

나왔다는 걸. 선생님 얼굴 보기가 미안하지? 미안해, 안 미안해? 「죄송합니다.」 죄송이 아니라 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겠다고 해야 한다구. 쥐구멍이 없으면 파 가지고라도….

요전에 어떤 상어와 관한 영화를 보니까 바다의 예쁜 고기들이 상어가 오게 되면 호르르륵 모래판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싹 없어져요. 그것을 보고 ‘야, 이거 우리 통일교회 귀신들이 저렇게 되면 전부 다 죽지 않고 살겠구만.’ 했다고요. 큰 상어가 훌쩍 삼켜 버릴 텐데, 후르르륵 힘을 다 해 가지고 생판 바닥을 파고 들어가서 순식간에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재간이라도 있어요? 그런 재간이라도 있느냐 말이에요.

선생님을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라

이건 또 누구야? 머리가 허연 녀석이 누군고? 「한후조입니다.」 뭣이? 한우조야? 한스러운 소장사로구만. 알겠어요? 「예.」 나와 얘기해요. 뭐가 어떻고 어떻고, 그런 말은 그만두고, 실제 문제, 이렇게 이렇게 실제 파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얘기를 하라구. 잘 들으라구요. 이거 듣고 못 하겠으면 때려죽이라구. 없애 버리라구요. 없애 버릴 거예요, 안 없애 버릴 거예요?

나는 여러분을 믿고 이 사람을 기함 주며 하라고 했어요. 누구를 믿고? 「저희들을 믿고…」 저희들이 누구예요? 손 든 사람들. 그러니 믿고 하기를 바랐어요, 안 바랐어요? 바랐지요? 그러니까 나 미친 사람 만들래요, 망한 사람 만들래요, 성공한 사람 만들래요? 문제가 크다고요.

나 같으면 한 달에 석 톤 반은 문제가 아니에요. 값이 3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이 모든 호사스러운 시장에 똥칠해 가지고 지금까지 무관심하게 살아 나온 그놈의 자식들은 굶어 죽어야 된다고요. 안 굶어 죽으면 굶겨 죽어야 된다고 본다구요. 알겠어요? 그

렇게 알고 똑똑히 들어요. 황환채! 「예.」

여기 사람들은 선생님이 양반인 줄 알고 있지요? 선생님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일본의 간나 자식들도 기합을 주고 때려 몰았다면 이렇게 부끄러운 일본 식구들이 안 되었을 거라구요. 자기들끼리 뭘 해먹겠다고? 이 쌍것들. 정신차리라구요. 알겠어요? 다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한 5초 후에 ‘듣고 있습니다.’ 할 때 ‘아, 이거 다 어디 갔나?’ 그래요. 그거 얼마나 기가 차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데 선생님 앞에서 누가 통역해 줄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데 누가 통역해 주겠느냐 이거예요.

선생님을 따라갈래요, 안 따라갈래요? 「따라가겠습니다.」 너보고 물어봤어? 일본 식구한테 물어봤지. 따라갈 거예요, 안 따라갈 거예요? * 천국에 들어갈 때 선생님의 뒤를 따라가고 싶어요, 안 따라가고 싶어요? 선생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누가 통역해 줄 것이냐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 통역해요? 그렇게 편하다면 선생님이 이렇게 잔소리를 안 한다구요.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경제대국을 이룩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이해 못 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 안 했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할 거라구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예.」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십시오)

자, 얘기해 보라구. 거기서 할 게 뭐가? 여기로 나와라. 십리 앞에서 해서 들리겠나? 간격이 커서 사탄이 들어와서 춤추겠구만. 이리 좀 나오라구. 이만큼 나오라구. 자, 기립! 5보 앞으로! 나오라구요. 나오라구요. 다섯 발걸음 나오라구. 이거 왜 이래? 「좌우로 줄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조는 사람은 뺨을 갈겨야 정신이 드는구만. 앉으라구요.

내가 여러분에게 뭐가요? 선생인가요, 아버지인가요? 아버지니까 이런 권한이 있어요. (누구를 때리심) (웃음)

*선생님이 이러면 문제가 되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

나 아들딸이면 아무리 때려도 불평을 못 하지요? 무엇 때문에?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딸을 위해서. 정신을 차리게 하려면 매박에 없다가요. 똑똑한 일본 사람들은 잘 알고 있지요?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여기, 좀더 나오라구요. 멀어졌으니 잊어버렸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 잊어버리지 않을 것 아니야? 여기에 모이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 좋습니다.」 잘생겼구만, 아이구. 그런 말을 믿다가 내가 망하게 됐다가요. 얼마나 속았는지 모른다가요. 똑똑히 얘기하라구. 「예. (박구배 사장)」 돈 얘기보다는 배 수리하고 준비하는 데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얘기를 하라구. 욕심이 많아서 담을 무너뜨렸고, 고생하던 얘기, 위험 수위에 올라서 밀려날 수 있었던 데 대해서도 얘기하고. 「예.」 (박구배 사장의 보고)

환경보호 문제의 세계적 중심지 판타날

여러분이 앞으로 세계를 어떻게 포섭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독교가 2천년 동안 전도한 것이 10억입니다, 10억 인류. 알겠어요? 그러면 60억 인류로 보게 되면 6분의 1밖에 안 된다가요. 그래, 6분의 5에 해당하는 것은 신앙권과 관계없다가요. 그것을 접촉해서 소화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해서 그런 계획을 해요.

공해문제라든가 환경보호 문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세계적 중심지가 판타날입니다. 앞으로 주목 기지가 되는 곳이 세계에서 어디냐 하는 것을 선생님이 생각한 거라구요. 또 우루과이를 중심삼고... 왜 우루과이에 20년 전에 호텔을 만들고, 은행을 만들고, 신문사를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이게 중심 기지입니다, 누구도 몰랐지만. 남미 전체에서 이곳은 자궁과 같습니다. 딱 중앙에 박혔다가요.

그리고 수송문제를 두고 볼 때, 단 하나의 길은 파라과이강을 통해

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광활한 원산지에서 생산되는 것을 나를 수 있는, 유통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철도도 없어요. 아까 말한 무슨 산맥? 「안데스산맥입니다.」 안데스산맥을 넘어갈 수 없어요. 오직 이 한 길입니다. 그 최종 정착 기지가 우루과이라구요.

통일교회밖에 세계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우루과이에 선생님이 가자마자 어떻게 항구를 점령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한 셀룰로라는 곳을 중심삼고 스페인 회사와 남미 은행과 더불어 관계를 맺어 가지고 이미 정부가 인정한 자리에서 사인해 가지고 결정됐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몬테비데오 항구 갖고는 안 된다구요. 앞으로 큰 항구가 필요한데, 그 필요한 기지는 라플라노마라고 거기서부터 한 20킬로미터, 30킬로미터 되나? 「1백50킬로미터 정도입니다.」 1백50킬로미터 되겠구만.

그 기지는 세계적으로 수심이 깊고 25만 톤 배들을 수백 척, 항구만 개설하면 수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수백 척으로도 앞으로 남미의 모든 원자재를 수송하는 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시아까지 가기 위해서는 큰 배가 돼야 된다구요. 지금까지는 5만톤 급, 6만톤 급으로 구라파로 행차했지만, 그것의 5배 이상의 거리를 향해하고 비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큰 배를 운항해야 한다구요. 아시아를 중심삼고 매일 그런 수송선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남미에서 생산하는 원자재를 아시아에서 80퍼센트를 필요로 합니다. 미래에 절대 우루과이가 그런 기지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20년 전부터 거기에 정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철도도 전부 다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뭘 할 것이냐? 식량문제가 문제입니다, 식량문제. 식량이 필요한 곳은 선진국가가 아닙니다. 부자 국가가 아닙니다. 아프리카라든가 빈민들이 필요로 합니다. 60억 인류 가운데 40

억이 중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식량문제가 문제인데, 더욱이나 영양 문제를 중심삼고 어린아이들은 영양이 부족하면 어른들보다도 빨리 죽을 수 있다구요. 아기들이 식량 때문에 죽어간다구요. 1년에 1천5백만에서 2천만이 죽어 갑니다.

이것은 인류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선진국가가 이것을 책임지려고 하느냐? 안 진다는 거라구요. 이런 환경에서 우리 통일교회가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죽어 가는 어린아이들을 해방시킬 수 있게 되면 저개발 국가, 40억이라는 인류는 통일교회와 완전히 하나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레버런 문이 뭐를 한다고 하면 후진국가들은 지금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그런 식량을 보급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대대적으로 한다는 기준을 중심삼고 희망을 갖고 있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것이 정상 궤도에 올라가게 된다면 10년 이내에 20억 이상을 통일교회 교인으로 만들고도 남습니다.

또 통일교회의 내용은 그 이상이라구요. 선진국가까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구요. 선진국가가 지원해서 방송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일시에 40억 인류를 품을 수 있는 놀라운 기반이 벌어지는 거라구요. 섭리상으로 볼 때 그 효율이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구해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구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어차피 구해서 가야 된다고요. 누가 구해 주느냐? 선진국가에 바랄 수 없어요. 지금까지의 기성 종교도 믿을 수 없어요. 어떤 나라도 믿을 수 없어요.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놀음이라구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다년간 선진국가들이 피시 파우더(fish powder;어분) 개발을 하다가 전부 다 포기했어요. 미국도 포기하고, 독일도 포기하고, 러시아도 포기하고, 일본도 포기했습니다. 이 물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문제가 커졌어요. 그리고 원자재 면에서도 남극에서는 몇억 톤의 크릴새우가 죽어 가고 있습니다. 자연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고단백질의 파우더를 만들게 되면 인류의 구도의 길이라는 것은 고속도로가 확 트이는 거라구요.

이걸 누가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건 통일교회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야 되고, 개발하기 위해 희생해야 된다고요. 그 누구도 어려운 고비를 운명을 걸고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가의 운명이라든가 자기 종단의 운명을 걸고 해결해야겠다는 나라도 없고 종교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을 중심삼고 지금까지... 알래스카를 개발한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알래스카의 베링 해협의 어로구역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의 선두적인 입장이 되었다구요. 그래 가지고 방대한 남극까지... 남극과 북극에 그런 기지를 가졌다는 것은 앞으로 큰 희망입니다.

지금 알래스카에서도 그래요. 우리 회사만이 선두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박을 통해서 선장들을 많이 길러 왔다구요. 남극까지 갈 수 있게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한 20년 준비했습니다. 미래를 향해 준비해 나오느라고 자체에서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기반을 닦는데 있어서 인재들을 확보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돈을 주고도 못 사 와요.

이래서 알래스카에 있는 선배들을 중심삼고 남미에 가지고 이런 수산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극 남극, 빙산 세계... 북극을 자유로이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남극을 자유로이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북극의 얼음 산, 북극으로 말하면 8백 미터에 해당하는 눈이 쌓여 있다구요. 이게 전부 다 물로 말하면 생수(生水)입니다, 생수. 공해 문제 때문에 앞으로 먹을 물이 없다고요. 한국만 하더라도 땅을 파게 되면 전부 다 공해 때문에 전부 다 침식당했어요. 거기에서 농약 성분이 나오고 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얼음을 떼다 팔아야 하고, 눈(雪)을 퍼다 팔아

야 한다구요. 큰 얼음 창고가 있지요? 그와 같이 눈을 갖다가 녹여서 팔아먹어야 할 때가 온다구요. 방대한 그런 자원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녹음이 잠시 중단됨)

여러 나라 연결해 보급망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고 모든 고기들을 다 잡아요. 그러니 중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아시아 여러 나라에 연결시켜서 보급할 수 있는 시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라구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무서운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세계적인 문인과 교섭한다면 1년이나 3년 동안 계획하더라도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는 2개월 이내에 동양 문인이든 서양 문인이든 전세계적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선생님은 그러한 학자세계의 기반을 닦아 왔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구요. 거기에는 기술자도 부를 수 있고, 학자도 부를 수 있고, 어떤 분야의 사람도 부를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런 놀음을 해 왔다구요.

그 배후를 일본 정부도 모릅니다. 뭘 하고 있는지. 자기들이 소리치면 통일교회가 없어질 줄 알지만, 천만에! 알아보니까, 뿌리가 일본이 상상할 수 없는 기준까지 있기 때문에 손들었다구요. 음 진리교를 중심삼아서 함께 때려잡으려고 전부 계획했지만 어렵었다구요. 정보를 통해서 전부 내가 듣고 있는 거라구요. 시 아이 에이(CIA;미국중앙정보국)를 통해서, 에프 비 아이(FBI;미국연방수사국)를 통해서, 신문사를 통해서 일본이 어떻게 하는 것, 누가 뭘 하고 있다는 것을 다 듣고 있는 거라구요. 이놈의 자식들.

이번에도 그래요. 어떻게든지 일본에서 축복 대회를 해야 되겠는데 나가 버리면, 대만에 가서 3억6천만쌍을 하게 되면 코가 빼짱코가 되

는 거라구요. 알아요? 중국에서 하면 몰라도, 소련에서 하면 몰라도. 그런데 한국에서 했다구요. 한국에서 할 때 2주일 전에 결정했습니다, 2주일 전에. 알겠어요? 2주일 전에 결정하니까 이것이... '3년, 5년을 계획해야 하는 건데 2주일 전에 결정했으니 제아무리 레버런 문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핑크나서 실패다!' 그랬다구요.

그러나 한국의 실정을 몰라서 그런다구요.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한 사람이, 연인원이 4천만이 아니라 7천만이 된다고요. 알겠어요? 꿈같은 얘기라고요. 승공연합이라든지 국민연합이라든가 세계일보 조사국이라든가 전부 교육해 가지고 안팎으로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모으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2월 6일이 되기 전에 중요한 8개 도시에서 순회강연을 했다구요. 얼마만큼 모이느냐? 옛날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재작년과 다른 것이 뭐냐 하면, 도에 가면 도지사로부터 군수로부터 환영을 받는다고요. 통일교회와 관계를 안 맺고 통일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뒤로 돌아가던 사람들이 전부 다 앞장섰다구요. 왜? 예비축복을 1천2백만 세대가 받았다고요. 다 끝났다구요. 그거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거기에다 청년남녀들, 한 가정에서 한 사람만 하더라도 1천만 쌍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천2백만 쌍 가운데서.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엔을 상원과 하원으로 정비해야

이렇게 볼 때, 한국을 중심삼고 한다고 할 때 전부 다 비웃었지만, 8개 도시를 중심삼아 가지고 순회강연을 했는데 방대한 수가 모였다고요. 7만, 8만 명이 움직였다고요. 그게 초만원이었다구요, 초만원. 이것은 예상 인원의 몇 배를 동원한 것이다, 그러니 문제없다는 것입

니다.

올림픽 메인스타디움에서 축복 행사를 한다고 할 때 정부도 걱정한 거라고요. ‘아이구, 이 추운 때에 거기서 어떡할라고?’ 하는 것을 ‘어떡 하는 것은 내가 책임질 테니 허가만 내!’ 이래 가지고 허가를 얻어 냈다고요. 거기에는 참 야로(수작)가 많았다고요. 그렇지만 2주일 후에 대성공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정부도 놀랐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가 인적 전도를 하는 조직적인 배경이 크구만.’ 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10만 명 교육을 시작하고 야당 여당을 전부 다 소화하니, ‘다음 대통령은 문총재 꿈무늬를 잡는 사람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현 시점에 들어왔다구요.

아이 엠 에프(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시대에 모든 것이 밑으로 들어갔지만, 여기에서 성공을 거뒀다는 것은 세계적 사건입니다. 이 세계적 사건 가운데서 한 것이 뭐냐 하면, 초교파초종파초국가연합을 만들었어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들, 내로라하는 사람들이 왔다고요. 정부가 놀라 자빠져요. 이래서 유엔을 움직일 수 있는 유엔의 상원 하원 구조를 중심삼고... 종교가 지금 정치에 무관심하고 있다고요. 정교(政敎) 분립이라는 이런 입장에서 정치에 손을 못 대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이제는 싫더라도 손을 대서 정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권은 상원이 돼야 되고, 세상 정치권은 하원이 되는, 유엔 구조 변경으로부터 국가 자치 형태를 갖추는 것입니다. 국가 일방적이 아니라구요. 세계 종교권 연합을 통해서 영향을 미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운동을 전개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세계의 과학기술을 지배하기 위해 준비해 나왔다

이게 다 뭐냐? 여기에 연결된 사람들을 중심삼고 1년에 2천만 가까이 굶어죽는 사람들을 구하자 이거예요. 2백 명이 한 사람씩만 돕게

되면 죽는 사람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다 형제인데. 그렇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길을 열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 구도, 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별의별 평을 다 했다구요. 우루과이만 하더라도 공장을 중심삼고 막대한 손해를 본 거라구요. 그거 왜 그러냐? 세계의 과학기술을 지배해야 한다구요. 이제 우주공학 시대가 온다구요.

이런 기술을 가지고 비행기를 제작하는 공장을 하기 위해서 현재 워싱턴 타임스 재단을 중심삼고 밤바드라는 캐나다 비행기 회사와 합작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급 비행기 세 대를 계약했다구요. 켈린저라든가 이런 비행기라구요. 우리가 다음에 계약하는 비행기 값이 얼마나 하면, 그것이 3천7백만 불이라구요. 한 대가 3천7백만 불입니다. 미국 비행기 회사에서 최고의 실적을 낸다구요. 낮은 데라도 나는 최고 기준의 비행기입니다.

그것을 준비해서 정비공장으로부터 부속품 공장으로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손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제아무리 하더라도 앞으로 10년 이후에는 나한테 떨어질 거라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미국이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체가 염려하고 있다구요. ‘레버런 문이 무얼 하려고 그래?’ 하고 있다 이거예요. 나사(NASA; 미항공우주국)에서 우주 측정하는 대망원경이 고장난 것을 10일 간에 걸쳐 우리 기술자가 수리했다구요. 세계에 없어요. 그런 걸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세계적인 구도의 길에 앞장서자

그런 배후를 일본이 책임 못 하면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모릅니다. 독일 공장을 날려 버렸다고 좋아하는 일본 간부 이놈의 자식들, 전부 다 벼락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5천7백만 불을 날려 버렸어요. 한때

를 위해서, 남미를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이번에는 차 버려야 되는 거라구요. 상대적인 입장에 설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으니 내가 책임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일본은 갈 데가 없습니다. 전부 다 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한 나라. 한 나라 조직을 해야 된다고요.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1년 전부터 한국의 기간 요원들을 일본 교회에 배치한 것입니다, 1백80명. 교포를 중심삼고 천지종교를 통일해 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에 있던 선배들은 앞으로 전부 다 외국에 나가야 됩니다. 어머니 늙음 해야지요. 가서 교육해야 됩니다.

일본 선교사들은 전도는 못 해요. 전도는 못 한다고요. 말을 모르니까. 할 것은 뭐냐 하면, 유치원을 만들어서 일본 대사관, 한국 대사관, 아시아 대사관을 연결해 가지고 아이들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이 큰 문제라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나라에서 그것을 하는 거라구요.

일본 여자들이 일본말을 중심삼고 1년만 교육하게 된다면 읽을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병행해서 교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만2천 명 선교사 파송하는 걸 못 하겠다고 거부한 거라구요. 얼마나 피해를 입힌지 몰라요.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민을 어떻게 하느냐? 할 길이 없어요. 그것은 통일교회의 등을 타야 됩니다. 싫더라도 그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이 무엇 가지고 선진국의 수도 같은 데 가서 토착화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일본 기술 가지고는 안 통한다고요. 그러나 통일교회는 어떠한 선진국의 수도, 모스크바라든지 런던이라든가 어디를 가더라도 거기에 토착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민족이 이 길을 가서 앞으로 국제 무대에 펼쳐 나가야지, 섬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무사도라고 해 가지고 깃발 하나 들고 뭉치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이것을 어떻게 헤쳐 버리느

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정을 중심삼고, 축복가정을 중심삼고 남미에 와라 이거예요. 땅을 팔든, 빚을 얻든, 걸어서 오든지 와라 이거예요. 외국으로 어떻게 끌어낼 거예요? 선생님이 안 하면. 얘기해 보라구요.

선생님이 안 하니깐 가만히 있다구요. 이 울타리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어떤지를 모르고 있다구요. 방대한 세계적인 이 섭리를 완결지어야 할 것이 선생님의 책임인데,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쌍것들!

자기 집, 자기 활동 무대를 지켜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뜻을 이룰 수 있어요? 나라를 희생시키더라도 안 되는 이 세계적인 구도의 길에 앞장서야 하는데, 지금까지 구경만 하고 있는 이 패들이 아니예요, 이거? 알겠어요? 무엇 때문에 이런 놀음 하는 거예요? 인류를 살려 주어야 됩니다. 천국 데리고 가야 된다고요, 천국. 말이 쉽지, 천국이 말이나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대수평이동이 벌어져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공해문제

기독교가 2천년 동안 10억을 전도했지만, 이제 나는 시작해서 5년, 10년 이내에 40억 인류에게 내가 죽기 전에 전부 길을 열어 줘야 된다고요. 그들을 교육하는 것은 문제없어요. 국가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방송으로 하게 된다면 6개월 이내에 다 무장하게 됩니다. 혼동회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어요. 가능성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필생의 일로, 필생이 아닙니다. 절대 생의 업으로, 하늘과 땅이 전부 다 받들고 승리의 자리로 끌고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니, 거기에 누가 손대느냐 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가 천하에 하나

의 등대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이론적이라구요. 미국도 소련도, 사상적인 면에서 우리 통일교회를 당할 수 있어요? 그거 알아요? 종교권은 우리를 못 당한다 이거예요.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공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환경보호 문제, 그 다음에는 기근 문제입니다. 공해가 무서운 것은 기근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도시에서 살 수 없어요. 도시를 전부 다 폭파해야 됩니다. 원자폭탄으로 폭파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자연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남미의 판타날에서, 아마존강 유역을 중심삼아 가지고 조사한 거라고요. 이곳은 모험 지역이라고요.

푸에르테 올림포라는 곳은 파라과이하고 브라질 사이의 강을 끼고 있는 곳인데, 여기는 파라과이의 살인범, 극악범의 도피처입니다. 또 브라질의 모든 범죄자들이 피해 들어가는 곳이라고요. 강 하나를 두고 나라가 달라지는데, 건너가게 되면 인디언들이 있어요. 그들은 브라질 사람도 아닙니다. 파라과이 사람들이 원수라고요. 과거의 원수들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범죄자들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또 친구이기 때문에 저쪽 브라질에서 누가 왔다고 하면 대변에 연락해서 어디로 피하라고 한다구요. 파라과이에서 왔다갔다하면서 얼마든지 자기가 피해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한 사람, 두 사람 죽는 것은 문제도 아니라고요.

그런 곳에 선생님이 가서 이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놀러 다녀요?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중심삼고 살아야 될 텐데, 백주(白晝)에 뭐라고 할까, 후지산 꼭대기에 침대를 놓고 자는 거와 마찬가지로요. 그 놀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라는 사람이 누구 인간의 보호를 받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 나쁘면 대변에 이동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래 가지고 세계의 침단에 서 가지고 인류의 난문제를 해결짓기 위해서 이런 놀음을 하는데, 통일교회의 동정하는 패가 뭐야, 일본의 간나들이?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을 중심삼고 혈통 대전환을 이루어야

앞으로 선생님을 어떻게 따라 나가겠어요? 그래, 틀림없이 선생님이 영계를 점령하고 통일천하 할 수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있습니다.」 거짓말인지 몰라요. 거짓말인지 모른다고요. 「아닙니다.」 이제는 안 믿으려야 안 믿을 수 없어요. 예전에는 축복받는다면 미쳤다고 그랬지만, 사실이 그런데, 사실이.

어린애들이 죽으면 얼마나 한이 많아요? 선조들이 잘못해 가지고 탕감의 제물로 간 아이들이 어미 아버지를 알았겠어요? 어미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라가 알아요? 전부 다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수천억이 되는 영인들을 전부 다 해방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멋대로 산 가정, 계약 결혼해서 사는 패들, 호모, 레즈비언, 프리 섹스 패들 전부 다 내가 책임지고 구해 주려니 성인하고 살인마를 같이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문이 열려 가지고 선조에서부터 깨끗이 다 청산되는 것입니다.

악마의 대장들을 전부 다 축복해 줬으니 그 새끼들은 문제도 안 되잖아요? 영계에는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이거예요.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낙원, 중간영계, 지옥이 있었겠어요? 없었다구요. 그거 하나님도 해방 못 시킵니다. 하나님도 타락한 아담 해와를 손 못 대는 거라고요. 핏줄이 달라진 걸 어떻게 손대요? 하나님도 할 수 없이 영어(囹圄)의 몸이 돼 있어요.

그래, 부모님이 나타나서 그걸 해방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참부모님이 나타나서 해방하지 않으면 해방할 수 없습니다. 왜? 거짓부모가 이렇게 파탄시켜 놓았으니 거짓부모보다도 참부모가 나와서 하나님의 혈통을 바로잡아야 된다고요. 참사랑과 참생명·참혈통을 중심삼은

가정으로부터 세계의 축복받은 혈통 대전환을 이루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가정 아니에요? 다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요. 기독교 문화권은 아프리카나 어디를 가더라도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기독교 문화권입니다, 아프리카도 그렇고. 이것을 기독교가 책임 못 했다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되니 기독교가 반대한 레버런 문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전부 다 방향을 바꿨다고요. 아프리카 같은 데는 나라의 80퍼센트가 축복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 담 안에 다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살려 주게 되면 세계가 하나되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군대에 대해 출동 명령도 할 수 있고,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브라질 같은 나라도 1억6천만 국민 가운데 6천만이 전부 다 기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질 자체도 우리 도움을 받겠다고 손을 벌리고 있는 거라고요.

북극에서 닦은 기반을 남극에 연결해야

자, 그렇게 해서 무니(moonie)가 구해 주게 된다면 세계는 전부 다 레버런 문 조직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북극에서 기반을 닦은 것으로 남극에까지 와서 자기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개발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희망을 갖는지 모른다고요. 알겠어요? 「예.」

이 환경을 차 버려야 되겠어요, 계속해야 되겠어요? 죽는 일이 있으면 자기 후대한테 맡겨서라도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우 하사 어려운 문제를 박구배 이 곰 같은 사람한테... 박구배 어디 갔나? 「여기 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재단에서 쫓아낸 사람이라고요. 배포가 얼마나 좋은지, 4백20억을 손해를 끼쳐서 쫓아낸 사람이라고요. 그 배포가 좋기 때문에 내가 미국 알래스카 코디악에 가서 미국 회사 사장을 시켰어요. ‘4년 동안 여기서 해 봐라.’ 그랬더니 죽기 아

니면 살기로 하는 거라구요. 죽기 살기로 하려니 공부 안 할 수 있어요? 한 4년 되니까 어디든지 죽 하고, 회화도 잘 하고, 쓸만하게 됐기 때문에 남미에 데려가서 이런 일을 하게 한 거라구요.

여러분도 한국어 배우겠어요, 안 배우겠어요? *일본 멤버들! 「예.」 아버지 나라의 말을 배울 거예요, 안 배울 거예요? 「배우겠습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예.」 뭐가 ‘예.’ 예요? (웃음) 문제라구요, 문제. 앞으로 한일축복을 받은 사람들도 말이에요, 언제 때가 올지 모르는 거라구요.

남북통일! 김정일이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 말이에요, 대번에 하나되는 것입니다. 남한의 정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구요. 선생님은 믿지 않습니다. 아이 엠 에프(IMF)로 말미암아 국가의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종교든 무엇이든...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은 문선생밖에 없다구요. 희망이 말이에요. 세계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련, 중공, 인도, 일본, 미국 등에 3천만의 축복가정들이 있습니다. 미국도 생각할 수 없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가구요. 내가 교육을 하게 되면 일본도 무엇도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사사카와가 선생님을 잘 알고 있다가구요. 구보키 회장한테 ‘문선생은 당신보다 잘알고 있으니 문선생을 내가 소개해 줄까요?’ 하고 묻는다가구요. (웃음) 무슨 말인지 모르지요?

여러분이 선생님을 알아요? 지금 얼굴만 보고 선생님을 안다고 하지만,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모른다가구요. 일본의 현재의 입장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가구요. 어떻게? 손을 잡고 있는 거라구요. 자민당뿐만 아니라 자위대도 어디든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한국의 정보기관도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가구요. 정치권, 경제권을 넘어서 세계의 정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미국도 모른다가구요.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18년간 <워싱턴 타임스>를 중심삼고

국방부, 국무부, 백악관까지 꼼짝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 대사 같은 사람들도 선생님이 마음만 먹으면 큰일나는 거라구요. 그들의 잘못을 잘 알고 있지만, 한번도 <워싱턴 타임스>에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찾아보라구요.

요즘에 그것을 알고 있어요, 요즘에. 대사가 와서 ‘일본이 <워싱턴 타임스>에 대해서 은혜를 갚기는커녕 반대해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더라구요. 앞으로 일본을 필요로 하지 않을 거라구요, 선생님은. 그런데 요로시쿠(宜しく; 잘 부탁드립니다)? 고로시쿠(殺しく)! 그런 말밖에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손을 대려고 생각하면 세계적인 기자들을 열 명 정도 보내서 2주일 이내에 모든 것을 파헤쳐서 폭발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가구요. 미국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미국이. 알겠어요? 일본도 무서워하고 있지요? 무서워해요? 선생님의 얼굴이 무섭게 생겼어요? 호랑이 같이? 한 사람도 죽인 적이 없고, 못된 짓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을 무엇 때문에 무서워해요? 나쁜 짓을 하지 않는데 나쁜 짓을 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자기들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모르게 커버해서 끌고 가서 죽을 고개를 넘겨 버리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지만 말이에요. 새로운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십시오) *유럽 멤버들도 마찬가지로 입장입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운 기반을 닦았다. 아무리 레버런 문이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뒤를 따라와야 된다.’ 하지요? (*부터 영어로 말씀) (웃음) 알겠어요? 「예.」

물고기 160마리 낚는 것은 160가정을 닦는 것의 상징성

이 문을 제껴야 되겠어요, 안 제껴야 되겠어요? 선생님이 수십년 동

안 목표했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우하사! 박구배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구요. 하나님께서 보우하사. 꿈같은 얘기입니다. 통일교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지금 배를 만들면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 줄 알아요? 지금 돈이 필요하지? 「예.」 예전에 얘기한 거 말이야. 그거 필요해? 어디서 가져와. 은행에 있는 돈 5백만 불 돌려주라구. 알겠나? 「예.」 받아 가요. 그 다음에는 손떼는 거야, 선생님이. 「예.」 그 돈을 6개월이면 나한테 반환해야 돼. 「예.」 약속해? 「예.」 돌려주라구.

자,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이것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밥 먹어요. 밥 먹고 살 수 있다구요. 여러분이 가 있는 아프리카에서 국가 메시아로서 체면을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어린 아기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마약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부 다 우리 식구가 된다고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라가 전부 다 업힐 수 있는데 왜 안 해요?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번에 올림포에 가서 국가 메시아 40일수련을 받은 사람 손 들어 봐요? 이놈의 자식들, 고기 160마리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습니다.」 제일 더울 때 지령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다시 오라고 말이에요, 못 잡은 녀석들. 나는 그 이상 했습니다. 놀러 다닌 것이 아닙니다.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못 오면 여러분 여편네를 보내고 아들딸을 보내라구요. 그거 안 잡으면 안 됩니다.

그거 160마리는 160가정과 마찬가지로입니다. 탕감수라구요. 이런 조건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노아는 심판 받았어도 바다는 심판 안 받았습니다. 이것을 제물 삼는 것입니다, 제물. 심판 받지 않는 물건입니다. 이것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라구요.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160가정 다 있지요, 16수? 한국과 북한이 형제의 자리에서 같이 유엔에 가입했는데, 북한이 160번째고 남한은 161번째예요. 161에서 160을 따 버리면 하나밖에 안 남는다고요. 그게 다 섭리의 때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첫사랑 여자로부터 배우는 것

이번에 어머니가 대회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일본이 망했고, 한국이 망했고, 미국도 망했습니다. 전부 다 책임 못 했어요. 선생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선언입니다. 지금 어머니가 강연하는 제목이 무엇이에요? 뭐예요? 뭐라고요? 「인간이 가야 할 생애노정」입니다.」 거기에 부제목으로 ‘참부모가 전수하는 생애노정의 교재’라는 말을 붙였다구요, 교본. 이게 마지막 선언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3억6천만쌍 축복받은 후에는 ‘참사랑은 누구나 원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구요. 그거 다 읽었지요? 그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가르침이라고요. 최후입니다. 사랑의 출발의 근원지(根源地)가 어디인지를 몰랐어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누구로부터 배우느냐? 첫사랑 여자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그 주인이 여자입니다. 그걸 차 버리고 딴 여자를 타고 앉을 수 있어요?

아들이 없게 되면 그 부모가 아무리 잘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만,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주인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으면 영원히 모릅니다. 그런 거 처음 알았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지막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편에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랬기 때문에. 모든 인류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랑을 남용하는 것은 도적놈 새끼라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야지요, 전부 다.

영계에 가 있는 모든 영인도 선생님을 중심삼고, 참된 부모 앞에 사랑의 대상이 되라 이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은 간단합

니다. 지금 방향을 잘못 취하고 있지만 180도로 돌리면 방향이 새로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시대와 더불어 하는 하늘의 구원섭리입니다. 전체를 한 길로 몰아내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성사시킬래요, 안 시킬래요? 성사시켜야 됩니다. 이놈의 자식들, 지금까지 사냥개 모양으로 자기 맛있는 거 찾아다니려고 그랬다구. 박구배, 그거 성사시켜야 되겠어! 「예.」 작년 9월에 출발한다고 그랬지? 얼마나 늦었어? 재작년이구만. 「작년 9월입니다.」 몇 시 됐어요? 「열한 시 반입니다.」 열한 시 반.

강의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제부터 협회장이 나와서 교육하는 얘기 좀 해요. 뭘 하고 있다는 것을 전부 다 해서 한국의 실정을 얘기하라구. 한국을 중심삼고 전부 다 기도해야 됩니다. 조국광복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구요. 자기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어요? 「예.」 얘기해요. (황선조 협회장 보고)

중국에 대한 얘기를 좀 해요, 석준호. 지금까지 활동한 모든 것에 대한 사진 첩(帖)을 하나 만들어 봐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지금 몇 시인가? 열두 시로구만. 앞으로 얼마나 걸리겠나? 「한 20, 30분 하겠습니까. (석준호 회장)」 (석준호 회장 보고)

이제는 간증하자구요. 윤태근! 「예.」 지금까지 하던 것을 간증하라구. 윤태근이 하던 식을 본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거라구요. 본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자기들 식대로 하지 말고, 간증해. 특별히 보고할 것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선생님에게 개인적으로 보고하고. (윤태근 원장의 간증. 간증 중에서 윤태근 원장이 강의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전도가 좌우된다는 강의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일본 교회가 이것을 안 하면 안 돼요. 방문을 해야 됩니다. 주변 전체를 한 집도 남기지 말고 찾아가야 된다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지요? 교육한 다음에 전부 다 내버려두고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수백만 명을 교육했지만 전부 다 흘러가 버렸습니다. 알겠어요? 「예.」

여러분이 천국의 백성을 얼마나 데리고 가는가에 따라서 영계에서의 영원한 자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산이 되는 거라고요. 혼자 는 영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타락한 가인권의 사람들을 어떻게 복 귀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책임이 통일교회에서 말하는 책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예외가 없는 거라고요. 지금은 강의를 못 해도 좋다고요. 혼독을 하 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못 할 것이 없어요. 알겠어요? 「예.」 일본의 축복가정이 8백 가정이라고요? 수많은 부부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뜻길을 따라왔다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하늘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어요. 알겠어요? 「예.」 윤택근처 럼 하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열여덟 시간 이상, 한 달에 150회 이상 계속해서 강의하라 고요. 두 시간씩이면 아홉 번이에요, 아홉 번. 9회를 3개월이면 삼 구 는 이십칠($3 \times 9 = 27$), 270회까지 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식구를 불리는 원칙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 은 바보라고요. 바보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야 고쳐잡니다.」 안 죽 으면 어떻게 해요? 영계에서는 지옥이라고요, 지옥. 사후에는 지옥입니 다. 알겠어요? 「예.」 누구든지 살고 싶으면 그러한 방향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여러분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도. 강의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유 협회장한테 지지 말라고 말이에요. 이놈의 자식들, 하루에 강의 몇 번 씩 해! 선생님이 미국에 가 가지고 강의할 때도 하루에 여섯 번씩 했 어요, 여섯 번씩. 그래 가지고 그때 들어온 식구가 4천 명이었어요. 그

식구들이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도둑놈의 새 끼들! 다 허송세월 했다는 거예요. 나이도 중년이 지나 어떻게 써먹겠나? 자, 하라구. (윤태근 원장의 간증 계속)

김중수! 「예.」 10분만 얘기해, 10분만. 말하려면 자기 교회에서 하던 식으로 하지 말고, 10분만 하라구. 10분만 하고 내가 얘기하고 폐회하는 거야, 폐회. 오늘 사진 찍을 사람들이 8백 명이 있으니까 네 시간, 다섯 시간이 걸릴지 몰라. 빨리 끝내야 되겠나, 끝어야 되겠나? 10분만 해, 10분. 「예. 9분만 하겠습니다.」 (웃음) (김중수 코스타리카 회장의 보고)

배고프지요? 점심 먹고 싶어요? 자, 빨리 적으라구요. 적지 않아도 되지만, 다 아는 것들이니까.

4억쌍 축복활동에 대한 지시사항

1. 혼독 서적 번역

이것은 별도의 지시인데... 여러분, 국가 메시아 손 들어 봐요. 국가 메시아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에요? 밥 먹고 뭘 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살릴 수 있고, 그 나라의 갈 길을 열어 주는 것이 국가 메시아입니다. 그 나라에 있어서 그 나라의 왕보다도 여러분은 아벨적인 왕입니다. 하늘의 특권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구요.

하늘과 사탄세계는 입장이 달라요. 사탄세계는 사탄세계 나름대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통의 세계에서 그 전통을 하늘의 전통으로 바꾸어 어떻게 접속시키느냐 하는 것이 국가 메시아들이 해야 할 책임이라구요. 알겠어요? 그 접속시킬 물건이 무엇이에요? 사람이름이에요, 사람 모습이에요? 뭐예요? 가르쳐 줄 수 있는 책을 출판

해야 됩니다.

훈독할 수 있는 책을 작년 중에 번역하라고 했는데 다 했어요? 그것을 한 나라 손 들어 보라구요. 몇 권? 언제? 이것을 안 했다는 사실은, 국가 메시아의 체면이고 뺏기고 없다구요. 자기 집을 팔든가 땅을 팔아서라도 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예.」 순식간에 해버려야겠어요. 금년 6월 이내에 다 끝내야 되겠다고요. 빛을 얻어서 하든가, 사람을 대신 세우든가 해 가지고.

각국에 대사관이 있다고요. 대사관에서는 대사관 직원을 통해서 번역을 전부 다 하고 있으니만큼 그들을 활용해서 하라는 거예요. 금년 6월까지 국가 메시아가 각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번역물을 만들지 않으면 자격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예.」 그걸 안 하면 하늘의 프로그램에 맞질 않아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겠습니다.」 하겠다는 사람 손 들어 보라구요. 첫째가 그것입니다. 내리라고요.

2. 대사관 협력 교육—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현재 국가 메시아들이 어렵다고 해서 현지에 들어가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어렵고 어떻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요. 어려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나라를 소화해야지, 어려운 나라를 뒤뒤 가지고 뜻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제일 문제가 뭐냐? 어려운 나라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뜻길에 있어 쉬운 것은 누구나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길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중심 존재, 책임진 국가 메시아의 사명이었더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데 왜 안 해요? 전략적인 일이 얼마든지 있다고요. 천 사람이면 천 사람하고 의논해서 그 길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침체

상태에서 머물러 온 사실을 부정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아시아 제국의 대사관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을 데려다 유치원을 만들어서 가르쳐 주고 초등학교를 만들어서 가르쳐 주면 우리 편이 된다고요. 직접적으로 관계된 한국 대사관, 일본 대사관, 미국 대사관, 그 다음에는 가인 아벨 가정, 4개국의 아이들을 모아서 유치원을 만들겠다고 하면 전부 다 환영하게 돼 있습니다. 반대하겠어요, 환영하겠어요? 말해 보라고요. 왜 가만히 있어요? 「환영합니다.」 일본 사람이면 일본 대사관에서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한국 사람하고 하면 두 대사관을 중심삼고 당장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일본의 유치원과 소학교 중고등학교 책을 중심삼고 일본 교과서를 스페인 말로 번역하고, 각국 말로 번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벌써 스페인어는 다 번역되어 있다구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들어가라 이거예요. 통일교회의 여성연합이니 뭐니 필요 없다구요. 대사관에 가서 학교를 만들 테니 도와 달라고 하면 안 도와주겠어요? 돈 얼마 안 들어간다고요. 알겠어요?

당장에 이 길을 통해서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결정을 해야겠다 이거예요. 입주 못 할 사람 손 들라고요. 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어려운 것, 무엇이든 자기들이 해결해야 된다고요. 대사관 협력 교육—유치원 소학교 중고등학교 설립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3. 혼독회 장려

혼독회 하는 것을 장려해라 이거예요. 그걸 장려해야 될 텐데 무엇을 중심삼고 하느냐? 혼독회를 해야겠다고요. 그 나라에 가서 놀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혼독회 하라는 것입니다.

혼독회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책은 《참부모》 책입니다.

《참부모》 책은 종교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번역해서 1백20권씩 나눠줘야 됩니다. 120문도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1백20권씩 나눠줘야 되겠다구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동안 얼마나 읽겠나 보라구요. 2주일이면 전부 다 읽을 거라구요. 2주일 기간을 주고 ‘당신이 이 말씀을 읽고 감동했으면 아들딸 앞에, 친척 앞에 교육해야 된다.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영향권에 있는 아들딸이나 청소년들 앞에 교육할 기회가 있다면 이 말씀 이상의 작용을 이룰 수 있는 교육을 해 주겠소.’ 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그 다음에는 뭐냐? 비디오 테이프 1백20개를 분할해서 사용하도록 나눠주라 이거예요. 나눠주고는 전화를 하든가 뭐를 하든가 해서 확인해 가지고 안 하는 사람에게서는 회수하는 것입니다. 회수해서 딱 데주는 거라구요. 이래 가지고 감동 받은 그 집을 찾아가서 ‘당신의 아들딸, 친척의 청년 남녀를 내가 교육시키겠다. 내가 이국 땅에 국가 메시아로 와서 인격적 기준 이상의 사람으로 교육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 한번 해 보자. 열 명이면 열 명 모아라.’ 하는 이거예요. 그럼 1백20곳을 중심삼고 하게 되면 수십 곳이 나오리라고 본다구요. 알겠어요? 타고 앉아 교육해야 되겠다구요.

4. 다방면의 전략 전술

360도를 중심삼아 가지고 전략 전술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고 뭐고 왜 못 해요? 사람을 왜 못 만나요?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구요. 알겠어요? 뭐라구요? 「다방면의 전략 전술을 세워라.」 다방면 전략 전술을 세워서 국가 메시아의 체면을 세워야 됩니다. 체면을 못 세우면 뭐예요? 국가 메시아가 뭐 하는 것들이예요? 알겠어요? 「예.」 그런 책임을 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여러분이 새로이 결심해야 되겠습니다. 전에 전달했던 내용을 재차 강조하는 것입니다.

1999년 4월 16일, 제40회 참부모의 날 기념

1. 부모 중심한 가정 편성 시대

어저께 얘기했지요? 알겠어요? 참부모를 중심삼은 이런 가정 조직 형태가 어디에서든지 적용될 수 있게 일궈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회사면 회사 자체가 가정이고, 학교면 학교 자체가 가정이고, 국가면 국가 자체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을 떠난 기반은 천국에 속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이건 어저께 말했어요.

2. 청소년 순결 보호 시대

청소년 순결을 보호하기 위해서 12세에서 16세 청소년들을 짝패 맺어주라고 그랬지요? 무슨 일이 있든지 그거 해야 되겠다구요. 그거 실험을 한번 해봐요. 학교 교장선생님을 찾아가 가지고 순결운동을 지지하고 환영하는 사람을 타고 앉아 가지고 설득해서 이래야만 전국적인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가 여기에 편성하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지어 가지고 짝패를 만든 거와 마찬가지로, 가정의 아기들이 있으면 그 아기들을 중심삼고, 또 학교면 학교를 중심삼아서 아담 해와와 같은 아들딸을 묶어 가지고 장래에 결혼할 수 있는 두 사람으로 만든 거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책정해 가지고 묶어 주라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학교가 중심 되고, 학부형이 중심 되어 가지고, 학생들을 중심삼아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형제인연 관계 약속 시대’라는 거라구요. 중고등학교를 중심삼고

형제인연 관계를 맺어 주는 약속 시대다 이거예요. 그래서 열두 살에서 열여섯 살까지 하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열두 살이면 아기를 낳고 다 그래요. 알겠어요? 열두 살에서부터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짝패를 만들어 줘 가지고 앞으로 자기들이 원하면 결혼해 주고, 맞지 않으면 결혼 안 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이 짝패를 모아 주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간접적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학부모와 학교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문제가 없어요. 이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게 되면 원리강의를 해 주는 것입니다. 교육하는 거예요. 타락론으로부터 전부 다... 사랑의 그릇된 길이 얼마나 피해를 입혔다는 걸 교육해서 바른 길로 잡아넣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형제인연 관계의 약속 시대다 이겁니다. 열두 살에서 열여섯 살. 순결을 보호해야 할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섭리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본다고요. 자기 아들딸들도 그래요. 자기 아들딸을, 사촌 오촌 일족을 중심삼아 가지고 서로 보호할 수 있는 짝패를 맺어 주라는 것입니다. 가정 자체에서도 문제입니다. 친척들끼리도 문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순결을 보호하기 위해 전부 책임지는 것입니다. 해외를 아담이 보호할 수 있었으면 타락했겠어요? 타락 안 했지요. 관계를 맺어 가지고 그렇게 보호할 수 있는 놀음을 아담이 했더라면 타락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걸 전부 다 방해하고, 타락된 모든 것을 제거할 수 있는 놀음을 해야 하겠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구요. 뭐예요? 순결 보호권 시대.

학교와 학부모와 학생의 공동결의 밑에서 해야 된다고요. 학교가 보증하고, 학부모가 보증하고, 학생들이 보증하는 밑에서 이것을 밀고 나가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공동으로 협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 4억쌍 미혼남녀 축복 시대

이건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해야 됩니다. 섭리적으로 볼 때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빼는 것입니다. 사탄 혈통, 뭐라고요? 「근절입니다.」 근절이라구요. 사탄은 영계에 가면 뭐예요? 이 땅에 태어나 가지고 죽어간 맨 마지막이지요. 이것까지 축복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억쌍 미혼 남녀 축복을 해야 할 시대다 이거예요. 그런 결심을 하고 가야 된다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 영계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6억을 했지만 40억까지 할 것이고, 1백억을 넘어서 1백20억까지 할지 모를 거라고요. 그러면 한 쌍 앞에 몇 쌍이 첨부되는 거예요? 이래 놓으면 사탄의 울타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들을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라고요. 알겠어요? ‘영계에 동원된 전부는 도시나 마을의 청년남녀들이 친척 관계에 있으면 줄을 타서 이들을 몰아내라.’ 이런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계에서 협조할 거라고요. 축복받은 다음에는 무엇인가? 무슨 결혼? 「계약결혼입니다.」 계약결혼했던 때, 그 다음에는 제멋대로 타락해서 오만가지 잡된 사람들을 줄줄이 달려들어서 자기 부락권 내 전체를 확청운동(廓淸運動)을 하는 것입니다. 청소운동을 하는 거라고요. 사탄의 뿌리까지 빼 버리는 것입니다. 그거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됩니다.」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정말 믿어요? 「예!」 믿으면 하라고요. 선조도 동원하고 말이에요. 선조들을 부려야 되겠다고요. 완성한 아담이 천사장을 부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보면 축복받지 못한 이 사람들은 무엇도 모르고 축복받는 거라고요. 아담이 모르고 행동해 가지고 천사장과 관계됨으로 말미암아 전부 파괴시킨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신축복 받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을

완성시키기 위해 지상에 와서 협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딱 그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원리적 관에서 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1) 아담 가정 영계 축복시대

아담 가정이라는 것은 36가정 가운데서 제멋대로 결혼한 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2) 노아 가정 영계 축복시대

36가정에 노아 가정이 있지요? 결혼을 약속한 패라구요. 완성을 못 했다고요. 약속만 했지 뜻을 못 이루었다고요. 딱 노아 가정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이것이 4억쌍을 중심삼고 둘째 번입니다.

지금까지 노아 가정이 그런 입장이라구요. 법적 조건에서 성사 못 했다고요. 기독교를 중심삼고, 신앙을 중심삼고, 예수도 절반밖에 못 했기 때문에, 기독교하고 외부의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줘야 된다 이 거예요. 종교권을 넘어 성인 악인이 하나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을 같은 자리에서 축복해 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3) 야곱형 축복시대

유아(幼兒)입니다, 유아. 소년들을 말해요. 죽은 영들을 축복하는 거라구요. 미혼자들을 축복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영계에 남아 있던 것은 죽었던 영인들이 전부 다 자라서 기다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형 축복시대. 영계의 어린애들을 중심삼아서 축복 완성하는 거라구요.

그럼으로 말미암아 상·중·하 영계 통일 청산시대. 이렇게 되겠지만. 그래서 영계도 3일식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아기로부터 전체에게. 그래, 야곱형 축복시대인데, 영계의 어린애들 축복 완성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야곱 가정의 상중하 영계 통일 청산시대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축복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영계 청산시대. 이렇기 때문에 3일식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지상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것이 지상에도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담 시대, 예수 시대, 재림 시대를 중심삼고 3시대,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를 거쳐 올라가서 성인들 악인들을 평면적으로 해방해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계와 육계에서 완전히 지상지옥 천상지옥의 문이 열려 가지고 축복받은 가정은 영계나 육계나 같이 손잡고 형제와 같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모든 걸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협조 받는 거라구요. 몰라 가지고는 안 됩니다. 4억쌍 축복 내에 들어가는 거라구요.

(4) 지상 동화시대를 영계와 일체화하여 지상 재림 협조 완성을 본연적 아담 가정형 완성을 대신하여 사탄 없는 천상 지상 일체권을 완성하여 지상천국 천상천국 시대가 시작함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웃음) 뭐예요? 내가 써놓고도 잘 보이지 않아요. 안경을 안 가져와서. (웃음) 지상 동화시대를 영계와 일체화하여, 영계와 같이하여 지상 재림 협조 완성을 본연적 아담 가정형을 완성하여 사탄 없는 천상 지상 일체권 완성으로 지상·천상·천국적 시대가 시작함. 이렇게 되어 있다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어요? 「예.」 좁기 때문에 이거 잘라서 쓴 거라구요. 알면 된다구요. (웃음)

왜 웃어요? 왜 웃느냐 말이에요? 「일본 사람이…」 웃을 사람은 웃어도 괜찮아요. 바쁘다구요.

4억쌍 축복을 완성하자

그래서 4억쌍 축복을 우리는 완성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알겠어요? 「예.」 아까 적은 첫째가 뭐라고요? 첫째는 훈독할 책을 번역할 것. 그 다음에는 대사관 협력 교육,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시작할 것. 훈독 장려를 위해서 《참부모》 책 1백20권, 비디오 1백20개를 배부해서 앞으로 있어서 어린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훈독회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 것.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다방면적 전략전술 작전을 시작할 것. 그게 전부 다 여러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고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자, 그렇게 알고 오늘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이 많아요. 지금 8백쌍이 전부 다 목을 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진 찍어 줘야 되겠어요, 안 찍어 줘야 되겠어요? 「찍어 주셔야 됩니다.」

*일본 멤버들 가운데 사진을 찍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양복을 안 입고 왔더라도 이냥 이대로 좋지요? 「예.」 이냥 이대로 싫다는 사람들은 사진을 안 찍어도 좋다고요. (웃음) 양복을 입고 찍어 주면 좋겠어요, 이대로 찍어 주면 좋겠어요? 이냥 이대로그 좋아요? 「예.」 정말이에요? 「예.」 수련소에서 그런 사진을 찍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낙제생들이라고요. 일본은 해외국가의 대표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대신해서 선생님이 양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요. (웃음과 박수)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자, 광정환! 앞으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4억쌍 책임을 책임자들에게 전부 다 분담했나? 「책임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씩 배당했어? 「예.」 됐어. 오늘 종일 모여도 좋겠지만 바쁘니까 이것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내가 언제 우루과이 갈지 몰라요. 박구배가 해방을 받았구만! (경배, 박수) *

훈독회와 축복가정의 길

(앞부분은 녹음되어 있지 않음) 사랑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나라 앞에, 사랑하는 천주 앞에 상속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때 개인 시대에도 좋았고, 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시대에도 좋았다 해야 돼요. 그럼으로 말미암아 지상세계와 천상세계에 한이 되는 지옥과 천국을 통합시켜서 천국만이 있을 수 있는 해방된 사랑의 세계를 만들자 이거예요. 그 관에 상처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부모의 자리가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훈독회 시간은 말씀 앞에 심판 받는 시간

지금 제일 염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아들딸들이 그런 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를 몰라요. 임자네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무얼 하는 아버지인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를 대하고, 자기 선생을 대하고, 자기 아는 사람을 대하듯 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공적인 선생님의 말씀 앞에 하나도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입장에서 서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

1999년 4월 29일(木), 이스트 가든.

* 이 말씀은 아침 훈독회 시간에 하신 것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되는 거예요.

또 아버지는 그 말씀 앞에 하나도 걸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소원이요, 모든 통일가의 가정을 축복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만물과 인류와 천상세계에 있는, 영계에 가 있는 사람들, 지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돼야만 지옥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지옥의 가정, 지옥의 직계 아들딸, 황족 전체가 해방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지금 하는 말씀 혼동회 시간은 뭐냐? 여러분이 심판적 조건에 걸리지 않느냐 하는, 그걸 참관하는 시간이 혼동회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혼동한 축복에 대한 말씀에 틀린 것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말씀한 것 중에 틀린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선생님이 과거에 뭐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명령이나 뜻에 따라서 했지, 그것을 모른다고 해서 입을 지껄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참부모 가정의 규범이 세계에 표본이 되어야

더구나 이제부터는 가정 모델형의 세계화 편성시대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참부모의 가정에서는 참부모를 중심삼고 참아들딸의 규범이 세계에 표본이 되어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나라를 찾아 들어가게 될 때는 아무리 아들이 뭐 하더라도 거기에서 이별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들딸들이 많고 아무리 훌륭한 무엇이 있더라도 법에 위배될 때는 틀림없이 갈라지는 거예요. 지상에서 갈라질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도 갈라져요. 지상에서 암만 했댔자 갈라지지 않는 입장에 서면 영계에 가서는 더 지옥 끝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무

서운 때가 온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아버지라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입장이 못 됐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아버지와 핏줄이 같아야 돼요. 핏줄 위에는 어머니 아버지의 생명이 붙어 있고, 그 어머니 아버지의 생명 위에는 사랑이 붙어 있고, 그 사랑 위에는 하나님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자체들이 해야 할 엄청난 책임이 있는 줄 알아야 된다고요. 낳아 준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똑히 알아야 돼!

알겠나? 현진! 영진! 앉아서 졸면 안 돼. 아버지가 졸기 전에는 졸아서는 안 되는 거야. 이런 것을 전부 시정해야 돼. 싫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틀린 거야. 천주에 아버지 말이 그르다고 하는데, 아니야. 안 통한다구. 우리 통일교회 식구들이 아버지를 위하는 몇십 배 이상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걸 자각해야 된다고. 무서운 날이 온다는 걸 알아야 돼. 그때 가서 선생님이 주저하지 않아. 선생님이 이미 다 정리한다는 거야. 법을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훈독회가 뭐냐 하면, 심판정을 피할 수 있는, 자신을 회복하기 위한 충고의 말이요, 권고의 말이예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그런 때가 오기 전에... 그때에는 어차피 아는 것을 행동 못 하면 영계에 가서 걸리는 거예요. 걸리기 전에 지상에서 칭찬 지으려니 선생님을 절대 믿고 절대사랑하고 절대복종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겠나, 너희들? 「예.」

훈독회 하는 말씀 가운데 ‘아버지가 이런 것을 못 하고 말만 한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드러내라는 거야. 너희들이 이렇고 저렇고 비판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움직이면 앞으로 영원히 갈라지는 거야.

보라구. 선생님의 어머니 아버지, 형제가 전부 이 길을 간다고 붙들고 통곡했어. 마을이 통곡했어. 그걸 박차고 나온 아버지라는 걸 알아야 돼.

그 법은 엄격히 영원히 남아져야 할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길

을 나온 거야. 그러니 너희들도 그 법의 처리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자숙해서 자기의 환경적 여건이 걸리지 않게 명심 명심 정성들여야 된다는 거야. 알겠나, 무슨 말인지? 답변해 보라구. 알겠어? 현진! 국진! 알겠지? 똑똑히 얘기해 준다구. ‘아버지, 내 말을 들어 주소!’ 그게 언제나 되지를 않아.

이제 언제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다 법적으로 처벌할 거예요. 그때가 오는 거예요. 법은 법대로 처리해야 되고, 현재 환경이 하늘의 뜻 앞에 통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면 담을 쌓아 놓아야 돼요. 그것이 열려 있으면 담을 쌓아 놓고 아버지는 가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전숙이 알겠나? 그런데 왜 신원이가 졸고 있는데 그대로 데리고 있나? 시간 되기 전에 누구보다 먼저 와야 돼. 언제든지 아버지보다 먼저 와야 돼. 아버지가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늘 앞에 기도하고 그런 놀음을 하는 거야. 잘 따라가야 돼. 명심하라구. 알겠나? 답변해! 알겠어? 알겠나, 현진! 대가리들이 크니까 자기 멋대로 하고 있어.

여기에 앉았다가 자리를 뜨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런 공적인 입장에서 얘기할 때는—어머니한테도 얘기하는데—마음대로 뜯 수 없는 거예요. 죄예요. 못 사람이 볼 때 그것을 본받아요. 내가 지금까지 팔십이 되도록 살았지만 공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게 없어요.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시집 장가보내더라도 거기에 안 가겠다고, 안 된다고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똑똑히 정신차려야 돼요. 양창식, 기도해요. (양창식 워싱턴 교구장 기도)

말씀은 인류가 가야 할 표준

축복에 대한 말씀은 언제 한 거예요? 날짜는 얘기를 안 했구만. 「축

복에 대한 말씀은 1970년 3월 22일 전본부교회에서 하신 것입니다. 공적 치리의 법도에 대한 말씀은 1970년 6월 4일 전본부교회에서 하신 것입니다. (양창식)」

선생님이 중간에 영계에 가더라도 저 말이 인류가 가야 할 표준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다 해준 거예요. 공적인 노정을 오늘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가야 된다고요. 그걸 틀렸다고 할 사람 있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무엇이 생기면 보고하고, 또 뭘 행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고 보고해요. 시작과 끝이 맞아야 된다고요. 자기가 개재하면 그건 하늘과 관계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영계의 모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도 하자고 못 한다구요. 하나님도 하자고 못 한다는 거예요, 사탄 앞에. 선생님이 대담하게 밀어 제껴야 돼요. 그러려면 돌아보나 올려다보나 내려다보나 자기 스스로 양심에 걸리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양심에 걸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중심삼고 지금까지 기도해 나오고 정성들여 나왔기 때문에 그 정성들인 기준을 하나님도 부정할 수 없고 사탄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를 개방할 수 있는 주인의 자리에 섰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꿈같은 얘기에요. 그냥 그대로 이루어져 나간다고요. 두고 보라고요.

세계가 1년 동안에 많이 변했지요? 3억6천만쌍을 통일교회가 축복했다는 것이 표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요. 참가정의 참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3억6천만쌍 가정을 중심삼은 해방의 내용이 해결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해원해야만 해방할 수 있어요. 영계를 평준화시키고 지상을 평준화시켜서 사탄의 흔적이 없는 수평선이 돼야 하나님이 비로소 행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인데 말은 쉽다구요. 그것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도 못 했어요. 사탄도 못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부모의 사명이에

요.

참부모가 하는 것이 뭐냐? 한 시간 하루를 자기 마음대로 살아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여러분이 이해 못 하는 일이라도 하늘과 의논하고 해 나왔기 때문에 그 누가 비판을 못 하는 거예요. 비판이 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조상들이 전부 지옥 가는 걸 끌어낼 수 있다구요. 거꾸로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7대 조상 해원은 7수를 중심삼은 그 선조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조상을 해원해서 120대까지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해야 돼요. 지상에서 정성들여 줘야 된다고요, 자기 일족들이. 종족적 메시아가 돼 있지요? 종족적 메시아는 7대조로부터 조상을 해원성사함으로 말미암아, 전세계 통일교인이 하게 된다면 산으로 말하면 7부 능선도 안 가서 조상들이 다 해방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시대는 180대를 해방하는 거예요. 이제 무한한 해방이에요. 180대를 하게 되면 무한한 해방이에요. 삼 팔이 육십 사($3 \times 8 = 64$)예요. 사탄수의 3배이기 때문에 사탄세계의 어디든지 다 밟아 치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조상들의 소원이고, 천사장의 소원이고, 만물의 소원이고, 타락한 인류의 소원이에요. 복귀가 소원 아니에요? 전부 들어간다고요. 갈 때 지옥이 있고 중간 영계가 있고 낙원이 있다는 사실이 본래 타락한 기준이에요. 이걸 전부 다 정비해야 돼요, 내가 영계 가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몇 년 동안에 그 모든 뿌리를 청산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총생축헌납제라는 걸 알겠어요? 구약시대에 만물을 희생시킨 것은 아들딸의 갈 길을 열기 위해서예요. 아들딸을 희생시킨 것은 부모가 갈 길을 열기 위해서예요. 부모가 희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연대적인 사명을 중심삼고 해결 기점이 돼서 딱 이렇게 되면 한꺼번에 세계를 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요? 하나님이 못 해요. 하나님이 사탄과 싸움하고 있는데 그 싸움을

말릴 수 없어요. 사탄의 참소를 피할 수 없어요.

그 가운데 선생님이 딱 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생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선생님을 도와서 사탄을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인 거짓 부모를 통해서 하늘땅을 갈라 났으니 참부모를 통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이거 이론적이라구요.

장자 나라를 활용하기 위해서 24년간 미국에서 희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동회 하는 것은 자기비판이에요. 일대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위배되는 것이 무엇이나 이거예요.

이번에 통일중공업 문제도 전체가 반대했어요. 독일 공장문제도 그래요. 일본의 간나 자식들이 그걸 팔고 잘 했다고 찬양하고 있어요. 자기 몸뚱이가 잘리고 나라가 팔려나가는 걸 모르고 있어요. 끝까지 누가 죽느냐 이거예요. 누가 포기하느냐 이거예요. 사탄세계하고 말이에요. 포기해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포기하는 동시에 그것을 지지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세계가 복귀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박상권? 선생님이 잘했어, 잘못했어? 「잘하셨습니다.」 자기도 그냥 그럴 줄 알았지? 「저는 잘 모릅니다.」 모르면 과거 그렇게 한 것을 자기도 회개할 줄 알아야지.

그런 조건을 찾기 위해서 한국에서 결혼식을 한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일본과 한국을 포기한 거예요. 이제부터 남아진 남북통일과 아시아 통일을 하는 데는 어느 나라를 내세울 수 없어요. 내가 선두에 서야 돼요. 그걸 하려면 장자권을 활용해야 돼요. 미국을 내세워야 된다고요. 미국을 내세워서 컨트롤한다면 문제없이 세계가 수습되는 거예요. 장자권이 그렇지요? 부모가 잘못하면 장자가 수습해야 된다 이거예요. 부모가 잘못하지 않았어요?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서 기독교가 본연의 사명을 하게 된다면 미국

은 사는 거예요. 횡적인 세계를 종적인 세계로 연결해 망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과 직결될 수 있는 높음을 해야 된다고요.

보라고요. 망하는 세계로 각도가 내려가면 선생님이 들어와서 각도를 일으켜서 이중이 돼요. 각도의 기준만큼 수평이 되어 하나될 건데 이게 떨어진 거예요. 각도가 여기에 있다고 이 중심이 땅에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걸 이렇게 해놓고 가정이라든가 사회를 중심삼은 여기서 각도를 맞춰 나가야 돼요. 여기 떨어진 각도를 맞추는 것이 반대예요. 이걸 배우려면 핍박받아야 된다고요. 핍박받으면서 이걸 수직과 연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 하늘의 심정이 이렇게 돼서 여기에 와서 배우는 거예요. 한 시대에 있어 8단계가 남아 있어요. 여기는 기울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리로 끌어올려서 수직으로 연결해야 돼요. 그 높음을 한 것이 미국에서의 24년간 희생이에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2차대전 직후인 54년 전의 그 기준을 갖다 수직으로 만들어 봤기 때문에 축복 세계화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참축복 천주화와 사탄 혈통 근절'하는 거예요. 근절은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영계를 손대겠다는 거예요.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야곱 가정과 마찬가지로요.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인데 타락한 아담 가정과 같은 가정이 영계에 가 있어요. 이걸 복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은 노아와 마찬가지로요. 절반밖에 못 이루었어요. 그래서 야곱 때에 착지한 것입니다. 역사시대로 보면 노아는 예주시대, 야곱은 재림시대와 맞먹어요.

재림시대는 여기에 상대적 기준을 중심삼고 어디서 하나되느냐? 여기에 와서 하나되는데, 맨 끝날에 와서 지상천국을 이루자는 거예요. 예수도 지상천국이 목적이요, 아담도 지상천국이 목적이요, 노아도 지상천국이 목적이요, 야곱도 지상천국이 목적이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결속해서 지금 이상가정 수련을 자르던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담의 해원성사, 예수의 해원성사, 재림주의 해원성사, 노아와 야곱 일족을 중심삼았던 세계 확장 기준의 열매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야곱 가정 완성, 노아 가정 완성, 아담 가정 완성, 노아 대신 예수 가정 이상 편성, 야곱 대신 재림주 세계통일가정 편성이 이뤄지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여기에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는 안 돼요. 참사랑 가정을 중심삼고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평화통일이상가정보부라는 말이 벌어지는 거예요. 축복가정이 여기를 거치지 않으면 탈락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마찬가지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되지요, 끝날에 여기에 와서? 영계와 육계가 갈라지고 몸과 마음이 갈라진 것을 가정을 중심삼고 청산 짓는 거예요. 이제부터 환고향할 때가 들어오는 거라구요. 북한이 아무리 틀고 나오더라도 하룻저녁이면 해결하는 거예요. 김정일을 데려가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3대를 못 가요. 3대를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3대를 파탄시켰던 것이 2대 3대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라고 나가는 선생님의 생애가 비참해요. 종의 종이에요. 종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자주적인 입장에서 명령하고 활동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섭리적으로 본 박씨의 역할

페라칸 같은 사람도 지금 그런 코에 걸렸다고요. 선생님이 사랑해 줘야 돼요. 그걸 백 퍼센트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게 문제라구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레버런 문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한 대로 자기 부모보다도, 자기 나라보다도, 자기 교단보다도 더 사랑했다는 조건을 세워야만 완전히 뿌리까지 뽑힌다고요.

그 여자가 꼭 무엇이지요? 그 다음에는 박씨 부인이예요. 곽정환이 곽가지? 박가들은 외적으로 자기가 부탁하고 있잖아? 전부 박가예요. 박태준, 박철언, 박준규, 다 뭉쳐 있지요? 이들이 하나돼야 돼요.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요. 박보희, 박상권은 이복하고 관계했지요? 나중에 재 단이사장 한 사람이 박홍조예요. 이번에 해양사업을 하는 데 박동하를 시켜서 이 놀음을 하는 거예요, 제주도와 하나 만들기 위해서.

박씨들이 영적 기준의 책임은 했지만 실체 기준의 책임은 못 했어요. 나중에는 자기 욕심을 품고 갈라진다는 거예요. 박대통령도 그랬어요. 박대통령이 박보희하고 합해야 된다고요. 내가 길을 다 닦아 줬는데 못 한 거라고요. 이상하지요? 박상권! 「예.」 무슨 수단 조작이 아니야.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아요.

박노파라는 사람이 선생님을 만나서 영계와 육계를 통일할 때 영적인 조건만 세웠어요. 그걸 내가 뒤집어 가지고 육적 기준을 실행하는데 반대한 거예요. 거기에서 반대가 벌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화신백 화점 박홍식의 장모예요. 한국의 제일 거부의 가정을 중심삼고... 또 그 집 영감이 한씨예요.

그래, 문씨 앞에 박씨 한씨가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이것들이 제 갈래 길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잘못하면 큰일난다는 거예요. 세계에 이렇게 내세우니 ‘문씨보다도 한씨가 낫다!’ 이러지요. 현재 중요한 부서에 한씨들이 많아요. 교육분야에서도 말이에요. 문씨도 그래요. 문씨가 중요한 외적인 성씨예요.

제주도는 문씨의 나라예요. 도로부터 지방조직에 문씨가 많아요. 제주도를 괜히 선생님이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줄 알아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그런 깊은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간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해서 또 그렇게 살아 왔다고요.

박상권은 자기 하는 일에 자기와는 의논하지 않고 선생님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할 때 있지?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아

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박보희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을 중심삼고 선생님을 업고 나가겠다고 하면 안 돼요. 뒤집어진다구요. 뒤집어져요. 선생님은 가지만 자기들은 땅에 꽂힌다구요. 또 선생님은 알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실천하고 나서 말씀으로 남겼다

그런 관점에서 혼동회라는 것은 내 자신이 심판 받는 자리예요. 여기에 실천하지 않고 한 말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사탄이 물고 들어와요. 그걸 회개해야 돼요. 영계를 해방하기 위해서는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박마리아 가정을 해방해줬지요? 원수 중의 원수예요. 이가 갈려요. 이 간나가 김활란을 그렇게 해놓고 프란체스카를 중심삼고 이 대통령을 만나서 선생님을 형무소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원수 중의 원수예요.

상헌 씨의 말 중에 박마리아가 누구한테 혜택을 받았는지 모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당연히 알아야 돼요. 나라를 찾을 수 있는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알고 나서는 대성통곡해야 돼요, 만세를 통해서. 선생님이 무서운 사람이라구요. 하나님은 영어(囹圄)의 몸인데 구해내야 된다고요. 사탄에게 ‘이 모든 살아 나온 것이 사실이야, 아니야?’ 해서 사탄이 입증해야 돼요.

‘지옥해방’이라는 말을 해왔지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세상에 없는 말이에요, 그게.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만이 아니예요. 그대로 된다고요. 두고 보라구요, 거짓말인가. 지옥에 간 조상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일렬의 수평에 있어 세계로 나갔던 것을 가정으로 새로 출발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종적 기준을 중심삼고, 부모님을 중심삼고 되돌려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간나들을 지옥으로 잘라 버려야 될 텐데 다시 축복해 주는 놀음을 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나라가 안 됐다고요. 하늘땅에 조국 광복이 안 됐어요. 종족 광복과 민족 광복, 국가 광복이 안 됐다고요. 국가 광복이 되면 죄인들을 해방하는 거예요. 김대중도 52만 명을 해방하지 않았어요? 그 놀음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 전권을 행사했으니 하늘나라의 개문을 하더라도 조건을 걸고 해방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박중현이 있잖아? 임자도 박가인가? 「예.」 박가가 책임 해야 된다고요. 종노릇을 해야 돼요, 종노릇. 박가 이놈의 자식들! 그 박씨 할머니를 선생님이 하나님같이 모셨어요. 별의별 놀음을 다 한 거예요. 그 아들이 열둘이었는데, 그 남편 모르게 별의별 놀음을 다 했어요. 똥을 싸면 밭도 닦아 준 거예요. 이상하지요? 박씨들이지요? 이 녀석은 뭘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잖아? 박중현! 어떻게 하든지 이번 5월 초하루에 많이 집합시키라구.

박씨들이 많구만, 여기. 박동하는 선생님의 차를 운전하던 사람인데, 폭대기도 관여하려고 해요. 자기 처신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선생님이 세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워진 자리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수속이 남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가르침 가운데서 잡아내라는 거예요. 불평할 수 있는 아들딸은 다 잡아내라는 거예요. 깨끗이 정리하는 거예요. 아들딸한테 부끄러워 가지고 어떻게 하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조상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수많은 인류 아들딸 앞에 부끄럽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놀음을 한 거예요.

물어 보라구요. 선생님이 함부로 산 남자인가. 강현실로부터 선생님을 모신 가까운 사람들에게 물어 보라구요. 말씀한 대로 했지요. 끝날

에 가서 무슨 명령을 해도 순응해야 돼요. 싫다고 하면 그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진이 어머니가 원수인데도 그 여자까지 축복해 주려고 그래요, 사람을 시켜서. 세상에 그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전처가 원수 아니에요? 원수예요. 통일교회를 없애려고 붙어서 지금까지 반대한 거 라구요. 그런 기반 위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 복종을 선언한 거예요. 사탄이 온 천주, 피조세계를 걸고 하나님 앞에 복종을 선언한 글이 있어요. 상헌 씨를 통해서 나에게 보내 왔더라구요. 윤기병! 「예.」 그것을 읽어봤지? 「예.」 읽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돼야 돼, 선생님을 모시려면. 「예.」 세상에, 밤낮 24시간 문총재를 지키고 천년 만년 자기 책임 해야 될 텐데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참 많아요.

윤씨를 보라구요. 윤기병, 윤씨네 딸들, 윤정로가 있고, 윤학로 재판장이 선생님을 무죄선고 했어요. 그 다음에 윤박사예요. 그것을 다 몰라요. 선생님만 알아요. 윤박사를 3대를 거쳐 12년 동안 총장 시켰어요. 문교부에서는 왜 나이 많은 그런 사람을 총장 시키느냐고 하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듣지 않아요. 이번 2월 1일 ‘세계일보 창간 10주년 축하회’에 김대통령이 참석했지만 고맙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들이 ‘신문사 사장을 갈라.’ 한 거예요. 그놈의 자식, 변호사 모가지를 잘라 버렸어요. ‘월권행동을 해? 네가 신문사 주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통일교회는 나라에 빛을 하나도 안 졌어요. 끝날에는 때려잡는다는 거예요. 통일교회를 살려 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벌들은 걸려서 다 망하더라도 주권은 남아진다는 거예요. 그 일을 결정적으로 이루어 놓았다구요.

축복가정은 하늘의 공적 법을 어기지 않아야

그래, 축복가정이 되어 하늘의 공적 법을 어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

이 딱 맞는 얘기에요. 재벌들이 ‘세상에, 문총재는 사업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래 가지고 얼마나 꺾박을 많이 받았어요? 일본 간나 자식들, 독일 공장을 파니까... 독일 공장을 1년 반만 유지했으면 남미에 가서 전시할 때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를 완전히 잡는 거예요.

박상권이 그 박람회 할 때 찬양했나, 좋아했나? 남미에서 한 선생님의 업적에 대한 박람회 말이야. 「물론 찬양했습니다만...」 그것을 임자가 전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임자가?

보라구. 해양산업을 자기한테 맡겼는데 여기 와서도 자기에게 책임을 준 거야. 그런 선생님을 존경해야 돼. 왜 그러냐 이거야. 공들인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아.

내가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보고 받은 말이 뭐냐? 36가정 처리 문제에 대한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다 쫓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공적 조건이 있어야 돼요, 공적 조건. 그럴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당사자가 안 됐으면 여편네 편이라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늘이 과거에 사랑하던 것을 지금 와서 버릴 수 없어요.

보라구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내 원수지요? 포기했어요? 「아닙니다.」 이번에 축복해 줄 때도 그들을 먼저 해준 거예요. 하나님은 옛날에 주인 된 그 입장이예요. 언제나 주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길을 영원히 세워 나오면서 처리하기 때문에 절대순응의 통일세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윤박사에게는 무엇을 시켰어요? 박물관장으로 세웠어요. 선생님이 그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뜻이 가는 길이 그래야 돼요. 모든 것을 포용해야 돼요. 철로를 놓게 된다면 궤도의 폭이라든가 높이가 같아야 돼요. 그때 좋았다고 해서 터미널 포인트, 목적지에 갈 때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걸 존중시켜야만 돼요. 그걸 전부 파탄시키면 여기 전체가 한 곳으로 흘러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잘못된 것을 잘라 버

려야 돼요.

유정옥이 유씨(유효원 전 협회장)네 유(劉)가예요. 일본에 데려다가 지금 그 책임을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았으면 얼마나 일본에 가서 일하고 싶어하겠어요? 그럴 것 아니예요? 그것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유효원이 통일산업을 몇 번이나 갔겠어요? 나는 하루 세 번씩 갔는데 그 사람은 아마 죽을 때까지 몇 번 안 갔을 거예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선생님의 뒤를 따르면서 말씀을 중요시했지만 말씀의 실체를 망각했어요. 그것 때문에 저나라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해방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족을 느끼고 하늘을 찬양해야

윤기병을 왜 내가 데리고 다니느냐? 윤기병 아버지가 와서 자기 아들딸들을 전부 바친다고 하면서 잘 부탁한다고 한 그 말을 내가 잊지 않아요.

최용석, 이놈의 자식! 그 아버지가 왜정 때 도의 과장까지 지낸 친 일파예요.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와서 경배하고 부탁한다고 한 거예요. 그것을 내가 잊지 않아요. 그놈의 자식이 지금 영계에 가서 간혀 있다구요. 요전에 하나님께서 최용석을 용서한다고 하면서 선생님한테 결재 받으려고 했는데 보류시켰어요. 왜? 나라를 찾아야 돼요. 나라의 인가를 안 가지고는, 해방의 특사를 내리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생님이 함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구요. 하늘에나 땅에나 걸리지 않기 위해서 산 거예요. 산꼭대기, 깃봉 꼭대기에 선 거와 마찬가지로요. 바람이 불면 깃대가 부러지면 부러졌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수평시대, 잔잔한 시대에는 중심에 와서 동서남북 사방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씀한 것을 이루지 못한 게 있느냐 이거예요. 있는지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런 걸 알고 입다물고 순순히 따라오라는 거예요.

천년 만년 자기 자체를 구속하고 부족함을 느끼면서 하늘의 높음을 찬양하고 부모님의 음덕을 천지에 꼭 차게 찬양하고 죽어가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자, 밥 먹자!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면 밥맛이 없어지겠다고요. 임자네들은 혼독회할 때 그 가운데서 선생님이 못 이뤘다는 것이 있으면 대번에 나한테 보고해요. 십배 백배 회개해야 하는 거라고요. 그래 놓아야 앞으로 행차하는 데 천지가 나발 불고 북 치더라도 천지 전체가 춤을 추고 놀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선생님이 판타날에서 배를 만들고 그러는데 어느 누가 한푼이라도 현금해서 돕겠다는 녀석이 있어요? 내가 말을 안 해요. 기계공업이 실패로 끝난 것을 세계에 공인시켰기 때문에 항공기술에 손을 대는 거예요. 비행기 회사를 만든 거예요. 박씨들은 문증을 팔아서라도 그걸 협조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박중현! 박상권! 「예,」 박씨가 망치지 말라고요.

최씨, 성진 어머니가 최씨이기 때문에 최씨를 통해서 복귀하는 거예요. 최원복, 그 다음에 누구예요? 최봉춘, 그 다음에는 또 누구예요? 최용석, 최주찬이예요. 미국의 대표 수산사업을 최주찬이 했지요? 자기 자랑만 하더라고요. 그거 생각해 보라고요. 새면(salmon; 연어)을 연구하라고 했는데 돌아다니면서 수산청하고 싸운 걸 자랑하더라고요. 공장을 중심삼고 개척하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앞으로 킹 새면을 잡아야 돼요. 새면이 셸베이션(salvation; 구원) 문(moonie; 통일교인)이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꼭대기를 전부 알아야 될 텐데, 아이구... 치그닉, 그 아래의 칼로 그, 그 다음에 물개들 많은 데 있잖아요? 지니아플, 그 다음에 기로베

이, 전부 다 보고 1시간 반을 가지 말라고 그래요. ‘선생님, 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요. 개척자로서 보이는 산골짜기를 전부 다 조사해서 포인트를 잡으라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세월 보냈다고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기를 몰라준다고 불평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를 상감마마와 같이 모셔 줄 줄 알고 있어요.

또 한씨! 한인수 있잖아요? 한인수도 5·16민족상을 탔고, 최씨도 5·16민족상을 탔어요. 한인수를 중심삼아 가지고, 한씨 주인이 책임 못 했기 때문에... 농도원(農道院)을 중심삼아 가지고... 새마을운동을 누가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이 시작한 걸 박대통령이 도적질해서 써먹지 않았어요? 그가 문충재의 이름을 만들었으면 망하지를 않아요. 자기 것으로 한 거예요. 그 두 형제가... 두 형제만이에요?

보라구요. 한씨가 얼마나 많아요? 한상길 한상국, 이 사람들이 중심 간부예요. 이것들이 무얼 했느냐 이거예요. 머리를 저어서 탈락하는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탈락이에요, 탈락. 한상길도 아들딸을 다 놓쳐 버렸어요. (녹음이 잠시 끊김) 하나 안 되고 전부 탈락해서 통일교회 원수로 떨어졌어요. 일화를 맡겼더니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그래서 어머니가 한씨 어머니예요. 성진이 외할머니가 한씨예요. 그 사람이 코치해서 성진 어머니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탕감복귀 해야 돼요.

자기 위치를 알고 행동하라

보라구요. 재건교회의 원수가 한씨예요. 한상동이에요. 다 하늘이 출세시켰어요. 박씨도 출세시켰어요. 「박태선입니다.」 박태선도 그래요. 임자네들은 박태선의 얘기를 하지 말고 임자네들이 잘 해야 돼요. 둘

이 안팎으로 하나되어 선생님이 하는 경제적인 일을 책임지고 정신적으로도 해라 이거예요. 임자를 내세워서 교파를 연결시키는 놀음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선생님의 책임을 다 하고 있다구요. 죽어 나가도 박씨들이 고개를 들고 선생님한테 불평하지 못하게끔 하고 있어요.

「한경직 목사가…」 그래. 한경직이 우리 통일교회를 제일 반대하지 않았어요? 최성모도 그래요. 그 사람을 한국의 대표로 제일 사랑한 거예요. 그 녀석만 하나되었으면… 그 녀석으로 말미암아 사건이 붙은 거예요. 요즘에는 끝장을 보더구만. 최순영? 이놈의 자식, 욕심을 가지고… 나는 세계의 돈을 가지고 나라를 살렸는데 돈을 외국으로 빼내 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해요? 그것은 날아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내가 그런 것을, 주변에서 엿어 나가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렇게 가기 쉬울 텐데…」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한경직이 통일교인이 됐으면 다 용서받는 거예요.

강현실이 한상동이 제일 사랑하는 딸처럼 생각하고 지냈는데 걸려들었어요. 재건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무시해 버린 거예요. 반대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끼리는 친구다 이거예요. 딸과 같이 생각한 거예요. 현실이 아버지가 신앙을 가져서 동지와 같은 입장에서 나갔어요. 「한상돈 입니까?」 한상동이에요. 고려신학대학 학장이었어요. 때가 다 돼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박보희는 기성축복 받은 대표로 세운 사람이라구요. 그 씨를 뽑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박상권도 씨를 뽑아 줘야 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통일교회 산하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통일교회를 짚어진 대표자의 입장으로 생각한다구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어려울 때 나라의 모든 것을 책임 맡기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윤기병이가 박보희의 처남인데 내가 일부러 박보희를 욕하더라도 보고 안 하는 모양이야. 윤기병, 매부라고 보고 더러 하나? 「해야 됩니

까?」 하긴!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붙들고 있는 거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처남 말을 듣겠나? 내 말도 안 듣는데. (웃음) 「애기를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데리고 있어, 이놈의 자식아! 뜻적인 입장에서 지금까지 한 일을 보면 자기 중심삼고 80퍼센트를 생각하지, 선생님을 중심삼고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이 뭐야? 지금까지 중간에 걸치고 나왔지.

그래, 딸들 많은 집이 탈이예요. 7공주지요? 8공주예요, 7공주예요? 「일곱입니다.」 7공주에 한 아들이예요. 복귀섭리에 딱 맞는 수라구요. 어머니가 그렇게 돼요. 70세를 넘어서 자리잡아야 돼요. 선생님이 까리까리한 길을 다 가려 나왔어요. 하늘이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런 분별을 할 수 있는 영적 지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왔지,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누구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도 염려하는 기준을 세워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감사하고 하나님도 존중하는데, 그런 기준에서 부모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계 전체가 부모님을 존중하잖아요? 죽어 보라구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말을 안 꺼내요. 말을 하면 끝장이예요. 말을 해놓으면 잘못되면 잘라 버려야 돼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남아진 다구요.

박동하! 「예.」 선생님을 한국에서 모셨던 것이 아무 소용 없다고 생각해야 돼. 「예.」 어디 가게 되면 간부들 모인 자리에 으레 들어와 앉을 줄로 생각하더라구.

여기 통일교인들이 선생님의 전용비행기를 누구든지 다 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 내가 제주도에 가는데 식모 짜박지들로부터 전부 선생님의 허락도 없이 올라와 앉았어요. 전용기가 어떤 비행기인데, 아무나 탈 수 있어요? 보통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할 자리라구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한 거예요. 자기 위치를 알아야 돼요.

「아버님, 밥알이…」 안다구. 밥알 붙는 것보다도 맛을 더 중요시해야 돼. (웃음) 「어머님이 계시면…」 어머니는 말해도 안 들으니까 자기가 떼더라구.

아시아평화여성연합 강연을 위한 참여어머님의 수고로운 준비

어머니가 훌륭한 것이 뭐냐? 일본말을 알아요, 영어를 알아요? 전부 내가 가르쳐 줬어요. 1991년에 아시아평화여성연합대회를 일본에 가서 하는데 일본말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원고를 써서 강연을 하는데 그게 맨 처음에는 4시간 반, 5시간 걸렸어요. 어머니라는 사람이 일본이 해와 국가인데, 어머니 국가인데 가 가지고 그 아래를 살필 수 있는 조건이라도 가져야지, 아무 것도 없으면 어머니가 무슨 어머니예요? 딸을 길렀다는 뭐라도 남아야지요. 그러니 문화배경을 대표했다는 자리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원고를 보는데 청맹과니예요. 아무 것도 몰라요. 4시간 40분이 걸리더라구요. 5시간 가까이 걸려요, 한 번 하는데. 전부 토를 달아 가지고 연습해서 40분까지 올 수 있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밤에도 가서 자는 게 뭐예요? 일어나서 공부하라고 깨우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같으면 얼마나 불평하겠어요? ‘내가 일본말을 배우기를 했나 선생을 갖다 주기를 했나?’ 하며 무슨 협박 공갈을 할 수 있는데도 말이에요.

원리로 볼 때 뜻이 그러니까 어머니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라도 어머니가 일본말을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이 누구라도 그 말을 배워서 할 수 있게끔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맞지요.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 책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분까지 줄인 거예요. 10분의 1 가까이 줄였어요. 그러자니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울면서라도 해야지요. 눈물도 많이 흘렸

다구요. 또 영어를 한 것도 그래요.

박씨들이 하나되어 책임을 다해야

「아버님, 김씨가 한국에서 제일 많은데…」 그 동안 김씨들이 해먹지 않았어? 「김씨 이씨 박씨가 많습니다.」 박씨가 세 번째면 책임이 중하구만. 한씨 할머니가 내 말을 들었으면-화신백화점 박홍식의 부인이 그 사람의 딸이에요.-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책임이 얼마나 커요! 오늘도 말씀에 나왔지만 우주를 대표한 가정인데, 꿈에도 그 생각을 못 한다구요. 자기 가정을 현실로 보지요.

박씨 할머니가 아들딸이 열인데, 통일교회 책임자는 자기 아들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옥세현 할머니도 그래요. 자기 아들딸을 통일교회의 대표로 세우려고 했어요. 선생님의 뜻대로, 아들딸을 중 시키겠다고 해야 돼요. 중도 천사장이예요. 아들딸을 축복의 자리에, 중심에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의 자리에 세우겠다고 해야 할 텐데 말이에요. 아들딸을 생각하다가 중도 못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대해서도 아들딸을 통일교회의 대표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어머니한테는 힘든 거예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칙은 천년 만년 가나 원칙이에요. 살인마들을 성인과 같은 자리에서 축복했지요? 이게 얼마나 통일교회에 복인 줄 몰라요.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질 수 없어요. 살인마가 질 수 없고, 성인이 질 수 없고, 하나님이 질 수 없어요. 내가 지는 거예요. 통일교회의 현실이 그런 입장이 돼 있어요. 효진이 축복도 그래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일부러 책임질 수 있는 조건을 갖다 세워 놓는 거예요.

박혁거세도 서자예요. 문씨도 서자라구요. 알에서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웃으심) 서자끼리 만나서 하나돼야 된다는 거예요. 문씨, 한

씨, 박씨가 그래요. 박봉애 있잖아요? 내가 박봉애를 민주당에서 자유당으로 옮겨 온 거예요. 통일교회 여자 가운데 박봉애가 공이 크다고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김택용이야, 오택용이야? 「오택용입니다.» 김장송의 남편 이름이 뭐인가? 「정광석입니다.» 무슨 정 자야? 「하동 정(鄭)」 가입니다.» 정광석이야? 임자는 저 여자를 잘 얻었다고 봐, 못 얻었다고 봐? 「잘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얻을 게 뭐야? 많이 억울하고 마음 상했을 거야, 남자로서. 남자로서 참을 때가 많았지? 「좋습니다.» 답변이 ‘좋습니다’가 뭐야? 그러면 그렇다고 하지. 좋은 남자를 얻어 줬기 때문에 저 사람도 출세한 셈이라구. 「예. 그렇습니다, 아버님. (김장송)」 남자를 얼마든지 알아치울 여자야. (웃음)

정말이라구. 석 달만 살고는 보따리 쌀 생각을 할 타입이라구, 세상에 나갔으면. 그렇게 봤던 거야. 정광석을 만났으니, 뜻을 알았으니 그렇지. 선생님 말이 맞아? 「예.» (웃음) 이제는 한국에 데려가도 되잖아? 정권이 달라졌기 때문에. 전라도 정권 아니야? 「예.» 그러니까 데려가도 되잖아? 이번에 데리러 왔겠지? (웃음) 왜 웃어? 김장송이 얘기를 해봐! 남편을 데리고 왔으니 기분이 어때?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국가 메시아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어디 국가 메시아야? 「앞으로 아버님이 명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국가 메시아가 좋은 거야? 국가 메시아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데? 왕권을 회복해야 돼. 이번에 모자라는 국가 메시아를 보충해야 된다고. 앞으로 국가 메시아가 할 것은 아기를 낳아서 교육하는 거야. 그 나라에서는 사탄 아기를 낳고 사탄 교육을 했어. 그러니 그것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가 메시아들을 보낼 때 대사관에 가서 대사관의 아들딸을 공부시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되느냐?

국가 메시아가 7개국에서 나갔어요. 영·미·불·일·독·이·한국

이예요. 영·미·불, 일·독이를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5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꿈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수술을 하려면 무엇을 했는지 전부 다 알 수 있다는 말도 있잖아요? 선생님이 7개국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 나라들이 한국을 중심삼고 하나되어야 되는데 하나 못 됐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미·불·일·독이, 한국을 중심삼고, 7개국을 놓고 매일 밥 먹을 때 세 번 이상씩 기도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날에 가서는 영·미·불이 하나되어야 되고, 일·독이가 하나되어야 돼요, 한국을 중심삼고. 그러자면 남북통일이 안 돼서는 안 된다구요. 2차대전 직후에 영·미·불, 일·독이를 중심삼고 세계적으로 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잃어버려 가지고 되 돌아와서 세계 축복권 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반대한 것이 일본과 미국과 독일이예요. 그 다음에는 한국이예요. 이 네 나라예요. 선생님을 쫓아내고 선생님이 없어지길 바란 거예요. 외국에게 선생님을 지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요즘에도 그러고 있어요, 이 미친 것들! 그것을 사랑으로 소화시켜서 자연굴복할 수 있는 환경까지 가려면 세계의 수많은 국가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도 지금 그래요. 이번에 한국 협회장을 통해서 박씨들을 만나라고 해 가지고 만난 거예요. 만나서 하는 말이 선생님을 다 존경한다는 거예요. 《훈교경》을 갖다 주었는데 틀림없이 이 말씀을 집에서 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게 되면 꼭대기부터 분배해서 읽게 하라고 했어요. 끝까지, 꼭대기까지 전달해 줘야 돼요. 박가예요. 박태준과 박철언이예요. 이게 가인 아벨이예요. 박준규까지 해서 세 사람이 한 길을 가야 돼요. 갈라지면 큰일난다는 거예요.

박보희가 그걸 해야 돼요. 박중현도 미국을 중심삼고 그 일을 도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자기들의 출세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노조는 용납 못 한다

도적놈들이 많지요? 현대가 통일그룹을 타고 앉았지요? 그 다음에 누가 그러겠어요? 김대통령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노동조합이니 무엇이니... 노동조합이 그래 가지고는 안 돼요. 이번에 강력 차단할 것을 알고 후퇴해 버리잖아요? 쓸어 버려야 돼요. 김종필과 하나되어 가지고 ‘책임은 내가 진다.’ 해서, 김대통령이 3개월 동안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김총리에게 맡겨 가지고 노동조합을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쇼도 할 수 있잖아요? 나라가 거기에 운명이 걸려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통일중공업의 노조를 완전히 파 버린 거예요. 세계일보의 노조를 완전히 파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욕을 먹었어요. 세계일보가 정부를 반대한다고 말이에요... 노조를 지지할 수 없잖아요? 완전히 노조를 다 쫓아냈어요. 이번에 통일중공업의 노조원이 1천6백 명인데 5백 명을 남기고 1천 명을 조치할 수 있게끔 이미 판결이 났어요. 공산당을 완전히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 워싱턴 타임스에 노조가 있어요, 없어요? 선문대에도 지난번에 가 가지고 노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등골을 빼서 내가 손질 하겠다고 경고하고 왔어요. 브리지포트 대학도 그래요. 내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맥아더 기금에 대한 양창식 교구장의 보고에 이어서 말씀하심)

본래 청년연합을 창설할 때 레이건 대통령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맥아더 장군 이름까지 합해서 장학기금을 세계적으로 모금하자고 전부 약속이 돼 있던 것인데, 그 딸이 반대해서 안 됐어요. 그때 내가 1백만 달러를 지불보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국 중고등학생 부모들을

중심삼고 수천만 수억 달러를 모을 수 있는 기반을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반대했던 거예요.

주동문을 연결해서 하라구요. 무시하고 헤이그하고도 친하잖아요? 그 장군들도 다 친구라구요. 그걸 다시 해서 장학기금을 레이건이 죽기 전에 만들어야 돼요. 그때 1백만 달러를 그 이름으로 한다고 했는데 반대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구요. 그걸 하면 좋을 거예요.

그러면서 맥아더의 '오 인천!' 영화를 중고등학교 대학교 교재로 쓰려고 했는데 지금 보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재차 시정해서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청년들을 지도하기 위한 선전 자료로써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맥아더 가문이 가는 데마다 어느 중고등학교 대학이든지 전통을 세워 학교 총장을 중심삼고 움직여 가지고 미국의 청년남녀를 규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세계평화청년연합 아니예요? 주도적인 일을 하려고 시켰는데 그게 막혀 버린 거라구요. (이후는 보고와 대화식 말씀인데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수록하지 못함) *

참부모님의 말씀 가치

이제부터 혼동회를 전 세계적으로 한국말로 시작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시대가 옛날과 달라졌습니다. 시대가 달라졌다고요. 영계 육계가 통일되는 시대, 평면적인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부모님 중심삼고 새로이 이제 사탄이 왼쪽으로, 시계바늘 반대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되어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도 하나고 문화도 하나고 생활도 하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훈교경의 의의

벌써 1990년서부터 통역을 쓰지 않고 말씀한다는 말을 했다고요. 벌써 10년이 되어 온다고요. 여러분들 전부 다 등한히 한 거예요. 선생님 말씀을 어떻게 알고 함부로 대해 나왔다는 거예요. 10년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브리지포트 대학에서도 앞으로 한국말로 강의하는 걸 듣지 못하는 사람은 졸업장 안 줄 지 모를 거라고요, 통일교회 2세대들은. 심각해야 돼요.

자, 못 알아듣는 사람은 후퇴하는 거고, 누가 지도할 수 있는 때가

1999년 5월 1일(土), 벨베티아 수련소.

* 이 말씀은 제39회 성혼 기념식, 제45회 협회창립 기념일 때 한 것임.

지났습니다. 각자가 뜻을 알고 따라가야 하는 때입니다. 선생님도 앉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매일 같이 가르칠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간다고요.

세계 정상급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럴 때가 다가왔어요. 《훈교경(訓敎經)》이 무슨 말이나 하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부자지 관계가 효자 되고 효자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되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 《훈교경》입니다. 우주의 근본은 부자지 관계입니다. 우주의 근본은 그거예요. 선생님이 세계의 지도자들을 가르치려고 빼낸 말씀인데, 이 72편을 중심삼고 어디 가든지 자기가 지도받아 가지고 말씀할 수 있는 내용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무엇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통일교회 책임 있는 사람들은 이것 가지고 어디 가서든지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성교회라든가 유대교라든가 종교권에 틀러서 말씀할 수 있는 자유스러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해서 만든 책임입니다.

선생님이 할 말씀을 통일교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전해줘 가지고 선생님 대신 세계로 전하기 위한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말씀인 《훈교경(訓敎經)》이라는 책을 이번에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1권은 다 읽었다고요. 이게 3장인가? 「예.» 어저께 2장? 「예, 2장까지 읽었습니다.» 그래 3장부터 하라고요. 들어봐요. 영적으로 그걸 느껴봐요, 무슨 말인지. 크게 읽어요. 「아버님 하권에 있는 ‘내일을 맞자’ 입니다만.» 제목이 뭐냐 하면 ‘내일을 맞자’라고요. 타이틀을 이야기하라고.

미스터 박! 「예.» 시리즈로 된 선집 가운데서 여기서 다시 나온 것은 말이에요. 여기에 시리즈 번역한 것 있지? 빨리 책 만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빨리! 「이번에 만드신 《훈교경》 말씀입니까?」 응. 앞으로 기성교회에 우리 말씀을 알릴 때가 온다고. (《훈교경》 훈독)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라고요. 열심히 읽어요. 딴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있다는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열심히 읽으라고, 한국

말로. 딱 생각하지 말고. 「예.」 (훈독)

아버지의 말씀은 이 세계의 아들딸을 구하기 위한 것

골자(骨子)를 얘기 좀 해 주라구요, 영어로. 한 5분 동안 얘기해요. *저렇게 읽는 것을 이해하겠어요? 얼마나 지루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국말을 배우라고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지루한 시간이 많을 거라구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배워야 됩니다. 한국말이 모국어인 것입니다. 한국말을 배우지 않으면 영계에 가서도 문제가 될 거라구요.

지금 여러분은 타향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원수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이 청산해 버리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그 땅의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라구요. 아버지의 말씀집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3백 권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아버지의 말씀집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지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아무리 미국 도서관에 책들이 많더라도 그런 것들은 하나님 편에 필요 없습니다. 한 권도 필요 없어요. 불살라 버려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사탄이 이 나라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심각하다고요. 알겠어요?

아버지의 엄청난 말씀집을 생각해 봐요. 그 속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은 이 세계의 아들딸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타락 때문에 모든 아들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아들딸이 가정.종족민족 국가세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영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지상과 영계를 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과 인류가 그렇게 수천 대를 이어나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의 말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

는 이 나라가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것을 어떻게 청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미국이 제일이라고 자랑하지요? 뿡뿡! 미국에 죄악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제일 높은 산이 뭐예요?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아니, 미국에서 말이에요. 「맥킨리 산입니다。」 그 맥킨리 산보다 더 높다구요. 그것을 어떻게 청산할 것이냐? 아버지의 말씀집을 샀어요? 원본을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사 놓으면 대대로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사더라도 그 말씀집을 사야 된다고요.

앞으로 두고보라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가장 귀한 것이 그 말씀집입니다. 참부모라는 것은 영원히 둘이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고, 절대적으로 하나고, 하나, 하나, 하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배워야 돼요. 얼마나 깊고, 높고, 넓은 분인가를 모르지요? 여러분이 아버지의 인격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두운 밤에 빛나는 등대와 같은 것입니다.

참부모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말씀집을 읽어야

지금 미국이 위험한 입장에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고생을 모른다구요. 편하게만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백인이라고 자랑했는데,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공부를 안 해요. 쉽고 편한 길만 찾습니다. 백인들은 그러고 있지만, 흑인이나 황인종들은 공부밖에 모릅니다. 쉬운 길은 내려가는 길이고, 고생하게 되면 올라갑니다. 그렇게 십년이나 백년이 지나면 꼭대기와 밑바닥이 얼마나 멀어지겠어요? 누구든지 쉽고 편하게 살려고 하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도 내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여러분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구요.

참부모를 알아야 됩니다. 참부모가 누구냐? 여러분은 모르지요? 그러니까 3백 집에 이르는 말씀집을 읽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미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는데, 후-우! 말씀집을 읽어야 된다고요. 그 말씀집이 필요 없어요? 「필요합니다.」 얼마나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생명,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우주 이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뭐 하버드? 뿔! 하버드의 도서관에도 없다고요. 아무리 찾아 봐도 거기에 통일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 말은 그 모든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뿔뿔뿔! 그 모든 것들은 미국과 함께 사라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말씀집만 남아 있게 되면 언제든지 그 내용을 리바이벌(revival; 반복)할 수 있습니다. 레버런 문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고요. 그러면 높은 차원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의 참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중심자리도 참사랑이라구요. 참사랑을 빼 버리면, 온 우주가 사라져 버립니다. 알겠어요? 「예.」 너도 한국말을 모르지? 「공부하겠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할 거야? 선생님이 1999년부터 통역을 쓰지 않겠다고 15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이제 내가 미국을 떠날 때가 온다고요. 자, 통역을 하고 싶으면 하라구! 「예.」 영어는 내 싫어! (*부터 영어 말씀) 그래 선생님이 좋아요? 선생님 좋아해요? 「예.」 모르겠으면 말씀을 좋아하라구요. 그 사람의 지나간 역사를 알려면 책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가 따라갈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훈독회를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지어낸 사람이 선생님이다

말씀 제목은 ‘참부모님의 말씀 가치’입니다. 얼마나 알았어요? 선생님 말씀이 열 권도 아니고 백 권도 아니고 3백 권 정도 되는데, 그것 읽지 않고 선생님을 어떻게 알아요? 학교에서도 전문분야의 선생님이 발간한 책을 공부해야 박사도 될 수 있는 거라구요.

내가 50년 전에 말씀한 것과 똑같아야 된다고요. 그래 50년 전에 전부 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진짜 다 가르쳐 줬다 이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독회를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지어낸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왜? 이 말씀이 거짓말 잡아 사기쳐 먹었다면 뒤집어져야 돼요. 내가 하지 않은 것을 말하면 비방이라구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나는 이 책을 참고 안 해도 뽑아낼 수 있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어떻게 옛날 얘기하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말씀한 것은 결과나 모든 것을 행하고 말씀했다.’고 하기 때문에 레버런 문 가는 데는 원수가 다 정리되고, 세계가 다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책, 3백 권 되는 책 가운데서 레버런 문이 거짓말 한 곳이 어디냐? 행치 않은 것이 있느냐? 찾아보라구요. 그러니까 책이 날 따라오겠어요, 내가 책 따라가겠어요? 「책이 따라갑니다.」

이제 선생님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선생님 따라가면 돼요? 선생님 가는 데 어디든지 따라 간다, 책이고 뭐이고... 여러분들은 책 따라가야 됩니다, 책.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3백 권을 앞에만 놓으면...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없으면 어떻게 할 데예요? 어떻게 할 데냐구

요? (환서하시며) 이걸 넘어갈 수 있어요? 이걸 넘어가려면 다 선생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예.」 통일교회 식구니 뭐니 하는데 식구가 무슨 식구예요? 뭐 선생님을 사랑하고 선생을 위해 산다구요? 우~!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했지요? 「예.」 어떤 자리에서? (환서하시며) 여기 3백 권 계단... 자기가 여기 앉아 가지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통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은 때가, 세계적인 때가 하늘땅에 선생님이 지상에 완성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천상 위의 모든 법도를 연결시킬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큰 전환점에 왔다고요. 그거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원어를 가지고 연구해야 가장 가치 있어

자, 오늘이 무슨 날이라구요? 5월 초하루,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기념일이지요? 세 개가 합쳤다고요. 첫째는, 참부모님 성혼일(true parents holy wedding day), 성혼한지 40년, 햇수로는 40해 됐어요. 40년 동안 선생님이 거처온 그 생애를 다 알아요? 여러분들같이 놀았어요? 「아닙니다.」 얼마나 얼마나 곡절이 많았겠어요? 그 곡절과 여러분들이 무슨 관계를 맺었어요? 뭘 맺었어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선생님이 참부모가 결혼해 40해가 됐는데 자기 나라와 모든 것을 팔아서 큰 잔치를 열어 초대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갈 것 같아요? 미국 나라 팔고, 미국 사람 전부 제물 되어서 초청한다고 해서 갈 것 같으냐 말이에요. 침 뱉는다구. 천만에! 왜? 지금까지 반대했으니까. 그래 잔치하게 되면 세계를 전부 다 몽땅 빼앗아 먹자, 백인이 하듯이!

통역이 이렇게 힘들어요. 30퍼센트도 못 이룬다고. 통역자가 부족하지 내가 부족할 게 뭐야. (웃음.) 선생님이 어렵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통역이 부족한 걸 알아야 돼요. 이제까지 세계적인 많은 학자 대회

를 했지만 전문 분야에서 한 단어를 놓고 원어를 먼저 알았다는 그걸 가지고 귀가 높고 이래 가지고 이러더라구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 현재 얘기해 가지고 발전된 것에도 ‘우~’ 이려고 있더라구요.

유 티 에스(UTS;미국통일신학대학원) 교수들, 선생님 책 전부 다 읽어 봤어요? 응? 교수들, 몇 시까지 읽어 가지고 압축해 가지고 가르쳐 주라고요. 어이구, 뭐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번역이 뭐가 필요해요? 원래는 원어로 전부 다 공부해야지. 맞아요? 「예.」 알긴 아누만. 예스, 클린(Yes, clean), 클린 하고 다 잘하는 것이 ‘예스’ 대답만 하지 전부 다 노(No)는 몰라. ‘노’는 싫다는 거야. (웃음.)

자, 그 다음에 또 오늘이 무슨 날이나 하면, 통일교회를 세운 지가 45년이라구요, 45년. 그래 45년 역사를 알아요? 45년 동안의 선생님 말씀이 어떤지 기념일을 말하는데 그거 한번 다 읽어봤어요? 몇 년 동안 선생님 말씀을 찾아서 읽어봤어요?

그래 가지고 무슨 ‘45년 축하연에 참석하자.’고 할 수 있어요? 이 도적놈의 새끼들! 역사적 기념관에서 산 것을 앞에 놓고 기념해야지, 다 없애 버리고, 죽여 버리고 기념하겠어요? 선생님, 부모님을 45년 동안 어떻게 따라다니고 이래 가지고 하나도 내가 모르는 게 없고 내가 같이 움직였다고 그래야 하나님이 보게 될 때 ‘내가 축하할 수 있는 당당한 사람이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그거 뭐라 할까? 빵집에 가 가지고 거지들이 먹던 그 빵, 떨어뜨린 빵 중심삼아 가지고, 그런 입장에서 뭐 45년 축하연에 참석하겠어요? 도적놈의 새끼들이라구!

자, 섭리사적 모든 전체니 뭐니 해 가지고 하나님 뜻 됐네, 뭐 세계에서 큰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쳐 준 아담 가정으로부터 노아 가정으로부터 전부 다 보라구요. 선생님이 가르쳐 준 내용과 영계에 간 상현씨가 보내온 내용이 똑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상현씨 내용을 지녀 가지고 역사의 대표적 참부모라 할 때에 가치가 있지, 전

부 다 도둑질해 가지고 남의 말 듣고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면 도적놈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다 생각하고 생긴 거겠어요? 사탄하고 싸워 가지고 다 실패한 것을 땅바닥에 집어 던져 가지고 굴복시킨 승리의 기록으로 알아야 된다고요, 승리의 기록. 그래 하나님이 아는 것이 그렇고 섭리사에 나타난 역사가 그렇고 선생님이 아는 것과 선생님이 그대로 한 것이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평할 수 없고, 사탄도 불평할 수 없고, 모든 영계에 가 있는 조상들도 불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전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선생님을 참조할 수 없습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십시오)

전부 다 그렇다고 찬양하고 ‘그렇지, 그렇지!’ 해야지 우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부 다 역사를 두고 선생님이 말씀하는 것을 깨달아 가지고 다시 생각한 적 있어요? *하나님과 사탄뿐만 아니라 영계의 모든 영인들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다구요. 그래서 레버런 문을 찬양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그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 내가 나라를 대표하고 세계를 대표하고 우주를 대표한다.’ 하면서 거만하게 굴지요?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라구요. 하나님의 관념과 레버런 문의 관념이 똑같은 것입니다.

선생님 말씀집 3백 권 책을 안 읽으면 통일교인 자격이 없어

지금 통일교회의 멤버들이 완성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올라가고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끄러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얘기하다가는 성이 나서 욕을 하고 후려갈길 것 같으니 얘기 그만두자구요. 알겠어요? 어머니도 지금 순회하고 있는데. 경고 안 할 수 없어요! 경고, 알겠어요?

이제 3백 권 책에 뭐가 있는지 알아보라구요. 이제 통일교회 패들은 전부 다 선생님의 3백 권 책 안 읽으면 통일교인 자격 없습니다. 무슨 트루 페어런츠(true parents;참부모)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전부 다 이게 240권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60권 더 출판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내가 다 지불해 가지고 이 해 안으로 3백권 다 출판하라고 했다고요. 내가 지불하고 있어요, 이 쌍놈의 자식들!

세계 사람들이 지금 쌓아 둔 책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물어 가지고 그 말씀을 사가든지 찾아가든지 야단할 텐데 어디에 그런 녀석이 한 녀석도 없더라구요. 그거 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같지 않아요. 얼마나 열심히 알고요? 이 책의 내용을 놓고 얼마나 싸운 지 알고요? 여러분 나라와 여러분 세계가 앞으로 영원한 세계에서 당당히 살 수 있는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천시하는 녀석은 지옥 가야 돼요.

역사이래 스위스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책을 제일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한 짐 석 짐까지 지고 갈 수 있다고 말하는 데, 이게 몇 짐 되겠나? 트럭으로도 안 돼요, 트럭으로도 그 신학자 똥개만도 못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랑해 봤어요? 내가 칼 바르트의 신학을 해야 되겠어요, 칼 바르트가 선생님의 책을 공부해야 되겠어요? 누가 공부해야 되겠어요, 누가? 「칼 바르트입니다.」 노우(No), 노, 노. 「예스!」 예스, 노우. 케이(k), 엔(n), 오(o), 더블유(w). (웃음) 알겠어요? 「예.」

어리석은 통일교인들 되지 말라구요. 머리맡의 책을 공부하면 출세할 수 있는데도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는 걸 자랑할 수 있는 여자를 찾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미국에 별의별 좋은 것 많지만 ‘저 아가씨가 제일 훌륭하구먼. 내 딸이다.’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넘버 원(number one;최고) 딸이 되고 싶어요, 넘버 라스트(number last;꼴찌) 딸이 되고 싶어요? 「넘버 원.」 넘버 원 딸이 좋다

고 ‘헤헤’ 이려고 넘버 라스트 딸은 싫다고 ‘흐흐’ 이려고 있어! 그거 도적놈이에요, 노름판에 가면. 학교에서 커닝하는 거예요. 눈을 이려는 것은 시험 칠 때 커닝하는 학생이라구요. (철판에 두 여자 모습을 그리심) (웃음, 박수)

서양사람과 동양사람을 그렸어요. (웃음) 미국 중심지대에 오리엔탈(oriental;동양인)이 많습니다. 미국이 망할 징조예요, 미국이 흥할 징조예요? 「망할 징조입니다.» 배드 사인(bad sign;망할 징조)이라고, 전부 다 체이스 아웃(chase out;쫓아내다)시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자랑해도 일본 못 따라가고 한국 신앙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들보다 신앙 기준이 높아요. 높아요, 높아요, 어때요? 말해 보라구요.

신앙에 있어 일본 사람 따라갈 자신 있어요? 「예.» 아, 미국에서 일본 여자들 따라갈 수 있느냐고, 넘어갈 수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저 패니스 멤버스(japanese members;일본 식구들)! 「예, 할 수 있습니다.» 보라구요. 일본 식구들은 여기 미국에 와 있으면서 한 달에 얼마씩 전부 다 현금하기 위해서 안 먹고 금식하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본 태도가 ‘우린 먹고 놀자, 하하하.’ 하는데 망해야 되겠어요, 흥해야 되겠어요? 「망해야 됩니다.»

‘일본 너희들은 해라. 우리는 우리 문화대로 살겠다. 금식을 왜 해? 배짱이 같이 놀고 춤추지. 개미 같이 일할 필요 없다.’ 이래 가지고 ‘후후후 오케이(OK).’ 한다고. 배짱이 얘기해야지. 겨울이 오면 배짱이가 좋아요, 개미가 좋아요? 「엔트(ant;개미)」 나는 모르겠다고. 엔트(ant), 숙모는 뭐예요? 「안트(aunt)입니다.» 안트인지, 엔트인지 암만 해도 가을이 되게 되면 먹을 걸 챙겨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고요.

일본 식구들은 매달 3백 달러씩 현금하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어이구!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그런 말 그만 두라고. ‘푸우-’ 도울 것 같으면 하라는 얘기 안 해도 자진해서 해야지 이러는 게 좋아요? (웃음) ‘상식적으로...’ 하지만 상식이 뭐예요, 도둑놈의 심보지. 상식

그거 다 차 버려야 된다고요.

여기 미국 사람들이 현금 안 하는 것하고 전부 다 이게 내려가는 거와 마찬가지로인데,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로 비사로써 말하는 거 몰랐지요? *미국 사람들은 내려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하고 있는데 자기는 부끄러움 모르면 경고예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서양 여자들이 얼마나 미인이예요. ‘생김새가 어이구 잘생겼구면. 어이구 못생긴 한국 사람들.’ 하나님을 볼 때 여기 좋다고 가겠어요, 내가 칭찬하는데 ‘에이 이 레버턴 문아! 너가 틀렸다.’고 하겠어요, 옳다고 하겠어요?

대답을 여러분들이 잘 알 거라고요. 자기가 하지 왜 여기 하라고 그래? 자, 그래 가지고 아무도 안 오니까 의식이 없는 거예요. 지옥 갑니다, 지옥. 전부 다 끌래미 되는 것입니다. 경고합니다. 오늘 5월 초하룻날, 신록이 푸른 좋은 봄철 물이 오른 이때에 있어서 미국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일본 사람은 손님이에요, 손님. 지나가는 손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인 양반이 전부 다 집이 불붙고 땅이 깨어 가지고 날아가는 걸 모르고 사니,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이 쌍것들아!

신세 진 것을 갚아야

자, 이제부터 일본 간나예요, 일본 왔다 갈 수 있는 사람은 간나예요. 갈 사람한테 질 거예요, 이길 거예요? 알았으니까! 「이기겠습니까.」 다 일어서 보라고요. 그냥 일어서 보라고요, 손 들지 말고. (박수) 미국 사람들은 모두 다 일어섰으니까 환영해 주자구요. (박수)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나라에서 일본 여자들한테 질 거예요 이길 거예요? 이긴다고 했지요? 몇 배 할 거예요? 몇 배? 「1백만 배.」 (웃음.) 천만도 좋다고요. 그거 영계의 조상들도 환영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여자들한테 절대 지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은 눈을 똑바로 뜨고 선생님 앞에 양손을 들어 맹세하라고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한국 사람, 혹은 일본 사람이 있는데 열 사람 있으면 열 사람 가운데 비교해서 저서는 안 되는 것을 경고한다고! 그래야 여러분의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일본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예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자, 약속했어요. 「예.」 일본 사람들이 전부 다 3백 달러 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 할 거예요? 공식적으로! (웃음) 앞으로 여러분들은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가서 ‘돈의 담당은 우리보다 많이 한다고 했으니 한푼이라도 더 내야 되겠어.’ 할 때, ‘푸-우’ 이럴 거예요, 오케이 할 거예요? ‘오케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귀가 보배다! (웃음) 미국과 일본 멤버들이 모두 다 듣고 있다구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의 아들딸이 부모가 하는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딸한테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현금하는 것이 교재가 된다고요. 그렇지요? 보여줘야 돼요, 이 쌍것들아! 그래야 ‘아이고 저 미국 식구들...’ 나 미국 식구들 찬양하는 것을 한 번 못 들어봤어요, 여자들? 그거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디 갔나? 고바야시 요코! 「예!」 어디 있어? 「저기 있습니다.» 고바야시 요코! 컴 온(come on;이리 와)! 빨리 와라, 빨리! 아, 이거 올라가라고. (웃음) 이거 통일교회에서 유명해. 뭐 미국 여자도 때리고 이래도 다 좋아해요. 딸이니까! 세상 같으면 ‘어이구, 목사가 왜 때려? 미국 목사는 안 그러는데.’ 미국 목사는 다 망하게 만들었어요. 레버린 문은 다 살려주는 다리라고요.

자, 현금해야 되겠어. 일본 사람 최고 얼마 이상은 전부 다 해야 된다고. 자 여기서 틀림없이 일본 여자들 대표한 당신 앞에 ‘미국 여자들이 지지 않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라고요. 남자도 마찬가지로, 남자도! 다 일어서라고요. 지금까지 신세 진 것 갚아야 됩니다.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로예요. 알겠어요? 「예.」 전부 다 같이 하겠다는 사람은 다 일어서 보라고요. 안 하겠다는 사람은 앉으라고요. 어디 얼굴 좀 보자.

거기 앉아 있는 건 어디 사람이야? 너 왜 앉아 있어? (웃음) *미국 멤버들한테 지지 않게끔 현금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일어서라고 했는데... (웃음) (*부터 일어로 말씀하심) 다 들으면 맞지. 선생님이 눈치 빠르니까 한국사람은 다 알아야지요.

한국 간나들, 간나들. 뭐 양보하겠어? 다 들었지요? 일본이 책임이 못한 것을 미국이 해야 돼요. 장자가 해야 된다고요. *일본 멤버들은 어머니의 입장에 있습니다. 미국은 장자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키워 주어야 되겠으니까 책임을 상속해 주어야 됩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자, 환영하는 사람은 '예스' 한번 해봐요. 「예스!」 좀 더 크게 해 보지. 「예—스!」 쇠가 날아온다... 내가 기억에 없다고요. 앉으라고요.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같이 협력해 가지고 미국을 지켜야 돼요. 공동운명입니다. 일본 식구들 현금하기 위해서 점심을 안 먹고 다 이 런다는 얘기를 내가 듣고 있다고요.

그래 여러분들은 먹을 거 먹고, 잘 거 자 가지고는 별받아, 별받는다고요. 지금까지 10년 이상 선생님이 와 가지고 24년 동안 일본 식구, 아시아에서 한국 사람들이 고생을 얼마나 했어요? 고생 안 시켰어요, 미국 사람들을 전부 다 고생 안 시켰다고요. 신세 지고 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응?

여기 미국 지도자들, 신세 졌어요, 신세 끼쳤어요? 「신세 졌습니다.」 어때요? 맞아요? 「예.」 그래 여러분들은? 맞아요? 그래 일본 식구들이 전부 다 돌아가더라도... 미국에 있는 아시아 사람들 아시아로 오면 하루에 다 돌아온다고요. 그래 가지고는 거지떼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 팔아먹고 도망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봤어요. 그래 여러분들이면 기성교회 사람들이 달려들어 가지고 통일교회 이것들 전부 다 못 들어오게끔 해야 된다고요. 거지떼거리들 없으니 얼마나 기성교회가 좋아하겠나요? 그런 때가 온다고, 이 쌍것들아. 알았어요? 정

신 바짝 차려야 돼요. 다 빼앗겨 버려요.

통일교회 생활표어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

자, 닥터 스피즌! 지금 어떤 책임을 맡고 있어? 「...」 그거 뭐 그렇게 길어? 간단하게 뭘 하고 있는지 얘기해 보라구.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때는 부부가 부모 대신 총장, 부총장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알겠어요? *지금부터 통일교회의 조직은 달라집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똑같은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 하십)

부모, 부모. 부모주의적 환경적 모든 조직이 되어 있다구요. 회사도 회사 사장은 아버지고, 회사 사장 부인은 어머니고, 어머니는 부인들 집을 관리하고 자기 아들딸들은 회사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으로 지금부터 움직여야 된다고요. 영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계가.

회사 사장들과 그 회사의 모든 종업원을 위해 부모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회사 모든 소유는 그 부모와 그 회사 요원 자녀들의 소유물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재산, 재산! 나라로 말하면 나라의 대통령과 백성들은 부자지 관계요, 그 다음에는 백성들은 아들딸이지요? 가정들의 아들딸이고 그 나라는 전부 다 그 나라의 선물입니다. 마찬가지로요. 범주가 같습니다. 알겠어요? 그런 조직이 된다고요, 이제부터.

사람이 둘이 모이게 되면 형제 관계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을 형님으로 모셔야 되고 동생과 하나돼야 됩니다. 두 사람 있어서 형제지간, 나이 많은 사람이 형님이고, 이거 대변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모이면 그렇게 되고, 세 사람이 모이면 누가 센터(center)냐 해 가지고, 센터를 정해 가지고 그 센터 말을 중심삼고 따르면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 하는 심성을 길러 나갈 수 있습니다. 지식이건 나

이건 학식이건 박사건 노동자건 차별이 없어요.

영계가 그래요, 영계가. 영계가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모였는데, 하나는 교수고 하나는 노동자인데, 그 다음에 여자가 신앙이 깊어 센터가 될 땐 여자를 어머니로 모셔야 돼요.

그래, 통일교회 생활표어가 뭐라구요?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 만약에 40명, 50명하게 되면 정해야 된다고요. 한 사람을 대표자로 세울 때는 형제지간을 정해 가지고 한 주(週)라도 먼저 나면 형님이고 하루라도 떨어지면 동생이라구요. 박사든 노동자든 예외가 없어요. 심정의 박사가 최고입니다. 그 아들딸도 전부 심정이 넘버원이예요. 전부 도적놈이 돼 있어요. 사람을 속이고, 별의별 짓 다 하고….

여기 이 똥똥이 아줌마 말이야. (여자 식구 등을 치심) (웃음) 그라운드야. (박수) 아들딸이 셋 있는데 집안 안에서 누가 하나님에게 심정적으로 높으냐 해서 부모로부터 회의하게 될 때 맨 막내딸이 제일 높은 땐 그를 어머니같이 모셔 가지고 전부 다 형제같이 모시고 복종해야 된다고요. (웃음)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의 가정은 어디서든지 이룰 수 있다고 하더라 이거예요.

신앙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신앙의 센터

기도도 열심히 하고 훈독회도 열심히 하고 ‘엄마 아버지 이러면 안 됩니다.’ 할 때 전부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라구요.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 놀랍구만!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아버지 옛집에 가 가지고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 부모가 더 점령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출세할 수 있는 아들딸 전부 다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초등학교서부터 중고등학교까지 공부해 가지고 자기들보다 앞설 때에는 부모 대신 세워서 전통을 이어 나가야 그 집안이 망하지 않아요.

3대 할아버지 할머니 있더라도 회의해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제일 신앙센터를 중심삼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침이 되면 ‘아들아, 안녕’ 먼저 인사해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도 그래야 돼요. 영계가 그렇다구요. 그래야 하나가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은 참부모님 가정과 저나라 저 집과 어디든지 다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영계 어떤 레벨 사람들과 만나서도 정비해서 사탄을 내쫓아버린다고요.

이건 선생님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경배식 하는데 아버지는 자고, 어머니는 때로는 안 하고 아이들만 하게 된다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선생님 말씀 안 듣고 경배식에 참석 않으니 그게 무슨 어머니야? 사탄이야.’ 이런 말 듣지 말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법이 필요한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자, 미국 여자, 미국 여자들은 거만합니다. 여자들을 무시하는 일본 남자. 그래 가지고 독일 뭐라 할까? 아들 셋이 있다면 독일 아들이 제일 열심히 때는 독일 아들을 부모 대신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요. 교회 책임자들은 그런 조직을 해야 되겠다고요. 알겠어요? 어디 누가 중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가정에 있어서 하늘나라에 접할 수 있는 전깃줄이에요. 기다렸다가 가서 안 됐으면 바꿔 가지고, 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훈독회를 철저히 하라

너, 색시 뭘 해? 「여성연합에서…」 너는 학교가 중요해, 여성연합이 중요해? 「여성연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따라오지 않습니다.」 (웃음) 네가 아버지의 입장이야, 어머니의 입장이야? 「아버지의 입장입니다.」 아버지의 입장이면 어머니의 입장에 있는 아내가 너를 따라가야 된다고. 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공식을 말하는 거라구. 알겠어? 「예.」 네 색

시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할 거야? 「말을 잘 듣습니다.」 (웃음) 언제나 색시 말 듣고 있는데…: 네가 부총장 되면 너 색시가 총장 될 수 있어. 정신 차리라 그 말이라고. (웃음)

그렇게 조직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총장은 학부형집 아들이든 뭐든 가서 관리해야 되고, 어머니는 여자 세계의 문제를 관리 해 가지고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계열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리강의를 교회에서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온다더라, 아멘! 「아멘!」

어떻게 안 해요? 원리 말씀 안 하면 자꾸 떨어질 텐데…: 그래서 혼독회라는 것을 선생님이 이 세계에 맞게끔 시작했느니라!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 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언제 말씀을 선생님이 한 것을 여러분들이 선생님 말씀을—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말하지 못해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상속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알겠어요?

이만큼 얘기하면 대강 알겠지요? 회사 가게 되면 여기에 아들로서 아침에 일찍 가야 되고 저녁 늦게 와야 되고 모든 사람 앞에 영향을 미쳐야 되겠다,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게 된다면 오늘날 미국의 공무원 50퍼센트 없이도 미국을 움직여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가능하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뭐 일하는 시간이 8시간이라고 누가 정했어요? 사탄이 정했어요. 하나님이 쉬어요? 「아니오.」 제일 부지런한 일꾼으로서 ‘하하하하하….’ 늙어서도 ‘하하하하’ 얼마나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느냐 이거예요.

선생님이 80년 동안 쉬고 살았어요, 많이 일하고 살았어요? 「많이 일하셨습니다.」 선생님은 나이가 몇 살이라구? 「79세입니다.」 79세, 세븐티 포인트 나인(seventy point nine;7.9)이라구요. 그렇게 생각하라고요.

어디 가든지 선생님이 다, 초등학교에 가서도 배우는 거예요. 통일

교회 교주라는 생각 안 하고 어디 가든지 배우는 것입니다. 소먹이는 목장에 가게 되면 밀창에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을 배우는 거라구요. 아, 여덟 살밖에 안 된 사람이니 배워야지요. 사흘만 가게 되면 알 수 있다구요. 소가 뭐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새끼 키우고 뭐... 말 타는 사람들이 말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해서 말도 타 보려고 하고 소도 가서 타 보려고 다 그러는 거예요. 배우는 거야, 배우는 거요. 배워서 손해나는 법이 있어요?

그래 3년만 그렇게 해도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다구요. 레버런 문 가는 데는 승리적 결과의 모든 산물이 교육계나 정치계나 경제계나 예술계나 무슨 계나 전부 다 톱(top;최고) 만들었다구요. 관심 없는 데 이렇게 될 수 없다구요.

또 영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유명합니다. 알겠어요? 옥도 많이 먹었지만 세계의 기반도 많이 먹었습니다. 옥먹은 것보다 몇 십 배의 기반을 만든 것입니다. 옥은 다 없어지고 기반만 찾아갈 때가 됐기 때문에 승리의 왕자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느니라, 아멘! 이러는 거라구요.

실용주의가 미국을 망하게 만들었어

앞으로 통일교회의 모든 걸 연구하는 박사가 아마 세계 하버드 대학 모든 학과 있으면 거기의 박사들보다 더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 박사보다도 통일교회 연구해서 박사 받는 것이 몇 배가 많을 것이다 생각한다고요.

자, 레버런 문이 본 낚시, 레버런 문의 벨베디아, 레버런 문이 본 이런 구름 등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상 전부 다 상대권이 전쟁을 해 가지고,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해 가지고 찾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거 할 만해요? 소련을 내 손으로 망하게 했고 미국도 내

손에 리드당해 가지고 끌려가고 있다구요. *〈워싱턴 타임스〉도 놀라운 신문이 되었습니다. ‘레버런 문이 〈워싱턴 타임스〉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싫다. 레버런 문은 악마이니까 짓밟아라, 짓밟아라, 짓밟아라...’ 해서 짓밟혀 가지고 내려갔다가 반대 방향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쪽을 누르면 저쪽으로 올라오는 거라구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또 며칠 후에는 세계적으로 놀랄만한 출판물이 나올 것이다 이거예요. 뭐 민주당, 공화당이 어이구 〈워싱턴 타임스〉 우리 회사를 알려고 야단이에요. 클린턴 청문회 하는 것, 그 문제 때문이라구요. 그거 다 미국 사람들은 〈워싱턴 타임스〉의 파워에 대해 몰라요.

그래 레버런 문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기분 좋을 거 아니예요? 쫓아낼 수 없게 됐어요. 알고 보니 유대교에서나 기독교의 주류 사상을 알 수 없는 것까지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우와-’ 놀란다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뉴욕에서 결혼하고 워싱턴에서 결혼하는데 시 아이 에이(CIA;미국중앙정보국) 에프 비 아이(FBI;미국연방수사국)가 반대했었나요? 「아닙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반대했는데 에프 비 아이에서 악의적인 반대는 공적인 범죄라고 발표함으로 말미암아 반대하던 〈워싱턴 포스트〉가 끼익!

자, 미국에서 레버런 문을 전부 좋아하니까 나는 그거 싫어요. 이제 고향 갈 지 모르겠다구요. 저 히말라야산에 가서 굴 파고 철문 해 놓고 누구도 오지 못하게 하면, 맨발 벗고 오는 사람만 만나겠다 하면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베어 푸트(bare foot;맨발), 이 곰의 다리로 구만. (웃음) 그렇다면 산도 문제가 아니지 뭐.

그래 베어 푸트로 와야만 만날 수 있다 할 때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가겠습니다.」 안 와도 좋아요. 곰은 아무리 산이 높아도 올라갈 수 있다구요. 맨발로 온다면 남극이든, 열대지방이든 내가 가버리면 전부 다 맨발로 나 찾아오게 되면 전부 다 이 사람들 필요 없다, 나도 맨발로 연습하고 다 그러고 있다구요. (웃음)

여러분들에게 맨발로 오라는 말이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말하는 그런 놈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또 할지 모르지요. 그래도 오겠다는 사람 손들어 보라구요. (전원 손들음) 거짓말! 이거 80퍼센트는 거짓말이에요. (웃음) 사실이라고! 아메리칸(American;미국인)들, 틀림없이 생각해 보라구요. 그런데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디 뭐 80퍼센트, 98퍼센트가 거짓말이라고 본다구요. 두 사람도 안 된다고 본다구요.

데모크라틱(democracy:민주주의) 뭐? 민주주의를 뭐라고 해요? 프래그머티즘(pragmatism;실용주의) 아니에요? 조금만 해도 수(sue;고소하다)하고 야단이라구요. 미국 사람들은 수하는 챔피언입니다. 그렇지요? 「예.」 실용주의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원수입니다. 사탄이라구요.

뭐 이렇게 미국 사람 듣기 싫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는 얘기라구요. 미국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저 양반은 미국을 욕하지 않으면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기 때문에 저렇게 생겨 가지고 할 수 없어.' 이러면서 듣고도 안 들은 척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안 되겠다고 몽둥이로 후려갈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옥에 들어가 갇혀야 되겠나요?

그래 내가 안 가면 여러분들이라도 가야 됩니다. 가야 이 나라가 살 수 있겠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 한 대 때렸다고 신고하고, 선생한테 한 대 맞았다고 신고하고, 이놈의 나라 망했지! 중국 사람이 14억 명이상인데 전부 다 아기들 쳐 꽤 가지고 교육시킨다구요. 중국은 14억이 뭉쳐 있지만 미국은 이(異)민족이라구요. 미국이 얼마나 복잡해요? 흑인, 백인 얼마나 복잡해요. 유대인, 독일, 러시아, 프랑스, 이들이 얼마나 원수들이예요?

때려서 쳐라 쳐라 이거예요. 때리는 것도 이렇게 때려야 된다구요. (행동하시며) 일곱 살부터 이래 가지고 전부 다... 영화에서 봤지요? 한번 하면 투 아웃(two out)! 부모고 뭐이고, 선생님도 없다구요. 보

라구요. 고등학교 여선생이 남학생을 유린하고 있다구요. 데리고 살아
요. 고등학교 학생이 따라 들어가서 자기 여자 선생한테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이불을 펴고 잔다고. 아프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한 번, 두 번 지나 가지고 별의별 짓 다 하는 거예요.

본이 되어 된다

미국은 무슨 계약? 무슨 결혼? 계약결혼? 우리 통일교인들은? 누가
해줘요? 부모가 결혼해 주게 돼 있지,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게 돼 있
지 않습니다. 사랑을 베풀 때에도 본이 되어 되고 무엇이든지 본이 돼
야 된다고요. 그냥 그대로 사랑과 더불어 생활 전체 아름다운 풍속을
전수해 줘야 된다고요. 미국이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호모, 레즈비
언….

자, 일본의 정보처가 레버런 문에게 여자 소문이 있는데 미인을 보
내 가지고 유인하라고 해서 연애를 몇 달 해도 그런 일이 없으니 편지
를 써놓고 미안하다고 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에프 비 아이(FBI)에
서도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다구요. 미국도 선생님이 길을 가는데 ‘선생
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목을 안고 키스하고 별의별 꼴 다 경험했다
구요. *‘나는 돈도 많고,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으
니까 나를 따라오면 모든 것이 오케이가 될 것입니다.’ 하지를 않나….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별의별 사실들이 많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유인한다고 선생님이 넘어갈 것 같아요? 똥똥이
이 아줌마들! (웃음) 딸과 같이 생각하고, 누이동생과 같이 생각하고,
오누이 같이 생각하고, 장래에 결혼할 수 있는 상대지만 아직까지는
그럴 수 있는 어머니 상대로, 전부 다 할머니, 여왕으로서 하나님의 상
대로 길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인도해 가지고 그 자리까지 교육해서
전부 다 배치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그래 선생님이 그러고 있어요, 유인해 먹고 있어요? * 「트루 맨 (true man;참사람)으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트루 맨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트루 맨으로 사는 것이 싫다구요. (웃음) 여자들, 회의만 했으면 그 해 9월까지 전부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그 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그런 거 다 모르지요?

자, 알겠어요? 오늘 내가 9시까지 회의라구요. 미국에 전부 다 인사조치할 거라구요. 인사조치, 일대 변경이 벌어지는 거라구요. 그리고 오늘 26년 전에 원한 선포식, 원한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원을 풀어주는 거예요. 세 가지 기념일이 오늘이니 새로운 체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래는 선생님이 안 오려고 그랬는데, 이거 얼마나 모이나 보자, 오늘 모인 이상 벨베디아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여기서 나타난 말들을 전부 다 기성교회 목사, 여러분 가정의 사돈, 팔촌 전부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딱 차도 괜찮아요. 통일교회 여러분들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매주 일요일마다.

여기 벨베디아가 사람이 점점 불어난다는 소식이 들릴 때에는 나타나지만, 여기 벨베디아에서 자더라도 주일날 경배해야 된다고요. 교회의 뜻을 생각하고 교회를 발전하게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선생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할 말 다 했습니다. 이제 그럴 때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계에 갈 준비해야지요? 틀린 게 무엇인가를 찾아서 전부 다 정비해 놓고 가야 된다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 5시면 또 남미에 가야 됩니다. 남극에 7천톤급 배 두 대가 크릴새우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하루에 6백톤씩 잡는다고요. 그걸 어떻게 다 소화하느냐? 그걸 팔아야 됩니다. 팔아 가지고 불쌍한 중간의 이 사람들을 살려 줘야 됩니다.

그걸 전부 다 식량으로 만들어 가지고, 피시 파우더(fish powder;생선가루)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가야 된

다구요. 수산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상처 날 거라구요. 어머니는 2일 저녁에 오고 나는 3일 아침에 또 오니, 오면 또 만나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좋아서 어머니가 찾아오겠어요, 어머니가 좋아서 아버지를 찾아오겠어요? 「양쪽 다요.」 (웃음) 우루과이 갈 때는 출발하면 말이 지 ‘틀림없이 와 다오, 와 다오, 와 다오.’ 해서 가게 돼 있어요. (웃음, 박수) 참모님의 말씀의 가치,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하나돼 가지고…. 이걸 찾기 위해서, 선생님이 방대한 이 내용을 찾아 가지고 그러한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칸셉(concept;관념)으로서 편성하기 위해 얼마나 수고했겠나 생각해 보라구요.

전부가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사탄이 가르쳐 줬겠어요, 하늘이 가르쳐 줬겠어요? 무지해서, 무지해서, 무지해서 타락했으니 이걸 찾아가야 됩니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했다면 몇천 년 전에 전부 다 가르쳐 줬지, 예수 그리스도 있을 때 가르쳐 줬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잘됐겠나 이거예요.

말씀을 읽어서 아는 것이 가장 권위가 있어

영적 세계를 해방시키는 것을 하나님 못해요. 선생님에게 부탁해야 된다고요. 배짱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배짱이 없으면. 사탄하고 하나님하고의 싸움을 누가 말려요? 하나님이 할 것이예요, 사탄이 할 것이예요? 싸우지를 말지, 하나님이 벌써 6천년 전, 몇천만 년 전에 전부 해 버렸지….

그건 아담의 책임입니다. 거짓 부모가 돼 있기 때문에 참부모 되는 분이 하늘나라와 지옥의 모든 것을 환하게 알아 가지고 사탄을 제거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걸 전부 다 그걸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라구요. 그래 사탄이 이런 진리를 놓고 수없이 방해했지만 선생님이 비결을 알아요. 딱 들고나오면 머리를 숙이게 돼 있습니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밑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선생님과 전쟁을 붙고 나가는 거예요. 개인으로 시작했던 것이 영계의 모든 지옥문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거 믿어요? 「예.」 영계에 죽어서 가보라구요. 가보라구요. 여러분 조상들, 영계에 가 있는 조상들을 전부 다 축복해 가지고 여러분들 믿지 않는 이 가정들, 전부 다 차 버리고 훈련할 수 있는 때가 왔다구요. 지금까지 조상들이 병 주고 약 주고 그랬어요, 사탄이 병 주고 약 주고 지옥 데려갔지만 이제는 영계가 천국 데려 간다구요. 즉결 처분입니다. 탕감조건이 없어요.

자, 알겠어요? 선생님 말씀이 얼마나 귀하냐 하면 미국을 열 개, 1백 개,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말씀인 줄을 아는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책이 너무 아까워서 글을 다 알았다만 책까지도 내가 깨물어 먹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얘기하는 말입니다. 선생님이 혼동회를 해도 걸리지 않기 위해서 전부 다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자, 한번이라도 선생님 말씀집 갖다가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읽어야 됩니다.」 안 읽겠다는 사람은 손 들라구요. 지옥 간다구요. 지옥, 지옥!

여러분에게 ‘말씀 3백 권 가운데 이러 이런 내용을 알고 왔어?’ 하고, 영계 들어갈 때, ‘이런 내용 알아?’ 전부 다 문에 팻말같이 파탄돼 가지고 참조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12권 선집이라는 것을 전부 다 달달 외우더라도 3백 권 읽어 가지고 아는 것보다도 힘들다 이거예요.

12권 선집 말씀 뻥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은 이 책을 중심삼고 뻥 말인데 그걸 다 외고 외더라도 3백 권 책 이상의 자리에 못 간다는 거예요. 바이블이(경전) 아니예요. 바이블이 아니라구요. 따라오지 못한다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 권이라도 읽지 않은 사람, 저 나라에 가면 어떻게 되겠노? 아, 초등학교라도 졸업장을 받으려면 시험을 쳐야지요? 「예.」 그래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학위 따고 박사학위 따고 선생님 뒤에 가 서야지, 초등학교 졸업장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생님을 따라 다니겠어요? 줄 서 있다구요. 지금 천국 가기 위해 줄 서 있다는 거예요.

여기 책임자들, 알겠어요? 「예.」 전부 다 원리책을 선생님이 설명했는데도 안 사더라고요. 사겠다는 사람은 손 들어 보라구요. (전원 손들) 한국말 책 살 거예요, 영어로 된 책 살 거예요? 「한국어 책입니다.」 그러면 영어로 된 책은 어떻게 하겠어요? 둘 다 사야지. 코리언 (Korean:한국어) 책부터 먼저 사야 된다고요. 먼저 한국 책을 산 다음에는 영어 책도 오케이라고요. 알겠어요?

그래 한국어 책 3백 권 사고 미국어 책 사고 다 이래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이거 모르면 참 곤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들이 앞으로 ‘우리집에는 한국어 말씀 선집 3백 권이 왜 없느냐?’ 물을 텐데 어떡할 테예요? 그때 통일교인 아들딸들은 전부 다 한국말로 읽을 터인데, 부모가 먼저 읽어야 할 터인데, 다른 가정은 1999년 전에 나온 것 다 가졌는데, 2030년대 책 가지고 되겠어요? 그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1957년에 처음 출판했는데 그 책이 얼마나 값이 나갈지 알아요? 책을 출판했는데 그 책이 얼마나 값이 나갈지 아느냐구요. 선생님이 역사상에 살아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지워버릴 사람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50년 전에 내가 말한 것도 내 자신이 듣게 되면 내가 경배를 한다구요. ‘야!’ 얼마나 내가 그때 심각했고 하늘이 가치 있는 말씀을 깨닫기, 내가 죽더라도 말씀을 남기겠다고 그 심각한 자리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죽더라도 넘어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고맙게도.

말씀이 귀한 걸 알아야

최근까지 그렇게 연속이 되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심각해요. 영계도 심각하고... 혼동회는 그 영적 분위기에 대번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영계에서 협조하던 그런 노정이기 때문에 혼동회 하게 되면 사람들이 옳고 진실한 마음만 갖게 되면 전부 다 감동하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체험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서 그런 감동을 받아야 돼요. 영적 체험을 해야 된다고요. 놀고 춤추고 그것도 귀하겠지만 이 말씀에 취해 가지고 영적으로 자라는 것이 천상세계에서나 지상의 후손들에게 복, 복, 복중의 귀한 길인 것을 알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책을 하루에 10권 읽었으면 여러분이 선생님 책을 얼마나 더 많이 읽느냐 하고 더 정성 들여 가지고 정작 그 이상해야 됩니다. 제일 빨리 읽는 사람이 1등이고, 제일 오래 읽는 사람이 1등이라고요. 한국의 유효원 협회장 그 사람이 참 똑똑한 사람이라고요. 처음으로 선생님의 원고를 보고 1주일 동안 한 장, 한 장 전부 눈물로 적서 가며 읽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지식 있는 사람도 읽게 되면 '휴우!'... 여기 72개 대목이 있지만 한 대목 한 대목 가지고도 세계 문제를 다 측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경고하는 것은 말씀이 귀한 걸 알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선생님 대신 영원히 인류를 지켜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가 안 그런가 알아보라구요. 영계나 지옥이나 틀림없기 때문에 그것을 밟고 하나님을 해방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승리의 자리에 올라가면 참부모가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박수) *

훈독회를 중요시하자

훈독회가 필요해요? 훈독하면 지금 감동받는 그와 같은 그런 시간은 언제나 여러분이 그런 자리를 통해서 계속 만들어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거라구요.

훈독하는 것은 복중의 복

하늘땅이 공명이에요. 통일교회 사람들은 저런 말씀을 두고 나날을 가치 있게 훈독하는 것은 복중의 복이라구요. 언제나 하늘과 같이 할 수 있는 입장이라는 것은 복중의 복이라구요. 여러분이 선생님의 설교 집을 쪽 읽게 되면 일생 동안 떨어질 수 없어요. 그런 내용이 있다가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가정 이면 가정의 보화요, 아내면 아내의 보화요, 자식도 그 보화를 이루고, 아버지도 보화를 이루고, 그것이 커 가지고 나라 전체의 보화, 인류 전체의 보화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중심삼고 통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핵심이에요, 핵심.

여러분이 지금 훈독회를 중요시해요? 「예.」 매일 아침에 한 시간씩

1999년 5월 8일(土), 우루과이.

* 이 말씀은 간부들에게 하신 것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그거 읽게 되면 그 날의 모든 일들이나 사고방식이 상당히 명확해져요. 정신적 자세부터 밝아질 거라구요. 선생님이 28년 전에 얘기한 말이지만 28년이란 기간이 없어요. 그때 말씀처럼 심각하고 말씀에 대한 감정이 언제나 살아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살아 있어요.

자, 그런 말씀을 할 때 청중과 선생님과 영계가 화동해서 그것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상천(飛上天)할 수 있는 이런 결과가 앞으로 세계를 차고 나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통쾌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선생님 자신도 그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기분이 말씀을 듣더라도 시간성을 넘어서, 공간성을 넘어 언제나 같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거라구요.

그래서 성인들의 말씀은 읽고 읽고, 백번 읽고 천번 읽어도 다 따라가는 거예요. 1년 전에 읽은 것, 10년 전에, 10년 후에 읽고, 50년 전에 읽는 것이 다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의 생애를 중심삼고 보게 되면 생애가 80이 돼 가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연결돼도 선생님이 이룬 그 실적과 뿌리가 같이하기 때문에 전부 다 동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위대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몇천 년 간 하나님의 일을 이뤄 나가면서 그 일이 이뤄 나가는 것이 그 말씀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따라가면서 같지 않고 발전적 내용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발전한 것입니다. 알겠어요?

통일교인들이 영계에 가는 것은 시집 장가가는 것과 같아

그래, 진리라는 것으로 사랑하게 되면 영원히 약정하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몇시예요? 「7시 10분입니다.」 미스터 김, 보라구요. 괜히 격해 가지고 있잖아요, 한 40분 읽고 말이에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 선생님이 저런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우주에 대해서 선포한다 할 때 선생님 마음이 통쾌했겠나, 슬펐겠나? 선생님의 마음도 통쾌했지만 하나님도 통쾌했다는 거예요. 우주와 전 영계가 통쾌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래 신앙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아이구, 어떻게 저걸 이루겠나.’ 그래도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나라에 가면 그것이 그냥 그대로 나타난다구요. 저 말씀의 내용이 지금은 전부 다 모호한 개념 같지만 영계에 가면 개념이 아니야.

오늘 바람 부나? 「날씨 좋습니다.» 좋아? 어제 갔다가 비 맞고 돌아와 기분 나빴어. 누가 머리 감고 다 그랬잖아요. 우리 통일교회 교인들이 영계에 가는 것이 시집 장가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저 용기 장로랑 선생님이 한집에서 살고 다 그랬지만, 형제지만 말이에요. 이런 것이 세상의 인연 같으면 얼마나 문제가 벌어지겠어요.

한 가지 염려하는 것은 형님이 가르쳐 준 내용을 얼마만큼 체득했느냐? 그것이 걱정이라고요. 그걸 체득하면 틀림없이 좋은 데 가요. 최상의 곳에 간다구요. 걱정 안 한다구요. 그리고 마음으로 영원히, 홍진군을 따라갔던 마음이 저나라에 가서 거리가 있더라도 순식간에 압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요. 참부모라는 말이 무서운 거예요, 참부모. 선생님이 여기 갔다면 틀림없이 슈욱 올라가는 거예요. 전부 다 지옥 감옥의 괴수들, 전부 다 살인마들, 전부 다 천국에 올려 보냈으니, 선생님이 허락하면 무슨 짓이라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뜻을 사랑하는 무엇이든지 전부 다 끝나야 돼요. 기구와 마찬가지로요. 기구 알지요? 무거우면 밑에 있고 전부 다 가벼운 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계에서는 줄이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영계에서 줄을 대 가지고 끌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올 수 있다는 거지. 그건 인체에 줄을 대는 것과 마찬

가지인데 심령상태에 따라 무겁고 작은 데 대해서는 그 속도가 좀 늦지. 계속해서 붙들고 놓지 않고 나가면 따라 올라 간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언론인들을 바로잡자

언론인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나빴어요? 여러분들이 천국 길을 여기서부터 복잡한 것이 천국에서 갈라졌는데 이걸 수평에 하이웨이를 만든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론인으로서 언론세계의 전부 다 교관이 되고, 언론세계의 형님이 되고, 언론세계의 구세주가 돼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이제는 이런 탕감을 누가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언론인들은 가인 편 언론인들이고, 우리 언론인들은 아벨 편 언론인들입니다. 언제나 희생하는 편은 하나님 편, 아벨 편입니다. 희생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거라구요. 그것을 넘어가게 되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식입니다. 어떻게 더 많은 꺾박을 받는 자리에 서느냐? 그것을 넘어가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7시야? 밥먹고..., 몇시야? 밥 다 준비했어? 「예.」 가서 밥 먹자구요.*

참부모님 동서양(지구성) 승리축하 선포일

〈기 도(1)〉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1999년 5월 30일 아침 7시를 기하여 하늘땅의 축복받은 가정들과 하늘 부모와 땅의 부모가 하나가 되어, 창조이상적인 모든 피조세계 만물과 천상세계 지상세계의 인간과 하늘 부모와 참부모가 일체가 되어, 이 땅 위의 원한의 근본이었고, 탄식의 근본이었고, 한의 근본이었던 누시엘을 자연굴복시켜 가지고, 천상의 해방권과 지상의 해방권과 만물의 탄식권과 인류의 탄식권과 참부모의 탄식권과 영계에서는 어린 청소년의 애환의 탄식권과, 제멋대로 살다가 이 땅에 가정을 이루지 못한 모든 무리들과 제멋대로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사탄의 혈통으로 확장된 모든 천상세계 지상세계가 일체화되어서 형제지 인연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성자와 살인마들이 같이 참부모의 사랑에 품길 수 있는 이런 전통을 세워 놓고 이 땅 위에 사위기대 완성을 코디악에서 선포하고, 만우주의 사위기대 선포를 푼타 델 에스테에서 선포하여, 하나님을 중심삼은 해원성사의 승리권을 갖추어 가지고 천주 해방권을 금년 5월 14일을 중심삼고 판타날에서 선포하였습니다.

이런 승리적 기반 위에 3억6천만쌍 축복을 하여, 4억쌍이 넘는 축

1999년 5월 30일(日), 벨베디아 성지.

* 이 말씀의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복가정들을 중심하여 하나님을 중심삼고 전체 일체의 시위하는 환경을 갖춤으로 말미암아, 영계와 지상세계는 하나님이 자유롭게 인류를 대해 활동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여, 축복의 은사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이 개인과 가정과 종족민족국가세계를 넘나들면서 지상세계와 천상세계에 축복의 모든 은사로 말미암아 지상 해방권 천상 해방권을 갖추어 가지고, 숭한 역사적인 한의 고개를 넘어 이제 오늘 같은 동서양 지구성을 중심삼은 참부모의 승리권을 발표할 수 있는 이런 선포의 날을 갖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4억쌍이 넘는 축복가정이 기원이 되어서 새로운 세계로 전환시키는 기원을 만들어 오늘 이와 같은 날을 맞게 하기 위해 얼마나 하나님이 수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땅 위에 참부모의 길을 열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렸던 수많은 종교권의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 자리에 같이 축복가정으로 동참하여, 참부모를 모시고 36가정 이후에 3억6만쌍까지, 나머지 이제 미혼 남녀를 중심삼은 지상세계와 천상세계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제 최후에 종말을 맞아 가지고 40년 이전을 탕감복귀하여 승리의 천국을 이뤄야겠습니다.

이런 천국을 기독교 문화권을 중심삼고 이뤄야 할 것이 가정적 기반의 축복을 이어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참부모를 세우신 40년이 되는 명년을 중심삼고 전체를 복귀하여 청소년 축복 기반을 가지고 새로운 제4차 아담권을 성사하시려는 아버지 뜻의 승리의 날을 앞에 두고 이와 같은 선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언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영계와 육계의 모든 담을 헐고 자기 종족, 자기 민족, 자기 국가,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연결된 모든 인류들이 형제지 인연을 가지고 사탄과 관계없는 혈통을 근절하고, 새로운 하늘나라의 축복가정으로서 등장할 수 있는 승리의 패권을 지상세계와 천상세계에 참부모의 이름을 가지고 이 모든 지구성을 해방할 수 있는, 승리권으로 주관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벨

베디아의 뜻 있는 이 자리를 중심삼고 참부모의 승리권을 선포할 수 있는 기념 날을 갖게 해주신 은사를 감사합니다.

영계에 있는 수많은 영인들과 지상에 있는 축복받은 모든 가정, 도의 세계를 위하여 희생하고 수고하던 모든 전부가 도주들을 중심삼고 축복권 내에 서 있으므로 이제 동참하시어, 하나님 해원성사 해방과 더불어 지상 참부모의 해원성사 해방과 더불어 참부모가 지구성의 승리의 횡적 기반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6월 14일을 중심삼고 종적인 '천지부모 승리권'을 발표하는 역사적인 최후의 선언을 바라보는 이 마당에 섰사옵니다.

하나님을 중심삼은 천상세계의 모든 축복받은 가정들과 땅 위의 축복받은 가정, 온 만물들 전체가 탄식권을 벗어나 천천만세 만세를 부를 수 있는 승리의 기원으로 삼고자 이 식전을 수행하고자 원하오니 일체를 아버지가 맡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고, 참부모의 소원성사를 일체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만세의 한과 탄식권을 취소하고 승리의 방패권으로 일방적인 청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행차할 수 있는 아버지로 모시길 원하오니, 그런 승리의 패권 날을 세운 이 날을 기쁘신 날로 받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선포일을 기념하고자 원하오니 하나님 이름과 참부모의 이름으로 이 모든 전부가 선포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아뢰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모든 전체, 영계니 뭐니 다 하지 말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대표 세 사람, 초종교 대표 세 사람, 초국가 대표 세 사람만 하면 되겠어요. (이어서 대표자 경배와 가정맹세 제창)

<기 도(II)> 사랑하는 아버지, 무형으로 계시는 아버지께서 실체의 세계를 잃어버린 그날부터 다시 인간과의 인연을 복귀하기 위한 수고의 출발을 한 이래 한 많은 역사의 기원이 멀고 먼 수천년 수만년 전

이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간 아들딸을 위해 지은 모든 피조세계, 만물세계는 물론이요, 인류도 천상세계의 비참한 영계의 낙원 이하에 머무른 모든 애혼들을 바라보는, 또 지상세계 그들의 후대 후손들과 동족들이 지상지옥에서 성혼을 하늘 앞에 호소하는 걸 바라보시는 아버님의 심정이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비참하였다는 사실을 온 피조만물 세계를 깊이 다 모르고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타락한 아담 해와 직계 아들딸마저도 아버님의 슬픔이 어떨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역사와 더불어 하늘의 한의 탑을 높이면서 나왔사옵니다. 이러한 인류역사를 구하기 위한 내적인 부모의 심정을 품은 위대하신 사랑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께서는 참고 참아 사탄 자체를 자연굴복시킬 수 있는 한 날을 바라오기에 수많은 한의 역사를 거쳐온 것을 통일교회 무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한 많은 역사를 견어치우기 위한 하늘의 수고의 역사는 기독교를 중심삼고 많은 종교를 엮어 가면서 그 가운데 최후의 한 때를 맞이하여 인류의 해방과 천상세계의 해방과 참부모의 실현 승리의 기준을 중심삼고 하늘 부모가 해방의 날을 고대해 왔던 역사적 사실을 잘 아는 무리들이 여기 서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원한의 근원이 됐던 사탄 혈통을 근절할 수 있는 이 시대를 맞게 하신 그 일을 알고 이 일을 책임지고 지금까지 몸부림쳐 싸워 온 3억6천만쌍 축복가정과 더불어 이제 남아진 모든 미혼 남녀들을 축복하여 영계와 육계에서 이것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지구성 전체를 새롭게 천국화해야 할 책임적 소행을 짊어진 이 통일가의 축복받은 무리들을 하늘이 지켜 주신 것을 감사하옵니다.

이들을 대표해 선두에 서서 모진 수난 가운데 홀로 참부모의 명목을 세우기 위해 지금까지 개인적인 투쟁, 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 천상세계의 심정을 원수인 사탄을 추방할 때까지 싸우면서 나오는데

있어서 실패할 것을 염려하면서 보호하고 일선에서 같이 협조하신 아버지 앞에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님, 축복의 판도를 넓혀 3억6천만쌍을 세우기 위하여 한국에서 새로이 36가정을 중심삼고 출발했던 것을 인연지어 가지고 종족 기반을 넘고 민족국가세계 판도까지 개척하기 위해서 하늘이 얼마나 수고했단가를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고한 가정들을 중심삼고 3억6천만쌍, 4억쌍 이상의 축복가정을 중심삼고 하나님을 중심삼고 철옹성같이 선봉이 되어서 사탄 기반, 영계와 육계의 지옥 해방권을 선포하시어 당신의 자주적인 권한을 회복할 수 있는 선언의 날들을 통하여 하늘이 협조해서 이룬 승리의 기반을 참부모와 더불어, 축복가정과 더불어 같이 이루게 하여 주신 은사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지상의 해방권과 더불어 영계의 해방권이 같이 축복받아 가지고 종교권 해방과 더불어 수많은 성인 현철을 해방하고 그들의 계열적인 모든 천상세계의 무리들을 지상과 같이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통일적인 평형 수준의 지상 기반 위에 서서 가정의 고개를 넘고 전체 우주사적인 가정의 평탄 수평기준을 갖추어 하나님과 참부모님이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는 기준을 갖추었습니다.

그 기반 위에 이제 금년에 있어서 그제까지 끝난 부모님을 중심삼은 80개국 순방의 하늘의 대역사를 승리적 패권을 가지고 일방통행으로 목적지까지 단숨에 달려 순환 승리할 수 있는 그 날들을 기려야 되겠습니다. 또한 판타날에 있어서 천주사적인 해방과 더불어 이 축복의 기반을 중심삼고 이제 부모님이 동서양의 8수를 중심삼은 8회의 한국, 16회의 일본, 24회의 미국, 32회의 세계, 80개국을 중심삼고 8수를 맞추는, 사위기대의 배수, 아담 가정의 8수, 노아 가정의 8수를 잃어버린 것을 세계적 가정 위에서 회복하기 위한 최후의 청산을 위하여 이와 같은 대 확청(廓淸) 운동을 선언하면서 순회 강연을 성공리에 마

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8수 해방권을 선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재출발 권한을 갖춘 이 무대에 있어서 동서양 지구성에서 참부모가 행방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상의 축복받은 무리들이 지상에 있는 아담 가정을 대표한 축복받은 가정들을 형님으로 모시어, 동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가인 아벨 축복받은 천상세계 지상세계를 편성함으로 말미암아, 해방권을 갖추어 새로운 승리의 부모권을 갖게 하여 주신 지구성 축복의 은사를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이 날을 기하여 이제 6월 14일을 중심삼고 ‘천지부모 승리 해방권’을 발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품고 나오던 한을 푸시웁고, 갈라진 지상과 천상의 통일권을 갖추어서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을 위한 기반에 선 사람들은 창조이상의 자리에 섰던 당신 앞에 상대적 가치를 가지고 천상세계의 직계자녀로 관리, 입성, 입국하여 온 천주를 해방할 수 있는 시대를 맞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그제까지의 승리의 패권을 가지고 돌아와서 역사적인 중심 자리인 이 벨벳디아에 서서 ‘참부모 동서양 지구성 승리 선포’를 할 수 있게 한 모든 것이 말뿐이 아니라 이와 같은 성덕이 근원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고 높고 낮음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의 방패를 박았사옵니다. 하오니 이걸 중심삼고 금후의 통일가의 모든 축복받은 자는 당당히 하늘의 권속으로 하늘을 대신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책임 수행에 거리낌이 없는 전진을 다짐할 수 있는 무리들이 될 수 있게 되었사오니, 만복의 축복을 가하여 지상확대 승리의 권한으로 참부모의 승리의 패권 위에 연결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에 ‘천지부모 승리 해방권’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사랑 주권 이상을 만 우주에 선포하여 구약시대의 만물의 제물의 한을 밟고, 신약시대의 자녀의 제물의 한을 밟고, 성약시대의 부모님이 걸었던 이 한을 밟고 오로지 아버님만이, 창조주만이

주인이 되시어서 사탄의 참소조건을 완전히 전폐한 승리의 패권 사랑의 왕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승리의 이 날과 더불어 천상세계의 해방을 갖출 수 있는 이 일을 참부모의 이름으로 원하오니, 받아 실천하시기를, 만세에 축복하여 승리로 승리로 전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면서, 참부모의 이름으로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에 하나님과 참부모의 이름을 중심삼고 만민과 더불어 만물을 합한 승리의 패권 국가로 전진을 다짐하는 일을 선포합니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복귀됨으로 승리의 하늘의 혈족이 됨으로 말미암아 사탄까지도 해방하여, 형제지 인연의 권에 참석하자는 참부모의 특별한 용서를 다시 그들도 감사하여 아버지 품에 품길 수 있게끔, 이 날을 기하여 허락해 주시옵기를 참부모의 이름으로 봉헌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만세의 한과 탄식의 해방권을 갖추어 가지고 참부모의 이름으로 천상·지상 참부모권 전체를 대신하여 이 승리의 날을 선포하오니 만세의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이어서 케이크 커팅, 승리의 트로피 증정, 세계 종교지도자들의 감사패 증정, 만세 삼창, 축가가 있음)

<말 씬> 여기에 처음 온 사람들도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통일교회 사람들은 대개 축복받은 사람들일 텐데, 축복받은 사람 손 들어 봐요. 내려요.

인간 타락으로 인해 분별의 조건으로 제물의 역사가 시작됐다

세계에 살고 있는 인류, 그 다음에 천상세계에 가 있는 영인들, 피조만물은 타락의 근본과 그것이 가는 방향이 어떻다는 것을 모르고 나

왔습니다. 통일교회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섭리사의 내용을 알게 된 거예요.

구약시대라든가 신약시대, 신약시대를 넘어서 성약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천상세계 지상세계를 통일해서 지상·천상천국, 하나님 사랑의 주권의 통일세계가 된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교회 레버런 문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을, 온 세계에서는 이제부터 알게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선민권으로 말미암아 시작됐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피 흘리게 하는 의식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속죄의 길을 찾아왔는데, 그 근본을 몰랐어요. 그거 왜 그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주인인데, 전부 다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물건인데 이걸 두 쪽으로 갈라 가지고 한편은 하나님이 소유하고 한편은 사탄이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내용을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사람도 두 쪽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하나돼 가지고 피 흘린 제물을 하나 만들어야만 하나님이 받는다 이거예요. 죽은 만물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랑의 피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조건 밑에서 제물이 시작됐다는 역사를 몰랐습니다.

아담 가정으로부터 2천년을 중심삼고 역사해서 야곱 때에 와서 비로소 종족적인 민족을 중심삼고 제물을 통해서 개인적인 용서, 가정적인 용서, 국가적인 용서, 세계적인 용서까지도 한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런 제물을 끌고 나오면서 이것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아들이 오기를 바란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아들을 지었기 때문에 아담 대신 오시는 메시아가 와 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치리해서 하나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그때 메시아하고 하나됐더라면 이 제물시대는 구약시대로 끝날 것이었다 이거예요.

제물 시대를 청산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도 제물로 희생됐다

아담 가정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분깃으로 가질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차지하기 위해서 개인에서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까지 밀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물로 갈라진 두 세계를 어떻게 하나 만드느냐 하는 것이 당신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만들 수 있는 주인으로 가르치 않은 완전한 아담과 같은 실체의 메시아가 와 가지고, 제물세계 제거와 더불어 아들이 이 땅 위에서 전체 소유의 주인으로서 만물을 희생시켜 죽이지 않고 수습하는 거예요. 비로소 아들과 딸이 하나돼 가지고 만물 전체를 하나님의 일방도로써 수습하기 위한 메시아를 보내는 사상이었다는 거예요. 사탄 분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없애기 위한 것이 그 사상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아담이 완성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가정이 생겨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만물도 아담 가정의 것인 동시에 아담과 해와의 것, 남자 여자의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피를 흘릴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아담 해와가 아들의 책임을 다 했다면 그 만물은 아담권 안에 있어요. 아담이 승리했기 때문에 피 흘릴 것이 없고 다시 세계를 품어 가지고 자신의 아들딸을 중심삼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행사가, 그때 하나님에 의해서 가정 통일, 세계 통일의 기원이 되는 만민 축복의 시대를 메시아 예수로 말미암아 성사했을 것이었다 이거예요.

그것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계까지 연장돼 가지고 재림주가 오더라도 그 공식을 세계 무대에서 같은 법도로써 거쳐야 됩니다. 만물 제물

시대를 거쳐 그 다음에는 아들이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예수가 하나돼야 했는데 하나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부자지관계의 인연을 가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지상에 하나님의 아들딸의 대표인 그 아들 앞에 손자가 있어야 할 텐데 손자 통일권 세계를 갖추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독교인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물시대에는 예수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 앞에 제물이 없는 승리의 천국과 하늘 권한이 시작될 것이었는데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피 흘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은 지상지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만물 제물시대는 아들 해방시대를 맞기 위하여 있는데, 아들 해방시대에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해방된 입장에 선 예수가 제물의 자리에 나눔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제물 된 입장에 섬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제물로 희생시킨 이스라엘 민족은 지상지옥으로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탕감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러 왔다고 미친 생각을 하니 하나님에게 원한의 대못을 또 박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 권한을 중심삼고 하나님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나라가 망쳐 놔어요. 그래서 세계를 유리고객하며 2천년 동안 그걸 탕감하는 피를 흘려 나오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더불어. 기독교를 피 흘리게 만든 것은 유대교니까 유대교는 나라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제물 됐기 때문에 해방될 때까지는, 나라를 찾아 가지고 하나님의 전권시대를 맞기 전까지는 예수의 몸뚱이를 갈랐기 때문에 기독교는 어디를 가든지 희생의 피를 흘리고 전쟁터의 말굽에 밟히고 비참한 피난민 이상의 수난의 길을 걸어오는, 2천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이 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유대인이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준 선민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아들이 제물 됨으로 말미암아 전체, 마음과 몸의 두 세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사실을 아시는 예수님은 천신만고 십자가의 도상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원수인 로마 나라를 용서해 주고, 미래의 로마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하나님 앞에 부활할 수 있는 조건이 됐다는 사실을 기독교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재림 예수님과 하나돼 하나님의 세계 통일권을 이뤄야

이렇게 이스라엘이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죽어 가는 예수가 거기에서 선언한 것이 뭐냐 하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입니다. 죽지 않고는,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 가지고 다시 살아 넘어오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재림을 말한 것입니다.

그 재림의 목적은 뭐냐? 자기의 사랑하는 상대를 찾기 위한 거예요. 완성한 아담을 잃어버렸으니 아담을 찾고, 또 아담을 통해서 해와를 지어야 되겠기 때문에 오시는 메시아는 여자를 사탄세계에서 빼앗아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의 이름을 중심삼은 기독교는 2천년 동안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사탄의 참소조건에 걸린 것입니다. ‘절반은 당신 것이고 절반은 내 것입니다. 영계에 간 부활한 예수는 하나님의 것이고 부활하지 않은 실체는 내 것이요.’ 그런다는 거예요. 걸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물과 같은 자리에서 사탄 분깃을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주인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개인적 주인이요, 가정적 주인이요, 종족민족국가세계적 주인이 되는 그 길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가신 예수님이 주님으로서 이 일을 성사 못 했기 때문에 다시 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실패한 것을 기독교가 이어받아 가지고 오시는 주님과 하나되어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권이 개인으로부터 국가를 넘고 세계가 하나될 수 있는 판도를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재림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자 이거예요. 구름 타고 와 가지고는 망해요. 구름 타고 온다고 하는 것은 미친 것들입니다. 구름 타고 와요?

하나님을 중심삼은 통일적인 소유권을 만들려고 해서 메시아를 보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못 되어 실패한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오실 재림 메시아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런 결과에 섰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돼요. 지금도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통일적 소유권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민족주의적 이스라엘 선민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민은 이 하늘땅을 해방시키는 주인을 삼기 위한 것인데, 반대해 가지고 예수를 쫓아 버렸어요. 주인을 쫓아 버렸어요.

이제 유대인들은 2천년 전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메시아 중의 메시아요, 자기 부모보다 형제보다 누구보다 귀하게 모셔야만 앞날에 환영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길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제2 이스라엘권인 기독교는 영적 제2 이스라엘 선민입니다. 육(肉)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메시아가 구름 타고 와 가지고는 망해요, 망해! 구름 타고 와요? 이론적으로 맞지 않아요. 레버런 문은 이론만이 아니라 영계의 모든 걸 살살이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세계까지도 알고 있고, 사랑세계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반대하고, 뭐 통일교회가 이단이라고? 기독교, 유대교, 공산당까지 합해서 레버런 문을 없애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했

어요. 이제는 어떤 힘을 가지고도 레버런 문을 제거할 수 없는 최상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박수)

기독교가 재림주님과 하나됐다면

영계를 통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인(御印)을 받아야 돼요. 예수로부터 상속받아 하나님의 어인을 받지 않고는 지상세계의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통일교회는 지금까지 그러한 보이지 않는 예수를 중심삼고 제1, 제2 이스라엘 실패자들을 전부 다 연결시켜 가지고 환영할 수 있는 기반에 세워 놓고 지상에 와 가지고 사탄과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전세계가, 사탄이 전권을 가지고 ‘레버런 문을 때려 죽여라!’ 하는 거예요. 개인으로부터 가정·종족·민족·국가, 지옥에 있는 모든 영인까지 레버런 문 타도 운동을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레버런 문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습니다.」

유대교와 구교와 신교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공산당까지 하나돼 가지고 타도하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레버런 문을 쓰러뜨릴 것이냐?’ 해 가지고 소련과 미국이 하나되어 가지고 사방으로 공격한 것입니다. 그랬지요? 「예.」 나는 모르겠다고요. 여러분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가담해서 공격했다고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모든 전부가 범죄자예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면 지상이 망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원수 중의 원수가 누구냐? 미국입니다. 기독교를 대표한 선교사를 중심삼고 한국과 함께 반대한 것이 미국의 선교사들이라고요. 그렇지만 미국을 구해 주려고 내가 24년 동안 애쓴 거예요. 일생을, 청춘시대를 다 바쳤어요. 미국의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망하는

미국을 위해서 워싱턴에 6개 단체를 만들었어요. 법정에서 제1차 <워싱턴 타임스> 설립 비용을 지불했다구요.

미국 국민은 그때 ‘아이구, 만세! 레버런 문이 감옥 갔다. 만세! 망한다, 망한다!’ 하며 통일교회를 깨진 바가지 마냥 발길로 차 버리고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종교·정치·경제·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원수 중의 원수가 쓰러졌다.’ 하면서 모든 인류가 승리의 만세를 불렀던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구요, 통일교회 멤버들! 그 당시에 하나님과 레버런 문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과 레버런 문이 환영받았다면 7년 동안에 지상천국을 이루는 것은 문제없었다구요. 그것을 위한 틀림없는 계획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미국을 중심삼은 기독교 세계가 레버런 문을 환영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7년도 안 걸렸을 거라구요. 그 절반의 시간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4백년 동안 가톨릭과 신교가 서로 원수였는데, 그것도 문제없이 하나로 만들 수 있었을 거라구요.

통일교회의 원리에는 구약성경의 주류적인 내용도 들어 있고, 신약성경의 주류적인 내용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 보게 되면 레버런 문의 가르침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주류 사상 전부가, 민주세계 공산세계가 내 손에 녹아났을 거예요.

그랬더라면 공산주의가 안 나왔을 거라구요. 그 어떤 바깥 세상의 반대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온 인류가 원리를 따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통일교회에서 하고 있는 훈독회의 내용은 50년 전에 말씀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말씀하는 내용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반대하는 기독교와 미국을 살려 주려고

미국 기독교의 책임자들을 보라구요. 레버런 문을 반대하다가 하다

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망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큰 교회는 건물만 있고 생명이 없습니다. 무덤을 바라보는 팔십이 넘은 노인들만 모여 앉아 가지고 ‘이게 우리의 천국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라구요. 희망이 없습니다.

반대로, 레버런 문의 뒤에는 모든 젊은이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18세 이상의 젊은이들이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와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모두 다 알고 있다구요. 앞으로 길이 없습니다. 반대를 하다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길이 없다구요. 레버런 문 뒤에서 원리를 체크하고 체크해 보고 나니까 ‘아이구, 앞으로 미국 뿐만 아니라 모든 자유세계가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 하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구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만약에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미국을 때려부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철학을 알았기 때문에 미국을 사랑하고 기독교를 다시 품어 가지고 살려 주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내가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라구요. 남미에 가서 몇 년 이내에 전부 다 하나 만들어 가지고 미국을 반대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구교를 묶는 거예요. 남미는 천주교 문화권입니다. 4백 년 원수를 갚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수고한 역사를 알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 위한 4천 년 역사와 기독교를 부활시키기 위한 2천년 역사의 6천년 역사 동안 수고한 하나님의 공을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를 품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레버런 문의 한의 역사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하겠습니까. 그걸 풀어 줘야 돼요, 여러분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하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그것을 아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목사가 있어요? 교황이 있어요? 총회장이 있어요? 레버런 문 혼자 싸움을 다 끝냈어요. 철학계, 사상계

를 때려잡았어요. 신학계를 때려잡았어요. 잡된 국수주의 사상을 다 때려잡았습니다. (박수)

그건 세계가 아는 거예요. 레버런 문이 뭘 하느냐 하는 것을 안다 이거예요. 시 아이 에이(CIA;미국중앙정보국)가, 에프 비 아이(FBI;미국연방수사국)가 이 시간에 녹음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시 아이 에이, 에프 비 아이가 레버런 문의 일일생활의 모든 것을 녹음한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시 아이 에이에 경고하는 거예요.

이론에 맞지 않는 말을 안 한다구요. 거짓말을 안 해요. 구름 타고 와요? 그것은 사기꾼들입니다. 죄 있는 거짓말쟁이들이 죄 없는 정직한 사람을 규탄한 사탄세계의 역사적 결과와 마찬가지로 결과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기들은 제일 좋은 백성이고 ‘하나님 아래 하나의 나라’를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레버런 문은 ‘하나님 아래 하나의 세계와 하나의 우주’를 주장하니 ‘원수다, 원수다! 하나님의 원수다!’ 주장한 거예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레버런 문을 원수 삼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안 그런다는 것입니다.

*원 월드 언더 갓, 원 코스모스 언더 갓! 원 네이션 언더 갓은 하나님의 원수라구요. 그렇다고 원 월드 언더 갓이나 원 코스모스 언더 갓도 하나님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느냐? 「노(No)！」 노가 케이 엔 오 더 블류(know;알다)를 말해요? (웃음) 「엔오(NO)！」 그러한 내용을 정말로 알겠어요? 믿어요, 알아요? 「언더스탠드(understand;이해하다)！」 언더스투드(understood;understand의 과거형)! 스태추(statue;동상)처럼….

미국 젊은이들은 동상처럼 눈을 이렇게 깜박깜박하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아닙니다.» 동상한테 뭘 시켜 먹을 수 있어요? 「노!」 동상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네 활개를 움직일 수 있을 것이냐? 일은 안 하고 베짖이같이 놀기만 한다구요. 베짖이 알지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내가 이런 것을 오래 얘기할

시간이 없다구요.

청소년과 가정 파탄 문제를 해결할 분은 참부모밖에 없어

구약이라는 것은 약속인데, 약속을 못 이루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약, 새로운 약속을 세웠는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신약으로 끝내야 된다고요. 만물을 제물로 삼은 것은 아들이 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몸까지 사탄이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 남게 된 것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기독교는 피를 흘리는 거예요. 오시는 재림주는 부모로 오는데, 부모님이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2천년 동안 피를 흘려 왔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오는데 부모를 몰랐기 때문에 부모를 쫓아냈어요.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 예수를 죽인 것과 마찬가지로, 신약시대가 재림시대인 성약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통일권의 기독교 문화권을 갖춰야 할 것인데,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잃어버려 가지고 공산당 앞에 수억이 죽었어요. 기독교는 회개해야 됩니다. 수억의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상가정의 주인인 재림주를 광야로 쫓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세계와 기독교 세계가 가정과 젊은이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레버런 문밖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자유세계, 기독교세계, 종교세계도 모릅니다. 알겠어요? 「예.」

여기에 모여 있는 여러분은 모두 다 이 내용을 알겠어요? 「예스.」 예스, 노? 「예스.」 과거의 예스예요, 미래의 예스예요? 어느 쪽이에요? 「미래의 예스입니다.」 미래의 예스? 그 말은 과거를 알고 미래의 모든 것도 안다는 것이니까 레버런 문의 승리권을 상속받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연결될 거라구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알겠다는 사람 손 들어 보라구요. 내리라구요. 타락이, 에덴 동산에서 청소년 때 윤락한 것이 신약시대의 가정까지 파탄시켜 버렸습니다. 청소년과 신약시대에 예수의 가정까지 파탄시킨 그런 죄의 벌을, 보응을 받아야 할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 청소년 윤락이 웬 말이에요? 기독교에 에이즈가 웬 말이에요? 기독교가 공산당하고 한 패 된 것이 웬 말이에요? 바람이 들어도, 외도를 해도 이 이상 할 수 없는 비참한 자리에 있으니 하나님이 철추로 내려치는 자리를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가정을 세우려고 했는데 못 세웠기 때문에 지금 모든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정치·경제·문화·교육·종교 등 모든 분야의 힘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손 들어 버렸습니다. 누가 구할 거예요? 「참부모!」 (박수)

참부모를 모시지 않으면 망하게 돼 있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레버런 문이 가르쳐 주는 내용은 틀림없습니다. 이 내용을 젊은이들이 듣게 되면 모두 다 레버런 문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 뒤에는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고약하다고요. 코로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알겠어요? 「예.」

그러면 레버런 문을 따라가다가 죽을래요, 미국 군대를 중심삼고, ‘하나님 아래 하나의 나라’를 주장하는 미국의 군인이 되어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죽을래요? 어떤 거예요? 「레버런 문을 따라가다 죽겠습니다.」 왜 레버런 문이에요?

*원 네이션 언더 갓은 이미 선생님이 차 버려 가지고 망한 세계가 되었습니다. 원 네이션 언더 갓을 주장하는 미국에는 희망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러한 칸셉은 따라가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세계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칸셉이 아니라 사실이라구요. 여러분이 확실히 알았을 거라구요. 그거 그래요? 「예.» 트루(true;정말)? 「예스.» 트리(tree;나무)가 아니라구요. 트루, 트리? 선생님은 복잡해서 모르겠다구요. 트루? 「트루!» 이만했으면 알겠지요?

양손의 손가락은 물론이고 손톱까지 힘을 줘서 꼭 잡으라구요. 럭비 공을 잡듯이 방향을 잘 잡으라구요. 골문을 향해서 슛을 날려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다구요. 미국의 젊은이들은 대단히 건장합니다. 그와 같은 미국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 비참상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레버런 문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념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부터 영어로 말씀하십시오)

동서양 전체가 레버런을 부모로 모시지 않고는 죽는다 이거예요. 안 죽는가 보라구요. 망하는 것입니다. ‘아이구, 한국에서 온 레버문!’ 하면서 쓰레기통의 장미와 같은 얼굴을 해 가지고 레버런 문이 큰소리했잖아 며칠도 못 가서 다 없어진다고 했어요. 없어졌어요? 「아닙니다.» 내가 백인 목사면 어떻게 됐겠어요? 생각해 보라구요. 내가 만일에 백인이었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미국의 시 아이 에이(CIA), 에프 비 아이(FBI)가 반대했겠어요, 옹호했겠어요?

내가 백인이었으면 시 아이 에이, 에프 비 아이가 원조했기 때문에 저개발 국가는 이미 선생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의 세계를 만들었을 거예요. 미국도 ‘하나님 아래 하나의 나라’라는 명시를 자동적으로 취소해 버리고 ‘하나님 아래 하나의 세계와 하나의 우주’로 이행되었을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 「시 아이 에이를 레버런 문이 좋아하십니다.» (웃음) 나는 시 아이 에이를 좋아하지 않는다구!

시 아이 에이를 사랑해!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머리를 숙이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사랑은 제일 향기로운 것입니다. 늙은이나 젊은이 할 것 없이 원 웨이 코스(one way course)라고요. 투 웨이(two way; 두 길)가 아니라 원 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우주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지옥도 해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옥까지 해방하기를 원한다고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이걸 알아야 됩니다. 레버런 문이 지옥까지 해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을 누가 말려요? 하나님도 못 말리고 사탄도 못 말리는 그 싸움을 누가 말려요? 오시는 재림주, 참아담, 완성한 아담이 말리는 것입니다. 실패한 아담이 거짓 부모가 됐으니 완성한 참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도 해방할 수 있고 사탄도 해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편인 사람도 포섭하고 사탄 편인 사람도 포섭하는 거예요. 힘으로 해서 사탄을 굴복 못 시켜요. 하나님에게 '이래야 해방될 것 아닙니까?' 할 때 그렇다고 해서 역사의 모든 원한의 원기를 추방함으로 말미암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케이크입니다.」 케이크! '아이구, 우리가 아침도 못 먹었는데 말씀 그만하고 케이크나 잘라 주소!' 하고 원하지요? 「아닙니다.」

*레버런 문의 말씀보다 케이크가 더 달다고요. 말씀은 쓰다고요. 어느 걸 원해요? 스위트 케이크? 「노!」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것을 좋아한다고요. 미국 젊은이들은 어려운 것을 싫어해요. 무엇이든지 보거나 듣고 나서 '댓스 오케이(That's OK; 그거 오케이)!' 하면서 대번에 결론을 내려 버립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고, 이상도 없고, 앞으로 살길도 없다고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에서는 아침마다 훈독회를 합니다. 날마다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년 후에

는 미국의 다른 젊은이들과 여러분을 비교해 볼 때 어느 쪽이 레벨이 높겠어요? 미국의 다른 젊은이들이 높겠어요, 통일교회의 젊은이들이 높겠어요? 통일교회의 젊은이들이 높을 거라구요. 얼마나 높겠어요? 십배, 백배 이상으로 높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세계까지 이해하고 그러한 세계를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이루려고 한다구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성약시대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상속받는 시대

싸움은 끝났어요. 여러분은 고생을 시키는 게 좋아요, 공부 안 하면 기합을 주어서 공부시키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종착지라구요. 거기서 하나님의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이상적인 종착지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세계가 우리에게 굴복했으면 건설해야 됩니다. 건설해 가지고 천국을 만들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중간에 안 돼요. 상속이 없어요. 전부 다 바쳐야 돼요. 거짓 부모 아담이 잃어버렸으니, 다 잃게 했으니 통일교회는 그 나라와 세계 전부를 바쳐야 돼요. '당신의 것이니 마음대로 하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이 지은 것은 자기 때문에 지은 것이 아니라 아들 때문에 지었으니 '아들딸, 네가 있으니 너에게 다시 돌려준다.'고 해야 우리의 소유권 시대가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참부모도 소유권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딸에게 상속해 주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마찬가지로. 미국이 그렇게 상속받을 수 있는 자리에 못 와 있다가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성약시대는 하나님까지도,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모두 내 것이예요.

전부 다 상속받는 시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얼마나 ‘아멘’이에요? 아(A)는 넘버원을 말하고 맨(man)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버원 맨(number one man)을 아멘이라고 하는 거라구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유예요. 우주를 컨트롤하는 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방해물도 없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고, 희망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예.」

거기에 하나님도 임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같이하는 거예요. 행복이 있고, 해방이 있어요. 빅토리(victory; 승리)가 아니라 빅터(victor; 승리자)의 세계입니다. 항상 빅터입니다. 첫 빅터, 끝 빅터, 영원한 빅터는 사랑의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의 왕을 점령하면 하나님의 소유권을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넘버원이다!’ 하게 되면, 하나님도 ‘하하하, 그렇다!’ 하는 거라구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도 그런 자리를 원해요? 「예스.」 여자는 그런 자리를 원하지 않지요? 여자도 원해요? 「예스.」 이렇게 조그만 여자도 그 자리를 원해? 남자와 체구는 비교가 안 된다고요. 절반밖에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볼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볼 수 없을 만큼 작다고요. 그렇게 사랑도 볼 수 없는 자리에 숨겨져 있습니다.

평준화 세계의 행복이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우리가 가는 종착점이니, 하나님에게 돌리는 선물까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아이구, 어떡할까?’ 하며 춤추다가, 암만 생각해도 거기 가서 춤추다 보니 매일같이 춤출 수 없으니 피곤할 것도 생각하여 ‘야, 너 좀 가져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춤추니까 더 기쁘니까 하나님이 ‘이젠 영원히 네 것이다. 아멘!’ 해야 우주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를 들고 춤추는 거예요. 아들을 두고 바라보면서 춤추는 것이 더 기쁘더라 이거예요. *큰 소리로 ‘아멘!’ 해봐요! 「아멘!」 (*부터 영어로 말씀

하심)

다 알겠지요? 그러니까 성약시대에는 모든 전부가 내 소유입니다. 절대적 주인인 하나님도 내 소유예요. 사탄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내 소유권을 가졌으니 에이 맨, 넘버원 맨이 틀림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위 하나님의 며느리는 싫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이상의 기지입니다. 군대의 기지가 아니라구요. 군대의 기지는 모든 것을 보급합니다. 거기에는 원자탄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승리의 소유권 기지! 그것을 상속받은 다음에는 넘버원 맨이 되는 것입니다. ‘넘버원 맨!’ 해보라구요. 「넘버원 맨!」 밤낮, 사시사철, 일평생뿐만 아니라 영원을 넘어서 넘버원 맨!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의 왕자 왕녀들입니다. 알겠어요? 「예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여러분이 전부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예.」 그렇게 되겠다는 사람 손 들어 봐요. ‘나는 성약시대의 왕자다!’ 한번 해보라구요. 「나는 성약시대의 왕자다!」 *우와, 원더풀! 영원히 축복이 함께하기를!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하나님의 혈통을 상속해 주는 참부모가 돼야

지금부터 54년 전에 선생님이 축복할 때 처음에는 처녀 총각을 축복하려고 했어요. 그때 총각이 누구예요? 가톨릭의 신부와 수녀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서양에 독신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겠어요? 그들을 중심삼고 2세들을 축복하는 것이 선생님의 축복의 목적이었다구요.

*하나님이 그런 젊은이들을 축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탕감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파더

가 새로운 이상가정을 세워야 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는 참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혈통을 상속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주류적인 목표입니다. 모든 젊은이들을 복귀해야 됩니다. ‘레버런 문이 이상가정을 세우고, 온 인류가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 하면, ‘예스!’ 하면서 레버런 문이 새 천년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합니다. 젊은이와 가정 파괴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반대를 계속할 수 없는 거라구요. 알겠어요? 「예스.」

기독교 세계의 2세들을 복귀해야 된다고요. 4억쌍의 축복도 문제없습니다. 우리가 기성가정을 4억 가정 이상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마다 한 명의 아들딸을 인도하면 대번에 4억쌍의 축복은 문제없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문제는 미혼축복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의 책임인데, 기독교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밑바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반대하는 공산세계와 자유세계도 고 다운(go down; 내려가다), 고 업(go up; 올라가다)? 나는 모르겠다구요.

그래서 파더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독교를 사랑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연결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한평생을 다 보냈습니다. 파더가 생각하는 것을 확실히 알려구요. 어느 누구도 레버런 문이 닦아 놓은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적인 기반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 길을 따를 거예요, 안 따를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예스, 노? 「예스!」 영원한 예스예요, 잠깐의 예스예요? 「영원한 예스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머리는 있기는 있구만. (웃음)

미국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결심을 하고 나가라

자, 이만큼 얘기했으면 다 알 거예요. 안 믿으면 아침도 안 먹고 데모할 위험성이 있으니까 내가 그만둬야 돼요. 데모할래요, 안 할래요?

「안 합니다.」 그러면 금식 데모할 거예요? 「예.」 그래도 죽지 않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는 자가 천국 간다고 했는데 안 죽으니까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금식하다가 죽게 되면 내가 하지 말라고 그런다구요. 선생님이 살려 주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청소년들, 초등학교는 내가 구해야 되고, 중고등학교는 내 손으로, 대학도 내 손으로, 법적 결혼하는 패들도 내 손으로 해결할 것이다.’ 이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미국 청년들은 여러분이 책임지기 때문에 선생님은 고향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내가 미국을 위해서 이렇게 살려 주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면 공동묘지에도 못 가요. 여러분이 책임지겠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부터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결론이었느니라! ‘아멘’을 안 할 수 없다구요.

그래서 영계 축복한 사진까지 하면 지상에서 축복한 사진첩이 이만큼 될 거예요. 기독교의 지금까지 반대하던 이 원수들의, 광야에 쓰러져 망할 패들의 아들딸에게 이것을 보여 주며 ‘이것이 잘했어, 너의 아버지 어머니가 반대하는 게 잘했어?’ 하고 물어 보는 거예요. 똑똑한 녀석들, 초등학교만 나왔더라도 ‘우리 아버지는 이거고 통일교회 레버린 문은 이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레버린 문 사진 갖기 운동 하자!’ 하면 일시에 천 명이면 천 명이 사진을 갖는 거예요. 만 명이면 만 명이 사진을 가질 것이다 이거예요.

사진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 잡아끌더라도, 축복 때가 오면 끌고 줄을 세워서 ‘들어가!’ 하면 들어가게 돼 있지, 싫다고 하게 돼 있어요? 3분의 1은 강제로도 통한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는 대통령 가정,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딸을 거느려 손자까지 축복받은 것이 수십 쌍, 수백 쌍이 나타날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반대하겠어요? 나라 대통령들 가족들이 수백이 나올 텐데 그걸 반대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

면 아메리칸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될 것입니다.

넘버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카(merry car;즐거운 차)가 아메리카입니다. 넘버원 메리 카의 세계가 아메리카인데, 기름과 같은 정신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 두라구요. 미국 사람들에게 정신과 같은 기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넘버원 메리 카, 아메리카! 그런데 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신세계에 있어서는 제로입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이즈가 가장 심한 곳도 미국이잖아요? 가정도 깨지고, 종족도 깨지고, 민족도 깨지고, 국가도 깨지고, 세계까지 망치는 곳이 미국입니다. 뿔!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회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계를 둘러보라구요. 어디서든지 ‘양키, 고 홈!’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레버런 문, 고 홈!’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전세계에서는 ‘양키, 고 홈! 레버런 문, 컴 백!’ 합니다. 반대라구요. 미국은 레버런 문을 반대하지만, 동서양은 레버런 문과 하나되어 가지고 미국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뒤에서 그런 기반을 닦고 있다고요. 소련, 인도, 브라질, 일본에서 그런 기반을 닦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기독교 세계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져야 되겠어요. 어디서든지 손을 들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패하면 안 됩니다. 레버런 문처럼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없이 중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라구요. 선생님도 사십이 넘어서 미국에 와 가지고 중심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안 그래요?

희망이 없는 기독교, 민주공산세계를 참사랑으로 소화하자

여러분은 레버런 문을 잘 모른다고요. 미국의 지도자들을 보라구요.

앞으로 갈 길을 몰라요. 레버런 문이 없으면, 기독교 세계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미국을 비롯한 민주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세계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레버런 문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전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소화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판타날에 스크루 뱀이라는 것이 있는데 길이가 25미터나 됩니다. 사람도 삼킬 수 있을 만큼 큼니다. 그것이 5미터 이상 되는 악어와 싸워 가지고 휘감아서 삼키더라고요. 악어의 가죽에 더러운 흙탕물이 묻었던 뭐 어쨌든 그대로 삼키는 거예요. 것처럼 빅터(victor; 승리자)가 삼키는 것입니다. 악한 녀석이든 선한 녀석이든 상관없이 다 삼켜 가지고 소화하는 사람이 빅터인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레버런 문이 판타날에 스왈로우(swallow; 삼키다) 킹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선생님이 스왈로우 킹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악한 세계든 선한 세계든 한번에 꿀꺽 삼켜 버리는 거라구요. 그래서 문제없이 소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까지도 그런다면 얼마나 놀라운 칸셉이예요? 문제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가구요.

참사랑은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예스,」 킹 스크루 스네이크도 문제없이 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물고기들은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 당시에 모든 피조만물이 심판을 받았지만, 물고기 세계는 심판을 안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파더가 물고기 세계를 좋아합니다. 지금 파더가 어부들의 왕이 되어 있다가구요. 모든 것을 어부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처음에 고기를 잡으면 놓아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재미있어요! 아무리 큰 것을 잡더라도 놓아 주는 거라구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와 스탈린도 성인들과 같은 날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스

왈로우하면 대단히 맛있다구요. 소화하는 것도 문제없습니다.

아무리 미국이 크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이 문제없이 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공산세계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문제없고, 중국도 문제없습니다. 종교세계도 문제없다구요. 전세계에 선생님이 그럴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놓았습니다. 그렇지요? 「예스,」 모든 사람들이 레버런 문을 좋아한다구요. 사시사철 밤낮으로 어디든지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버런 문 혼자서 그 모든 환영을 다 받을 수 없으니까 모든 젊은이들을 내세워서 환영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대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선생님이 여러분을 그럴 수 있는 책임자의 자리에 세워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관심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십시오)

성약시대 사람은 영계를 알아야

그러니까 그만 하자구요. 내가 할 줄도 모르는 영어를 해야 알아듣지도 못할 테니까 그만두고... 오늘은 점심 지날 때까지 밥을 안 먹일 거예요. 그것만 약속하고 물러갈 것입니다. 덤다고 물러가면 내가 제일 더운 데 가서 옷을 하나 더 입고 기다릴 거예요. 그래도 남미에서 낚시질하는 것보다 더 쉬워요.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 대신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자유 행동하되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 선생님 앞으로 지나갔다가는 발로 다리를 차서 꺾어 버릴 지도 모를 거예요. (웃음) 불평하는 녀석이 있으면 ‘젊은 녀석이 뭐야, 이 자식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주의하라구요.

나는 팔십 노인이기 때문에 한 시간 이내에 한 번씩 변소에 가서 오줌을 싸기 때문에 가도 괜찮지만, 여러분은 젊기 때문에 세 시간 전에는 떠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약속했으면 손 들라구요. 좋은 소식을 전

해 줄 것입니다. 사탄이 항복한 문서를 전수해 주려고 그래요. (박수)

양창식, 나오라구. 딴 사람을 쓰지 않고, 임자도 그만두고 양창식을 시키는 거라구. 누가 선배인가? 아벨을 쓰기 때문에 양창식이 하는 거라구.

오늘 이 날을 알려면 그걸 모르면 안 되겠기 때문에 요거 4장을 읽으라구. 4장을 요전에 했지요? 4장만 하면 돼요. 그 전 것은 여러분이 이것을 번역한 다음에 읽으라구요. 이것을 모르면 안 돼요. 영계를 모르는 사람은 성약시대의 회원이 아닙니다. 영계를 알아야 선생님같이 세상이 반대하더라도 밀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영계를 알아야 된다고요. 훈독회를 통해서 그 동안 영계에 대한 차원이 많이 높아졌다고요. 자!

「원고를 가지러 갔습니다.」 내가 아침에 가져오라고 그랬어. 내가 지시했다구. 「여기 있습니다.」 (웃음) *나는 그런 거 싫어! (웃음) 그걸 기쁨으로 ‘하하하!’ 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간다고요. 머리를 한 대 때려도 ‘히히, 더 때려 주소!’ 하면 큰 복이 떼굴떼굴 들어오기 때문에 싫다는 말은 감사한 말이다 이거예요.

내가 한마디 침부하고 싶은 것은, 가정맹세는 이때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읽어 보라구요. 지금까지는 함부로 가정맹세를 낭독했지만, 이제 진짜 여러분이 그 내용과 더불어 선서해야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가정맹세를 읽어 보라구요. 이때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까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요. 다시 가서 세 번, 네 번, 다섯 번씩 읽어 봐요. 명령입니다.

(《인류의 범죄자 누시엘》 제4장 ‘죄의 뿌리와 인류의 갈 길’부터 양창식 워싱턴 교구장이 훈독함) 이것을 외우다시피 해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외우다시피 해야 될 내용이라고요.

이상헌 원장의 영계 메시지는 칸셉이 아니라 실제 내용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 고개 들 자가 없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는 자, 교만하고, 오만하고, 상대를 무시하며, 모든 사람들 앞에 명예, 권세를 부리며, 당당한 자는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이건 이상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역사의 종착지는 인류구원이며, 인류역사는 복귀섭리역사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남의 자리에서 주인 행세했던 사탄을 완전히 추방하고 이제 하나님을 참주인, 참부모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문선명 선생이다. 그러므로 인류의 범죄자 누시엘도 참부모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고 속죄의 길을 걷고 자기의 본래 위치에서 하나님을 모셔야 한다.』

*그런 것은 칸셉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것은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칸셉이 아니라구요. 처음에 이상헌도 파더의 말을 믿지 않았대구요. 원리의 내용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계에 가서 보니까 모든 것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충격을 받고 그 진리를 지상에 있는 형제들에게 알려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혼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구요. 알겠어요?

여러분도 영계에 가서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얼마나 믿었는가에 따라서 레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내용을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된대구요. 앞으로 그러한 세계가 실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칸셉이 아닙니다. 유의하라구요. 알겠어요? 「예.」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이제 우리는 참부모님을 통해서 사탄의 죄악사를 최종적으로 청산

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자세로서...』

*심각한 시간이라구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그러므로 인류의 범죄자 누시엘도 참부모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고 속죄의 길을 걷고 자기의 본래 위치에서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 이제 우리는 참부모님을 통해서 사탄의 죄악사를 최종적으로 청산 짓고 새롭게 출발하는 자세로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지상으로 보내신 참부모님, 문선명 선생님을 모시고 따르기를 바란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 인간에겐 다시 태어나는 삶의 방향이 설정될 것이며, 우리 인류는 이 나라 영계의 천국에서 영원한 보금자리에 머물게 될 것이다.』

*다른 혈통을 받은 이것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간섭이 아닙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에덴에서 잃은 것을 찾아야 하니 인간에게 참부모가 절대 필요해

『5. 모든 인류의 갈 길.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았다.』

*그 내용을 알면 여러분의 생애노정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바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영계가 그런 식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그러나 인간에 있어서는 인간을 낳은 부모와 길러온 부모가 서로 다르다. 인류를 길러온 부모는 악마 사탄이다.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의 대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을 상실해 버렸다.

그러므로 인류는 하나님과의 부자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여러분이 가정을 완전히 구원했다고 하더라도 종족과 민족, 영계의 조상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구할 거예요? 누가 그들을 구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참부모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이를 위해서는 인류가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다. 인류가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데는 메시아가 필요한 것이다.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가 다름 아닌 지상에 오신 참부모님 문선명 선생님이다.』

*메시아는 참부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부모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지 않은 아담이 바랬던 마지막 목표였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되찾는 것이 메시아이며, 그 메시아가 바로 참부모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논리적인 결론입니다. 사탄도 복종해야 됩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가 다름 아닌 지상에 오신 참부모님 문선명 선생님이다.』 (박수)

레버런 문을 이렇게 영계에서 증명하고 있다구요. 내가 지금까지 재림주라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의 봉사하는 리더로서 살아 왔습니다. 이것을 테스트해 봐야 됩니다. 영계에서도 안 하면 안 된다구요.

『인류는 메시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은 전혀 없는 것이다.』

*절대로 없다구요. 온 인류에게 참부모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구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축복이 얼마나 귀한 가치인가를 알라

『그리고 천상의 천국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류는 다시 태

어나야 한다. 메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인류 구원과 축복의 권세를 받았다.』

*축복의 가치는 하나님의 혈통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축복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사탄의 혈통을 제거해 버리는 거라구요. 그 혈통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계에서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여러분은 모릅니다.

이상현도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축복받지 않으면 그 티켓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일생 동안 하나님을 모셨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축복의 길만이 천국에 이를 수 있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의 축복가정들이 그러한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계에 가 보라구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된다고요. 영계에서는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다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축복받은 후손들에게 협조해야 됩니다. 그 후손들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그 뒤를 따라서 영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원히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조심하라구요. 경고한다구요. 알겠어요? 「예.」

여러분의 일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두 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라구요. 오늘, 내일, 올해가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알겠어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십시오)

『그러므로 온 인류는 메시아의 축복에 의해서 거듭나고 지상생활에서 그분을 믿고 모시고 생활해야만 그 영광이 천상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인류의 축복은 곧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해방이요, 하나님의 한의 역사를 청산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 종말의 시대인 것이

다.』

*그래서 예수님도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참부모의 자리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남편도 참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애노정이 바뀌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가정 파탄과 청소년 문제를 축복의 천주화로 해결해

『인류의 축복은 곧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해방이요, 하나님의 한의 역사를 칭찬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 종말의 시대인 것이다.』

*끝날이 뭐예요? 올해의 연두표어가 ‘참축복 천주화와 사탄혈통 근절’입니다. 3억6천만쌍의 축복이 피크(peak;절정)였습니다. 그때를 중심삼고 고개를 넘었습니다. 파더가 선포를 했다구요. 어느 쪽이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승리했어요, 사탄이 승리했어요? 축복이 온 인류에게 확장된 것입니다. 거의 4억 명 이상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8천만 가정이에요. 한 가정에 사위기대를 이루어서 네 가족이 있다면 3억2천만입니다.

지금 모든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청소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정치·군사·경제·교육·종교의 힘으로도 못 합니다. 지금 미국의 국민들이 지옥 밑창으로 떨어지고 있다구요. 망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부정할 거예요? 미국의 모든 힘을 다 합쳐도 이것을 스톱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을 스톱시킬 수 있는 사람은 레버런 문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 위에서 미국이 영원한 선진국일 수 없습니다. 지금 속은 썩어가고 있다구요.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상의 사실이라구요. 어떻게 그걸 부정할 거예요? 에이즈

가 온 인류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병이잖아요?

여러분이 미국을 구해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전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에이즈를 전염시키고 있다구요.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미국 사람들도 잘 알고 있다구요. 여러분도 잘 알지요? 그렇지요? 「예,」 (*부터 영어로 말씀하십시오)

참부모와 완전히 하나되어 8단계를 완성해야

『...각자 개인의 생활 모습이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때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의 복귀가 종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탄이 어느 한 곳에서도 발을 붙일 수 없고 그 아지트까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다.』

*축복가정이 올라가고 올라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우주적인 모든 차원을 이해하고 있지요? 알아요, 몰라요? 모든 통일교회의 멤버들은 틀림없이 이해하고 있다구요.

어떻게 개인 기반, 가정 기반 등 모든 것을 이해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우주 이상까지 모든 것을 선생님이 명백하게 가르쳐 주었다구요. 축복가정들이 8단계까지 올라가야 하나님, 참부모를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창조주, 참부모를 만나 가지고 완전히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누가 만들어야 주어야 되느냐? 참부모가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부모가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투입하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본래 그것은 참아들딸의 것입니다.

‘내가 피조세계의 모든 것을 주겠다. 하나님까지 포함해서 줄 테니까

받아라!’ 해서 여러분이 소유권을 갖게 되면 모든 것이 참사랑을 중심 삼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참사랑을 중심삼게 되면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우주·천주를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원리적인 해방의 길입니다. 알겠어요? 「예.」

심각한 때입니다. 파더는 심각하다구요. 파더가 영계로 가야 할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파더가 이 땅 위에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6월 14일 이후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세계의 모든 것을 차 버리고 새로운 칸셉을 복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귀된 새로운 우주를 인간에게 상속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뿌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보고 싶지 않아요. 새로운 우주, 천국을 세워야 합니다.

몸 마음을 하나 만들려면 절대신앙·사랑·복종해야

여러분도 생각해 보라구요. 여러분에게는 두 세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싸우고 있다구요. 그게 사실이라고요. 그렇게 싸우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몸과 마음의 경계선을 지워 버리고 하나될 수 있느냐? 그 몸과 마음이 하나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결론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싸우지요?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느냐?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이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상속받았던 사탄세계의 관습과 전통을 완전히 지워 버리고 제로(零)의 입장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탄의 혈통을 깨끗이 지워

버릴 수 있을 것이냐?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으로 지우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칸셉은 모든 것이 사탄의 것입니다. 알겠어요?

어떻게 몸과 마음을 하나로 만들 것이냐? 그것을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라도 영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결론이요 사실입니다. 모두 다 확실하게 알겠어요? 「예.」 오늘 파더가 말씀한 내용을 잊어버리지 말라구요.

얼마 남았어? 두 시간도 더 걸리겠구만! (웃음) 그만두고 싶지요? 사탄은 그것을 원한다구요. 여러분은 파더가 하는 말을 모른다구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그러니까 참부모의 아들딸이 못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참부모의 가르침이 아니면 타락 세계를 청산할 수 없어

『우리들은 ‘사탄이 우리들로부터 영원히 단절 근절되면 영원한 인류 평화가 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상과 원리가 전해져야 한다. 영원한 인류 평화와 인류 구원이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목표이다. 이제 천운의 때가 도래하여 죄악역사가 소멸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실감하게 될 것이다.』

*파더의 참부모는 어디에 있어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참부모가 하나되는 그 자리가 일체의 자리입니다. 참부모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참부모는 문선명입니다. 그래요? 「예.」 여러분은 그러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탄의 혈통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잘라 버려야 돼요. 가정·종족·민족·국가 등 모든 것을 부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세계에서는 출가를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식기도 가장 나쁜 것의 뿌리로 간주되었습니다. 타락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생식기를 통해서 가정·종족·민족으로 번성하게 한 것입니다. 그 생식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번식시킬 수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곳입니다. 그게 생식기라구요. 거기서 사랑, 참사랑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생명도 그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의 본궁입니다. 사랑의 본궁, 생명의 본궁, 혈통의 본궁이라구요. 그만큼 귀한 곳입니다. 그렇게 귀한 것을 지금 미국 사람들은 가장 나쁘고 천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프리 섹스, 호모, 레즈비언? 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고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입니다.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통일교회에서는 그것을 완전히 잘라 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의 지옥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180도 반대의 방향으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천국에 연결되는 거라구요. 간단한 것입니다.

프리 섹스, 호모, 레즈비언을 완전히 부정해야 됩니다. 사탄이 자유를 원합니다. 프라이버시, 누가 그것을 만들었어요? 사탄이 만든 것입니다. 개인주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개인주의에는 우주세계·국가·사회·종족·가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탄의 혈통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청산할 것이냐?

지금까지 하나님도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참부모가 가르쳐 주는 내용이 아니면 청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의 혈통적인 뿌리를 뽑아 버려야 돼요. 이 일대에 해결해야 됩니다. 후손이 아니에요. 우리 일대에 끝내야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은 성약시대입니다. 하나님

을 우리의 가정에 모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알겠어요? 「예.」

참부모를 따라 하나님 아래 한 우주를 만들자

참부모는 40년 이상을 핍박받았습니다. 왜?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문제없습니다. 오로지 바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참부모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이 기반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파더가 하루 하루를 심각하게 거쳐왔는가를 생각해 보라구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6월 14일이면 참부모가 세계적인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통일교회의 누구든지 하나님과 참부모처럼 강해져야 되겠다구요. 그래서 세상, 우주, 영계까지도 핍박이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상과 영계를 모두 다 축복해서 해방해 가지고 횡적으로 참부모를 환영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사탄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참부모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파더가 핍박을 받으면서 이와 같은 기반을 닦아 가지고 하나님을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우주에 모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원 네이션 언더 갓’이라고 하는데, 뿔! 세계의 기반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원 월드 언더 갓, 원 코스모스 언더 갓! 그러한 기반 위에 참사랑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 네이션 언더 갓은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예.」

레버런 문을 따라가는 것밖에 살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 위에서 온 인류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지옥 밑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것입니다. 발전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축복가정들은 영원히 번성할 것입니다. 선생님이 모든 것을 상속해 주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잘못 받으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이라구요. 그런 때가 여러분의 가정·종족·민족·국가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선생님이 그렇게 만들 거라구요. 레버런 문은 의롭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길고 긴 시간을 기다려 왔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슬펐어요? 뿔! 한번에 청산하는 것도 문제없습니다. 사탄세계가 히말라야 산 같더라도 한번에 청산하는 것은 문제없다구요. 앞으로 무서운 때가 올 것입니다. 잘났다는 사람들, 앞으로 두고 보라구요.

앞으로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인류에게 닥칠지라도 걱정할 것 없어요. 우리는 에베레스트 산정도 문제없이 날아 넘을 수 있습니다. 쉽게 넘어갈 수 있다구요. 왜? 우리의 칸셉은 원 코스모스 언더 갓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매일 매일의 생활적인 칸셉이 되어야 합니다. 원 네이션 언더 갓의 하나님이 아니라 원 월드 언더 갓, 원 코스모스 언더 갓입니다. 알겠어요? 「예.」

그렇게 되어야 영생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지상천국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인 결론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창조주가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가야 조상들의 자리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면 미국을 구할 수 없어요. 타락의 뿌리가 청산될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영계의 조상들을 해방하여 재림 협조하게 하자

그러니까 파더가 여러분한테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을 해방하라는 거예요. 7대를 해원하게 되면 180조상들이 해방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영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른다구요. 온 영계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트루 파더가

축복해 주었다구요. 파더가 영계에 가면 거기에 축복받지 않은 가정은 없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이상입니다. 예수님이 낙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곳은 중간 영계라구요. 그리고 밑바닥이 지옥입니다. 그거 그냥 두고 볼 수 없대구!

지금 영계를 청산하고 있습니다. 1천6백만 축복가정들이 지상에 강림하고 있습니다.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야곱 가정들이 그런 가정들입니다. 아담이 타락의 주인이었습니다. 그 타락한 세계는 지옥행입니다. 그것을 구하려고 한 것이 예수님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 위에 가정의 이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게 연장되어 가지고 끝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끝날은 성약시대입니다.

훈독회 말씀으로 잃어버린 기반을 찾자

타락 후 인간의 몸과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게 끝날이에요. 지금 공산세계와 종교세계가 싸우고 있지요? 그것은 아담 가정의 가인 아벨의 싸움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기독교 세계, 종교 세계가 아벨의 입장입니다. 사탄이 장자의 입장입니다. 그러한 관계가 끝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때 오른쪽은 아벨의 입장이었고, 왼쪽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가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와 이스라엘 나라도 가인 아벨의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벨 나라인 이스라엘과 하나되었더라면 로마를 없애 버리는 것은 문제없었다구요. 알겠어요? 「예.」

파더의 때에도 예수님이 잃어버렸던 그 두 편의 싸움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칸셉과 하나님을 환영하는 칸셉입니다. 기독교 세계, 종교 세계를 대표하는 것이 미국입니다. 가인의 결과 세계는 소련, 공산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편이 싸우는 거예요.

우익은 기독교 세계이고, 좌익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계입니다. 어디서부터 우익과 좌익이 생겼느냐? 아담 가정으로부터입니다. 거기서 둘로 갈라진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가정 기반에서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똑같은 가정 기반이 아닙니다. 한 차원이 높은 국가 기반인 것입니다. 거기서 메시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되었더라면 로마도 문제없었을 거라구요. 왜 그러냐? 그 나라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필러(pillar;기둥)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는 그러한 센터 필러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과 하나되었더라면 그 어떤 국가도 침범하지 못했을 거라구요. 만약에 그 어떤 국가가 친다면 그 친 쪽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알겠어요?

통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통일교회에는 나라가 없어요. 나라의 기반만 있다면 아무 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나라의 기반을 닦을 수 있을 것이냐? 앞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부모의 나라는 우주를 초월하는 희망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나라들은 따라올 것입니다. 수많은 종족들이 그 나라로 몰릴 것입니다. 360도에 있는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우리를 인도해 주소!' 할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때에 책을 들고 훈독회를 하는 거라구요. 그렇게 되면 원 네이션 언더 갓이 아니라 원 월드 언더 갓, 원 코스모스 언더 갓도 문제가 안 된다구요. 파더가 말씀하는 내용이 가능한 내용이에요, 불가능한 내용이에요? 「가능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훈독회를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정신적인 차원이 이전과 얼마나 달라졌어요? 지금 달라졌다고요. 영계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파더도 영계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아무리 핍박을 받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걱정 없다.' 하면서 극복하는 것입니다. 파더가 일생 동안 싸워 나온 기록적인 내용이 훈독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간섭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혼자서도 파더의 책임을 상속받아서 완성하는 것도 문제없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레버런 문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그만큼 파워풀(powerful;강력한)하다구요. 사탄의 세력이 침범할 수 없습니다. (박수)

모든 가정들이 혼동회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한 자리에 모아 가지고 축복하는 것도 문제없습니다. 학부모, 학교장, 경찰 그리고 통일교회가 사위기대를 이루어서 청소년들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사랑의 세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참사랑의 센터가 됴으로써 참부모의 혈통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연결하고 있다구요. 알겠어요?

참된 완성된 씨가 되어 하나님의 완성된 가정을 이루자

미국과 비교해 보라구요. 미국이 얼마나 교만해요! 사탄의 기지입니다. 머지 않아서 한반도의 뒤를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가 파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된다고요. 날마다 여러분이 레버런 문을 만날 수 있지만, 노(No)! 이제부터는 한번 만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을 거라고요. 10년이나 20년 후에 한국에 찾아와서 ‘내가 미국의 책임자였는데, 내 얼굴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더라도, ‘나는 네 얼굴을 모른다.’ 할 것입니다.

이곳은 수확된 열매가 쌓이는 창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가 되어 있어요? 사과? 사과는 필요 없어요. 사과의 씨가 필요한 거라고요. 그렇게 들어가는 창고가 희망의 천국인 것입니다.

지금은 수확기입니다. 에덴 동산의 봄 절기에 프리 섹스를 심었습니다. 가정이 깨져 버렸다구요. 봄 절기에 그렇게 심었던 것입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서 전세계에 그 결실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

것이 청소년 문제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하나님이 타락하지 않은 열매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더가 참부모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 참부모와 연결됨으로써 여러분의 자리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사과라면, 파더는 참사과의 씨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갖고 있어요? 참부모의 씨를 떨어뜨리면 겨울과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서 수확할 수 있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누가 그 모든 열매의 씨를 수확할 거예요? 통일교회가 그 씨입니다. 완성된 씨가 있는 곳은 통일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수확되는 씨와 같은 존재들이 영계로 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씨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라구요. 몸과 마음이 싸우지요? 완성되지 못한 씨라구요. 완전히 몸과 마음이 하나되어야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중간적인 입장에서 왔다갔다하게 되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몸과 마음이 하나되어야만 진정한 남자와 여자의 씨로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의 완성된 가정 기반으로 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예.」

머지 않아서 그러한 나라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파더가 경고하는 거라구요. 환고향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레버런 문을 만나고 싶어하고, 통일교회의 내용을 알고 싶어합니다. 언론계와 외교관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가장 중요한 때라구요. 알겠어요? 「예.」 알겠어요,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알았다면, 파더가 필요 없겠구만! 파더가 이 자리에서 없어지겠구요. 오라고 다시 부르라구요.

자, 빨리빨리 하자! 그것은 이제 번역해 줄 테니까... 얼마 남았어? 시간이 없어요. 너무 많구만! 여러분의 표정들이 안 좋구요. (웃음과 박수) 다음에 연결되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좋다고 그러는

것은 지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구요. (웃음) 파더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고 싶은데, 여러분은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다릅니다. 경고한다구! 앞으로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하나님이 누시엘에게 내린 명령

『제5장 누시엘의 사죄. 1. 하나님께서 누시엘에게 당부.』

잘 들으라고요. *요것만 잘 들으라고요. 아무리 더워도 이것은 잘 들어야 돼요. 아멘, 노멘? 「아멘!」 대답 소리가 좋지 않구만! 하나님이 누시엘한테 선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명령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때가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오로지 한 번 절대적으로 명령한 것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슬픔과 한의 역사 속에서 신천지가 전개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 앞에 참부모의 위치에 좌정하실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시작과 종말은 이미 결론이 내려졌다. 이미 만천하의 모든 자녀들이 네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노라.』

*여러분이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이 4억의 축복가정들에게 둘러싸여서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둘러서 있는 축복가정들이 사탄이 누구인가를 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쁜 존재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후손들도 점점 더 명확하게 알게 됨으로써 끝날에는 사탄이 처할 곳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탄을 참부모한테 연결시켜서 구원해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한테 명령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사탄은 세계적인 칸셉을 원하지 않았습시다. 개인주의의 칸셉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통일교회가 세계적인 칸셉을 가지고 주류를 이

루어서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개인주의는 사탄의 뒤를 따라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에게는 세계적인 칸셉이 없더군요. 개인주의는 깨지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알겠어요? 「예.」 이야, 머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구만! (웃음)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누시엘아, 너의 본연의 모습을 돌이켜보라. 에덴 동산의 첫 만남의 시절에 무조건 하나님께 복종하며 기뻐했던 그 자리, 그 위치로 가라. 네가 뿌려놓은 죄악역사의 마무리는 네가 처리할 자격이 없다. 너의 본래의 모습은 심부름꾼으로 지음 받은 모습이지, 하나님의 자녀 앞에 부모 노릇을 하라고 지었던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 없다. 판결은 이미 다 내렸으니 조용히 마지막 너의 태도라도 겸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모든 인류 앞에 비겁하지 않는 모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또 다른 공판의 날은 없다. 마지막 판결이 내렸으니 그냥 조용히 네 위치로 돌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당부다. 1초라도 빠를수록 좋고, 1초라도 늦으면 너는 모든 역사 앞에 영원히 비겁한 자로 남아질 것이며 너의 처형의 참상은 비참하게 전개될 것이다.』

*사탄은 하나님이 명령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을 중심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빨리 너의 위치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구질하게 늘어놓은 죄악의 병마들을 빨리 수습할 것이다. 가라, 네 위치로 가라.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으로 이르노니, 누시엘아! 네 위치로 돌아가라! 만군의 여호와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부탁하노라. 1999년 3월 21일.』

세 번이지요. *며칠이라구요? 「3월 21일입니다.」 기억하라구요. 영계에 들어가서 1999년 3월 21일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 아무도 방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려서라!’ 할 수 있는 거라구요. 알겠어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누시엘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협조하여 해방받을 수 있어

『2. 누시엘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종결될 역사임을 알고 있었지만 제가 가야 할 방향 앞에 저의 본연의 자리가 제 눈에 보이지 않았고, 아무도 정식으로 판결을 강력하게 내려 주질 않았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며 지냈습니다. 가리는 위치로 어찌 제가 감히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린 벌을 감당하며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긴 한숨을 보면서도 모른 척하고 죄지은 수많은 날들에 대해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죄송합니다. 1999년 3월 21일. 누시엘 드림.』

이것이 영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가지고 이런 것을 듣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요? *오랜 시간이 연장된 후 참부모가 이 사탄세계를 깨끗이 청산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사랑의 주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참부모를 따를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구요. 얼마나 고마워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3. 누시엘이 참부모님께 드립니다. 모든 인류가 부르고 있기에 저도 참부모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저질러 놓은 수많은 죄악의 역사를 정리하시기에 너무도 큰 어려움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언젠가 과분하게 축복을 받을 욕심까지 부렸으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가 하나님 대신 되고 참부모를 부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주인 노릇을 하고, 참부모고 무엇이 고 다 무용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인류의 부모님으로서 저를 관대하게 처분해

주시옵길 바랍니다. 수많은 죄악의 길, 탕감의 길, 제 눈으로 볼 때도 돌아갈 길은 피멍의 길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과 참부모님께 갈 수 있는 마지막 고행의 길이라면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참부모님, 인류의 부모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사탄도 그것을 용서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참부모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절대 순응하는 참부모이니, 용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현재의 입장을 밟아 치우고 돌아가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참부모가 그러니 인류도 그럴 줄 알고 전부 다 통고해 가지고 해방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풀려 나가는 것입니다. 갈 데가 있다가요. 아직 나라가 안 돼 있어요. 그걸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참부모, 그리고 인류가 도와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세울 것이냐? 공산세계가 모든 것을 다 부정해 버렸습니다. 지금은 온 세계가 하나님 편이 한 나라를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할 때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십시오)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인류들을, 종교인들을 배신한 점도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기를 소망하면서 누시엘로 돌아가겠습니다. 1999년 3월 21일, 인류의 범죄자 누시엘 드림』 (박수)

기독교와 타종교권만 축복받으면 가정 파탄, 청소년 문제는 해결

내가 여기서 한마디 하겠다구요. 사탄도 이제 하나님과 참부모와 인류를 대표해 가지고 나머지 축복... 사탄이 파괴한 것이 뭐냐? 죄짓지 않은 젊은 청년들, 젊은 처자들, 젊은 아들딸을 타락시켰다는 것을 알

아야 돼요. 지금 세계에 4억5천만쌍 이상의 축복받은 통일교회 가정은 아담 가정이 완성한 자리에 선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영계나 육계나 지옥 가는 것이 없이 다 해방했어요. 지옥 문이 없어졌다구요. 천국 갈 수 있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선생님의 사상을 중심삼고 나라를 만든다면 거기에는 전통도 절대 전통으로 하나요, 민족도 하나요, 풍습도 하나요, 언어도 하나요, 생활도 하나의 형태로,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 여러분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나? 청년들을, 아들딸을 타락시키던 그런 입장을 떠나 가지고 세계의 젊은이들을, 아직까지 축복받지 않은 2세들을 아담 가정에 태어난 아들과 같이-하나님 앞에 2세예요.-2세들을 대신한 자리의 처녀 총각들의 축복을 영계 전체에서 협조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지 않은 승리적 자리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때입니다.

사탄으로 보게 된다면 잡동사니로 음란하던 별의별 가정들이 지옥에 가 있고, 지상에도 그렇고, 지금 계약결혼 한다는 별의별 패들도 있고, 영계에 16세 전의 처녀 총각으로 결혼을 꿈도 못 꾸던 사람들도 가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을 전부 다 축복해줬다는 거예요.

축복해 줬는데 아직 남은 것이 뭐냐? 젊은 층 미혼남녀 4억쌍 축복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협조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하나님 일을 도왔다는, 참부모를 도왔다는, 인류를 도왔다는 이런 간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권고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아들딸 중에, 4억쌍 중에 한 쌍씩 아담 가정 대신 하나님의 손자, 세 번째 되는 손자 가정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비었는데 한꺼번에 다 갖다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만 하더라도 10억이 넘어요. 또 종교권이 얼마나 많

아요? 75퍼센트의 인류가 달려 있는데, 거기에 하나씩만 달려오더라도 얼마예요? 안 오면 들이 차 가지고, 싸워 가지고 빼앗아 오라는 것입니다. 그거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입니다.」

왜? 종교계 전체, 신교 구교 할 것 없이 다 축복받고, 기독교인들은 물론 종교계가 다 축복받고 나면 가정 문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레버런 문밖에, 통일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부 다 통일교회에 맡기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오지 못하면 죽어야지요. 여러분이 벌받아야 됩니다.

사탄에게 이기려면 제2 참부모라는 신념을 갖고 나가라

그래, 사탄한테 질 거예요? 문제는 뭐냐? 사탄한테 질 거예요, 이길 거예요? 「이깁니다.」 사탄의 힘 가지고 50억 인류와 영계의 자기에게 소속되었던 것을 앞세워서 ‘나까지 구해 주소.’ 해서 전부 다 구해 준다면 한꺼번에 세계가 돌아갈 텐데, 사탄을 이기겠어요? 그 대신 여러분이 사탄에게 이기는 방법은 ‘선생님 대신이다. 죽더라도 선생님 대신이다. 제2 참부모다.’ 하는 이런 관념을 가지라는 거예요.

레버런 문의 나무가 너희들 사탄세계보다 더 많다 이거예요. 잎사귀나 가지가 더 많아요. 나는 가지다, 잎사귀다 이거예요. 한 나무예요. 한 나무라는 것입니다. 일체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레버런 문의 손을 가지고, 레버런 문의 오관의 한 부분을 가지고 일한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관, 영인체의 오관을 포함해서 십관이에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모두 한 몸이에요. 이 머리카락도 레버런 문이라구요. 레버런 문이 살게 되면 사는 것이고, 레버런 문이 죽는 날에는 다 죽어요. 그래서 ‘레버런 문이 하는 것은 우리 조상이 하던 말과 우리 조상이 하던 것

을 대신하고 있다. 그 나무를 당할 자가 없다. 세계 인류가 전부 다 붙어 있다. 하늘땅이 다 해방됐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세계 돌감람나무의 앞은 앞을, 가지는 가지를, 나라는 나라를 접붙인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가지 옆에 자기가 희생해서 접붙인다는 것입니다. * 일체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구요. 여러분이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밀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거라구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사탄이 밤낮 쉬겠어요, 밤낮 자지 않고 일하겠어요? 「일합니다.» 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 가지고 종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들의 자리에 갈 거예요, 종의 자리에 갈 거예요? 「아들의 자리에 갑니다.»

*사탄 편에서는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종밖에 안 됩니다. 참부모의 가지와 앞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파더의 승리권을 상속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참열매의 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이 그러한 비밀적인 내용을 알았다구요. 그러한 내용을 잊어버리지 말라구요. 사탄한테 지지 말고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십시오)

‘40일 금식할래?’ 하면 할 거예요? 「예.» 사탄한테 ‘너 40일 금식하라!’ 하면 하겠어요? 나홀도 안 해요. 나홀도 안 하고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금식도 40일을 죽을 때까지 하지만 사탄은 그것을 못 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긴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젊은이들이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120명을 끌어올 거예요, 1천2백 명을 끌어올 거예요? 여기서 결심하자구요. 결정하라구요. 이래 가지고 미국 청년들을 전부 다 하게 된다면 미국의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세계 젊은이들을 소개해 다오!’ 하면 대사관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하면 귀를 빼고 아예 공격을 해 버린다는 자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공산세계의 젊은이들도 축복할 것을 준비중

(바나나를 던져 주심) 방금 선물 받은 사람은 손 들라구요. 몇 명이
예요? 세어 보라구요. 「일곱 사람입니다.」 이 일곱 사람을 축복해 준다
구요. 바나나는 사철 열려요. 그런 과일을 완성수 7수를 나눠 줬습니
다. 70을 할 거예요. 7백을 할 거예요, 7천을 할 거예요? 「7백을 하겠
습니다.」 소생·장성·완성으로 적어도 둘째 번 7백은 해야 됩니다.
70을 하는 건 사탄만도 못해요.

*7백을 할 거예요, 7천을 할 거예요? 7천은 문제없다구요. 7천 나
라도 문제가 없지만, 이 땅 위에는 7천 개 국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것은 7천 명의 젊은이들입니다. 7백이에요, 7천이이에요? 「7천입
니다.」 뭐라고 했어요? 7백이라고 했어요, 7천이라고 했어요? 「7천이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 7백으로 듣고 눈을 감았는데, 지
금 7천이라고 하니까 눈이 번쩍 뜨인다구요. 우와! 오관이 다 열린다
구요. 하나님과 하나되면 모든 것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어느 쪽이
예요? 「문제없습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좋긴 좋구만. 더운데
다 밥 생각도 안 하고 그런 대답을 힘있게 하니 고맙고 감사하구만.
(웃음)

그러면 7천 달러로 할 거예요, 7백 달러로 할 거예요? 「7천 달러를
하겠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하나님 축복한 대통령이 되어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축복 세계화 운동을 할 것 같으면, 세계 모든 나라의 청
년들을 모아 가지고 미국 대사관 이름으로, 미국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때가 오기 때문에, 기독교 전체의 구원은 문
제없고 해방은 문제없다! 아아아아— 맨-맨-맨-맨! (박수)

그러면 이제 기독교의 젊은이들을 살려 주고 난 다음에는 공산세계
의 젊은이들이 틀림없이 한꺼번에 넘어온다구요. 선생님은 안팎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 미국보다는 앞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슬렘이 바라고 있어요. 기독교를 이기겠다고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레버런 문을 따라가겠다고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구요. 유교와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아무 용기도 없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벨베티아에서 살림살이를 하게 했는데, 미국에 축복받을 수 있게끔 기독교의 성령들을 배치했는데 성과가 안 나요.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니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부가 벨베티아에 사는 걸 알아요? 이제는 예수님 가정을 내 동생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 가정을 집집마다 방문해서 ‘동생의 말을 듣게 협조해야 돼. 영계에 있는 기독교 패들아!’ 하면 영계가 들을 때가 왔다구요.

미국 기독교를 살리는 길

원리 말씀에 종교 통일은, 또 세계 통일은 영계를 동원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영계를 동원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다 동원되었습시다. 다 왔습니다. 이제 영적 세계에 부딪치게 되면 차 버리는 것입니다. ‘이놈의 간나, 때가 어떤 때인데 이려고 있어? 조상들을 망치려고 그래?’ 하고 영계의 조상들이 약 주고 병 줄 때가 왔다구요. 거기에 걸리지 말라구요.

*쉴 시간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안 들으면 데려가는 거예요. 탕감이 없어요. 직접주관의 시대라는 거예요. 레버런 문이 협박도 잘 한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두고 보라구요,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영계를 선생님의 명령으로 동원했어요. 이런 녀석들은 지상에 두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야 사탄까지도 도망가 버리지요.

그래서 천주 해방식을 금년 5월 14일 판타날에서 했다구요. 사탄

마귀들과 성인들을 축복한 것도 작년이지요? 작년 5월 13일에서 15일 사이에 그 중간 날에 이 날까지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판타날은 우리 통일교회가 사탄세계를 해방할 수 있는 제1기념의 성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해방된 사람은 거기를 방문해서 선생님의 심정권을 이어받지 않으면 안 될 시대가 됐기 때문에 판타날은 성지 중의 성지요, 예루살렘과는 비교도 안 되는 성지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천주 해방 성지라는 것입니다.

6수는 사탄 수인데 거기에 14수를 갖다 놓아서 완성할 수 있는 말뚝을 박아 놓았다고요. 이번 참만물의 날이 6월 14일로 완전히 해방수입니다. 오늘하고 내일하고 14일까지 하면 16일이 돼요. 6월을 중심삼고 6수가 되고, 14수 완성수가 되고, 16수는 8수의 배수로 이 사탄세계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날을 중심삼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동서양 지구성 승리를 부모님이 했으니까 사탄까지 굴복하고, 영계가 재림해서 후원할 수 있으니 4억쌍 축복은 문제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를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하는 것은 미국이 책임져야 됩니다. 미국이 책임 못 하게 될 때는 사탄한테 빼앗긴다는 걸 알아야 되겠다구요.

(책임자를 지칭하시면서) 이 사람은 신학교 대표예요. 이 사람은 여자 대표이고 기둥 남자하고 하나돼 있어요. (웃음) 여자 장군인데 미국 여자들을 가르치려면 통역관이 필요하잖아요? 이 사람(곽정환 회장)은 세계 책임자예요. 가정연합의 대표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저서는 안 되겠어요. 선두에 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너 색시를 사랑하지? 색시를 팔아서 현금하라 하면 할 거야? (웃음) 아내가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를 찾기 위해서는 아들딸, 아내, 자기 부부를 투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부 다 투입했습니다. 그게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모델적인 섭리관을 설정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의 3단계입니다. 모든 만물을 던져 버리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들을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희생시켰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참부모도 광야로 내쫓겼습니다. 그렇지요? 파더는 피조세계도 잃어버리고 아들딸도 잃어버렸습니다. 광야로 쫓겨난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레버런 문을 보호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부모의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축복가정들이 상속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참사랑의 뿌리가 이 땅 위에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거기서부터 참줄기가 나오고 참싹이 나오게 됩니다. 참뿌리, 참줄기, 참싹은 일직선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오르내리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국가민족종족을 축복가정으로 접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뿌리가 더 깊이 박히고, 줄기가 자라고, 가지들이 뻗어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뚫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당이까지 밀어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무슨 일이야?’ ‘참싹입니다.’ ‘무슨 참싹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던 싹입니다.’ ‘뿌리는 어디에 있어? 사탄 편에 있어, 참부모의 가정에 있어?’ ‘참부모의 가정에 있습니다.’ ‘우와, 희망적이다!’ 하면서 노래하고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 피조만물이 일어서서 ‘만세!’ 하는 것입니다. ‘만세!’ 해보라구요. 「만세!」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미국 대사관을 통해 세계 젊은이들을 축복시킬 수 있게 하라

7천 사람은 문제없다 이거예요. 미국 대사관에 명령해 가지고 청소

년 해방운동을 하게 될 때는 7천 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7만 명, 7백만 명까지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왜 미국 대사관이 그것을 해야 되느냐? 미국 대사관을 중심삼고 왔다갔다하던 젊은 놈들이 에이즈를 번식해서 세계를 망쳐 놓고, 프리섹스, 호모, 레즈비언을 번식한 것입니다. 미국 대사관이 그 근거지에요. 탕감해야 돼요. 맞아요? 「예.」 죄를 지었으니 죄지은 것을 탕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사관을 시켜 가지고, 여러분이 대사가 되든가 대사의 불알을 끌고서라도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본 여자들과 미국 여자들을 세계 대사관의 종으로 보낼 거예요. 어때요? 「좋습니다.」 *여기에 있는 미국 여자들, 어때요? 예스, 노? 「예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십시오)

여자들은 양손을 들어 보라구요. 내가 내려가서 손 안 든 사람을 찾아볼 거라구요. (웃음) 다 들었어요? 저기까지 안 가도 되겠지만. 그래 가지고 망하겠어요, 승리하겠어요? 「승리합니다.」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자유세계와 인간 전체가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공산세계와 사탄이 컨트롤하는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십시오)

오른 편 강도가 친구가 돼야 돼요, 싸우지 않고. 이래야 재림주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아니라 형제가 되어야 돼요. 형제는 혈통을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이 흑인들과 황인종도 형제간입니다. 백인들은 와스프(WASP; 백인 신교도) 칸셉이 있지요? 그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칸셉이라구요. 깨끗이 지워 버려야 됩니다. 인종간에는 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예.」

지금까지 레버런 문이 그 벽을 허무는 일을 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실을 맺었다구요. 오랫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어려운 입장에 있었겠어요? 일단 씨를 뿌려 놓으면 수확은 어렵지 않습니다. 수확된 결실이 여러분의 포켓으로 들어간다고요. 그것이 천국에서 여러분

의 재산이 됩니다. 영원히 천국에 정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천국의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요, 낮은 자리에 가고 싶어요? 「높은 자리에 가고 싶습니다.」 대답은 쉽다구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어렵다구요. 어려워! 우리가 하나님과 참부모 이상의 칸셉을 갖지 않으면 그와 같은 정착지에 이를 수 없습니다. 24년 동안 여러분은 파더의 도움을 받았습시다. 그것을 어떻게 갚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어떻게 진정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파더의 책임이 아니라 전적으로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거 부정할 수 있어요?

참부모가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가면 천국 간다

파더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배가 고파서 얼마나 맛있는 식사가 기다리고 있는가를 냄새 맡고 있지요?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구요. 모든 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종적인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파더는 말씀을 시작하면 밤낮을 잊어버립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그렇게 말씀해 온 파더의 얼굴이고 입이구요. 여러분의 입을 보라구요. 얼마나 아름다운 입이에요? (웃음) 파더는 하나님 이상으로 말씀을 하고 또 했습니다.

하나님은 몸이 없기 때문에 이 인간세계와 연결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몸으로 연결한다는 것이 쉬워요? 그러니까 인간을 인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는가를 생각해 보라구요. 파더가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으로 가겠어요, 지옥으로 가겠어요?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으로 간다구요? 「예.」

헤븐(heaven; 천국)이 좋아요? 헤-븐, 소리가 별로 안 좋다구요. ‘헤’는 욕하는 거예요. ‘븐’ 하면, 부었다니까, 그거 뭐라고 할까, 헨 데

가 부었다는 거예요. ‘혜’는 싫으니까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라구요. 한국말로는 발음이 좋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좋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다른 종족끼리 어떻게 하나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그 말은 뭐냐? 레버런 문이 달다 하면 여러분에게는 쓴데, 쓴 것을 달다고 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어려워요. *얼마나 통역이 어려워!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미국 사람한테는 쓰고 한국 사람한테는 달다고 한다면, 달다고 하는 것을 따라가야지 쓰다고 하는 데를 좋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쓰더라도 달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칸셉을 가져야만 사탄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갖 터널들이 다 있다구요. 열둘 이상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다 통과할 거예요? 완전히 정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한 칸셉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터널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칸셉이 있으면 사탄의 터널을 통과할 수 없다구요.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구요. 여러분이 바깥에서 살던 칸셉을 갖게 되면 대번에 사탄이 채 가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고 이미 결심한 몸이 되었으니 7천 명, 7백 명을 결심했다고 생각을 다시 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하려면 여러분이 살던 데서 세 면(面)이면 세 면에서 네 면을 돌아와라 이거예요. 주(州)면 자기 사는 외에 세 주에서 네 주를 돌아와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네 나라를 찾아서 돌아와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네 세계, 지상세계, 천상세계, 사탄세계, 영계까지 네 세계를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소유권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파더가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구요. 알겠어요? 「예。」 (*부터 영어로 말씀하

십)

참부모에게 접붙여지기 위해서는 영점 자리에 들어가야

그렇게 알고, 이제 다 결심했으니까 신문사 사장은 대사관을 따라가고 장관을 따라가고 주지사를 따라가서 떡살을 잡고 싸우라는 거예요. 나라에 가게 되면 나라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나라하고 싸우는 것은 나라를 살려 줄 권고요, 세계의 대표인 미국 대통령을 해방하고 하늘나라의 하나님까지 해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주와 하나님까지도 내가 해방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참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참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해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파더라는 말은 혈통을 상속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자리에 서지 못하면 파더라는 이름을 쓸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부모는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을 상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변경시킬 수 없어요. 그 부모와 아들딸이 하나되면 하나님도 환영합니다. 참혈통이 연결된 아들딸은 사탄이 침범할 수 없습니다.

왜 참부모가 필요해요? 참혈통에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접붙일 수 있느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접붙이는 데는 모가지를 잘라야 돼요, 모가지. 모든 것을 지워 버리고 제로 포인트(영점;零點) 자리에 서야 된다고요. 다른 칸셉이 있어 가지고는 접붙일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완전히 접붙여 가지고 하나되어야만 가지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싹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참부모와 혈통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노(No)! 노는 엔오(NO)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혈통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스, 노? 「예스.」 정말이에요? 「예스.」 여러분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야 됩니다. 대답이 중요한 것

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러한 결실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라구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참부모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져

통역하는 걸 들어 보면 거꾸로도 하고 빼놓는 것이 많으니 귀를 막고 해야 되겠다구요. 내가 모르면 좋겠는데, 모르면 잘 한다고 할 텐데 뭘 뺐다는 것을 다 아니까 못 살겠다구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지 않기로 결심한 내가 지금 매일같이 범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웃음) 내가 영어로 대체하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어요. 영어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이에요. 그러니 심각하다구요. 말하면 알아들어야 할 텐데 통역을 쓰니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만큼 여러분이 한국말을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있으면, 축복가정이 있으면 가정교사로 월급을 3년 이상 주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월급을 주고서라도 배우라는 거예요. 안 배우면 한탄한다는 거예요. 한탄하게 돼 있어요. 한국 사람은 사기꾼이 많아요. (웃음) 그러니까 몇천 달러, 몇만 달러를 손해 보더라도 배우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한테는 득이 된다구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들에게 도적질하고 거짓말쟁이가 되라고 그리고 있어요. *통일교회 멤버들한테 말이에요. 바깥 세상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구요. 하나님 편으로 빼앗아 와야 됩니다. 알겠어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선진국들이 다 도적질해 간 거예요. 총칼로 위협해서 강제로 빼앗아 간 것입니다. *런던에 가 보라구요. 박물관에 외국의 것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왕 도둑이라구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미국이 잘

사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선생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로 명령한다고요. 이 길을 따르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라고요. 나를 따라오면 번창해서 천국까지 올라가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레버런 문은 올바른 사람이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고요. 온 세상 사람들이 레버런 문을 믿고 있습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은 미국의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사탄의 물이라고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십시오)

경고했습니다. 이런 듣기 싫은 말을 했으니 ‘선생님, 물러가소!’ 그리고 싶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버런 문을 세뇌의 왕이라고 한다구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십시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유명한 대학 나온 사람들이 더 빨리 돌아가니까 세뇌 왕이라고 소문나지 않았어요?

*처음 여기에 왔을 때는 파더가 무슨 말을 하는가 보자고 했는데 한 시간, 두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여러분의 영육적인 차원이 달라져 버렸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영육으로 파더의 물이 들었다고요. 그렇지요? 「예.» 바깥의 사탄세계에서는 그것을 세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뇌를 당해 가지고 레버런 문을 뒤따라오면서 냄새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전세계에 레버런 문의 냄새를 피운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라구요. 지금까지 레버런 문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왕킬러, 왕도둑이 되어 있다구요. 레버런 문의 뒤에 안 좋은 이름만 쌓이고 쌓였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쌓고 쌓으면 레버런 문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노!

지금 팔십이 넘었는데 할아버지 같아요, 젊은이 같아요? 대답해 보라구요. 할아버지 같아요, 젊은이 같아요? 「젊은이 같습니다.» 너무 젊어 보여서 큰일이라고요. 선생님이 다시 결혼한다면, 여러분이 결혼 상

대가 되기를 원해요? 「예.」 (웃음)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어머니를 지키셔야 됩니다.」 서운한 말을 하는구만! (웃음) (*부터 영어로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노정을 앞장서 가는 참부모를 절대 믿고 나가라

그렇게 알고, 선생님이 팔십이 됐으니깐, 팔십이 된 사람은 믿지를 못해요. 언제 갈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있을 때 1대에서 다 끝내야 돼요, 1대. *1대에 탕감복귀를 다 끝내야 됩니다. 선생님의 1대라구요. 여러분이 레버런 문을 참부모로 믿는다면 절대신앙의 칸셉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1대에 다 끝낼 것이냐?

이제부터는 파더가 모든 것을 즐기면서 놀아야 되겠다구요. 그럴 때는 파더가 마실지도 모른다구요. 뭘 마셔요? 술! 파이프를 쏴아 놓고 하루종일 마시는 거예요. (웃음) 그러면 통일교회의 멤버들은 ‘아이구, 우리보고는 마시지 말라고 해 놓고 하루종일 마시는구만!’ 할 거라구요. 사탄 편에 얼마나 맛있는 것이 있길래 젊은이들이 따라가느냐?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영계에 가서 교육해야 되겠다구요.

파더가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라스베이거스를 알아요? 왕노름꾼이 거기에 앉아 있다구요. 내가 그 왕노름꾼 이상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면 문제 없다구요. 그래서 내가 20년 동안 거기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요. 거기에 가 보라구요. 나는 테이블에 안 앉습니다. 손님을 불러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파더가 얘기하는 대로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날마다 만 달러 이상을 버는 것은 문제없다구요. 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종교세계에 있어서도 선생님이 최고입니다. 모든 분야를 다 점령했어요. 그거 믿어져요? 선생님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입니다. 경

제 분야에 있어서도 다 이루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노정을 앞장서서 가는 거라구요. 어떤 통일교회 멤버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그러냐? 하나님을 해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알고 참고하기를 바라요. 훈독회는 선생님 생애요, 역사적인 하나님을 중심삼고 싸워 나온 생애의 승리의 기록입니다. 이런 걸 알고 훈독회를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서 통일교회 중심 전통이 숨어 있는 것을 발굴해 가지고 여러분 후손들에게 전수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훈독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훈독회를 위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어요?

*누구든지 이것을 마시고 싶은 사람은 입을 벌려요! 우와! (웃음) 탕감보다 더 맛있는 거라구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다 끝났나? 나도 배가 고프다구요. 아이구, 한 시가 됐구만. (웃음) 그러니까 이젠 그만 끝내고, 6월14일까지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날을 하나님과 부모님과 사탄세계나 인류가 기억할 수 있게끔 정성들이길 바라겠어요. 긴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돼서 미안하다구요. 밥을 맛있게 먹기를 바라거든 이스트 가든에 오라구요. 그렇지만 햄버거밖에 없어요. (웃음)

지금도 선생님을 사랑해요? 「예!」 *선생님이 실제로 그말을 들어 보고 싶었다구요. 땡큐, 베리 베리 마치!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박수) *

참사랑의 정착 기지

여기가 미국이에요, 동양이에요? 「미국입니다.」 동양인이 더 많은데? 「아닙니다.」 보라구요. 3분의 2가 가만히 있고, ‘아닙니다’ 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되잖아요? 일본 사람들 손 들어 봐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은? 얼마 안 되는구만. 어디, 미국 사람은? 암만 두 손을 들더라도 절반도 못 된다구요. (웃음)

서양 식구는 동양 식구들의 신앙을 따라가야

민주세계에서는 적은 사람이 이겨요, 많은 사람이 이겨요? 적은 사람이 이겨요? 이제부터 10년 후에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면 선생님은 몇 살이에요? 「90살입니다.」 20년이면? 「백 살입니다.」 그 래, 선생님이 앞으로 몇 살을 살 것 같아요? 「120살입니다.」 선생님이 미국에 와서 언제나 자기들이 편리하도록 도와주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오래 살라는 것 아니에요?

여기 일본 식구들은 선생님이 없으면 하나도 없대구요. 다 간대구요. 여기에 일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모두 철수하라고 하면 철수하겠어

1999년 6월 6일(日), 이스트 가든.

* 이 말씀의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요, 안 하겠어요? 「합니다.» 어디, 안 그러겠다는 일본 사람은 손 들어 보라구요.

남미 사람들을 캘리포니아 같은 곳에서 굴 농사를 짓는 데 일을 시키고 있지만 ‘남미 사람 미국에서 철퇴!’ 하면 철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철퇴합니다.» 아프리카로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갑니다.» 미국 사람들은 남겨 놓고 말이에요.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제일 좋다고 하지요? 영계에 가서도 미국 사람을 좋아하는데 미국 사람이 가 있는 곳에 가면 천국 가까운 곳에 가는 거예요, 지옥 가까운 곳에 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얘기해 보라구요. 「지옥 가까운 곳에 갑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갑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통일교회의 자체를 통해서 보더라도 동양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와 있는데, 앞으로 천국에 간다면 천국에는 동양 사람이 먼저 가겠어요, 미국 사람들이 먼저 가겠어요? 「동양 사람이 먼저 갑니다.» 나도 모르겠다구요. (웃음)

그러면 선생님이 천국 중앙에 있다면 선생님 가까이 미국 사람이 서든가 앉겠어요, 일본이나 동양 사람들이 서든가 앉겠어요? 어떤 거예요? 「동양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까이 있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 대단한 미국 사람들 아니에요? 냉정히 생각해 보라구요. 웃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녀들이 가까이 갑니다.» 자녀가 뭐예요? 더 열심히 하고 더 충성하는 것이 효자 효녀의 도리인데, 놀고 먹고 춤추고 하는 것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현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구요. 그러면 일본 식구들이 미국 식구들의 신앙을 따라가야 하겠어요, 미국 식구들이 일본 식구들의 신앙을 따라가야 하겠어요? 「미국 식구들이 일본 식구들의 신앙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은 좋구만. 그러면 흥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흥합니다.» 말은 좋구만. 망한다구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구요.

이렇게 똥똥하고 몸집만 크면 밥만 많이 먹고, 얼마나 공기도 많이 먹어요. 그렇지 않아도 공해가 많은데 말이에요. 먹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미국이 쓸데없는 곳에 소모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절약해서 세계 인류를 살리자

미국 사람들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먹어요? 선생님은 될 수 있으면 배를 타더라도 물을 안 먹고 콜라 같은 것을 안 마시니까 선생님이 먹기 싫어서 안 먹는 줄 알고 있어요. 그거 얼마나 소모가 되느냐 이거예요. 미국 사람이 절약하면 세계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도 남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먹었으니 내일은 다른 것, 내일은 다른 것 해서 전부 다 쌓아 놓았다가 먹기 싫은 것도 먹고 있더라고요. 잘들 논다 이거예요. 그것을 보고 선생님이 좋아하겠어요? 이 녀석들의 종자를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오줌을 계속해서 짚짚 싸야 된다는 말입니다. (웃음)

배를 타고 어디에 갈 때는 안 먹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화장실에 갈려면 얼마나 불편해요. 아침을 먹을 때는 입으로 먹고, 점심을 먹을 때는 코로 먹고, 저녁에는 눈으로 먹는다 이거예요. 살짝 보기만 해도 됩니다.

저녁을 참 맛있게 먹으면 배가 불러 가지고 똥똥보가 되고 미국 사람들같이 되는 거라구요. 입으로 먹을 때는 아무렇게나 먹어도 되지만, 코로 먹을 때는 냄새를 맡아서 향기로움을 맛보고, 눈으로 먹을 때는 아름다운 예술적인 과일을 보고 먹은 것 이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구요. 그게 이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먹는 것은 진짜 먹는 것이지만, 코로 먹는 것은 문학적이고, 눈으로 먹는 것은 예술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방에는 사과도 놓고, 귤도 놓고, 감도 놓고, 바나나도 갖다 놓았는데 일주일이 되어도 손을 안 대서 다 고슬고슬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몇 년을 그렇게 해도 손을 안 대니 한 몇 개월 하다가 안 갖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과일을 싫어한다.’ 하는 소문이 났더라고요. 여기까지 소문이 났어요? 「아닙니다.」 이제 내가 사실을 얘기하니까 다 그렇게 알려주세요.

선생님을 따라가려면 먹으면서 따라가야 되겠어요, 안 먹고 달려가는 선생님보다 더 안 먹고 따라가야 되겠어요? 먹으면서 따라갈 수 있어요? 「안 먹고 따라가야 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먹고 있어요. 껌을 씹고 있는지 말이에요. 껌은 변소에서나 씹는 것이지 막 씹는 것이 아니라구요. 그것을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에 붙이고 항상 씹고 있어요. 어디에 가든지 먹고 있어요. 포켓에 집어넣어 놓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는 것입니다. 배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 원수지요. 이놈의 주인이 원수라는 것입니다.

화장이나 치장보다는 본연의 색깔을 드러내자

오늘 이 시간에 딱 끼어 앉아 있으니 땀이 나지요? 땀이 날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물을 많이 먹고 3시간 정도 앉아 있으면 오줌을 많이 싸서 지린내가 날 것이다 이 거예요. 그래서 물을 언제나 먹는 것이 아닙니다. 소도 하루에 몇 번이나 물을 먹어요? 호랑이는 몇 번이나 먹어요? 이것은 먹는 데 왕이고 마시는 데 왕입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사는 게 잘사는 거예요, 못사는 거예요? 「잘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자는 거예요? 돈을 모아요? 나 돈 한푼 없습니다. 거지와 같아요. 굶어죽고 못사는 사람들을 살려주자는 것입니다.

거기는 밤인데 여기만 언제나 햇빛을 받으면 돼요? 밤이 되었으면 햇빛을 받게 해주어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저개발국가에 가서 자랑하고 뽐내고 하는데, 그게 사람이예요, 개예요? *그런 곳에 가서 ‘미국이 최고다.’ 하며 어찌고저찌고 하는데 그게 좋아요, 나빠요? 「나쁩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알긴 아누만.

우리 통일교회의 여자들은 손톱을 길러요? 「아닙니다.」 왜? 그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놀고 먹겠다는 거예요. 어디 여기 똥똥한 여자, 보자.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하는구만. 여기 서양 여자들은 이 손톱을 긁어 보라구요. ‘아이구, 죽는다!’ 하고 야단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입니다.」 여자들이 그래서 일을 안 하고 뭘 할 거예요? 술집에 가서 술잔이나 나르면서 살겠다는 거라구요. 손톱을 안 깎고 말이에요. 그것밖에 없잖아요? (웃음) 여우같이 손톱을 기르고 루즈를 칠하고 말이에요.

요즘에 루즈 바른 것을 보면 모두가 죽은 피 같은 색입니다. 나중에는 새까맣게 됩니다. 그게 마지막이라는 말이에요. 마지막이니까 미국 여자들은 쓸데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간나를 새끼로 받겠어요, 여편네로 삼겠어요, 어머니로 삼겠어요, 할머니로 삼겠어요, 여왕으로 삼겠어요? 다 싫어한다구요.

그래서 누구의 입술이 더 좋은가 보자 하는 거예요. 입술을 왜 이렇게 칠해요? 입으로 뭘 해요? 「키스합니다.」 키스를 하는데, 죽은 피 같은 것을 발랐는데 거기에 키스했다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거울을 보면 며칠 기분 나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피를 발랐다고 생각해 보라구요.

16~18세는 핑크 컬러예요. 선생님도 그것은 좋아하니까 그 정도는 괜찮다구요. 살짝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문선생은 야만인 같아서 루즈도 못 바르게 한다!’ 하지 말고 본연의 컬러를

내라는 것입니다. 늙으면 이게 보기 싫잖아요?

요즘에는 손톱에도 뿔 바르고 있더구만. 입술도 새빨강고 손톱도 이렇게 긴 것을 보면 여우입니다. 닭 잡아먹고 피를 칠한 것 같습니다. (웃음) 그래서 여자들이 꼬리를 젖는다고 합니다. 서양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있습니다. (통역자)」 여우가 꼬리를 저으면 동네의 닭이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우는 꼬리가 좋으니까 꼬리를 자랑합니다. 입술에 바르고 손에 바르고 꼬리를 젖는 여자는 좋은 여자예요, 나쁜 여자예요? 「나쁜 여자입니다.» 알긴 아는구만.

선생님은 아직까지 가락지를 사흘을 안 끼어 봤습니다. 왜? 하나님 이 주신 이 자연색이 얼마나 멋져요? 60살이 되고 70살, 80살이 되어 서도 세수하고 나서 무엇인가를 바르지 않고 자신의 얼굴이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좋은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호랑이가 늙으면 호랑이 수염이 새까맣게 되겠어요, 하얗게 되겠어요? 서양 여자들은 머리가 갈색인데 늙으면 하얗게 돼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하얀 색이 됩니다.» 어때요? 하얀 색이 됩니다.

높은 산에는 여름이라도 눈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늙으면 머리가 하얗게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라구요. 하나님도 언제나 하얀 할아버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공중에 올라가면 어떨 것 같아요? 깜깜해지겠어요, 언제나 밝겠어요? 「언제나 밝습니다.» 십년만이 아니라 백년 천년 만년 지나도 밝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있으니까 밝다구요. 그러니 밝아야 됩니다.

흰색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를 표시한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백색입니다. 몸과 마음도 하얗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통일교회 여자들은 화장을 하면 내가 떡통을 들고 가서 얼굴에 먹칠을 하더라도 불평해서는 안 되겠다구요. 「안 됩니다.» (웃음)

길을 걷는 자세와 말씀을 듣는 자세

남미는 생활하기에 참 편리합니다. 집이 필요 없대구요. 호랑이나 짐승들이 집을 지고 다니는 것을 못 봤대구요. 집을 지고 다니고 집을 달고 다니는 동물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집이 있어요. 남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집이 필요 없고, 옷이 필요 없습니다. 여자들은 젓 뚜껑(브래지어)과 삼각 팬티만 필요해요. 수영장보다 더 더운데 무엇을 입을 수 있겠어요? (웃음) 그렇대구요. 거리에서도 궁둥이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으며 다닌대구요. (웃음)

맨 처음에 선생님이 서양에 와서 이상해서 따라다녀도 봤습니다. 여자들의 궁둥이가 천태만상인데, 움직이는 것도 별의별 모양으로 다 움직이더라구요. 15도 각도, 30도 각도, 40도 각도, 90도 각도로 다릅니다. 90각도로 움직이는 여자는 이렇게 걷습니다. (행동으로 해보이심. 웃음) 보니까 각도가 클수록 바람잡이 여자더라 이거예요. 체크해보라구요. 그것을 보고 ‘서양 사람들은 도의심이 높아서 여자들에게 하이힐을 신겼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이힐을 여자가 먼저 생각했겠어요, 남자가 먼저 생각했겠어요? 「남자가 생각했습니다.» (웃음) 전부 다 남자라고 하는구만. 나는 여자들이 좋아서 한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하이힐을 신게 되면 어깨도 이렇게 못 하고, 궁둥이도 이렇게 못 하니까 살랑살랑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야 아기들에게 좋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 얼굴이 잘생긴 사람들이 그랬는데, 이제부터 궁둥이를 젓고 다니고 얼굴이 나빠지면 서양은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 옳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넓으면 좋다고 다리를 펴고 좁으면 좁다고 불평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1시간 반만 지나면 서로가 좁아서

싸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면 일어서라구요. 선생님도 서서 몇 시간이고 얘기하는데 왜 일어서서 1시간 2시간을 못 참아요? 뭘 불평해요? 서서 얘기하는 것이 쉽겠어요, 서서 듣는 것이 쉽겠어요? 어떤 거예요? 「듣는 것이 쉽습니다.」 불평이 뭐예요?

좁은 것이 문세가 훤히데, 편한 데 가겠다고 눈을 이렇게 하고 가려고 하는 사람은 지옥 가겠어요,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갑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암만 그렇더라도 말씀을 너무 잘해 가지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다리 아픈 줄도 모르고 그것을 잊어버리게끔 얘기를 못 하면서 저런 이야기를 한다.’ 하고 불평하는 녀석들도 있을 거라구요. (웃음)

목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실례지요? 설교자가 얘기하다가 여자들이 보고 있는데 벨트를 조정하는 것은 실례라구요. 「아닙니다.」 (웃으심) 그거 목사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무슨 아버지냐? 참아버지예요. 참아버지가 뭐예요? 모르는 게 없어요. 여자에 대해 전부 다 알고, 남자에 대해 전부 다 압니다. 다 안다는 것입니다.

딸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딸이 아버지의 배꼽을 봤으면 ‘나, 아버지의 배꼽을 봤다.’고 자랑하겠어요? 「아닙니다.」 더한 것을 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닙니다.」 ‘더 가까이 가서 봐야 되겠다.’ 이래요? (웃음)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허물이 있으면 아들딸들은 그 걸 드러내는 거예요, 덮어 주는 거예요? 「덮어 주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여자를 이렇게 한다면 ‘아이고, 목사가 조그만 여자를 때렸다.’ 하고 선전해야 되겠어요, 감춰야 되겠어요?

이것은 교재로 쓰는 것입니다. 교재로 쓸 때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구요. 어디서든지 오케이예요. 의사들이 수술하는 것을 배우게 될 때 생식기를 분석해서 해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병을 고치기 위해

서 재료로 쓸 때는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부딪치지 말고 둥글둥글 살라

어제도 유 티 에스(UTS;통일신학대학원)에서 와 가지고 250명 가까이 앉아 있었는데, 말씀을 할 때는 줄기도 하고 힘이 없이 그러더니 사랑하는 얘기를 하니깐 눈이 이렇게 되고 입을 벌리고 좋아하더라구요. 원기가 발발하더라 이겁니다. (웃음)

여기에서 심각한 말을 해야 되겠어요, 늘어지는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심각한 말씀을 해야 됩니다.」 심각한 말씀을 하라고 한 사람은요 몇 녀석뿐입니다. (웃음) 서양 사람들은 자기들의 망신인데도 불구하고, 지옥에 간다는 것을 모르고 입이 이렇게 좋아서 ‘하하하!’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춤부터 시작해야 하겠어요, 노래부터 시작해야 되겠어요? 「춤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 ‘춤’이라고 한 너, 한번 해봐. 춤을 좋아하니깐 한번 시킨다구요. 얼마나 원했으면 많은 사람 가운데 ‘춤!’ 이랬겠어요? 그래, 춤은 추었다고 하자구요. (웃음)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돼요? 「노래입니다.」 노래도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먹어야 됩니다.」 「물을 마십니다.」 그래, 마신 다음에 뭐예요? 변소에 가야지요. 변소에 가면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웃음) 그것은 누구나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웃는 놀음을 한다 이거예요. 천 명이 모여 가지고 천 가지의 웃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선생님이 유명한 말을 하는 것보다 맛이 좋고 기분이 좋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 하자는 거예요? 웃고 난 다음에는? 남은 것이 뭐예요? 「웃놀이입니다.」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요? 공동묘지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다음’ 해서 좋은 것을 찾아가다가는 공동묘지에 가는 일이 숙제를 푸는 제일의 답이 되는 것이 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죽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 죽고, 어디에서 죽고 다 그렇다구요. 죽어서 영계에 간 다음에는 무엇을 하겠어요? 웃음소리가 들리겠어요, 무슨 소리가 들리겠어요?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어때요? 통곡하고 비참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데는 어디 가든지 부딪치지 말고 둥글둥글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동양사상의 주류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도 그것을 다 알기 때문에 둥글둥글하게 돌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누구를 좋아하느냐고 물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는 일하러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할머니를 찾아갈 것 같아요, 할아버지를 찾아갈 것 같아요?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왜 할머니예요? 여자니까 그래요. 어머니한테 안겨서 여자의 냄새를 아니까 할머니를 찾아가는 거라구요. 남자는 뼈가 달라요. 아기를 할아버지가 안으면 불편하니까 ‘앵!’ 하고 우는 거예요. 여자는 다리를 펴도 좋고, 몸을 이렇게 해도 좋고, 폭신평신향고 둥글둥글해서 환경을 맞추어 주는 거예요. 이번에 형진이 아들 신팔이 5개월 됐는데, 할머니만 들어가면 좋아하고 웃는데 나만 들어가면 얼굴을 이리더라구요. (웃음)

남자는 왕으로서 전체 앞에 표준이 되어야

둥글둥글하게 해주는 것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입니다.» 남자는 뭐예요? 남자는 왕입니다. 왕은 앉는 법이 있어서 딱 갖추어야 되고 눈도 90각도로 해서 정면을 봐야지 옆으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왕은 그 나라에 동생들이 많지만 동생들보다 자세가 발라야 된다는 것

입니다. 앉아 있으면 옆에 있다고 이렇게 보지 말고 옆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은 모든 전체 앞에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왕은 그래야 된다는 말이 틀리지 않는 사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얼굴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옆에서 보는 사람이 보면 언제든지 그렇게 하고 있으면 본을 받는 것입니다. 앞에서 봐도 언제나 그렇고 동서남북으로 봐도 그럴 수 있는 남자가 되어야 집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어때요? 여왕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면 10년 동안 왕의 동상(銅像) 자리에 앉으라고 하면 남자들은 앉을 수 있는데, 여자들은 그렇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왜? 여자는 배가 불러야 됩니다. 배가 부르면 이렇게 앉지 이렇게 앉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왕 해먹겠다는 것은 천리법도에 위배된다! ‘아 멘!’ 해야 됩니다.

배가 불러 가지고 왕이 되겠다고 하면 그게 뭐예요? 신하들 앞에 배를 내놓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려고 다닐 수 있어요? 백관들 앞에서 ‘삿삿삿’ 걸어가야 됩니다. 동상이 걸어가는 것처럼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처음 듣지요? 남자들을 보게 되면 신발 바닥이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찌그러지게 닳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90각도 이상을 바라보아야지 그 이하를 바라보는 것은 동물적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동물은 땅을 본다구요. 여자들은 올라다봐야 되겠어요, 내려다봐야 되겠어요? 「올라다봐야 됩니다.」 「내려다봐야 됩니다.」 내려다봐야 됩니다. 아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야 됩니다. 이렇게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아기를 배기 때문입니다. 자연히 그렇게 된다구요.

여자가 아기를 배 가지고 팔을 이렇게 차는 것은 나중에 여자아이를

낱게 되면 화냥년이 된다는 거예요. 바람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품고 자야 됩니다. 그런 훈련을 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아 죽인다구요. 여기는 침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동양에는 침대가 없기 때문에 같이 자게 되면 깔아 죽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침대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 가운데 침대에서 자는 동물이 있어요? 「없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자는 원숭이나 곰이나 있지요. 「새가 그렇습니다.» 새가 동물이야? 새는 새라구. 중간 동물이라구. (웃음)

여기에 와서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사람은 많지만 사람 같은 사람은 내가 못 봤어요. 그러면 레버런 문이 서양세계에 와서 그렇게 살면 칭찬 받겠어요, 반대 받겠어요? 「칭찬 받습니다.» 왜 칭찬 받아요? 자기들과 다르니까 비판받게 되어 있다가구요.

외교무대에서 여왕이나 왕, 대사들이 모여 앉아서 회의를 할 때 몸뚱이를 이렇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여기 여자들은 머리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원망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침을 뱉는다가구요. ‘저 여자는 세상의 예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저런다.’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1시간 이상 서서 얘기를 했는데 불평할 수 있는 소질이 많이 있으니까 선생님은 앉고 여러분은 1시간 이상을 서서 들으면 된다 이거예요. 어때요? 「좋습니다.» 그러면 3분의 1은 비우고 앞으로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좋습니다.» 내 대신 섰으니까 앉은 자리를 채우니까 3분의 1은 남지요. 그거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봐요.

하나님같이 불평하지 말라

아이구, 나는 덩구만. 벗어도 돼요? 「예.» 내가 벗으면 여러분도 벗

을 것이고, 그러면 여자들은 블라우스만 입을 텐데 그래도 좋아요? 여러분이 허락해서 벗는데 여러분도 따라서 벗을 게 뭐예요? 남자들도 있지만 여자들은 벗으면 하나밖에 없는데 말이에요. 또다시 벗으면 선생님도 러닝 셔츠가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를 벗으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은 바지를 벗더라도, 세 끼풀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 둘 벗더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두 끼풀도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대로의 식이 다르고 여자는 여자대로의 식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한다고 해서 전부 다 따라서 하면 망한다 이거예요.

통일교회 선생님이 그런다고 교구장 교역장이 교회에 가서 반말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놀음을 하더라구요. 선생님과 자기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아버지고 자기들은 사위 아니면 며느리입니다. 며느리가 부모와 같아요? 며느리는 며느리라구요.

내가 누워서 설교를 한다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습니다.」 왜 기분 좋게 들어야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누워서 하는 유언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들어야 하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효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누워서 설교하는 것을 듣는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누워서 유언하는 모든 것을 기쁘게 상속받는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가 누워서 설교하더라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노멘, 아멘? 「아멘!」

그러면 올라가서 누워서 이야기해 볼까요? 두 시간 되어서 돌아서서 소변을 보면서 이야기하면 다들 도망가겠지요? 「아닙니다.」 가르쳐 주었으니까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양세계에도 맞고, 서양세계에도 맞고, 천국에도 맞게끔 선생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왜 그것을 평하고 좋아하지 않아요? *지

옥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런 훈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하나님 자리에 가기 전에는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위를 맞이하려면 하나밖에 없는 딸을 중심삼고 시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합니다,」 그러면 무슨 시험을 하겠어요? 「어려운 시험입니다,」 글썽 어렵긴 어려운 시험인데 무슨 어려운 시험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위를 얻으려면 죽이려고 한다구요. 칼을 들고 딸을 피를 흘리면서 가족을 쫓고 손도 쫓고 죽이려고 할 때 사위 되겠다는 사람이 잘 하라고 도와줘야 되겠어요, 받아 쳐야 되겠어요? 「받아 쳐야 됩니다,」 헤딩을 하고 차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자식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을 쳐서 보호하려고 하는구나. 아버지보다 낫다. 그래서 내 딸을 너에게 준다.’ 하는 것입니다.

둘이 일어나 보라구. 이 둘의 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여자가 너무 작다구요. 그렇지만 재간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굼뜨지만 재간이 있고 사랑사랑해서 집안 살림을 하면 깨끗하게 해 놓고 살 거예요. 깨끗하게 살아? 「예,」 *방에 들어가면 예쁜 방입니다. 예술가처럼 꾸며 놓고 ‘참으로 내 방이 아름답구만!’ 이러면서 살 거라구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그런데 남편은 좀 둔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욕을 해도 느끼지를 못해요. 나 따라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보면 언제나 나타나요. 그렇게 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장아장, 선생님이 10리 길을 갈 때 5리만큼 떨어져서 못 따라오라고 그런 작은 여자를 해준 거예요. 얼마나 멋진 생각이예요! (웃음)

여러분은 상대를 자기 멋대로 못생겼다고 하지만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라구요. 여기 키 큰 여자는 신랑보다 얼마나 더 커? 「저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거 잘 선택했어, 못 선택했어? 씨름을

하면 네가 이기지? (웃음) 대답을 하라구. 물어 보잖아? 으레 이길 줄 알기 때문에 생각도 안 하고 있지.

하나님의 시험까지 극복하고 신앙을 지켜 나왔다

이제 여기에 부처끼리 온 사람들 한번 평을 해줄까요? 한 백 쌍만 해 주면 설교보다 재미있겠어요, 재미없겠어요? 「재미있습니다.」 얼굴이 긴 사람은 더 긴 사람하고 해주면 2세는 더 긴 지팡이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런 똥똥한 여자는 신랑이 키가 크고 좁아야 됩니다. 이런 왕초 같은 여자는 남자가 너무 순해서 안됐어요. 안 들어가는 주머니에 집어넣으려고 생각한다고요. (웃음)

나는 재미없다고요. 좀 쉬어야 되겠어요. 내가 졸면 졸지 않게 한번 깨워 보라고요. 못 깨워요. 선생님은 이렇게 암만 해도 간지럼을 타지 않아요. 어머니가 해봤지만 발부터 아무리 간지려도 간지럼을 안 탄다고요. 정 안 되니까 콧수염을 톱 뽑더라구요. (웃음) 이 녀석의 웃는 것을 보니까 기분이 나쁘다구. 너 같은 사람은 너무 기쁘게 해주면 정신이 나간다구.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지 말라구. 그것도 훈련해야 됩니다.

여자가 와서 손목을 잡으면 남자가 좋다고 ‘히히’ 하겠어요? 보지 않고 쳐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심각하게 기도할 때 영적으로 미인들이 와서 많이 유혹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런 시험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험해 보고 싶지요? 싫다는 것은 여자가 아니에요.

동양 사람으로 보면 선생님이 미남자라고요. 지금 나이가 팔십이 되어서 그렇지만 말이에요. 그래, 젊을 때 여자들이 많이 따라다녔겠어요, 안 따라다녔겠어요? 선생님이 자고 있는데 미인이 벌거벗고 와 가

지고 자기 젖통을 입에 물려 주며 깨우면 깨자마자 차 버리겠어요, 빨겠어요? 「차 버립니다.» (웃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꿈에도 그리던 미남자가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자는 젖꼭지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남자는 젖꼭지가 없어요. 젖꼭지 대신 그것을 자기 음부에 갖다 대고 있으면 환영하겠어요? 미남자인데 말이에요. 끌어당기겠어요, 두 발로 차겠어요? 「잡니다.» (웃음) 그런데 웃긴 왜 웃어, 쌍년들아! *얼마나 심각해! 있는 힘을 다해서 차 버려야 된다고. 웃을 일이 아니라구. (*부터 영어로 말씀하십시오) 웃고 있는 사람은 다 거짓말입니다. 보통 여자들은 끌어당기겠어요, 발길로 차겠어요? 「끌어당깁니다.» 「잡니다.» 솔직히 얘기하라고요. 솔직한 정의와 통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야지요. 선생님 앞이니 그렇게 얘기하지 선생님 앞이 아니면 얼마든지... 그런 거예요.

남자가 통일교회의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선생님이 일본에 공부하러 갈 때 일본 여자들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겠다고 얼마나 결심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사탄도 시키고, 하나님까지 시켜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손을 잡는데 바른손을 잡아요, 왼손을 잡아요? 여자들이 제일 손잡기 쉬운 것이 남자의 바른손이에요, 왼손이에요? 「왼손입니다.» 그러니까 마주 서게 되면 여자들이 남자의 손을 잡는데, 이 손(왼손)이 약하다는 거예요. 바른손이라면 핑 돌아서 숨을 수도 있다가요. 이 손은 때리기 위해서 이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잡는 손은 왼손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여기에 무엇을 끼어야 되겠어요? 손잡을 때 기분이 나쁘게 해야 됩니다. 털이 나든가 가시가 박히든가 해야 된다고요.

선생님의 발이 커요, 작아요? 「작습니다.» 네 발은 나보다 크다구. 앉아서 내놓은 것을 보니 말이야. 길고 크다구. 발가락을 보니까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먼저 죽겠다구. 아버지가 먼저 죽었나, 어머니가 먼저

죽었나? 「살아 계십니다.» 두고 보라구. 이 발가락이 길면 어머니가 먼저 가. 이 여자는 그렇다구. 운동을 하면 잘 뛰겠더라구. 뭘 했어? 농구를 했나?

끝날에는 모든 분야에서 흑인들이 득세하게 되어 있어

흑인들을 보게 되면 궁둥이가 쑥 나왔어요. (그림을 그리심) 보게 되면 이렇게 궁둥이가 나왔는데, 여기에 힘이 있다구요. 요즘은 모든 운동을 백인들이 빼앗겼지요? 그런 여자들한테서 낳은 남자도 강하다 이거예요. 흑인들한테 백인들이 진다 이거예요. 끝날이 되면 그런다는 거예요. 끝날이 되면 흑인들이 체육계의 선취권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갈 때 누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느냐? 「흑인이 졌습니다.» 그래요. 그건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흑인이 운동계를 지배할 때가 끝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힘이 있어 가지고 차는 것을 잘 했습니다. 사람도 차 버리고, 전부 차기를 좋아했어요. 축구는 영국에서 시작해 가지고 백인들이 했지만, 나중에는 흑인들에게 빼앗긴다구요. 독일이고 영국이고 어디든지 흑인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누가 큰소리로 울었어요? 백인들이 울었겠어요, 유색인들이 통곡했겠어요? 「유색인들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하니까 빈민 앞에 환영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통곡을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부끄러움이 있는데다가 어머니 아버지라는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니 울지 않았지만,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인 흑인들이 목을 놓고 있는 힘을 다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동네에 소문이 나고 고을이 떠나가도록 울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볼 때 끝날이 되면 흑인들이 온 그 가치로써

세계적인 기록을 가진 음악가들이 많이 나오게 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흑인들은 코가 구멍이 크고 이래요. 여기가 발달했어요. 입을 벌리면 말이예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밥을 먹어도 인사 차리지 않고 순식간에 먹어야 주인들한테 퍽박을 안 받고 차이지 않고 살아남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이 커요. 그리고 소리도 이런 병에서 나오는 소리처럼 볼륨이 크고, 울고불고 할 수 있는 이상하고 신비스런 소리가 나옵니다. 예술 분야도 그렇습니다.

궁둥이가 이렇게 뭉쳤다는 것은 뭐냐? 동체가 내려와서 다리가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동체가 내려와서 다리가 길기 때문에 남보다 빨리 뛰는 거예요. 동물을 잡아먹자니 별수 없잖아요? 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뛰어서 잡아야 하니까 잘 뛰지요. 미국에서도 유명한 음악가들은 흑인들한테 다 빼앗겨 버린다고요.

백인세계는 낮이라면 흑인세계는 밤인데, 밤이 언제나 밤이 아니고 낮이 언제나 낮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밤낮이 바뀌지기 때문에 역사는 순환하면서 평준화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눈이 크면 먼 미래를 볼 수 없어

역사상 위인들 중에서 눈이 큰 사람이 없습니다. 눈이 크면 멀리 못 본다구요. 가까운 데를 보는 거예요. 카메라의 조리개를 좁게 해야 멀리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위인들 중에서 눈이 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눈이 큰 사람은 겁이 많아요. 여러분 친구들을 생각해 보라구요. 이 새가 무슨 새예요? 「봉황새입니다.」 봉황새는 눈이 어떻게 생겼나 보라구요. (칠판에 그림을 그리심) 이게 눈입니다. 상대를 만들고, 코를 만들고, 입을 만들고, 머리를 만들었어요. (웃음) 이 새는 미국 여자 같구만. 욕심 보따리가 크게 생겼다고요.

이 여자 일어나 보라구. 목사가 이러면 큰일난다구. 눈이 작아요, 커

요? 「큽니다.» 외교무대에 나가 가지고 눈 큰 사람을 친구로 하는 사람은 언제나 실패한다 이거예요. 눈이 조그맣고 이런 사람은 모사꾼입니다, 모사꾼.

그래, 선생님은 눈이 이렇게 큼니다. 「작습니다.» 얼마나 작아요? 어머니가 눈이 있나 하고 한 번을 봐도 못 봤고, 두 번 봐도 못 봐서 ‘에라, 눈이 병신 되어도 모르겠다!’ 해서 들춰보니까 눈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웃음) 그러니 얼마나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싸움을 하고 나면 반드시 분석 연구하는 것입니다. 왜 했느냐 이거예요. ‘배가 고프면 왜 슬프냐?’ 이런 문제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왜 힘을 다하느냐? 잘되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승리해 가지고 잘되느냐? 승리하면 대개 오래 못 갑니다. 몇 대 못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을 중심삼고 모여 있는 사람이 있다구요. (그림을 그리심)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이렇게 있다구요. 이곳이 좁은 사람은 마음이 좁아요. 서양 사람들은 코가 기니까 눈들이 대부분 가까이 있습니다. 동양 사람들은 이게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비례적으로 이게 넓은 거라구요.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의 비교

중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이 외교 무대에 나가면 누가 이겨요? 「중국 사람이 이깁니다.» (웃으심) 그래서 연구해 봐야 이길 것이 없기 때문에 총을 연구해서 협박하는 것입니다. 이기고 싶으니까 하도 연구해서 들이대면 꼼짝못하고 손들게끔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나 이거예요. 그래서 무기 발명은 백인들이 했다 이거예요.

결국 백인들은 북극곰 종족입니다. 기분 좋아요? 동물하고 싸워서 못 이기겠으니까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해서 총을 연구한 것입니

다. 그래서 활을 만들고 총을 만든 거예요. 그것을 서양 사람들이 개발했어요, 앓아 가지고 사시사철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동양 사람들이 개발했어요? 「서양 사람들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피가 물들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보아야만 먹을 것이 생깁니다. 그것이 철학입니다. 간단하다구요. 그래서 총을 가지고 선민들을 협박해 가지고 탈취한 것입니다.

총을 만들어 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했어요, 작은 나라들이 삼켰어요?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이 뺨 때문에 놀라게 되면 ‘탕탕’ 쏘아서 죽이고 갑니다. 동양 사회에는 그런 게 없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살려 주려고 하고, 죽게 되면 같이 울어 주는 거예요. 동양 사람들은 사냥해서 잡더라도 제물을 떼어놓고 가는데, 서양 사람들은 사냥해서 잡으면 메고 자기 집으로 뛰어가요. 산신령과 산천초목을 뒤에 두고 자기 집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을 중심삼고 결국 개인주의와 프라이버시를 주장하다 보니 세계의 점령한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이 동양의 권고입니다. 나중에는 머리털을 뽑고 모가지를 자르고 다 잘라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회는 피비린내를 내면서 형성되었어요. 아니에요? 흑인들을 동물 같이 잡아다가 팔았지요? 말을 안 들으면 ‘탕탕탕!’ 쏘아 죽였다구요. 미국 역사에 그런 사실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디언들이 몇천년 간 여기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살았는데, 4백년도 안 되는 사이에 병이 나서 죽어요? 그런 미친 소리는 그만두라는 거예요. 병이 나서 죽어요? 자연이 웃는다구요.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한 것은 미국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 사상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언제나 둘 다 사랑 못 해요. 한 번은 미국을 영망진창으로 만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아들딸 전멸이에요. 남편 아내 전멸입니다. 가정 전멸입니다. 동물세계

의 어미 아버를 마음대로 해쳐 버리고, 인간세계의 근본을 마음대로 해쳐 버리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인과법칙에 의해서 자기 아들딸의 근본이 안 해쳐질 수 있어요? 그러니 탕감을 받아야 됩니다. 돈이 많고, 세력이 있고, 모든 것이 세계에서 제일이라고 하는데 가정은 제일 똥 걸레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치와 경제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제일이라고 자랑했는데, 안팎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부모, 부부, 아들딸이 다 깨져 나갔습니다. 조부모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고, 상대도 필요 없고, 아무 것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최고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렸고, 우주도 잃어버렸고, 세계도 잃어버렸고, 나라도 잃어버렸고, 종족도 잃어버렸고, 가정도 잃어버렸고, 조부모도 잃어버렸고, 부모도 잃어버렸고, 상대도 잃어버렸고, 아들딸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딸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마지막입니다.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내적으로 외적으로 완전히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동물세계를 흠트려 버리고, 인간세계를 흠트려 버렸어요. 그 가정이 잘살겠다고 하지만 다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남자들도 서양 여자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또 서양 여자들도 서양 남자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프리섹스가 좋아요?

반대반던 통일교회가 믿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다

그래서 세상이 다 미국같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남자 진짜 여자가 어디에 있겠느냐 이거예요. 감옥에밖에 없을 것이다 이거예요. 테러단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종족을 사랑하는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갔다면 진짜 남자 진짜 여자는 감옥에밖에 없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 감옥보다 더 나쁘게 생각하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미국, 자유세계의 잘사는 나라가 감옥보다도 더 나쁘게 취급하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그곳이 통일교회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납치를 하고, 형제가 납치를 하고, 나라가 납치를 하고, 세계가 납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와, 만세!’ 하는 거예요. 온 세계가 ‘만세, 레버런 문이 무너진다! 우와, 만세!’ 하고 있는 거예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 불쌍한 것들은 더러운 세상의 그것과 상관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국제결혼을 해서 ‘너희들 못사는 세상에 우리는 남자를 존경하고 여자를 존경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들딸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기독교 문화를 전부 다 상속받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박수) 설교도 안 하고 그냥 말을 하는데 왜 박수를 해요? 설교를 했다면 모르지만. 이게 설교보다 나아요? 「예.」 필요한 말들입니다. 팔십 생애를 산 레버런 문이 무슨 경험이 없겠어요? 지구로부터 일생 동안 반대 받는 환경에서 이마만큼 살아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선생님을 반대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세상에, 나라도 망하고 환경이 망하는데, 기독교가 세계의 판도를 가졌는데 거기에서 ‘내가 앞날에 재림주가 된다.’ 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대번에 감옥에 가서 죽을 길이 훤히 것입니다. 그러니 반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머니 아버지도 나를 왕같이 모시고 신하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할 때 ‘에이, 이 녀석아!’ 하겠어요, ‘에이!’ 하겠어요? ‘매일같이 내가 원하는 것을 부모는 희생되더라도 해주어야 됩니다.’ 하고 그런 것을 전부 다 지시하면, 그것을 어머니 아버지가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인가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그런

말도 못 들어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계에 가서 보고 놀라 자빠진 것입니다. ‘우와! 하나님까지도 내 아들을 통해서 해방을 받고, 영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상적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아들의 신세를 져야 된다니!’ 그것이 꿈같은 얘기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결혼을 했어요? 아담 해와가 결혼을 해봤어요, 타락한 이후에? 전부 다 독신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까지도 그렇잖아요? 요전에 상헌씨가 그랬잖아요? 모세를 시중하는 여자가 있어서 왜 결혼 안 하느냐고 물어 보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결혼해 줄 수 있는 해방의 왕이 자기 아들이라고 하면 우리 어머니가 그거 믿어지겠어요? 예수도 모세도 결혼을 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 아들이 와 가지고 결혼시켜 주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어머니가 믿겠느냐 말입니다. 영계의 결혼하는 것을 내 아들이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겠어요?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게 뭐예요? 지금이니까 믿지요.

옛그제 ‘참부모님 동서양(지구성) 승리축하 선포’를 했지만, 그것을 믿어요? 요즘에는 안 믿을 수 없습니다. 안 믿으면 자기가 망하는 것입니다. 때가 그만큼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30년 전이나 50년 전에는 그것을 믿겠어요? 선생님이 8살 때면 몇 년인가? 지금부터 70년 전인데, 그때 8살 난 내가 말한 것을 어머니 아버지가 믿겠어요? ‘앞으로 세계가 이렇게 됩니다.’라고 말했지만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열 말을 했으면 열 말 전부를 믿겠어요, 하나도 안 믿겠어요? 「하나도 안 믿습니다.」 하나도 안 믿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말해서 뭘 해요?

형님만은 알았습니다. 영계를 통하기 때문에. ‘형제라는 관계가 어느 집이나 다 있고, 일족의 어느 누구나 종횡으로 관계되어 있지만, 형제 중에서 네 동생이 역사의 일등 동생이다.’ 하는 그것만은 알았어요. 그

것만 영계에서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했어요. 집을 팔라면 집을 팔고, 소를 팔라고 하면 소를 팔고, 학비가 없다면 땅을 팔아서라도 대어 주려고 했지 하나도 반대하려고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 아벨 복귀한 것입니다. 선생님이 열두 살이 되기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동네의 이웃사촌들을 전부 다 굴복시켰습니다.

거기에 수수께끼 같은 일이 많습니다. 열 살이 넘어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거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여기 젊은 사람들, 나도 못 써먹은 연령에 그 일을 함부로 써먹을까 봐 얘기를 못 해준다구요. 가르쳐 주면 이것을 그대로 따라해 가지고 자기 일생을 마칠 수 있는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50년 전에 이메일이나 인터넷 세상을 예견했다

어제 여러분이 여기에서 전부 다 들었겠지만, 그 모든 내용의 이상 것들을 알았어요. 50년 전에 세상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메일(e-mail)이니 인터넷으로 통하는 것처럼 앞서서 세계는 물론이고 하늘땅까지 통하는 때가 된다고 하니까 모두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아무개 골짜기에 똑똑한 미남이 미쳤다고 소문이 났다구요.

왜 인터넷이 나오고 이메일이 나왔느냐? 왜 그런 세계가 되었느냐?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의 목적 성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어요. 그것을 믿겠어요? 레버런 문이 죽어야지 하나님이 죽어요? 이거 이해돼요? 하나님을 죽음의 자리에서 살려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믿어요? 「예.」

그때 내가 말하는 것을 세계 산골짜기에 살고 있는 한 집이라도 듣기 위해서 산꼭대기에 찾아 올라가고 찾아 내려온다고 했는데, 그런

말을 믿겠어요? 이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듣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어요? 매일같이 일본의 경찰이, 군인이 따라다녀서 쫓겨다니는 신세이면서, 어디 가서 마음대로도 못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 믿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8살 때부터 국제결혼을 해 주었습니다. 8살 때에도 결혼 상대를 맺어 주었다구요.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도 해주고. 어떻게, 무엇을 보고? 사진을 보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 동네에 누가 죽는다고 하면 죽고, 비가 온다고 하면 비가 온다는 거예요. ‘금년에는 우리 집 앞으로 장사(葬事)가 몇 대 지나가겠구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딸이 결혼을 할 때는 사진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내가 집어던지면 그 결혼은 나쁜 것이고, 놓아두면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라구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해보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선생님의 말을 믿었어요? 「예스,」 노! 이려고 들었지요. (표정을 지어 보이심) 말씀을 들어 보고 좋으니까 말씀을 보따리에 집어넣은 거예요. 말을 얼마든지 좋게 할 수 있지만 행동을 제멋대로 할 수도 있으니까 말씀은 보따리에 집어넣고 ‘레버런 문이 어떻게 사나?’ 하고 이렇게 들여다봤지요?

여자들의 유혹에도 끄떡없어야

여자들을 좋아한다고, 바람잡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내가 미국 여자 한 사람의 손목도 안 잡아 봤다구요. 때리기는 했어도 손목도 안 잡아 봤습니다. 선생님의 손을 잡아 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라구요.

일본 여자 17만 명을 교육하는데, 일본 조사실에서 미인들을 보낸 거예요. 레버런 문이 색마라고 소문이 났으니 유혹하기 위해서 별의별 놀음이 다 있었다구요. 선생님과 키스를 한 번 해보고, 손목이라도 잡

아 봤다는 일본 여자를 만나 봤어요? 「못 만나 봤습니다.」

서양에 오니까 염치 불구하고 와 가지고 이렇게 포옹하면서 머리까지 잡아당기는 등 별의별 여자가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자들이 이래 가지고 왼손으로 이려고 바른손으로는 벨트를 잡아당깁니다. 미국 여자들이 그렇게 바람잡이입니다. 키스를 할 때도 보면 혀로 이려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래서 1미터 이내에는 접근을 하지 말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미국 여자들입니다.

밤에 호랑이 눈을 보면 등불과 같습니다. 미국 여자들의 새파란 눈이 딱 그렇대구요. (웃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구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국 여자들은 선생님이 좋아요, 싫어요? 「좋습니다.」 좋아하는 것보다 높은 차원에서 사랑해요, 미워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나는 모르겠대구요. 왜 사랑하는지를 나는 모르겠습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십시오)

모르고 동상같이 서 있으니까 가르쳐 주겠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려고 해요. 와서 손을 만지면서 키스를 하려고 하지 않나, 콧등을 만지려고 하지 않나 말이에요. 선생님이 늙었으니 망정이지 젊었으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남자세계에 가게 되면 못 하는 것이 없습니다. 놀기도 잘 하고, 싸움도 잘 하고, 어디에 가든지 넘버원이라는 것입니다. 여자라면 그런 남편하고 살고 싶겠어요, 안 살고 싶겠어요?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험해요?

어머니가 어머니보다 젊고 아름다운 미국 여자들이 선생님을 따라다니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쁩니다.」 ‘좋다, 좋다, 좋다!’ 하겠어요, ‘싫다, 싫다, 죽이겠다!’ 하겠어요? 세 번만 따라다니면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래도 따라다니면 ‘죽이면 좋겠다.’ 하고, 그래도 따라다니면 ‘내일은 없앤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으면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라구요. 여자가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웃음)

또 어머니를 그렇게 남자들이 좋아하면 선생님이 기분 좋겠어요? 요즘에는 어머니가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버지 편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어머니 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기분 좋겠어요, 기분 나쁘겠어요? 뒤에 서 있는 할아버지가 아내가 젊은 사람들과 좋아하는 것을 볼 때 기분이 좋겠어요? 「나쁩니다.」 그것을 ‘노’ 하지 않고 ‘예스’ 해야 할 아버님이 얼마나 비참하냐 이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비참하냐 이거예요. 알겠어요? 「예.」

어머니가 피곤할 때 젊은 청년이 와 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안마해주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쁩니다.」 철딱서니 없게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면서 둘이 재미있었던 일을 얘기하면 그거 정신 나간 녀석이에요, 정신 올바른 녀석이에요? 「미쳤다!」 ‘미쳤다’가 뭐야, 이 녀석아? 어디서 한마디 들었나? 그것밖에 모르지? 「미안합니다.」 (웃음) ‘미안’이 뭐냐 하면 ‘아름다운 눈’이 아니고, ‘미치지 못한 눈’이 미안이야. 미안은 ‘아름다운 눈’과 ‘미치지 못한 눈’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가 말한 것은 미치지 못한 눈이다 이거야.

내가 설교를 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땀이 나는구만. 이제는 땀을 흘렸으니까 욕밖에 남지 않았어요. 쓸데없는 이야기같이 흘러가는 얘기를 했으니 벨트를 매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벨트를 단단히 매게 하기 위해서는 욕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나무에는 마디가 있어요. 마디를 짓기 때문에 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꺾어지는 거예요. 한번 꺾어지면 다시는 못 일어납니다.

얘기를 또 해요? 「예.」 선생님이 젊은 시대에 무엇을 했는지 알고 싶지요? 「예.」 선생님과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한번 하고 싶지요? 「아닙니다.」 「예.」 (웃음) 수영장에 같이 가서 선생님하고 사진을 찍었다면 영계에 갔을 때 ‘나 이렇게 재미있게 선생님하고 수영도 했다.’라고

자랑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자랑하고 싶습니다.」 영계에
문이 많고 수문장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것 하나만 있으면 프리 패스
(무사 통과)입니다. (웃음) 그런 사진이 하나 있으면 앞으로 산더미같
이 돈이 쌓일 때가 올 것이다 이거예요.

총생축헌납제의 의의

(판서하심) 이거 한번 읽어 봐요. 「총생축헌납제」입니다. 이게 뭐예
요? 구약시대에는 전부 다 제물을 깔랐습니다. 하나님 소유와 사탄 소
유를 갈라서 피를 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탄이 9이고 하나님이 1
입니다. 9대 1입니다. 10의 1조입니다. 10에서 하나를 취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찾아 나온 것입니다. 9수는 사탄 편입
니다. 이것은 거꾸로 된 6수입니다. 소생·장성·완성의 9수는 사탄
편이고, 오직 귀일수, 다시 돌아온 첫 수를 찾는 것이 10의 1조입니
다.

여기에 1을 넣으면 10이 되고, 여기에 1을 넣게 되면 7이 됩니다.
7수를 뭐라고 해요? 행운의 수입니다. 이것(10)은 뭐예요? 귀일수입
니다. 하늘로 돌아가는 귀일수입니다. 여기는 영(0)입니다. 영을 많이
칠수록 좋아요, 나빠요? 「좋습니다.」 좋다구요.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
이나 누구나 영을 많이 가질수록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끝날에는 영을 더 보태는 것은 하늘의 소유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
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끝날이 되어서
심판하는데 하나가 서게 될 때는, 넘버원인 하늘이 서게 될 때는 억천
만 수 전체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 가정 하나에서 천만 가정이 될 때는 나라가 되고 세계가 되어
서 하늘땅에 꼭 차게 되면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만 있지 인간의 소유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에서 분배받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떼어서 자식들에게 세계에 나누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소유권입니다. 누가 소유권을 많이 갖느냐 이거예요. 누가 땅을 큰 것을 가지느냐 이거예요. 미국도 욕심쟁이지요. 미국이 커요, 브라질이 커요? 「미국이 큼니다.」 미국은 사막 천지입니다. 브라질에는 사막이 하나도 없대구요. 미국에는 산도 많지만 아르헨티나는 산이 없습니다. 알래스카 같은 데는 땅은 크지만 쓸모가 없어요. 사람은 어디가 많아요? 미국은 잡종이라구요. 180여 나라, 세계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루어진 나라예요. 이민 국가입니다. *미국은 이민 국가로, 그 국민이 잡종이기 때문에 순수하지 않습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그러나 브라질은 모두 포르투갈 사람입니다. 포르투갈 사람인데, 인디언이나 흑인하고 하나되었습니다. 미국은 인디언하고 하나되었어요, 반대했어요? 인디언하고도 하나 안 되고, 흑인하고도 하나 안 되었습니다. 차별대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남미에 가 보니까 스페인계 사람하고 흑인이 완전히 하나되어 가지고 인종차별이 없어요. 이제는 세계 사람들이 그곳에 이민을 온다 하더라도 흑인과 백인이 하나되어 있는 그 세계에서 인종차별은 역사적으로 나타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브라질 국민들은 레버런 문이 들어가서 어떤 나라 사람이든, 백인 흑인을 암만 섞어서 결혼시키더라도 반대가 없어요. 그말 처음 들어요? 그렇대구요. 그래서 선생님이 브라질에 세계평화이상가정교육본부를 만든 것입니다. 흑인을 데려다가 교육을 하든지 백인을 데려다가 섞어서 교육을 하더라도 불평이 없어요. 여기서 섞어서 교육하면 전국에서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신문에서도 야단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미국은 레버런 문을 싫어하는데, 남미에 가니까 어느 나라에서나 레버런 문을 환영하더라구요. 미국에 있는 통일교인이라고 해도 레버런 문을 따라오면 환영하더라 이거예요. 백인만 따라오더라

도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고 볼 때 10년 20년이 되면 누가 이기겠어요? 「남미가 이겁니다.」 틀림없이 남미에게 먹혀 버린다 그 말이에요. 어느 민족을 많이 포용하느냐 이거예요. 민주주의가 지금 그렇잖아요? 돈을 긁어모으고 사람을 긁어모으면 나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민주주의 아니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물의 철학을 배우자

내가 만일 나쁜 사람 같으면 미국을 때려부수자고 군대를 훈련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시킵니다.」 틀림없이 했다구요. 그러나 레버런 문은 미국과 남미의 문화 차이를 중심삼고 미국이 돈을 안 주면 내가 돈을 대면서 미국의 돈을 갖다가 쓴다고 해 가지고 평준화를 만들고 있다구요. 그래서 신문사 같은 언론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통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써야 할 돈을 내가 욕을 먹으면서 재산을 팔아다가 별의별 놀음을 해 가지고 살리기 위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미국 자체는 레버런 문을 쫓아내려고 한다구요. 통일교회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배우자 이거예요. 배울 것이 무엇이나? 물을 좋아하자, 바다를 좋아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바다를 좋아하고, 배 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손 들어 봐요. 할 수 없이 손을 든 사람도 많지요. ‘배를 타러 가자!’ 하면 ‘바람 불니다.’ 하는 사람이 80퍼센트입니다. (웃음) 보통 바람인데 ‘바람 불어서 안 됩니다.’ 그러고 있더라구요. 그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됩니다.」

태풍이 불어오는데 작은 배가 나가려고 하면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안경비대가 자는 1시 2시에 몰래 출항명령을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전부 다 바다에 안 나가는 날에 나가 가지고 튜너(tuna;다랑어)도 잡아오고 했다구요. 그때는 세 마리 이상, 얼마든지 잡아도 괜찮았다구요. 하루에 보통 세 마리씩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내가 어부예요, 통일교회 교주예요? (웃음) 뱃사람이라고 하면 기분이 얼마나 나빠요? 세상에서 뱃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한다구요. 고기 비린내가 나면 침을 뱉는 것이 보통인데 레버런 문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고 물을 좋아하는 것은 물의 철학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나? 높은 데 있는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서 수평을 취하는 것이 물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물의 철학입니다.

생명에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 몸의 4분의 3이 물이라구요. 몸이 물주머니라구요. 그러니까 물을 좋아해야겠어요, 나빠해야겠어요? 「좋아해야 됩니다.» 후손은 조상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이 조상입니다, 생명에 있어서는. *땅 위에 물이 없으면 그 어떤 생명도 나올 수 없습니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그러니까 물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겠어요, 싫어해야 되겠어요? 「사랑해야 됩니다.» 물에도 깨끗한 물, 더러운 물, 나쁜 물이 있다는 거예요. 「소금물도 있습니다.» (웃음) 물론 소금물도 있지. 여러 가지 종류의 물이 있지만 하나 배울 것은 거기에서도 수증기가 증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이든, 더러운 물이든, 나쁜 물이든 증발하여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어 가지고 비를 만들어서 세상을 재생시키는 놀음을 공동으로 협조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함께 갈 때 ‘야, 더러운 물의 수증기야! 너는 저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서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웁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돼요, 둘이 돼요, 셋이 돼요? 「하나됩니다.» 빗물로 떨어지는 그

한 방울도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과 나쁜 물이 섞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나무들이 ‘아이구, 나는 물을 안 먹겠다.’ 하겠어요? 싫다고 하겠어요, 흡수하겠어요? 「흡수합니다.」 거기에 불평이 있어요? 거기에서 조화가 벌어지는 거라구요. 그게 위대한 것입니다.

더러운 물이 영원히 더럽게 남아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증기가 되어 가지고 맑히는 정화작용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물은 흐르게 마련입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평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수평세계에 수직이 생겨나는 거라구요. 거기에서 물을 따라서 수직으로 크는 것이 나무입니다. 수분을 따라서 수직으로 크는 것이 나무더라 이거예요. 수평기반에서 수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좋은 풍광은 산수(山水)가 겸해야

이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경치, 풍경은 산수가 겸해야 됩니다. 산과 물이 합해 가지고 초목이 있기 때문에 명승지가 되는 것이고, 새와 곤충도 거기에 먹을 것을 찾아가는 거라구요. 경치 좋은 곳은 개울에 맑은 물이 있어야 되고, 맑은 물 주위에는 초목들이 솟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쳐져서 좋은 경치가 되는 것입니다.

험한 산에 강물이 흐른다면 폭포를 이루어서 물이 떨어지면서 소리가 나는 게 좋아요, 소리가 안 나는 게 좋아요? 「소리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고기들은 높은 곳을 찾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고기는 높은 데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살아 있는 고기는 높은 데로 올라가지 내려가는 법이 없대구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맑고 깨끗하고 음악이 있는 산으로 찾아간다구요.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는 곳을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거 얼마나 신비로워요!

고기들한테 ‘야 이놈아, 너희들 쌍쌍이 되어 가지고 왜 자꾸 올라가?’ 하면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경치 좋은 곳, 바위 사이로 흐르는

개천에 가서 쉬면서 경치를 바라보고 자기를 따라오는 수많은 고기들을 보고 나 닦았다고 하면서 서로가 경쟁하는 그 재미가 멋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들에게 ‘너희들 자꾸 힘이 들 텐데 어떻게 하느냐? 힘 안 드는 우리 사는 대양에서 살아라!’ 하면 ‘아니다! 경치 좋은 곳에서 많은 새끼들을 치면 공기도 좋고 공해도 없어서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른다. 새끼들을 많이 쳐서 대양을 너희들 이상으로 우리 고향으로 삼고 사는 것이 얼마나 멋지냐? 하하하하!’ 그런다는 거예요.

‘공해도 없고 맑은 경치 가운데서 기분 좋게 새끼들이 잘 자란다. 그래서 대해에 많은 새끼들을 너희들 이상으로 데리고 가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우냐? 하하하하!’ 하는 것입니다. ‘너희 새끼가 바위 위의 도랑을 흘러가는 물소리를 들어 봤나?’ 하고 물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하고, ‘그 좋은 경치 봤어?’ 하면 ‘아니.’ 한대구요. ‘바위 사이로 흘러가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재미있는 체험을 해 봤어?’ 하고 물어 보면 ‘아니’ 합니다. 전부가 ‘아니’입니다. 고기 동무들에게 물어 보면 그런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녀석에게 그런 경치를 구경하고 왔다면서 그렇게 물어 보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밥을 안 먹어서 허리띠가 자꾸 늘어지기 때문에 허리띠를 조여야겠다고요. 배가 훌쩍해졌다는 말입니다. 몇 시나 되었나? 「9시 15분입니다.» 아침 먹었지요? 「안 먹었습니다.» 아직까지 안 먹었다면 그 주인이 도적놈이겠구만. 12시가 지나면 점심때가 지났다고 그냥 보낼 거라고요. 어때요? 「괜찮습니다.» 그러니 다 미쳤다는 거예요. (웃음) 더 얘기를 하면 더 미치는 거예요. 영계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웃음)

이제 물고기를 양식해서 식량난을 해결해야

그래, 선생님이 왜 물을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예.» 왜 고기 정신을 연구하는지 알겠어요? 「예.» 하나 발견한 것이 뭐냐 하면, 고기는

심판 받아 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 때가 고기세계에는 잔칫날입니다. ‘산중 호랑이 고기, 늑대 고기, 곰 고기 전부 다 내 밥이로구나. 잔칫날이다!’ 이거예요. *얼마나 맛있는 테이스트(taste;맛), 피스트(feast;잔치)… 테이스트와 피스트가 발음이 비슷하구만! 테스트(test;시험)를 좋아해요, 테이스트를 좋아해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테이스트를 좋아합니다.」 고기세계는 테스트를 한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안 받은 것입니다.

바다에 가서 그런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전에 ‘고기는 심판 안 받았다는 말은 레버런 문이 발견한 말이다.’라고 해서 기록해야 됩니다. (박수) 그래서 그 가치를 알아주기 때문에 레버런 문이 낚시를 할 때는 첫번 잡은 것은 아무리 튜너 할아버지라도 놓아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큰 것 대신으로 알아주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멋져요!

어릴 적에도 그랬다구요.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다니는 작은 고기를 잡으니 ‘아이구, 우리 엄마 아빠 어디에 갔나? 네가 엄마 아빠 되어 줘!’ 하더라고요. 죽어 가면서 ‘아이구, 네가 우리 엄마 아빠가 못 되니 나를 놓아 줘!’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다구요. *그래서 ‘자, 엄마 아빠를 따라가라!’ 하면, ‘우와, 만세!’(*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그런 소리가 들린다구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저녁에 놓아주면 아침이 되어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잡아먹는 것은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딸이 죽어 가는데 고기인 너희들을 잡아서 하나님의 아들딸들을 살려야 될 거야, 살리지 말아야 될 거야?’ 하고 물어 보면 살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것은 죽어 가는 인간들, 하나님의 아들딸을 살리기 위한 가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고기들이 그래야 하는 것은 본연의 생존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나는 안 먹습니다.

그래서 오션 처치(ocean church;해양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고기

잡아서 받은 것으로 내가 이십 몇만 달러를 예금해서 못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피시 파우더(fish-powder) 사업을 하라고 미국 식구들에게 맡겼는데, 전부 다 팔아먹고 없애 버렸을 거예요. 내가 튜너 토너먼트에서 일등 해 가지고 받은 10만 달러를 중심삼고 30만 달러에 가까운 돈을 예금해 나왔는데 지금 다 없애 버렸습니다.

여기에 오션 처치가 있어요? 선생님이 삼십 몇 개를 만들고 천 개 이상 만들라고 했어요. 그랬더라면 해양세계의 땅을 얼마든지 파서 양식을 해 가지고 해양도시를 해방시키려고 했는데, 그것을 망쳐 놓았습니다. 고기를 그냥 두면 1퍼센트도 안 되는 0.8퍼센트가 살아남아요. 전부 다 먹혀 버립니다. 인공적으로 하게 되면 완전히 부화시켜 가지고 70퍼센트를 살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고기를 잡을 필요 없습니다. 양식을 해서 얼마든지 사람이 먹고 남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벨베디아도 바다가 얼마나 멀어요? 그러나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몇백 리 떨어진 데서도, 로키산맥의 산골짜기에도 고기 양식빌딩을 백 층 이상 지어서 양식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고기 종류별로 분류해 가지고 손님이 점심으로 무슨 고기 몇 마리를 먹겠다고 10분 전에 연락하면 거기 올 사람 아무개 이름으로 바구니에 넣어서 살려 가지고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니까 ‘넘버 원, 넘버 투...’ 해서 분류를 해 놓았다가, 손님이 들어가서 입맛에 맞는 회를 먹으면 ‘우와, 원더풀!’ 하는 거예요. 그 ‘원더풀’이라는 말에는 차를 타고 로키산맥도 문제없이 돌아가는 뉘앙스가 있어요. 원더풀 필링은 왕좌에 앉아서 명령하는 대로 다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하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생활이냐 이거예요. 「아멘!」(*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이제야 정신이 드는구만. 다 듣고 나서 생각해 보고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박수하는데, 그거 선생님하고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그래 가지고 박

수하니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아무리 나쁜 것도 생각하기에 달려 있어

내가 할 것 다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머니하고 좋은 전용 비행기를 타고 세계 유람객으로 출동하는데, 반대하고 싶은 통일교회 패들이 많을 것이다! 「아닙니다.」 뭘 위해서 세계에 구경을 다니느냐 이거예요. 경치 좋은 산곡에 고기빌딩을 만들기 위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가겠다 이거예요. 어때요? 「좋습니다!」 따라다니고 싶어요, 욕하고 싶어요? 「따라다니고 싶습니다.」

제트 비행기는 열네 사람 이상 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입니다. 우루과이에서 타게 되면 홍콩까지 논스톱으로, 지구의 절반 이상을 날아갈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이 더 빠르다구요. 그러니까 세계를 논스톱으로 다니는데, 한 번은 내려야 될 것 아니에요? 오줌을 누기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비행기도 기름을 넣고 에너지를 보급해야 할 것 아니에요?

선생님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나? 지금까지 조그마한 배에 하루종일 24시간, 아침부터 밤까지 이렇게 앉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은 이렇게 하루종일 24시간 앉아 봤어요? 그게 얼마나 지옥이에요?

그런데 일어서서 소변보는 것이 아까워 가지고 말뚝을 박고 거기에 못을 박아서 소변 통을 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있든 어떻든 염치 불구하고 오줌 누기 위해서 일어나 가지고 ‘짹’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이 보기 싫으면 자기가 돌아서지 내가 돌아설 필요가 없다구요. 맨 처음에는 눈이 새빨개져서 이상하게들 보더니 이틀이 되니까 보통으로 알아 가지고 자기들도 숨어서 그러고 있더라구요. (웃음) *왜 그래요? 편리한 것은 하나님도 밤낮, 사시사철 환영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그래, 사자 왕이 있는데 사자 풀래미, 몇백 대 새끼가 그 사자 왕 앞에서 오줌똥을 싸겠어요, 안 싸겠어요? 「잡니다.» 먹이를 잡아다 주니까 조그만 새끼들이 맛있는 것을 서로 먹겠다고 싸우고, 자리를 내주면 빼앗기겠으니 오줌을 싸고 똥을 싸면서 뜯어먹는 것을 볼 때 그거 죽여 버리겠어요, 칭찬하겠어요? 보고도 본체만체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 할 수 없이 눈을 감아준다 이거예요. (웃음) 그렇게 말해야 통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든지 상관할게 뭐예요? 자기가 좋고, 조상들이 좋아하고, 그렇게 같이 살면 되는 것입니다.

양변기는 물을 많이 써서 서양에서 쓰는 양변기의 물 값만 해도 굶어죽는 몇천만의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텐데, 물을 안 쓰고 똥을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겠어요? 구덩이를 깊이 파면 되는 것입니다. 한 백 길을 파 가지고 베니어판에 맞게 해서 열 길만 파면 묻어 버리고 또 열 길만 파면 묻어 버리고 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십년 백년을 쓰더라도 냄새 안 나게 만들 수 있는데 왜 그래요? 10미터쯤 파면 뚜껑을 닫아 버리면 냄새 안 난다구요. 그렇게 하면 십년 백년을 물 한 방울을 안 쓰고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양변기는 할 때마다 기분이 나빠요.

내가 절간 변소에 가서 보니까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얼마나 깊은지 보아도 안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큰 것을 해보니까 한참 뒤에 소리가 나더라구요. 그게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소리가 음악소리보다 더 신비스러워요. (웃음)

그게 너무 재미있어서 또 한 번 하려고 하는데 안 나와서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계속한 것입니다. 누구도 써보지 않은 데 가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첫날하고 다음날하고 소리가 같아요? 같지 않습니다. 그거 얼마나 멋져요! (웃음) 일주일씩을 계

속해 보니까 일주일 전부 다 다르더라 이거예요. 왜 그래요? 자꾸 쌓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파게 되면 맨 처음 할아버지가 처음 눈 똥도 쌓여 있을 것이 다 이거예요. 몇 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냄새고 뭐고 다 잊어버립니다. 그거 얼마나 시적이고 예술적이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는 냄새고 뭐고 전혀 몰랐습니다. 생각만 좋더라 이거예요. 생각하기에 달린 것입니다.

남이 암만 못 생겼다고 해도 사랑하는 자기 여편네를 분석해 보면 별것 없대구요. 코 눈, 이거 일곱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게 분석해서 하나 하나 떼어놓으면 다 같은데,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편리하대구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얼굴을 보고 결혼하지 않았다. 눈을 보고 결혼했다.'고 하면 얼마나 멋져요! 코 때문에 했다, 입 때문에 했다, 귀 때문에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매력적이예요!

지금까지 상대의 얼굴이 나빠서 근심하고 한탄한 사람들은 선생님의 말을 듣고 오늘부터 회개해 가지고 코, 눈, 입, 귀를 보라구요. 이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 눈을 돈을 주고 살 수 있어요? 살을 벗겨져서 뼈만 남기더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코를 보라구요. 살이 말아오, 들어오, 말해요, 만져요? 제일 귀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덩이를 보고 좋아한다는 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7대 독자인 남자가 있거든 색시를 얻게 될 때는 덮어놓고 가슴이 크고 궁둥이가 큰 여자를 얻으라구요. 그런 여자를 얻으면 틀림없이 아들딸을 잘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이 넓은 여자를 얻으라구요. 입이 큰 여자는 혀도 길지요. *키스에는 입술 키스, 이 키스, 혀 키스, 목구멍 키스, 네 종류의 키스가 있습니다. 입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입이 넓으면 네 가지의 방법이 다 가능합니다. 알겠어요? 「예.」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이 녀석은 밤이나 낮이나 내 얘기를 좋아하니까 내가 미치겠어요. 여기 앉아 가지고 야단이에요. 두 사람이 쌍둥이예요. (웃음) 결혼을 안 했으면 결혼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고 말이에요. (웃음) 웃지 말라구요.

세 가지 생명의 요소와 그 본질

선생님이 어떻게 사는지, 고기잡이도 왜 하는지를 알았지요? 밤낮 없이 철야하고, 밤낮시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알겠어요? 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은 평준화를 이룹니다. 수평을 이룹니다. *언제나 횡적인 관념은 수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그것이 생명의 근본입니다. 생명의 근본은 물과 공기입니다. 이게 평준화예요. 수평입니다.

미국이 암만 공기가 좋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한국이 저기압이 되면 미국 공기가 안 가겠다고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태평양도 건너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공기가 자연적으로 흘러가서 평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참생명을 가진 물건들은 그렇게 평준화, 조화를 이루는 것이 본질이었던 거예요.

물도 흐르고 공기도 흐르고, 사랑은 어때요? 「흐릅니다.」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불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마음은 그런데 행동하지 않으면 흐르는 본질적인 성품에 위배되는 자이니 죄인이라는 거예요.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연 운이 쫓아내는 거예요. 깨끗이 없어진다는 거라구요. 존속할 수 없습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그러면 생명의 세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사랑의 요소예요, 물의 요소예요, 공기의 요소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물은 무엇이냐 하면 틈만 있으면 올라갑니다. 모세관 작용을 합니다. 모세관 작용을 알아요? 그것이 없으면 큰 나무가 대번에 말라죽는 것입니다. 놀라워요. 깊은 뿌리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옆으로는 긴 가지 앞의 끝까지 다 간다구요.

그거 누가 그러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우주의 본성이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우주의 본성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그것은 인격적인 신, 사람과 같은 평등 분배의 개념을 가진 인격적 신이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볼 때 나무가 우리의 최고 사상적 표본이 되어 있어요. 태양이 올라오면 순이 거기를 향해요. 그리고 새나 동물도 전부 다 거기를 향하는 것입니다. 날이 밝아 오면 먼저 웃는 것이 닭입니다. 좋다고 ‘꼬끼오!’ 하지요? 옛날에는 그런 놀음도 해봤다구요. 한번은 흥내를 낸 적이 있어요. 보통 세 시 넘어야 우는데 열두 시 넘어서 한 시쯤에 흥내를 내니까 전부 날개를 치고 ‘꼬끼오!’ 하더라 이거예요. 수탉이 따라 한 거라구요. (웃음)

봄이 되면 고양이가 ‘야옹’ 하는데, 먹을 것을 해놓고 그렇게 흥내를 낸 거예요. 아침이 되면 배가 고프거든 그러니까 음식을 들고 가서 구석에서 소리하게 되면 벌떡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해봤어요? 얼마나 재미있어요? 음식을 먹지만 먹는 것을 보고 그 사이에서 ‘야옹’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보다도 사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보라구요. 캘리포니아에 우리 큰 목장이 있는 거기에는 소가 한 3천 마리 됩니다. 목장에 피리 소리만 들리더라구요. 그것을 어떻게 반대로 움직이게 할 수 없는 길이 없겠나 해서 보니까, 수놈이 암놈을 부르고 암놈이 수놈을 찾는 소리가 있더라구요. ‘음매’ ‘음머’ 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선생님을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이제는 여행하면서 살 수 있는 시대

자, 여기에 젊은 사람이 많구만. 40이 넘지 않는 사람들은 희망이 벅찬데, 앞날에 정착한 맨션을 가지고 살고 싶어요, 밴을 중심삼고 살고 싶고, 놀고 싶고, 자고 싶은 그런 환경적인 여건을 갖추어 가지고 세계를 여행하면서 살고 싶어요? 어느 것을 원하느냐 하면, 이상적인 타입의 청년 남녀들은 여행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대답이 90퍼센트더라 이거예요.

그 대신 공부가 문제인데, 그것은 원거리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는 테이프 60개 정도만 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백 번 정도 들으면 어디에서든지 시험을 쳐서 패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체제를 만들어 놓으면 20년씩 공부해서 박사가 되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10년 이내에 박사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가 필요 없어요. 다 폐지해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간판을 붙여 가지고 며칠날 원거리 테스트를 한다 이거예요. 초등학교 몇 학년, 중고등학교 몇 학년, 대학교 몇 학년 시험이라고 시험 날짜를 발표해서 시험을 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면 어디에 합격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디서든지 학교 없이 졸업해서 학위를 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이 되면 학교를 다 헐어 버려야 됩니다. 학교에 가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 가지고 그 중에서 한 가지 엑스 표시나 무슨 표시를 해서 그것을 모르게 될 때는 보고 시험을 쳤다고 판정하는 것입니다. 커닝했다는 것도 알아 가지고 다 알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치는데 전부 다 알고 써야 할 텐데 모르면서 쓸 경우가 있으니까 암호를 표시해 가지고 이것이 무엇이냐고 해서 그것을 맞추지 못할 때는

커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헐어 버려라 이거예요. 아이비리그(Ivy League; 미국 동북부의 여러 명문 대학) 10개 대학이니 무엇이니 우리는 그거 모른다 이거예요. 특색에 유명한 교수의 강의와 유명한 책을 넣고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 좋습니다.」 (박수) 얼마나 멋져요! 그런 때가 온다구요. 그렇게 만들려고 선생님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선생님이 잠수함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다섯 사람이 탈 수 있는 잠수함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다, 수중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서도 살고, 별나라 가까운 곳에서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잠수함에서 버튼만 누르면 밀감이 끼워진 낚싯대가 나가고, 또 다른 버튼을 누르면 밀감을 움직이게 해서 산 고기를 따라다니면서 물게 해서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오대양에서 10년 20년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없어진 줄 알았다가 나타나면 ‘어디에 다녔어?’ 할 거예요. 그러면 ‘바다 가운데서 살았다. 답답한데 세상에 있을 게 뭐야?’ 하는 거예요. 우주에 가서, 인공위성에서 한두 달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니예요. 일년을 사는 것도 문제없다구요.

우리 배가 20일이면 떠납니다. 남극에 가서 크릴새우를 잡는데, 크릴새우 가운데는 인공위성에서 먹을 수 있는 식량의 요소가 풍부합니다. 그것을 보고 ‘이야! 통일교인들이 일년 먹을 것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먹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식량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 멋진 생각이지요?

그런 것만 있으면 한 알을 먹고 물만 마시면 됩니다. 물은 오줌을 싸서 먹을 수도 있다구요. 물이 없으면 오줌을 기계에 집어넣고 작동

시켜서 깨끗한 물로 만들어서 마시는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해? 보라구요. 뉴욕 맨해튼의 무역센터가 있는데 그 앞에서 고기들을 잡는데, 그 물은 오염된 물을 처리해서 맑은 물과 마찬가지로 만든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총생축헌납제’가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구약시대에 피를 흘리는 절반을 소유했다는 것이 얼마나 비통한 사실이에요? 신약 시대에는 아들을 잡아 죽여서, 아들을 피 흘리게 해서 부모가 올 수 있는 판도를 닦은 거예요. 재림주를 희생시켜서는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이런 소유 판도를 찾기 위한 하나님이 얼마나 비참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어요?

재림주가 이 땅에 와서 참부모의 이름을 가지고 수난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이 땅에 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부모가 이 땅 위에서 해방을 선언하고, 천지부모로서 하나님의 해방을 선포할 수 있으면 모든 제물시대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전체의 주인은 하나님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불쌍한 자리에 있잖아요? 결혼한 부부가 아들딸을 키우다가 죽어 없어지면 얼마나 편해요? 아들딸이 없으면 부모 앞에는 장애가 될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디에 가려면 아들딸이 ‘엄마, 어디 가? 나도 따라갈 거야!’ 하면서 매달린다구요. 그래서 미국 엄마들 가운데는 방문을 잠가 놓고 나가는 엄마들이 많да구요. 그렇게 살다가 그 아들딸이 죽으면 ‘이야, 이제부터 편하겠다.’ 하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살 수 있어요? 울어요, 안 울어요? 「웁니다.」 어떻게 울어요? 한 눈만 울어요, 두 눈이 다 울어요? 「두 눈이 다 웁니다.」 콧물은 어떻게, 입물은 어때요? 세 물이 한 줄기로 흐르는 것입니다. ‘영 영 영!’

하고 우는 것입니다.

타락한 엄마들도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슬플 것 같아요? 불쌍해요, 행복해요? 어느 거예요? 「불쌍합니다.」 불쌍 불쌍 불쌍, 영원히 불쌍한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아무도 수천년 동안 계속되어 온 하나님의 슬픔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슬픔이 매킨리산보다 더 높이 쌓여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구요. 지금까지 하루도 기쁜 날을 맞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자기 아내하고 아들딸 이렇게 셋이 살다가 아내와 아들딸이 다 죽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이 ‘아이구, 좋다! 새로 장가가게 되었으니 좋다!’ 그래요? 「아닙니다.」 ‘새 마누라, 얼마나 좋아!’ 그러겠어요? 그런 말을 하는 녀석이 있으면 뺨을 갈기면서 ‘이놈의 자식아, 나를 모르고 그런 말을 해?’ 하는 것입니다.

보라구요. 하나님과 사탄이 의 좋게 살고 있어요, 싸워요? 「싸웁니다.」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인간 시조의 타락 이후로 지금까지 싸우고 있다구요. 누가 그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을 말할 수 있어요? 「참부모님이 말할 수 있습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여러분은 통일교인이니 그렇지요. 세상이 참부모를 알아요?

참부모의 사명과 그 삶

왜 참부모예요? 참부모가 싸움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도 하나님도 말할 수 없어요. 거짓 부모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으니 참부모가 나타나서 해결해야 된다고요. 참부모는 사랑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부모가 나타나면 하나님도 참부모의 사랑의 마음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탄을 때려부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을 옆에 끼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 참부모가 ‘하나님, 내가 사탄을 사랑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하고 물어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라고 한다구요. 그러면 다시 ‘당신은 왜 지금까지 싸움을 그치지 못하고 사랑하라고 합니까?’ 하고 물어 보면 하나님은 ‘참부모가 없으면 사탄이 공격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법은 방위적 전법입니다. 공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치는 것은 망하고 방어하는 것은 살아남는다는 천리원칙이 생겨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왜 그렇니까?’ 하고 물어 보는 거예요. 사탄에게 ‘이 녀석아, 왜 내가 없으면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해?’ 하면 하나님이 아담보다도 자기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설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아담 대신 사탄 자기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라구요.

하나님이 아담보다 자기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을 주어서 아담을 도와야 하는데, 그 입장을 이루지 못했으니 사탄 천사장이 아담을 도와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담을 사랑하는 대신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늘나라 어디든지 갈 수 있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 선 자리를 찾기 위해서 사탄이 하나님을 공격한다고 답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부모는 ‘하나님도 나보다 사탄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도 ‘그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면 ‘그렇게 해야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이제는 사탄이 공격해도 방어하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방어하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이 왜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너 닳아서 그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좋아하고 사탄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원수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대변에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원수가 없습니다. 원수의 아들딸이 밥을 굶고 있다고 하면 내가 쌀가마니를 사 주고,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면 학비를 대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망하지 않는 거예요. 레버런 문의 이름만 있으면 사랑해야 할 사탄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뒤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교회는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해서 통일교회가 그렇게 반대를 받는데 발전할 수 있느냐 하면, 그런 사랑의 도리를 따라 가지고 원칙을 지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렇게 발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주고 사탄도 파괴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전했다! 아멘!

4억쌍 미혼 남녀 축복의 당위성

이번에 4억쌍 축복을 하는 데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구요. 젊은 청년들 말이에요. 4억쌍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선생님이 4억쌍을 축복하게 될 때 마음에 섭섭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물론 성공하면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거기에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 그 섭섭한 마음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그게 뭐겠어요?

기독교의 아벨 왕국인 미국에 와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이 계셔 가지고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미국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떠나 가지고 레버런 문을 반대할 수 있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미국의 젊은 청년들을 세계를 대표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때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40년 동안 역사에 없는 수난 길을 걸었다는 사실을 젊은 녀석들은 알아야 됩니다.

미국을 40년 전에 세계적으로 축복했다면 일시에 3년 이내에 다 끝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을 축복했다면 지금의 때는 하나님이 찬양하고, 세계 인류가 미국이 훌륭하다고 찬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데 그런 가치를 잃어버렸다구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계와 육계를 수평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36가정을 제멋대로 결혼한 아담 가정, 그 다음에 절반의 노아 가정, 그 다음에 야곱 가정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중횡으로 탕감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림주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구약시대에는 아담 가정이 타락한 것이요, 신약시대에는 예수 가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약시대에는 온 세계 가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차대전 이후 7년 이내에 기독교 왕국을 중심삼아 가지고 선생님과 하나되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광야에 쫓겨나서, 세계 가정을 통일시켜야 할 텐데 잃어버렸기 때문에 개인적 가정, 종족적 가정, 민족적 가정, 국가적 가정을 찾는 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960년부터, 원래는 14년 전부터 해야 했는데 잃어버린 14년의 과정을 거쳐서 재출발 기준으로 부모님을 중심삼아 가지고 세상 축복을 한 것입니다. 기성 가정, 법률 가정의 축복은 4억 쌍 이상을 했습니다. 남은 것은 미혼 남녀입니다. 청년 남녀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54년 전인 해방 후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이룰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에 열매 맺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원하던, 기독교 국가인 미국을 중심삼고 장자권을 축복해서, 부모의 나라를 세워 가지고 장자권을 축복한 이 장자권을 중심삼고, 기독교권인 천사장, 하늘 편 천사장의 아들딸 몸뚱이를 잃어버렸던 것을, 새끼를 번창해서 사탄 새끼 만들었던 것을 접붙여 가지고 장자권을 중심삼고 축복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잘못 했으니 미국을 통해서 탕감해야 하나님도 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성가정, 법률 가정의 축복이 끝났으니 미혼 남녀를 중심삼은 축복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부모라는 양반이 이 땅에서 살다가 영계에 갈 때 낙원이

있어야 되겠어요, 중간 영계가 있어야 되겠어요, 지옥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완전히 비어 있는 데가 천국이에요. 거기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가정이라구요. 그게 하나님의 본연의 칸셉입니다. 그렇지요? 「예.」

지옥이 필요 없어요. 왜 그런 것이 생겼어요?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 지옥입니다. 천국은 창고와 같아요. 그리고 이 땅 위의 부부는 아들딸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그 아들딸이 천국의 국민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탄이 거짓 부모로서 모든 인류와 혈통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게 원죄예요. 어떻게 그것을 깨끗이 청산하느냐?

올해의 연두표어가 ‘참축복 천주화와 사탄혈통 근절’입니다. 그러니까 3억6천만쌍 축복을 성공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과 지상이 연결되는 거라구요. 현재 그 천국과 지상이 연결되어 있지 못합니다. 4억쌍 이상을 성공해야 사탄이 침범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지상에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참부모가 ‘너는 이런 녀석이 아니냐?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참부모는 직접주관권에 서 있는 것이다. 내 뒤에서!’ 하면서 들이 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의 싸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참부모뿐

요즘에 청소년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치, 경제, 교육의 힘으로 못 풀어요. 그걸 어떻게 스톱시킬 거예요? 참부모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아담뿐만 아니라 나도 사랑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소?’ 하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창에 찔리면서도 로마 병정을 대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저리 합니다.’ 한 것입

니다. 그것은 앞으로 로마를 넘어서 지상천국을 건설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세계의 싸움을 참부모밖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몸과 마음이 싸우지요? 부부간에도 싸우는 거예요. 형제, 국가, 영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까지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고 있기 때문이라구요. 수천년 동안 휴전도 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언제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구요. 하나님이 휴전할 수 없고, 사탄도 휴전할 수 없습니다. 완성한 아담 가정이 나와야 됩니다. 아담 개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혈통이 사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감람나무가 아니라 돌감람나무라구요.

지금까지 타락한 기반 위에 참감람나무가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수천년 동안 씨가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그대로의 씨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사탄의 씨를 받은 거라구요. 그러니까 원죄가 있는 거예요. 원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니야! 「그렇습니다!」 아니야! 「그렇습니다!」 미친 것들! (웃음)

크레이지 티처(crazy teacher;미친 선생)! 「노, 그레이트(great;위대한) 티처(아닙니다. 위대한 스승입니다)!」 ‘그레이트’ 할 때는 그레이(grey;회색) 컬러, 중간색이 생각난다구요. ‘트’까지 분명하게 발음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고, 사탄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참부모는 더 싫어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겠어요? 「예,」

선생님을 좋아해요? 「예!」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이 좋아해요? 유사 이래 처음으로 최고의 사랑 길을 배웠습니다. 부자일신(父子一身)이라구요. 본연의 창조이상은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히 하나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갈라놓을 수 없어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천운이 보호하는 거라구요.

어느 누구도 선생님을 참조할 수 없습니다. 절대 순종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절대 순종, 그거 싫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본향 땅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확실히 알겠지요? 「예.」 아무리 주위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선생님은 영원히 절대·유일·불변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만세! 「만세!」 (박수)

이것은 최후의 심각한 말씀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수확되는 창고가 무엇이라구요? 「천국입니다.」 천국을 좋아해요? 「예.」 왜 좋아해요? 거기에는 수확된 열매가 가득합니다. 통일교인들은 천국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은 수확된 열매가 들어가는 창고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나는 영어를 모른다구요.

하나님이 안착하실 수 있도록 사탄을 굴복시켰다

오늘은 가장 기념할 만한 날입니다. 이 자리에서 유 티 에스(UTS)를 졸업한 모든 멤버들의 수련이 끝나는 날이에요. 이 자리에 몇 번이나 참석했어요? 모두 다 여기에 처음 왔을 때 ‘우와, 이렇게 훌륭한 곳인 줄 몰랐다! 아버님,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했지요? 여기에는 의자가 없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동양식으로 앉는 수련을 거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유럽 멤버들은 ‘나는 의자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있어? 아무 데도 없구만!’ 그러지요? 여러분이 아무리 싫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를 찾아오면 동양식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 타당한 결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틀린 결론이에요, 옳은 결론이에요? 「옳은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여자들은 일본 자매들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너는 유럽 멤버야, 일본 여자야? 미국 남편과 결혼했으면 일본 사람보다 좋아, 안 좋아? (웃음) 「미국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이 아닙니

다.」 네 조상들이 일본 사람 아니었어? (웃음) 그 후손이 아니야? 일본 여자를 닮았구만!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저 여자를 일본 여자라고 생각하지, 미국 여자라고 생각할 사람 하나도 없대구요.

여기에 처음 온 사람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막는 것은 세계의 누구도 못 했는데 참부모 되는 레버런 문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굴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주먹이 아니에요. 「아멘!」

4억쌍 축복이 끝난다면 하나님이 땅에 착륙하고, ‘사탄, 너 이제는 숨길 것이 없다. 모든 것을 잘 아는 아들딸이 이렇게 많다. 그 앞에 천 년 만년 숨겨 오던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거짓이 드러났으니 굴복하라!’ 하고 호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참부모 앞에 굴복하고, 인류 앞에 지은 범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때가 되기 전에 회개하라 이거예요. 아직까지 통일교회는 나라를 못 찾았습니다. 한국이 통일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기 전에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때가 된 후에는 공판정에서 판결을 지어서 영원히 무저갱에 처넣을 것이다 이거예요. ‘미리 경고하노니 굴복할 거야, 안 할 거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굴복하는 데는 참부모 앞에 굴복하고, 모든 인류 앞에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굴복 항복문서를 내가 받았대구요. 받았는데 그것을 누가 ‘그렇게 하자!’고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하고, 사탄도 못 하고, 인류도 못 합니다. 참부모가 비로소 받아 가지고 악은 악대로, 혈통이 닮은 것은 악으로 취급하고 참혈통을 통한 축복가정은 하늘에 속한다는 것을 선포해서 경계선을 만들어 주어야 사탄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 경계선을 5월 14일에 선포했는데, 그 경계선 선포한 그곳을 당장에 사 버렸습니다. 앞으로 통일교회의 성지 중의 성지가 될 것입니다. 땅 끝에 있는 그곳을 발바닥에 빠다귀만 남더라도 걸어와야 됩니다. 걸어

서 그 땅 끝을 행보할 때가 올 것입니다.

통일교회를 반대하던 사람은 틀림없이 땅 끝을 일주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나라에 도적놈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통일교인들의 중간에서 이들을 죽이고 살리고 피 빨아먹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놀음을 지금 내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거지 같은 패들, 불한당 패들, 선생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눈을 붉히고 있는 사탄 후계자들을 전부 다 방어해 가지고 하늘의 권속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레버런 문이 외로워요, 불쌍해요? 파란만장한 불쌍한 사나이요, 파란만장한 실패의 왕초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왕초가 안 됩니다. 먼 동산을 넘어서 레버런 문을 지지한다고 찾아가서 만나야 할 입장입니다, 지금. 미국을 버리고 한국을 다시 찾아서 한국 사람을 모셔 놓고 사연을 전부 다 풀지 않고는 미국을 용서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들었어요?

참사랑을 접붙이지 않고는 참생명이 없어

*아버지의 말씀을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수많은 언어들로 갈라놓았어요? 여러분의 조상인 사탄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어떻게 이것을 청산할 거예요? 참부모와 하나되어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잘라 버리는 거예요. 에덴동산에서 연결된 사탄의 혈통이 번식되어서 세계로 확산된 것이 인류잖아요? 그렇지요? 「예.」

인류를 복귀해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성교회에서는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 하는데, 푸푸푹! 레버런 문은 기성교회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천국으로 연결될 수 없어요. 유대 민족도 마찬가지이고, 공산세계와 민주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으

면 부활할 수 없더군요. 타락의 혈통을 잘라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라구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성경에 어린양 잔치라는 말을 했더군요.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잃어버린 가정을 어떻게 복귀하느냐? 그것이 복귀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터전이 가정이라구요. 하나님의 혈통이 3대를 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손자를 못 본 거예요. 타락 후 모든 인류가 사탄의 아들딸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3수가 완성수잖아요? 하나님이 3대를 못 봤습니다. 1대는 하나님이고, 2대는 아담과 해와이고, 그 다음에 3대는 아담 해와의 아들딸입니다. 이 사위기대가 천국 정착의 공식이라구요. 여러분이 그 기대를 이루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 구원이었는데, 그것은 천사장의 입장입니다. 가정이 없었어요.

생각해 보라구요. 여러분의 부모 형제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여러분만 천국에 들어가요? 그게 행복이에요? 비참하더군요. 부모와 아들딸은 갈라질 수 없습니다. 아들딸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부모만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 부모가 행복하겠어요, 비참하겠어요? 비참하더군요. 언제나 부모는 아들딸을 따라가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들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아들딸을 부정할 수 없더군요.

너는 아들딸 있어? 「죽었습니다.」 죽었어? 왜? 지금 몇 살이야? 「열 둘, 열 넷입니다.」 네 나이가 말이야! 「마흔 일곱입니다.」 네 아내는 몇 살이야? 「내일이면 오십입니다.」 오십이야? 앞으로 희망이 없구만! 첩을 하나 얻어 보지, 첩? (웃음) 「안 됩니다.」 왜 안 된다고 해? 미국 사람들은 그러는 것이 보통이잖아? 프리 섹스, 날마다 파트너를 바꾸잖아? 안 그래? 「안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악한 부모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아들딸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혈통이 연결되어 있어요, 혈통. 혈통·생명사

량·양심이 연결되어 있는 거라구요. 그것을 잘라 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혈통·생명·사랑·양심을 다 잃어버려요. 부자의 관계는 숙명적인 것입니다. 운명이 아니라구요. 운명과 숙명은 다릅니다. 숙명은 영원히 불변입니다.

참부모와 여러분은 어떤 관계예요? 「부자의 관계입니다.」 어떤 부자의 관계예요? 참부자의 관계입니다. 참부자의 관계가 뭐예요? 참혈통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혈통이 연결되어 있는 곳에는 참생명과 참사랑이 연결되어 있다구요. 참혈통이 연결되면 참부모의 생명과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사랑을 중심삼고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참생명의 출발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한 내용들이 얽혀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쉬운 일이 아니라구요. 왜 그렇게 어려우냐? 혈통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에요, 혈통 문제.

심신 일체, 부부 일체, 부자 일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하나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구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와 아들딸이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땅 위에 완성된 가정이 현현하는 거라구요. 그러니까 정·분, 그 다음에 뭐라구요? 합입니다. 3단계라구요.

첫 번째는 몸과 마음이고, 두 번째는 남편과 아내이고, 그 다음에는 부모와 아들딸이에요. 3단계입니다. 소생·장성·완성 다음에는 참사랑을 중심삼은 하나님이라구요. 그렇게 통과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녀석, 알겠어? 「예.」 네 가정이 그렇게 되었어? 「아직까지

못 되었습니다。」 언제 될 거야? 가정이 그렇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구. 그러한 칸셉을 갖지 못하면 문제라구. 먼저 그러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중요하다구. 그것이 숙제야, 숙제. 다른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구. 가정에 유대 나라든가 유대의 전통 같은 것은 필요가 없다구.

모든 젊은 사람들은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칸셉을 버리지 않으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없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몸과 마음을 통일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상대를 찾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사탄의 혈통이 연결되어 있는 곳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예.」

아침마다 거울을 보지요? 눈이 두 개고, 코가 두 개고, 입술이 두 개고, 귀가 두 개고, 사지가 두 개씩입니다. 오관인데, 영인체의 것을 합하면 십관이 된다고요. 그것들이 전부 다 달라요. 180도 다릅니다. 그렇지요? 「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들지 않으면 완성될 수 없다고요. 그렇게 전부 다 다른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다.’ 하면서 떠들어대면, 침을 뱉 뺏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한다고요. 미국 아이비리그(Ivy League; 미국 북동부의 명문 대학)?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 나는 어느 대학을 졸업했다.’ 하면서 자랑해 보라고요. 그렇게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내려가는 거라고요.

물은 낮은 데로 흐른다고요. 사랑도 낮은 데로 흘러서 수평을 이루잖아요? 그것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미국이 정치적인 힘을 자랑하고, 경제력을 자랑하고, 교육의 힘을 자랑하고, 군사력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프리 섹스를 자랑하고, 호모와 레즈비언을 자랑하고, 파티가 끝나면 아내를 바꾸어 사랑하고... 상류층에서는 남편과 아내를 쉽게 바꾸잖아요?

그래서 에이즈(AIDS)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8년이나 10년 후에 알게 된다고요.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생식기를 잠글 수 있느냐?

그것을 잠글 수 있는 벨트 같은 것을 만들어 팔면 잘 팔릴 거라구요.
「채스터티 벨트(chastity belt;정조대)…」 나보다 더 잘 아는구만!
지금부터 여러분의 친척들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갖다 팔아 보라구요.

참부모는 하나님의 혈통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사랑의 아들딸

지금 미국을 봐요!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
다구요. 뿔, 침을 뱉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을 구하기 위해서
레버런 문이 얼마나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했어요? 그걸 알아야 됩
니다. 선생님의 호주머니는 언제나 비어 있다구요. 그런데 여러분은 재
산을 숨기지요?

그러한 사람은 아무리 유명하더라도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
니다. 선생님은 잘 알고 있다구요. 그런 사람은 선생님이 보고 싶지 않
습니다. 머지않아 깨끗이 정리할 거라구요.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정을 이루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
러분 자신이 그러한 기반을 닦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그러한 과
정에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알겠어요? 「예。」 그 소리 듣기 싫지 않구
만.

한국말로 ‘예스’는 예수와 비슷하다구요. 예수는 최고로 사랑받는 아
들이었습니다. 것처럼 최고로 사랑받는 딸은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가
그러한 딸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끝날에 다시 와서 어린양 잔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부를 대신하는 것이 기독교라구요. 지금까지 2
천 년 동안 신랑이 오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스스로 그러한
기반을 닦을 수 없기 때문에 증보자를 보내는데, 그것이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참부모예요. 참부모는 하나님의 혈통과 직접 연결되어 있
는 사랑하는 아들딸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담과 해와를

창조한 것과 마찬가지로요.

하나님도 상대가 없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요. 여자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남자가 없으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여자 앞에 남자가 나타나면 대번에 사랑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남자가 없으면 희망도 없는 거라구요. 빈 마음이 되어서 어느 방향이 옳은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남자가 없으면 사랑·생명·혈통의 파위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인이라고 하더라도 남자가 없으면 사랑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자를 귀한 사랑의 주인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누구나 하면, 남자라는 거예요. 그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하나되면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 아들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부모와 연결됨으로써 사위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위기대는 영원한 정착 기지입니다.

그것을 닮은 곳이 아니면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다구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아들딸이 누구를 닮았느냐 하면, 어머니는 자기를 닮았다고 하고 아버지는 ‘아니야, 나를 닮았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싸우지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구요. 알겠어요? 「예,」

하나님 앞에서는 내 것이 있을 수 없어

지금 선생님이 최고의 이상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구요. 그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집니다,」 믿음, 사랑, 그리고 절대복종입니다. 자기 자신의 칸셉이 없어야 돼요. 복귀는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칸셉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부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상대도 그렇게 되어서 참사

랑으로 하나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미국 사람이다.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 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부정하고 오로지 참사랑의 개념만을 가져야 하나님의 소유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소유권이 없다구요. 여러분은 소유권이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것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 것이라는 개념이 남아 있으면 사탄권에 남아 있게 됩니다. 알겠어요? 「예.」

특히 미국 여자들! 집에 돌아가면 ‘내가 여왕이다.’ 하면서 남편까지도 마음대로 부러먹잖아요? 누가 미국 여자들을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려놓았느냐? 사탄이라구요. 개인주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통장과 당신의 통장은 별개다.’ 하는 걸 생각해 보라구요. 부부가 통장을 따로따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될 수 없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

여러분이 통일교회에 들어와서 원리를 듣고 얼마나 변했어요? 30퍼센트 변했어요, 40퍼센트 변했어요? 「백 퍼센트 변했습니다.」 180도 변하지 않았다고요. 180도 돌아서지 않으면 천국으로 직행할 수 없습니다. 우주 주관을 바라기 전에 자아 주관을 완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자가 원수고, 배고픈 것이 원수고, 잠이 원수입니다. 그 셋이 원수라구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하나님 편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예.」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12시가 지나야 할 텐데, 아직 안 되었구만. 왜 그러냐? 오늘이 주일인데 옛새라구요, 옛새. 그리고 ‘참부모님 동서양(지구성) 승리축하 선포’를 언제 했어요? 「5월 30일입니다.」 30일에 했다고요. 5월이 지나기를 바라 가지고 30일에 6월의 경계선을 긋고 나가는 것입니다. 14일을 중심삼고 보면 14일은 하늘편의 소생 장성으로 넘어가는 때입니

다. 사탄세계의 6수, 여기에 6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6월 6일, 6월 4일이지요? 6월 4일은 뭐예요? 유 티 에스(UTS) 학생들을 불러다 놓고 훈련시킨 날입니다. 전부 다 나쁜 날입니다. 6월, 6월 4일, 그 다음에 뭐예요? 6월 14일, 14일을 넘어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사탄이 14일을 못 넘어가게, 14년을 못 넘어가게 지금까지 반대한 것입니다. 그것을 넘으면 직접주관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6월에는 전부 다...

자르딘 이상가정 교육과 16수 총생축헌납제

여기의 축복받은 가정들은 남미 자르딘에 전부 다 가야 됩니다. 1만 6천 달러씩 총생축헌납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기 전에 미리 다 내라구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조건입니다. 원래는 참사랑을 중심삼고 인계받는 것, 상속받는 것이 제일이고, 그 다음에 재산은 자동적인데 그게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혈통이 연결된 다음에 참사랑을 받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만물의 소유가 아니었다구요. 그러한 것들은 자동적으로 그들의 가정에 연결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거꾸로 되어 있다구요. 먼저 모든 것을 바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6수는 사탄의 완성수입니다. 한국전쟁 때 참가한 유엔군도 16개국이었고, 1차대전도 16개국 시작했습니다. 그 16수가 사탄의 완성수라구요. 유엔에 북한이 가입한 것도 160번째였고, 남한은 161번째였습니다. 국가 메시아들이 남미 판타날에 와서 40일수련을 받는 동안에 물고기도 160마리를 잡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제단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국가와 민족의 재산을

하나님한테 바쳐야 하는 것이 원리인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적으로 사탄 수 16수를 바치는 것입니다. 성약시대에 바쳐야 하는 것이 160수입니다. 축복가정이 160가정을 축복시켜야 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약시대의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지그재그가 아니라 고속도로에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아담 해와가 가정의 사위기대를 잃어버렸어요. 그 사위기대를 지상에서 완성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영계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이 올바른 관습입니다. 그렇지요? 「예.」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루빨리 자르딘에 있는 이상가정교육본부의 수련에 참가해야 됩니다. 거기에 모든 가정이 참가함으로써 사탄의 가정이 지상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모든 것의 중심은 참사랑을 중심한 가정

여러분의 줄기를 잘라 버리고 사랑의 눈을 접붙여서 자라게 됨으로써 앞날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 축복가정들이 그러한 주류적인 관습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식으로 지그재그라고요. 어떤 때는 공화당을 좋아한다고 하고 어떤 때는 민주당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두 당이 있다는 것은 싸움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 눈이 싸워요? 코도 마찬가지로요. 감기에 걸렸을 때 한 쪽 콧구멍이 막히면 얼마나 불편해요? 두 입술도 2밀리미터만 틀어져도 말이 안 됩니다. 그 두 입술이 꼭 맞아야 발음이 바르게 나오는 거라고요. 그렇지요? 「예.」

사람의 몸과 마음도 함께 있는 것인데, 한쪽을 치게 되면 다른 쪽이 공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자동적으로 종적인 것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반 위에 90각도의 수직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게 되면 전후좌우상하로 90각도를 이루어서 구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스(loss;손실)가 없어요. 알겠어요? 「예.」

그 센터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부자부부 형제를 연결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들 가운데 그 어떤 것을 중심삼고 하나로 만들려고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돌아가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되어서 구형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센터가 얼마나 중요해요? 어떻게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느냐?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센터가 되고 싶지요? 아무리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라도 내려가서 돌아가는 센터가 가정입니다. 가정이 국가의 센터, 우주의 센터입니다. 그 가정에서 부자의 사랑, 부부의 사랑, 형제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이 영원히 정착할 수 있는 곳이 이상적인 스위트 홈(sweet home)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한 사랑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려고 하는 사람을 애국가라고 하고, 그러한 사랑을 가정에서 이루려고 하는 사람을 효자라고 합니다. 그 이상의 차원에 있는 사람은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을 중심삼고 국가세계·우주로 범위가 확산되는 거라구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센터는 가정입니다.

인간 시조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져 버려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참사랑을 중심삼고 연결하게 될 때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갈라놓게 되는 방향이 지옥으로 향하는 것이고, 그 반대의 방향이 천국입니다. 180도 다른 방향입니다.

지금 미국의 깨져 나가는 가정들을 다시 찾아 세우려고 하는 것이 통일교회의 가르침이며, 제4아담권의 도래입니다. 여자 혼자로는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사랑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남편으로 말미암아 아

내가 사랑의 주인이 될 수 있는데, 그 주인은 원인적인 것이 아니라 결과적인 것입니다. 남편이 원인적인 기반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 라구요. 남편도 아내가 없으면 사랑의 세계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남편과 아내가 하나되어서 아들딸을 품게 될 때 그 아들딸들이 '아, 좋다!' 하는 그 소리가 듣기 좋아요, 나빠요? 「좋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앉아도 좋고, 서도 좋고, 춤을 추어도 좋고, 일을 해도 좋고... 그러한 사랑이 충만할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스위트, 스위트, 스위트 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가 마지막으로 바라는 최후의 정착지입니다. 알겠어요? 「예.」

그러면 그러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사람은 왼손을 들고, 오른손을 들고... 양손을 다 들어요! 우와,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박수)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이제는 12시가 지났으니 그만두어야 되겠다구요. 오늘 농담을 하기도 했지만, 좋은 결실로써 이상적인 가정과 하나님을 중심삼고 천지개벽의 승리의 왕권을 중심삼은 가정의 가치를 이어받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피곤해하지 말고 힘차게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가정 앞에서는 하나님과 사탄이 싸울 수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참부모의 승리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정 앞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싸울 수 없다는 거라구요. 알겠어요? 「예.」

그것이 얼마나 안전한 정착기지인가를 생각해 보라구요. 거기서 모든 만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세!」 상하전후좌우를 다 품고 만세라구요. 우주를 품고 만세를 할 수 있는 때를 아직까지 맞이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이때에 그러한 때를 맞이하게 되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우냐! (박수)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자, 경배하고... *

文鮮明先生말씀選集 <第309卷>

印刷 2003年 12月 20日
發行 2003年 12月 30日
編者 文鮮明先生말씀編纂委員會
發行者 黃 善 祚
發行所 (株) 成 和 出 版 社
住所 서울 용산구 청파동 1가 172 - 1
電話番號 715-3894 ~ 6, 701-0110(청파서점)
FAX番號 701-1991
登錄番號 제3-98호
登錄日 1961年 5月 20日
